

가야인, 바다에 살다

1부 |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 활동

2021. 2. 5.(금) 13:30~18:00

2부 |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

2021. 2. 19.(금) 13:30~18:00

海洋文化

Korea National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
국립대학육성사업

| 가야 해양문화 공동연구

가야인, 바다에 살다

| 공동개최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PUKYONG NATIONAL UNIVERSITY MUSEUM
국립부경대학교박물관

 우리문화재연구원
Woori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코로나 19 예방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출입시 점검

세미나장 출입시

- 국립김해박물관 전시실 입구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세미나장(대강당) 입구에서 2차 발열 체크
- 기침, 오한 등 건강상태 및 위험 장소 방문 여부 확인
-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 곤란 등) 건강상태 점검표 작성
- 건물 출입시마다 발열 체크



37.5도 이상 또는 건강 이상 시

- 출입 불가
- 출입 후 증상 발생 시 즉각 퇴실 조치
- 인근 선별진료소 또는 국민안심병원 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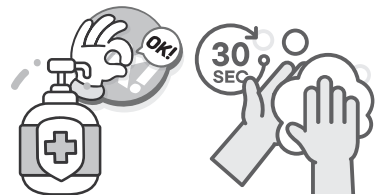
방역대책

마스크 착용 필수 (힘들어도 계속 착용해 주세요!)

- 마스크 미착용 시 세미나장 출입불가
- 마스크 미지참자는 세미나장 출입구에서 마스크 수령 후 착용
- 건물 출입시마다 발열체크

손 세척, 소독 수시고 실시

- 세미나장 출입 시, 이동 시마다 손 세척 또는 소독 실시
- 손 소독제 위치: 1층 로비(1개), 세미나장 입구(1개), 발표석(1개), 화장실(남·여 각 1개)



세미나장 내 착석 시 1m 이상 거리 두기 (좌석간 교차 착석)

당부사항

- 악수, 침 뱉기 등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 금지
-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휴식시간 시 밀접 접촉 금지
- 건강 이상 시 참거나 숨기지 않기



주제발표 및 일정

1부 2021. 2. 5(금) 13:30

주제 |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활동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13:30~13:50	접수	
14:00~14:10	개회사 (이근우 부경대학교박물관)	
14:10~14:40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 -가야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	유병일 (동서문물연구원)
14:40~15:10	금관가야 수운 항로의 시기별 변화	황상일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15:10~15:20	휴식시간	
15:20~15:50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 -김해 신문리유적 사슴 유존체를 중심으로	이수연 (기장군청)
15:50~16:20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	이하얀 (부경대학교 사학과)
16:20~16:30	휴식시간	
16:30~18:00	종합토론 - 좌장 : 임학중(전 국립김해박물관) 토론자 : 임지영(부산대학교), 김현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곽종철(우리문화재연구원)	

2부 2021. 2. 19(금) 13:30

주제 |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13:30~13:50	접수	
14:00~14:10	개회사 (오세연 국립김해박물관)	
14:10~14:40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백승욱 (국립해양박물관)
14:40~15:10	변한의 대외교류	이창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15:10~15:20	휴식시간	
15:20~15:50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	김일규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15:50~16:20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조성원 (부경대학교박물관)
16:20~16:30	휴식시간	
16:30~18:00	종합토론 - 좌장 : 이근우(부경대학교박물관) 토론자 : 심재용(김해시청), 이동희(인제대학교), 고영민(국립중앙박물관)	

| 목 차 | 가야인, 바다에 살다 |

1부 |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활동 _ 2021.2.5 (금요일)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 유병일	9
금관가야 수운 항로의 시기별 변화 황상일	29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 이수연	37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 이하얀	57
종합토론	73
·좌 장: 임학중 전 국립김해박물관	
·토론자: 곽중철 우리문화재연구원	
김현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임지영 부산대학교	

2부 |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 _ 2021.2.19 (금요일)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백승욱	87
弃韓의 對外交流 이창희	109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 김일규	119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조성원	139
종합토론	163
·좌 장: 이근우 부경대학교박물관	
·토론자: 이동희 인제대학교	
심재용 김해시청	
고영민 국립중앙박물관	

加耶

가야인, 바다에 살다

1부 |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 활동

2021. 2. 5.(금) 13:30~18:00

01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

유병일 | 동서문물연구원

02 금관가야 수운 항로의 시기별 변화

황상일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03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

이수연 | 기장군청

04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

이하얀 | 부경대학교 사학과

종합토론

좌 장: 임학중 | 전 국립김해박물관

토론자: 곽종철 | 우리문화재연구원

김현석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임지영 | 부산대학교

海洋文化



01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

유병일 » 동서문물연구원

-
- I. 연구목적
 - II. 자료소개
 - III. 종별 포획방법과 활용
 - IV. 향후 진전연구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

-가야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

유병일(동서문물연구원)

I. 研究目的

가야시대 동남부지역의 패총에서는 철제이든 뼈로 만든 것이든 낚시 도구는 매우 한정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어골은 많은 종류가 출토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도구로 잡는 어종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많았고, 서로간의 관련성을 개괄적으로 다루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은 그 부족한 연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먼저, 패총에서 확인되는 낚시 도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어종이 무엇인가? 이 어종을 이 도구로 어떻게 포획하였는가?, 이 어종을 잡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배경이다.

II. 資料紹介

가. 조도패총(1976, 국립중앙박물관)

층위	낚시도구	어골 ¹⁾	바다포유류
패각층	철제낚시바늘, 어망추	가시상어, 상어, 참돔, 흑돔	고래, 돌고래, 강치

나. 동래패총(1997, 서영남)

층위	낚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흔패층	작살(尾棘) 어망추	가시상어, 가오리, 농어, 참돔, 감성돔, 복어	고래류, 강치

1) 발굴보고서에 종명 분석이 되어 있으나 확실하지 않아 필자가 사진을 보고 종명을 판단하였다.



다. 동래낙민동패총(1998,金子浩昌)

층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혼도패층	뼈작살, 어망추	상어류, 곱상어, 감성돔	강치, 수달

라. 창원 성산패총(1976, 문화재관리국)

층위	낙시도구	어골 (西南區)	바다포유류
혼도패층	철제낙시바늘, 결합식어구(뼈) 어망추	참돔, 다랑어, 농어, 새치다래	돌고래, 강치

마. 창원 남산패총(1998, 유병일)

층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혼도패층	철제낙시바늘 뼈 작살, 어망추	상어, 참돔, 감성돔, 농어, 다랑어	돌고래, 강치

바. 창원 현동고분군과 패총(1990, 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유병일)

유구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3호,26호, 56호,64호	철제낙시바늘, 삼지창, 어망추	참돔, 감성돔, 농어, 갯장어	

사. 김해회현리패총(2009, 삼강문화재연구원)

층위	낙시도구	어골 ²⁾	바다포유류
51층,67층,74층, 79층,83층	작살(가오리), 어망추	가오리, 청새치류, 민어, 송어, 양태, 복어, 잉어, 메기	강치과

아. 진해용원패총(1996, 김건수)

층위	낙시도구	어골 ²⁾	바다포유류
혼패층	어망추	참돔, 감성돔, 농어, 방어, 양태, 참치, 곱상어, 상어류, 가오리, 복어, 전갱이	돌고래, 강치

자. 진해웅천패총(1994, 김건수)

층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혼패층	분리식작살	참돔, 감성돔, 가오리, 복어	물개

2) 松井章외 3인이 공동 분석하였다.

차. 김해대성동고분군(2015, 대성동고분박물관)

유구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88호		백상아리, 청상아리(?)	

카. 임당저습지유적(2008, 유병일 정속희)

유구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15피트	어망추	상어	강치

파. 창원 중동패총(2019, 유병일)

총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패각층	철제낙시바늘 뼈 작살, 어망추	상어, 다랑어, 참돔, 감성돔, 농어, 광어, 잉어, 동자개	강치

하. 사천 녹도유적, 패총(2004, 金子浩昌, 서영남)

총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주거지, 수혈, 패총	고정식낙시바늘 분리식/고정식작살	까치상어, 가오리, 썸뱅이, 정어리, 농어, 방어, 참돔, 동갈민어, 송어, 넙치	강치

가-1. 사천 방지리유적 A지구(2007, 이준정 고은별)

총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훈토패총	석추, 어망추 단식/결합식조침 역T자형조침	매가오리, 가오리, 복어, 농어, 참돔, 감성돔	

나-1. 부산 분절패총(2012, 정찬우)

총위	낙시도구	어골	바다포유류
블록샘플링	어망추	상어, 참돔, 방어, 가다랑어, 감성돔, 넙치, 대구, 송어, 우럭, (쥐)노래미, 대구, 전갱이, 고등어	돌고래, 강치

Ⅲ. 種別 捕獲方法과 活用

가. 대형어종의 종류와 서식환경

이 글에 언급된 유적은 모두 15개 유적으로서 정식 종명분석을 통해 밝혀진 대형어종은 상어, 다랑어³⁾, 청새치류, 참

3) 고등어과에 속하며, 황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백다랑어, 날개 다랑어 등이 있다.

돔, 감성돔, 농어, 방어, 가다랑어, 민어, 송어 등이며, 종별 서식환경과 특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패총출토 대형어종의 종류와 특성

종류	형태	생태	크기	비고
백상아리	체형 방추형, 삼각형이빨	5~6월 활동 활발, 수온 19~22° 선호함, 계절별 이동함, 사람공격	최대6.5m 성장	이빨 장신구이용 (대성동88호)
청상아리	체형 방추형, 이빨 송곳처럼 뾰족하고 휘어져 있음	사람공격, 5~7월 활동 활발, 온열대 수심150m 활동, 수온16°이상 서식	최대4m	이빨/등뼈 유적 출토
곱상어	방추형체형, 등지느러미 앞에 가시가 있음	대륙붕과 사면에 서식, 지느러미 가시 위험함	최대1.6m	지느러미 가시 유적출토
돔발상어	긴방추형, 등지느러미 앞에 가시 있음	제주도 및 남해안 서식	최대1.2m	지느러미가시 유적 출토
참다랑어	방추형, 등지느러미 강조, 부레 없음	외양성어류, 연안 등장	최대3~4m	척추 많이 출토
청새치	황새치과, 주둥이 새부리처럼 앞으로 나옴, 등지느러미 부채형, 등 약17줄 푸른 줄 새겨져 있음	외양 표층 유영 즐김, 온 열대 바다 서식	최대3.8m	등지느러미 가시 유적 출토
참돔	유선형, 등에 파란색 반점 있음	5~6월 산란기에 얕은 곳 이동, 해조류와 바위, 조류가 좋은 곳 선호, 40cm 정도 8년 걸림	최대1.2m	척추일부 무덤출토, 두개골 등 패총 많이 출토
감성돔	체고 높은 타원형, 외형 강건하게 보임	내만, 연안 바위지역 선호, 4~5월 산란기, 강하구까지 올라옴	최대70cm	무덤 및 패총 출토
농어	긴 방추형, 입이 크고 아래턱 약간 돌출형	여름철 기수역까지 올라옴, 강하구에서 조간대에 생활	최대1m	내만유적에서 많이 출토
방어	유선방추형, 꼬리 발달	중층과 저층 유영 즐김, 조류줄아 하며 무리지어 생활, 6~11월 활발 활동	최대1.2m	생활유적 간혹 출토
가다랑어	방추형, 배에 푸른 옆줄 있음	연안 표층 무리생활 좋아함, 고등어 전갱이 먹이감	최대1.2m	드물게 패총출토
민어	긴 방추형, 몸과 머리 좌우로 납작함	수심15~100m 갯펄 서식, 9~10월 산란기	최대80cm	드물게 패총 출토
송어	긴 방추형, 지방질 눈 덮는 시기 있음	내만서식, 무리생활, 담수까지 올라감	최대80cm	생활유적 자주 출토

나. 대형어종의 사전지식과 포획방법, 그리고 어종의 활용

1. 어종별 사전지식이 왜 필요한가?

대형어종은 덩치와 힘을 자랑하므로 이를 잡기 위해서는 튼튼한 낚시도구뿐 만 아니라 대상어종에 대한 사전 지식 숙

지가 필수적일 것이다. 오늘날에도 튼튼한 장비만으로도 대상어종을 잡을 수 없듯이 가야시대에는 더욱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대상어종을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는 사전지식 습득이 필수였을 것이다. 사전지식에 포함되는 항목은 계절별 이동시기 파악, 물 때, 대상어종을 잡을 수 있는 장소 선정 등이며, <표1>의 생태항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계절별 이동시기를 잘 파악하는 점이다.

이 글에 포함된 어종은 모두 13종으로서 텃새처럼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계절별로 이동한다는 점이 다. 상어류는 4종이 언급되어 있는데 곱상어와 돔발상어는 연안에 머무르는 기간이 있지만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는 대부분 먼 바다에 서식하므로 유적에서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이다. 하지만 5~7월에 연안 가까이 접근하는 이동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 이 습성을 이용하여 포획할 수 있을 것이다. 참다랑어와 청새치류는 더더욱 기동성이 매우 빠르고 민첩하므로 배에서 대상어종을 보는 것조차 어렵다, 하지만 특정기간에는 연안 가까이 접근하거나 배에서 확인 가능한 시기가 있으므로 이를 이용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돔의 경우는 다른 어종에 비해 계절별 이동시기가 뚜렷한 점과 유적 근처의 바다에 접근하는 경향이 뚜렷한 편이다. 참돔은 평소에 깊은 수심에서 덩치를 키우다 산란기인 5~6월에 연안으로 접근하거나 보통은 12월까지 연안 근처 바위나 물 흐름이 원활한 곳에 적당한 기간까지 머무르는 특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어와 가다랑어 역시 참돔과 유사한 이동패턴을 유지하며, 특히 작은 먹이인 고등어, 전갱이 등을 주 먹이로 한다. 그리고 여름~초겨울까지 조류 흐름이 좋고 수심이 적당한 곳을 매우 좋아하며 주 먹이인 고등어, 전갱이 등이 모여 있거나 지나가는 무리군의 위치도 사전에 알고 있다면 좋을 것이다.

농어와 송어의 경우 농어의 경우 여름철에는 기수와 담수까지 올라오며 11~12월에 산란한다. 연안 갯바위 근처에 특히 파도가 심하거나 높낮이가 높을 때 활동이 왕성하고 갯바위에 종종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 송어의 경우는 무리지어 유영을 종종하며, 파도가 약하고 조류 소동이 원활한 곳을 좋아한다. 진해만에서는 5~6월에 내만 깊숙이 무리지어 들어오는 것을 호기로 삼아 어부들이 대량 포획하는 것도 연중 되풀이되곤 한다.

둘째는 물때로서 일명 조수 간만의 차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조수간만의 차이는 지구, 달, 태양사이의 인력의 힘에 의해 발생하며 하루에 2회씩 일어난다. 조수간만의 차이는 달과 태양의 위치, 지구의 자전, 각 해안선의 모양, 위도 등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조수간만의 반복은 대체로 5시간40분~6시간 정도 소요된다. 해안에서 물이 빠져나가 해안선이 가장 낮은 상태를 간조, 그 반대로 해안선이 가장 높은 상태를 만조로 하는데 조수간만의 차이는 말 그대로 간조와 만조의 공간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조수간만의 차이는 물때라는 변화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데 소위 아침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때를 말하며, 매일 반복되며 일어나는 시간은 매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물때는 일정한 시간을 두고 흐름이 다른데 2시간 간격으로 간조-초들물-중들물-만조-초날물-중날물로 변화된다. 물때는 음력으로 15일 간격으로 반복되며, 1물에서 15물로 표현되며, 한 달에 두 번 반복된다.

조금은 한 달 중에 물이 가장 적게 들어오고 적게 나가는 시기이며, 간만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물색이 맑고 조류의 흐름이 느리다. 갯바위에서는 조류 흐름이 약하므로 입질 받기가 힘들고 선상 낚시는 조금때에 조과가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 조금때 피해야 할 낚시 포인트는 흙통지형, 방파제 초입과 안쪽, 커다란 만이 형성된 곳, 내만권 등이다.

사리는 한 달 중에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를 말한다. 사리때 만조가 되면 다른 시기보다 높은 곳까지 물이 들어오므로 안전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시점이다. 낚시를 할 때 물때가 중요한 것은 조과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어종들은 밀물 때 바닷물과 함께 들어왔다가 썰물 때 함께 빠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한다. 토착어종인 우럭과 볼락, 쥐노래미 등은 물의 변화와 상관없이 잡을 수 있지만 조류에 민감한 대형어종은 물때와 함께

이동하므로 물때를 잘 선택하여 낚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유적 주변의 어느 장소에서 대상어종을 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점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수요의 욕구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므로 중요한 요소이다. 대상어종이 출토한 패총 입지는 외해바닷가입지(조도패총), 내만바닷가입지(늑도패총, 방지리패총, 용연패총), 내해영향입지(중동패총 등 대다수 패총)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입지에 따라 대상어종을 잡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포획방법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패총에서 관련 어골이 확인된 점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대상어종에 대한 필연성 혹은 요구욕구가 작용하기 때문에 입지에 상관없이 유적 주변의 어느 장소에서 대상어종을 잡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려해 보았을 것이다. 외해 및 내해바닷가에 입지하는 조도패총과 늑도패총, 방지리패총, 용연패총은 유적의 지근거리 혹은 약간만 이동을 하면 갯바위나 조류소통이 원활하고 먹이감이 풍부한 장소에 접근하기가 수월하므로 원하는 대상어종 역시 효율적으로 포획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해입지에 해당하는 패총에서도 다양한 어종과 패류가 확인되는 점, 다시 말해서 바닷가입지의 유적과 규모와 어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입지여건으로 보면 내해입지가 바닷가에서 내륙으로 약 2~5km 혹은 더 이상 거리를 가지는 유적임에도 불구하고 어종의 수량에서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내해영향입지 유적에서 더 많은 어종과 패류가 확인되는 점은 입지차이도 중요하지만 이 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작용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점은 뒤에서 언급해보고자 한다.

유적 근처에서 대상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물때와 함께 장소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 바닷가입지든 내만권이든 내해 지역이든간에 3~7m 정도의 수심을 가진 갯바위라면 만조엔 갯바위 가까운 곳, 간조엔 먼 곳을 노려야 유리하다. 수심이 얇은 갯바위에서는 밀물 때 갯바위 언저리를 좋아하므로 이곳을 노려봄직하다. 직벽이나 흙통지역, 수심15m 정도에는 간조를 노려서 대상어종을 잡아 볼 수 있다.

2. 도구와 어종의 관련성

가야시대는 철기문화가 발달되었지만 생활도구는 여전히 뼈로 만든 도구가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다. 이 글에 언급된 낚시관련 도구도 돌/철제보다 뼈, 이빨, 뿔로 만든 것이 더 많은 것을 보면 그러한 것 같다. 가야시대에 유행한 낚시 도구는 조침, 작살, 어망추로 볼 수 있으며, 조침은 단식/결합식, 작살은 고정식/분리식 작살로 구분할 수 있다. 게다가 어망추법도 독립된 어법으로 인정한다면 가야시대에 유행한 어법은 3가지인 조침법(釣針法), 작살법, 어망어법(魚網漁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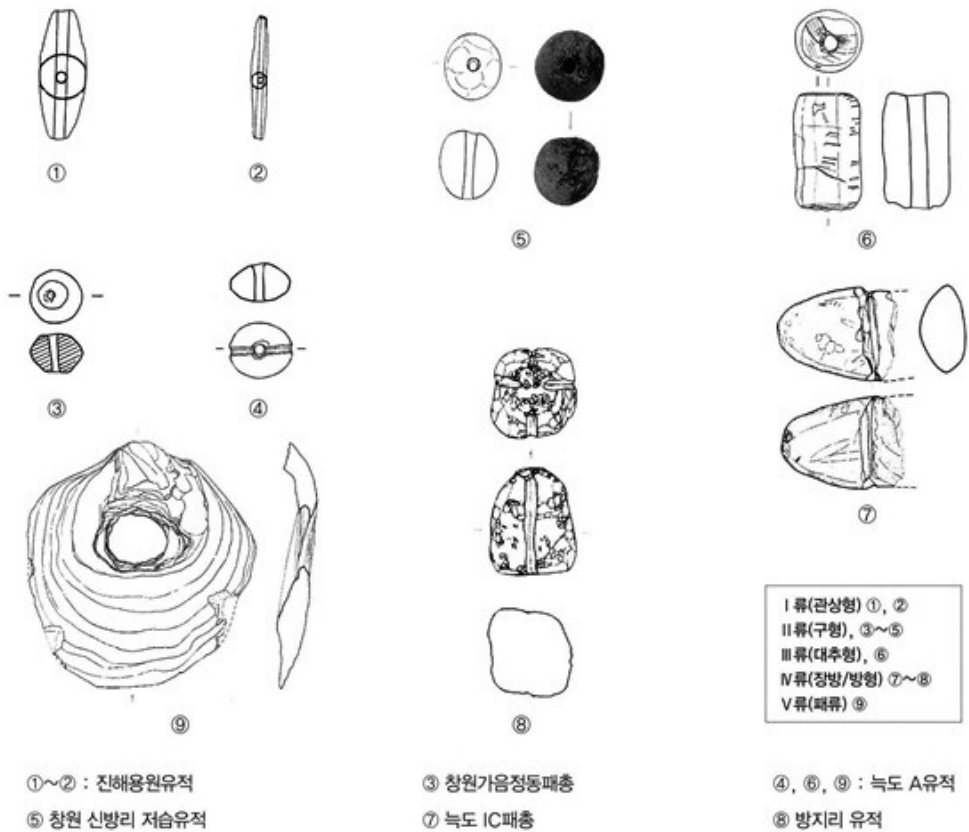
먼저, 조침법(釣針法)은 낚시 바늘로 하는 어법으로서 낚시 바늘이 홀로 구성되는 단식조침과 낚시가 몸통+비늘로 구성되는 결합식 조침으로 구분되어진다. 단식조침은 재질로 따라 철제와 아제(牙製)로 세분할 수 있는데 아래의 <도면1>과 같이 철제로 된 조침은 U자형이면서 비늘 안쪽 비늘이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조도패총, 부원동A패총, 남산패총, 방지리패총에서 출토하였다. 조침의 크기는 길이 5~8cm 내외이며, 용천패총에서 출토한 것은 10cm이고, 길이가 가장 크다. 방지리A패총에서 출토한 것은 길이 5cm 내외이며, 멧돼지 송곳니로 제작한 것이다. 비늘의 경우는 물은 고기가 도망가지 못하게 도와주는 부품으로서 대부분 안쪽으로 내경하지만 남산패총의 조침은 바깥으로 비늘이 외경하는데 원래부터 이렇게 제작한 것이 아니라 낚시 도중에 대물어종에 의해 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결합식조침은 외동성산 서남구패총에서 출토한 녹각제 조침이 유일하며⁴⁾, 길이 11cm 정도이다. 조침법과 관련이 있는 어종은 조침의 형태보다 크기

4) 발굴보고서의 유물 설명에서는 단식조침으로 설명하지만 비늘의 각도를 고려하면 결합식일 가능성이 높다.

에 따라 달라졌을 것이다. 길이 5~10cm 내외의 것으로 잡을 수 있는 어종은 다음 항목에서 후술하겠지만 참돔, 감성돔, 송어, 복어, 농어, 방어, 가다랑어 등이 유력하며, 다랑어, 상어, 청새치 등은 길이 10cm 이상의 것으로 해야만 포획 가능할 것이다.

작살법은 고정식과 분리식으로 구분 가능하다. 고정식 작살은 <도면2> ①~⑥과 같이 작살을 몸통에 부착시킨 후 창처럼 사용하는 것이며, 분리식 작살은 몸통에 연결된 채로 대상어종에게 작살을 몸에 박은 후 몸통을 회수하고 작살에 어종에 박혀 잡는 방법이다. <도면2> ⑦~⑩이 여기에 해당하며, 보통 해서포유류나 덩치가 큰 동물을 잡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작살로 잡을 수 있는 대형어종은 먼저, 시야에 들어올 수 있는 어종, 배 이용, 표층을 유영하는 어종을 선택해야 포획이 가능할 것인데, 상어, 다랑어, 청새치가 후보군에 들 수 있지만 과연 작살로 이러한 대형어종을 포획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은 어망추어법으로서 토제와 석추 사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제어망추는 대롱처럼 생겼으며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져 있다. 이 어망추는 크기가 어느 정도 있는 그물에 여러 개의 어망추를 달은 후 이 자체를 던지거나 어느 장소에 고정하여 사용하는 어법이다. 어망추의 형태와 무게 고려하여 투망 혹은 정치망으로 사용하였을 것이다. 투망법은 그물을 잡은 대상이 있는 방향으로 던져서 잡는 방법으로서 한 장소에 일직선 혹은 다른 유사한 방법으로 그물을 물에 설치, 고정하여 그물에 고기가 걸려들어 잡는 어법이다. 이 방법으로 대형어종은 잡을 수는 있지만 확률이 낮은 어법이며, 보통 크기가 작고 무리지어 생활하는 소형어종을 대상으로 하였을 것이다.



<도면3> 어망추어법 관련 유물

3. 어종별 포획 세부방법과 활용

가. 상어(鯊魚)

가야시대의 패총이나 고분군에서 확인된 상어는 백상아리, 청상아리, 곱상어, 돛발상어 등이다. 백상아리와 청상아리는 최대 4~6m 크기의 대형어종이며, 곱상어와 돛발상어는 평균 1.2m 정도의 작은 크기이다. 현재의 고고자료에서 상어를 직접적으로 잡은 도구나 어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유적에서 확인되는 어로 관련 도구 가운데 어느 도구가 대형 및 소형 상어를 잡기에 적합한가를 고려하고, 상어의 생태적인 습성과 당시 사회의 기술적인 여건, 상어를 필요로 하는 수요욕구, 오늘날 상어를 잡는 방법 등을 검토하면 좀 더 사실적인 내용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상어잡이는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지면에서는 오늘날 제주도, 여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상어잡이 방법을 통해 가야시대에 유행한 상어잡이는 과연 어떠한 방법인지를 유추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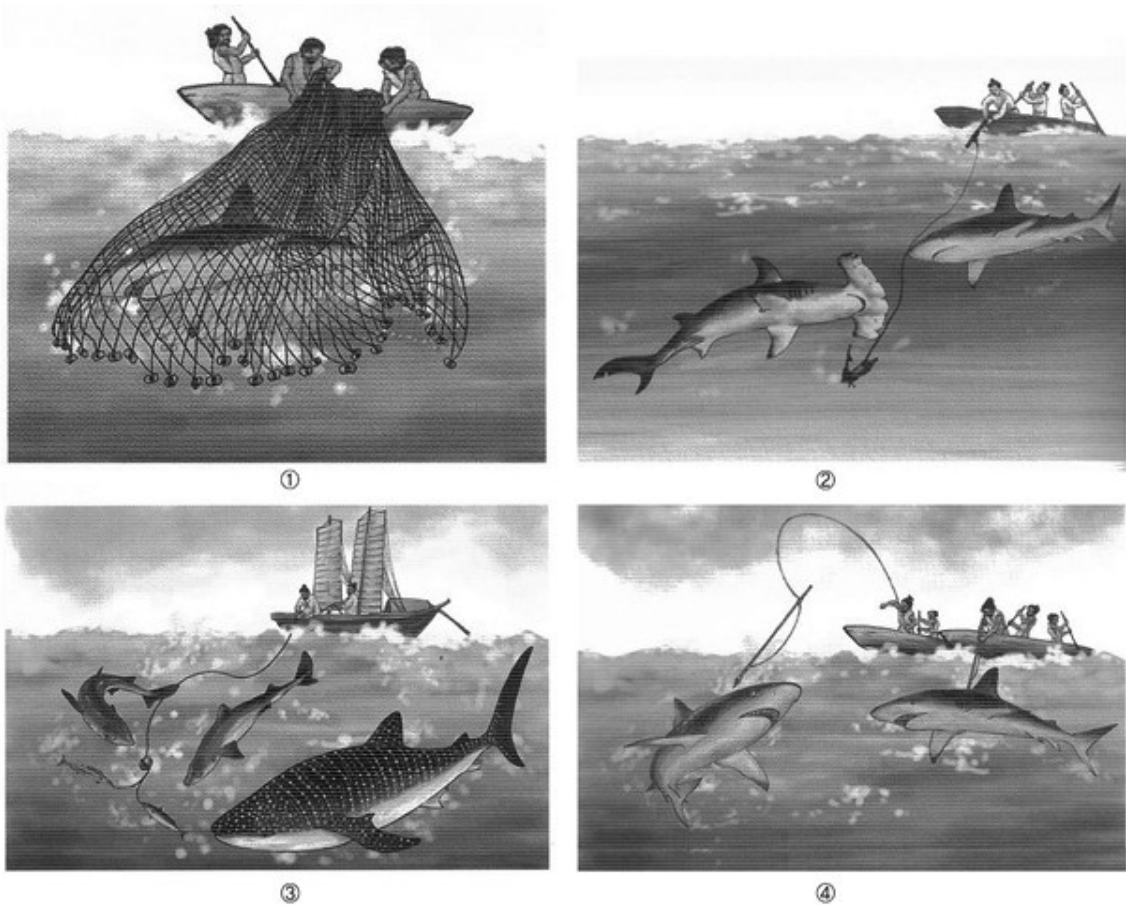
〈표2〉 오늘날 상어잡이 내용(공중파 방송자료)

지역	방법	수심	미끼	성공요소	비고
제주도	- 외줄낚시 (낚시줄+조침) - 바늘10cm 이상	평균 25m, 암초지역	부시리, 벤자리	서식지역 파악 물때와 조류 이용 잡아내는 기술정도	성공률 3/7
여서도	지강방법	수심45~60m	메탈지그	- 수심파악, 고패질, 물 때 - 반복적인 행동유지	성공률 5/5
인도네시아	작살어법	표층~2m	미사용	표층상황, 갈매기유무, 경험적 지식	1/9
	주낙어법(300m) 침돌+미끼+밤낚시	수심25~50m	토막 미끼 (가다랑어, 자이 언트레발리)	장소, 경험중요, 물 때 중요	돛발 및 곱상어, 수염상어

상기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상어잡이는 한 가지 방법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포획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포획 성공률은 방법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성공률이 높은 어법은 바로 조침어법일 것이다. 조침은 낚시 바늘로 잡는 것으로서 갯바위에서 조침으로 잡는 것보다 배 혹은 다른 도구로 배와 같은 도구를 만들어 바다에서 잡는 것이 포획 성공률이 높다는 점이다. 투망법과 작살법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예로서 들 수 있지만 확률이 낮고 노력이 많이 소요되므로 이 방법은 비경제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도면4〉는 투망법, 조침법, 작살법으로 상어를 잡는 어법으로서 갯바위가 아니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상어를 잡는 모습이다. 상어는 기본적으로 갯바위에 접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잡을 확률이 매우 낮았을 것이다. 배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에서 포획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은 ②~③인 조침법으로 추정된다. 이 방법은 낚시 바늘에 미끼를 꿰어 적당한 수심에 내려 상어를 잡는 것으로 채비방법이 수월하고 물때와 시간을 잘 선택하면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포획할 수 있는 상어는 백상아리, 청상아리, 흉상어 등의 대형종과 소형 상어류이며, 조침법을 통해 다양한 종류와 크기를 잡을 수 있다. ①인 투망법은 잡을 수는 있는 방법이지만 대상과 장소에서 제한을 받기 때문에 크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 듯하다. 물론 작은 어종인 곱상어, 돛발상어 등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망을 통한 그물로도 대형종인 백상아리 등을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는 상어를 잡기 위한 그물 설치가 아니라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설치해 둔 그물에 상어가 걸려들어 잡히는 경우이므로⁵⁾ 하나의 가능성에서 언급할 수 있다. 다음은 ④ 투창 및 작살법으로서 배 위에서 눈에 띄는 상어를 작살이나 창 같은 것을 던져 잡는 방법이다. 투창법은 대상어종에 투창 전체가 꽂혀 잡는 것이며, 작살법은 창과 분리된 작살만이 대상종에 꽂혀 잡는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대상종은 대형종과 소형종 모두가 가능하지만 확률이 매우 낮은 어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어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물 밖으로나 수면 가까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래상어와 같은 대형어종은 여름~가을에 조류에 따라 움직이면서 수면 가까이에서 유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창과 작살잡이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도면4〉 상어잡이의 어법추정(2015, 국립대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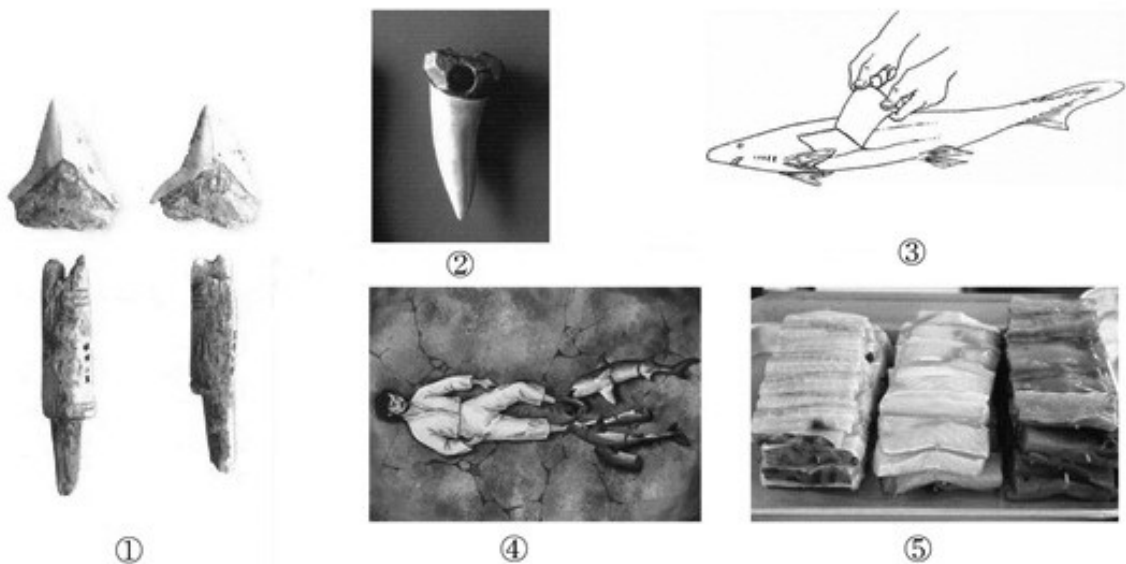
다음은 상어의 활용으로서 상어잡이를 하는 목적과 연관이 있다. 상어는 연골어류이므로 유적에서는 단단한 부위에 해당하는 이빨, 척추, 가시(刺) 정도만 출토되어진다. 출토되는 유적은 패총과 무덤, 건물지, 우물 등이며, 장신구나 생활 도구로 제작되어 사용된 유물이 확인된다. 가야시대 역시 상어 활용은 장신구, 생활도구, 육질, 제사용 등으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표3>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5) 최근 거제 도장포(해금강 일대)에 어민이 설치해 둔 정치망에 4m 정도의 백상아리가 잡힌 경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다(2018년 5월 경)

〈표3〉 가야시대 상어의 여러 가지 활용

유적	부위	용도	종명	특징	비고
김해 대성동2호	이빨	화살촉	백상아리	삼각형, 양날톱니형	장항유적
김해 대성동68호	이빨		청상아리류	송곳형태	임당저습지
경주박물관 우물유적	척추	장신구	?	척추 가운데 구멍 뚫림	우물
임당/조영고분군	척추다수	제사용	중소형크기	전체 및 일부부위 매장	목곽묘
원주법천리 4호	척추일부	제사용	소형크기	일부부위 매장	횡혈식
황남대총남분	척추일부	제사용	소형크기	일부부위 매장	왕릉
경주 전안용사지	척추/이빨	의례용	청상아리류	일부부위 의례	우물/연지
동궁과 월지유적	척추	의례용	중소형크기	일부부위	2종류
경주 교동94-3번지	척추	제사용	중소형크기	척추일부부위	적석목곽묘
경주 노동동12번지	척추	의례용	중형크기	척추 일부부위	
월성해자 4호	척추	의례용	중형크기	척추 일부부위	해자
임당저습지	척추/이빨	장신구	청상아리류	척추/이빨	

상기 표에서 언급된 상어의 활용은 화살촉, 장신구, 제사/의례용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대성동 2호에서 확인된 화살촉은 백상아리 이빨로 만든 것으로서 같은 재질을 이용하여 목걸이로 만든 것이 신석기시대 유적인 거제 장항유적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임당저습지 유적에서는 청상아리 이빨의 치근에 둥근 구멍을 뚫어 목걸이로 만든 것이 출토되는 등 신석기시대부터 가야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빨과 척추 일부 부위로 장신구로 만드는 문화가 서로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유적에서 출토된 척추부위, 특히 고분군의 주곽에서 출토된 척추는 매장할 때 음식으로 매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덤에 음식으로 봉헌되는 것은 돛배기와 같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는데 해당부위를 유물 위에 놓아 공헌



〈도면5〉 상어의 여러 가지 활용

(① 화살촉:대성동유적, ② 화살촉:임당유적, ③ 사포의 사용사례, ④ 매장용:임당동고분군, ⑤ 돛배기)

하였을 것이다. 돛배기는 골격의 일정부위를 토막내어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으로서 오늘날에도 포항, 경주, 영천, 대구 지역에서 명절이나 제사 때 빼놓지 않고 제사상에 올리는 토속음식이다. 다음은 무덤 주인공의 주변이나 발치 인근에 상어를 통째로 매납하는 봉헌용으로 상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상어 종류는 알 수 없지만 두 종류 정도가 봉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경산 임당과 조영무덤에서 확인되었다. 또 하나의 상어 활용은 사포로 만들기 위해 상어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작은 크기의 곱상어의 몸통부분을 벗겨 편평하게 말려 사포(沙布)로 만들어 목공업 작업 혹은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상어의 표면은 머리에서 꼬리방향으로 손으로 더듬으면 부드러운 느낌이 들지만 반대방향으로 쓰다듬으면 거칠거칠한 느낌이 드는데 이러한 특성을 사포로 활용한다는 점이며, <도면5>로서 상어의 대표적인 활용을 제시하였다.

나. 참돔

오늘날 낚시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어종은 참돔일 것이다. 가야시대에도 웬만한 패총에서 감성돔과 함께 출토되며, 무덤유적에서도 확인되는 것을 보면 참돔을 다른 어종보다 많이 선호한 듯하다. 참돔은 최대 1m 전후까지 자라는 대물급 덩치, 잡을 때 낚시대를 차고 나가는 파워풀한 힘, 적당한 조류와 깊은 수심, 가깝거나 먼 바다의 갯바위에서 잡을 수 있는 어종 등을 고려하면 이 어종을 잡으려면 참돔에 대한 사전지식 습득, 튼튼하고 강한 채비, 이를 잡아내는 수준 높은 낚시기술이 필수적일 것이다. 그리고 참돔은 크기에 따라 입 너비가 다르므로 큰 참돔일수록 바늘이 커야 한다는 지식도 알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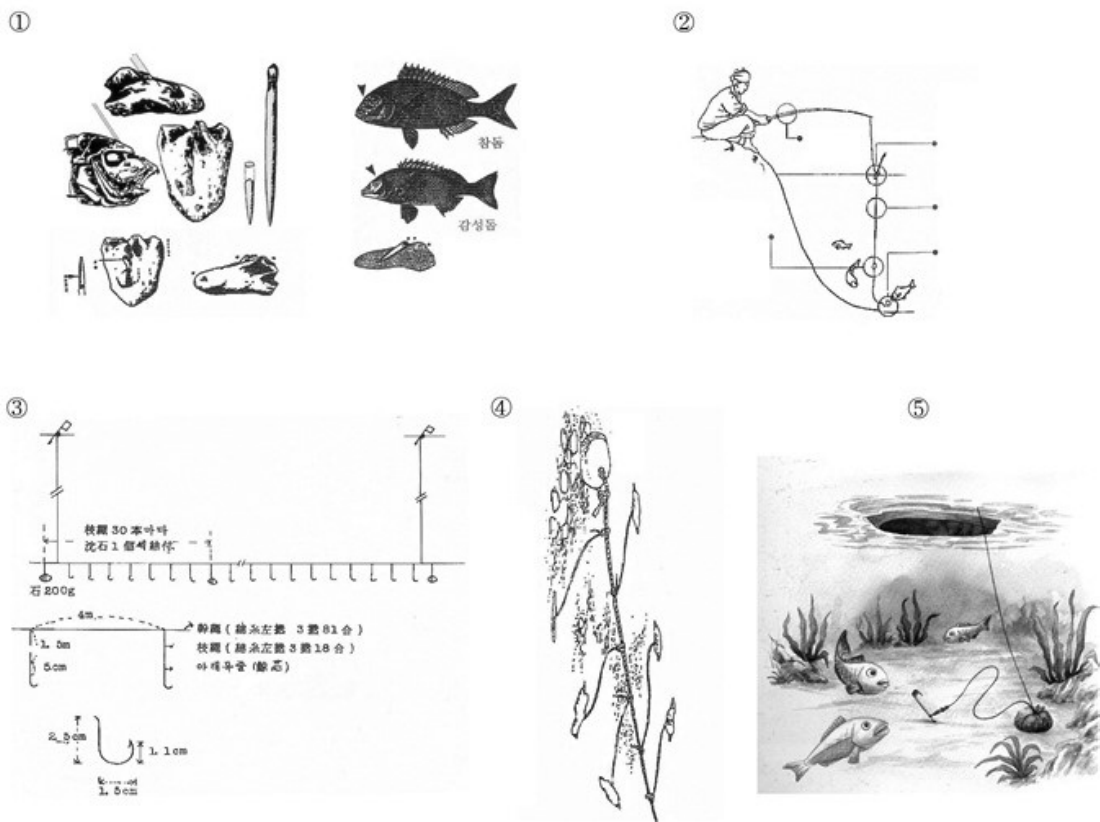
<표4> 오늘날 참돔을 잡는 낚시의 종류와 특성

종류	방법과 장소	채비구성	선호계절	비고
루어낚시	선상+바다	전용 낚시대+원줄+인조 미끼	여름~초겨울	집중조과 가능
처박기(맥낚시)	갯바위+선상	낚시대+원줄+목줄+비늘+미끼	연중 가능	다양한 어종 포획
흘림낚시	선상+갯바위	낚시대+원줄+목줄+찌+비늘+미끼	연중 가능	종류에 따라 선호계절 다름
궁시 및 작살 낚시	갯바위(배) 및 잠수낚시	갯바위(활과 화살, 찌르개) 잠수(작살+스노클+웨미+잠수복)	여름~가을 유행	대물 선택 포획 가능
주낙어법	선상+조류 소통 좋은 곳	배+주낙채비+미끼	연중 가능	대량조과 가능

상기 <표4>는 오늘날 유행하는 참돔낚시의 종류와 세부 특성을 언급 한 것이다. 가야시대의 패총에서 확인된 참돔과 같은 대형어종도 상기에 언급된 방법으로도 충분히 포획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돔과 같은 대형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튼튼한 낚시대, 길긴 낚시줄, 좋아하는 미끼, 고도 및 숙련된 잡는 기술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잡을 수 있다. 그러나 참돔 뼈가 많이 확인되는 패총에서 낚시와 관련된 유물은 낚시 바늘만 출토되는 것이 현실이라서 선불리 어법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지만 상기에 언급된 몇몇 방법은 참돔을 잡을 수 있는 어법이므로 소개해보고자 한다.

먼저 궁시(弓矢) 및 작살법(鎗法)이다. 이 방법으로 참돔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일본 죠타후기(繩文後期)의 추츠패총(椎塚貝塚)에서 참돔 전두골에 송곳과 같은 찌르개가 박혀 있는 자료가 확인됨으로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 아직 한국자료에서는 실물자료가 없지만 삼한~삼국시대의 패총에서 낚시 바늘과 참돔 전두골(前頭骨)이 함께 확인되므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작살법은 고정식(固定式)과 분리식(分離式)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참돔을 잡을 수가 있다.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상기 두 가지 방법으로 참돔을 잡기 위해서는 참돔이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와 유영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사계절 가운데 여름~늦가을에 바다 수온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시기에 수확량에서 한계가 있지만 포획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도면6>-①에 기재한 찌르개를 활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궁시법으로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에는 참돔이 수면 가까이에만 올라와도 활로 쏘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작살로 잡는 것보다 유리하며, 추충패충의 실물자료는 유영하는 참돔의 뒤쪽에서 궁시법으로 잡은 자료로서도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은 처박기로서 일명 맥낙시 또는 꼬라박기 어법이다. 이 어법은 낙시대(낙시)에 튼튼한 원줄을 묶은 후 줄 끝 부분에 또 다른 목줄을 달거나 원줄 자체에 바닥에 미끼를 가리얏게 하는 추를 연결하고 그 끝에 낙시 바늘을 묶어 채비를 완성한다. 이 어법은 적당한 수심과 안정적인 조류가 소통하는 곳에서는 원하는 어종을 잡을 수가 있으며, 특히 추가 있어 입질 파악이 손쉬우므로 조과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패충이나 고분에서 출토되는 철제 낙시 바늘이 이 어법에 사용되었을 것이며, <도면6>-⑤가 대표적이다. 다음은 흘림낙시로도 대형 참돔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앞의 처박기 어법 채비를 흐르는 조류에 태워 입질을 받아 잡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 처박기 어법과의 차이는 미끼를 물속에서 안정화 시켜주는 추가 처박기보다 가벼우며, 입질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시야성이 좋은 찌가 있다면 좋은 조과를 올릴 수가 있다는 점이다. 이 어법은 갯바위(<도면6>-②)와 배에서 모두 가능하며, 처박기 어법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이나 장소를 탐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이 어법으로는 늑도 IC패충에서 확인된 57cm 정도의 참돔을 잡았을 것이며, 추만 무겁게 하여 미끼가 있는 채비를 바닥에 내려서 대상어종을 잡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대형어종을 잡는 기본적인 채비는 낙시대, 몸줄+목줄, 추, 조침, 찌, 미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대형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이놈들이 서식하는 장소와 움직이는 장소에 접근하는 채비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채비가 처박기로서는 힘들고 먼 거리까지 미끼를 흘릴 수 있는 흘림낙시 어법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흘림낙시로는 참돔을 비롯한 다른 대형어종인



<도면6> 참돔 잡이의 여러 가지 방법

(① 궁시+작살법, ② 찌낙시(흘림낙시), ③ 수중 주낙어법, ④ 바닥 주낙어법, ⑤ 맥낙시)

부시리, 방어, 삼치, 넙치, 흑돔, 감성돔, 농어, 송어 등도 잡을 수 있으므로 당시에 선호하는 어법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추정 가능한 어법은 주낙어법이다. 이 방법을 생각한 것은 늑도패총과 방지리패총에서 300~520g 정도의 석추(石錘)를 통해이다. 이 석추는 원석을 손질하여 만든 것으로서 크기와 모양, 무게를 고려하면 주낙의 양쪽 가장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길이가 있는 주낙을 지탱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추정해 본 어법이다. 주낙어법은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조침을 단 줄을 달아 수심과 조류가 적당한 곳에 설치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조과를 확인하는 어법이다. 일명 연승법(延繩法)이라고 하며, 참돔은 물론 감성돔, 토착어종인 쥐노래미, 볼락, 우럭, 농어, 송어 등도 잡을 수 있다. 이 어법은 수심과 조류, 선호하는 미끼를 잘 선택하면 길이 50cm가 넘는 대형 참돔을 잡을 기회가 많다. 산란기인 4~6월은 연안 가까이 접근하는 습성이 있고, 6~10월은 치어~40cm 급 크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고, 11~3월까지의 깊은 수심과 먹이 활동이 왕성한 새벽~이른 아침을 공략하면 50~120cm에 해당하는 초대형 참돔을 잡을 확률이 높고 또 다른 대형어종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주낙어법은 <도면6>-④와 같이 바닥에 주낙을 깔아 대상어종을 잡는다는 것이다. 몸줄, 낚시 바늘이 달린 주낙, 미끼, 주낙을 고정시켜주는 석추 등이면 충분히 채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수심이 적당하고 조류가 만나거나 고이는 흐름 같은 곳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어종은 참돔의 경우는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온이 낮은 시기인 겨울~초봄사이엔 잡을 수 있었을 것이며, 다른 대형어종도 시기에 따라 공략하여 포획하여 활용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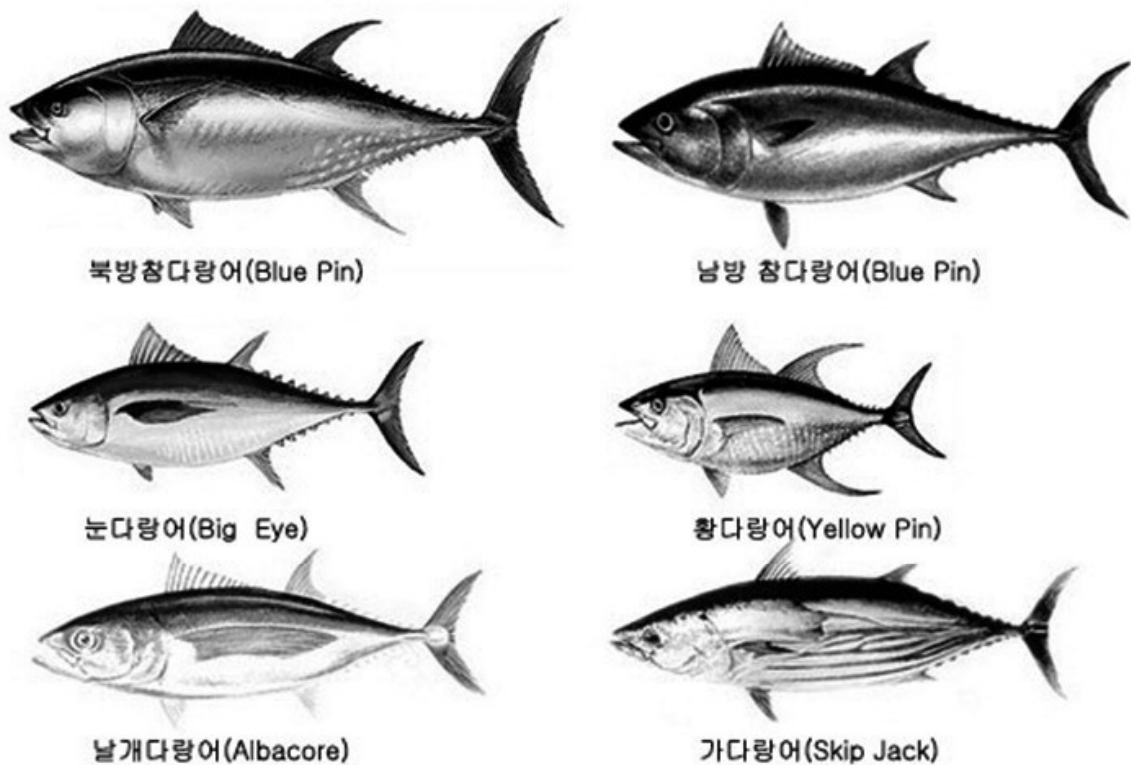
대형어종인 참돔의 활용은 패총에서 분해되어 출토되는 정황을 고려하면 음식용(飮食用), 무덤에서 고배 혹은 항아리에서 출토되는 것을 보면 제사용 혹은 제물용(祭物用)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음식용(飮食用)은 사용되는 과정을 패총에서 확인되는 부위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추정 가능한데, 패총에서 출토하는 참돔 뼈의 부위는 두개골부위와 척추, 등가시 등이 따로 확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척추와 같은 부위가 여러 개가 모여 확인되는 경우는 일부 부위가 통째로 버려진 행위를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다. 여하튼 부위가 따로 출토된다는 점은 버려질 시점에 이미 분리되어진 상태로 버려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활용한 후 일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해되지 않다. 제물용(祭物用)로 사용되는 경우는 일부 고분유적의 굽다리접시(高杯), 항아리(壺)에서 출토하는 해당 뼈를 통해 해석할 수 있다. 고령 지산동 고분군(池山洞古墳群)과 함안 오곡리고분군(梧谷里古墳群)에서는 무덤에 매납된 굽다리접시에 참돔의 척추 일부분이 잘려진 채로 확인된 자료가 있다. 척추마디는 6~7개 정도이며, 간혹 조기와 같은 어종도 일부부위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경산 임당고분군과 경주 미추왕릉지구(味鄒王陵地區)의 몇몇 유구에서 확인된 대호(大壺)에서 참돔뿐 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조가비와 어골(魚骨), 닭과 꿩 등이 함께 출토된다.



<사진1> 고분군 출토 유물에서 확인된 경우(고령 지산동 고분군)

다. 다랑어 혹은 참치(Tuna)

바다에 서식하는 대형어종 가운데 옛날부터 사람들과의 관련성이 많은 어종은 단연코 다랑어일 것이다. 다랑어는 참치라고도 불리어지고 있지만 참치라는 이름에 대한 사용유래가 불투명하고 이설(異說)이 많아 사용하기가 어색하다. 따라서 현재는 유래가 확실하고 옛날부터 어부들이 많이 사용해 온 다랑어가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다랑어는 조류가 빠른 것을 좋아하며, 신체적인 특징으로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움직이는 활동적인 어종이다. 체고는 매우 날씬하며 방추형이다. 외형성 어류이면서 어린 개체들은 연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며, 오징어, 고등어, 전갱이 등 어린 미끼들을 좋아한다. 먹이 활동과 이동은 군집으로 움직이며 한국의 경우는 삼면의 바다에 모두 서식한다. 다랑어는 고등어과(科)에 속하며, 참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백다랑어, 점다랑어, 가다랑어 등 7종이 있다.



〈도면7〉 오늘날 다랑어 종류

이 글에 소개된 다랑어는 정확한 종은 알 수 없지만 창원에 위치하는 성산패총, 중동패총, 남산패총과 부산 분절패총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확인되는 부위는 척추가 많으며, 참돔 등 다른 어종에서 확인되는 두개골 부위는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이 종의 특색인 듯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포획한 후 활용이나 처리과정에서 다른 종과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다. 다랑어는 덩치가 2~3m 까지 자라는 파워풀한 어종이므로 어부와 낚시꾼들이 매우 좋아하는 어종이다. 오늘날 다랑어는 세계 여러 곳에서 경제적인 가치와 효율적인 면에서 가장 앞선 어종이며, 잡는 방법 또한 다양하다. 아래 〈표5〉는 오늘날 세계 각지에서 다랑어를 잡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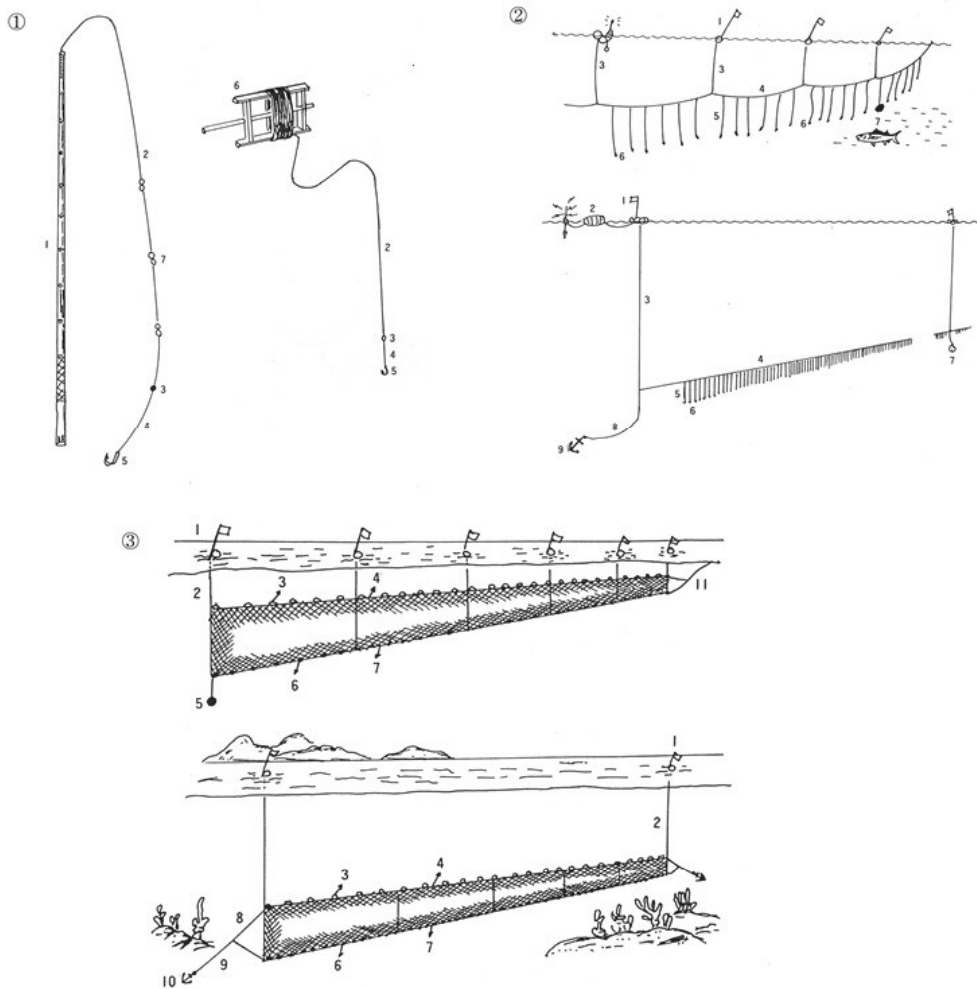
아래 〈표5〉는 오늘날 유행하는 다랑어 낚시방법으로서 6가지로 분류해 보았다. 잡는 형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찌

〈표5〉 오늘날 유행하는 다랑어 잡는 방법

종류	장소	채비구성	대상어	비고
찌낚시	선상+갯바위	낚시대+찌+미끼+유인용 밀밥 +뜰채+그물망		조류소통 적당한 곳, 소형어 류 군집지역
외줄낚시	바다	배+낚시줄+바늘+미끼+유인용 미끼	참다랑어,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조류, 소형어류 군집 필요
작살잡이법	바다	작살+유인용미끼+노끈	황다랑어, 참다랑어 등	잠수필요+상어위험
끝낚시 (꼬심바리)	바다	배+낚시줄+뿔털미끼(루어)+ 미끼	참다랑어, 가다랑어 등	조류소통 원활, 소형어류 군집
주낙어법 (유자망)	바다	부표+부표줄+뜸+뜸줄+발줄+ 그물+그물추	가다랑어, 소형다랑어 등	조류소통이 적당한 곳
주낙어법 (연승어법)	바다	부표+부표줄+뜸+뜸줄+발줄+ 그물+그물추+미끼+낚시바늘	가다랑어, 날개다랑어 등	조류소통이 적당한 곳

낚시와 작살 잡이, 배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외줄낚시, 끝낚시, 일정한 장소에 정치시키거나 유동하여 잡을 수 있는 주낙어법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 가운데에서 다랑어 뼈가 확인된 창원 성산패총, 중동패총, 남산패총과 분절패총 사람들은 어떠한 형태로 다랑어를 잡을까 생각해보면 판단하기 어렵다. 상기 패총에서 확인된 낚시 도구는 길이 5cm 정도의 낚시 바늘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패총에서 다랑어의 척추가 확인되고 낚시 바늘까지 비교해 보면 크기가 큰 작든 다랑어를 잡은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가능성이 높은 방법 몇 가지만 검토해보면 먼저, 찌낚시는 혼자서 간단한 장비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조류 소통이 원활하고, 다랑어가 좋아하는 소형 어류(고등어, 오징어, 전갱이, 방어+부시리)가 군집한 장소, 접근하기 용이한 곳으로 선택하여 낚시한다면 조과를 어떠한지는 몰라도 충분히 조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튼튼한 낚시대와 질긴 원줄과 목줄, 그리고 단단한 낚시 바늘, 고도의 잡는 기술과 경험이 발휘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며, 다랑어의 이동이 활발한 여름~늦가을에 집중적으로 잡는다면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작살 잡이이며, 이 방법 역시 혼자서 가능하다. 이 어법은 조류가 적당히 흐르는 곳, 물색이 맑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작살을 잡은 잠수꾼은 다랑어를 유인할 수 있는 미끼용 어류를 뿌려 냄새와 시각으로 대상어를 유인하여 잡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작업의 난이도와 작업과정에서 미끼용 어류에 냄새에 민감한 상어 등이 등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감내하거나 감소시키면서 작업을 해야 하며, 조과 역시 이러한 위험한 요인들을 고려해보면 많은 조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외줄낚시로서 현재 세계 곳곳에서 혼자서 잡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시행되며 세부 방법 역시 다양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기본적인 도구는 배, 외줄낚시 일체(몸줄+바늘+미끼), 유인용 미끼, 갈고리 등으로서 넓은 바다, 조류 소통이 원활한 곳, 다랑어가 좋아하는 소형 어류 군집생활이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 방법은 배와 함께 하는 것으로서 배를 잘 다루어야 하며, 다랑어의 생태 습성을 잘 알고 있어야 조과가 보장될 것이다. 그리고 다랑어가 나타나는 징후를 잘 파악하여야 하며, 살아 있는 미끼(일본의 경우 오징어)와 유인용 오징어 미끼를 이동하는 다랑어무리 앞에서 던져야 하는 매우 민첩하고 단련된 고도의 기술이 동반되어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미끼를 덥석 물은 대형 다랑어라면 배로 올리기 위해서는 다랑어와 많은 시간을 밀고 당기는데 있어서도 이겨낼 수 있는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주낙어법으로서 연승어법(延繩漁法)과 유자망어법(流刺網漁法)이 있다. 부표, 부표줄, 뜰, 뜰줄, 발줄과 추, 미끼, 낚시 바늘 등 많은 도구와 여러 사람이 협업하여야 조과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물을 적당한 길이로 조류 소통이 원만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무는 물때와 고기의 이동경로를 잘 파악한 후 그물을 설치하므로 작업은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해야 하며, 이 작업에 모두 익숙한 경험이 매우 효과적으로 발휘되어야 조과를 보장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연승어법과 유자망어법은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은 유사하지만 연승어법은 한 곳에 그물을 묶어서 지나가는 대상어종을 잡았을 것이며, 유자망어법은 흐르는 조류에 그물을 태워 대상어를 잡는 방식이다. 이 방법으로 잡을 수 있는 다랑어는 작은 사이즈에 해당하는 날개다랑어, 가다랑어, 작은 참다랑어 등이 해당되었을 것이다.



〈도면8〉 다양한 다랑어 잡이 (①손뉘시류, ②연승어법, ③ 유자망어법)

IV. 向後 進展研究

이상으로 가야시대 패총과 고분군에서 출토한 어로 관련 유물을 대상으로 가야시대에 전개된 대형어종의 포획과 활용을 살펴보았다. 이 글의 목적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발굴보고서에 기록된 어종과 어로 관련에 대한 성과 없는 반복적인 연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야 연구로 진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대형어종을 선택하였다. 이 분

야 역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출토유물을 통한 방증자료가 너무 적고, 논리전개가 너무 비약적인 내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글은 어종과 어로 관련에 대한 세부 연구의 출발선이며, 오늘날에 유행한 어법을 비교하여 가야시대의 대형어종 포획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그런 분위기를 진전시켜 좀 더 구체적인 어종과 어로 관련관계를 연구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임과 동시에 성과이기도 하다.

이 글에 언급된 대형어종은 우리가 오늘날에서 친숙한 어종들이다. 참돔은 아름다운 자태와 입맛, 그리는 낚는 손맛이 다른 어종보다 우월하며 그러한 상황을 가야시대는 물론 신석기시대까지 연결된다면 참돔과 옛사람들과의 관계가 보통 이상이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고, 유적에서는 하나의 작은 자료이지만 연구가 진전되므로 어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의 시대변천까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상어(鯊魚) 역시 보통 무서운 어종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예부터 우리에게 좀 더 깊은 부분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었다. 음식용, 의례용, 가공용 등으로까지 폭넓게 사용된 어종이 공포의 대명사인 상어였으며 그 반대로 우리와 많은 관련성과 필요를 제공해준 고마운 어종이기도 하다. 다랑어는 흔히 참치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유래가 불확실한 이름이며, 다랑어가 표준어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들려오는 초밥, 참치통조림의 원료가 다랑어이며, 오늘날 일부 지역에서 일부 분야에서는 너무나 높은 고가에 판매되는 어종이 참다랑어, 황다랑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가야시대의 자료를 통한 당시 사회의 어종에 대한 연구이지만 오늘날까지 활용에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좋은 지면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상 어종만이 아니라 다른 어종인 감성돔, 볼락, 고등어, 삼치, 민어, 농아, 승어, 우럭 등도 상기 연구된 포함된 어법으로도 잡히는 어종이며, 취급문화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실제 생활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 參考文獻

- 국립중앙박물관, 1976, 『조도패총』
- 부산광역시립박물관복천분관, 1997,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과 유물 I (동래패총)』
-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낙민동패총』
- 문화재관리국, 1976, 『마산 성산외동패총발굴조사보고서』
- 창원대학교박물관, 1998, 『창원남산패총』
- 창원대학교박물관, 1990, 『마산 현동고분군』
- 삼강문화재연구원, 2009, 『김해회현리패총II』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6, 『진해용원패총』
- 대성동고분박물관, 2015, 『김해대성동고분군』
- 동서문물연구원, 2019, 『창원 중동유적』
- 부산대학교박물관, 2004, 『사천 늑도유적』
-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7, 『사천 방지리유적』
- 경남문화재연구원, 2012, 『부산 분절패총』
- 국립대구박물관, 2015, 『상어, 그리고 돛배기』 특별전시도록
- 복천박물관, 2009, 『또 하나의 도구 골각기』 특별기획전
- 최 윤 등 3인, 2002, 『한국의 바닷물고기』
-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 1992,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어업용구편)』
- 국립수산진흥원, 1967, 『한국어구도람(2호)』
- 국립수산진흥원, 1987, 『어구분류 및 각부명칭』
- 계명대학교박물관, 1981, 『고령지산동고분군』
- 유병일·정숙희, 2009, 「어골을 통한 해체 및 조리에 대한 일고찰」, 『야외고고학』 제7호, P.177~217
- 곽종철, 1991, 「낙동강 하류역에 있어서 선사~고대의 어로환경」, 『가야문화』 제3호, P.137~229



02

금관가야 수운 항로의 시기별 변화

황상일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I. 서론

II. 금관가야 시기 낙동강의 개관

III. 기원 전후 시기 김해의 지역의 지형 특성

IV. 기원 전후 낙동강 교통로 특징

V. 영남지역 정치 상황과 낙동강 수운 환경

VI. 결론

금관가야 수운 항로의 시기별 변화

황상일(경북대학교 지리학과)

I. 서론

한 지역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역할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 주위의 다른 지역과의 관계적 위치,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보다 광역적인 입장에서의 상대적 위치, 보유하고 있는 자원 등에 의해 결정된다.

환경결정론적 접근 즉, 국가의 흥망을 자연환경과의 관계에서만 고찰하려는 것은 옳은 접근 방법이 아니지만 어느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나 역할 그리고 흥망이 자연환경의 총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되는 것도 인정하여야 한다. 정치집단의 내적 및 외적 활동은 크게 그 집단이 처한 위치, 토지, 지형, 기후 등 지리적 환경에 의해 통제된다. 특히 자연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수준이 낮았던 고대에는 인간활동에 미친 자연환경의 영향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컸다.

정치계의 흥망과 공간과의 관계를 분석, 해명하는 것은 오랜 과거부터 인간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어떤 지역이 가지는 공간적 위치, 지역공간의 잠재력,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전략을 해석하는 것이 지정학적 입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국가의 공간적 위치는 토지의 비옥도, 교통, 대외적인 안전도와 관계있다.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주요 수로나 교통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 대하천 즉, 가항하천의 존재는 산업이나 교역, 외국과의 교역에 있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로이다. 천연자원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이와 같은 논의는 그 대상이 고대에 국한된다. 고려시대 이후 한반도에서는 단일의 독립국가가 유지되었으므로, 자연과 인문환경이 국가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작용하는 상호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고고학자와 고대사학자들은 지난 많은 시간 동안 발굴된 자료와 문헌기록들을 통해 한반도 남부 가야지역의 선사, 고대의 인간활동을 복원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현재 지표상에 드러난 유적이나 유구들이 당시 인간활동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인 거주지와 경작지 등은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가야제국에 대한 문헌 자료도 풍부하지 못하며, 그것도 대부분 일본의 고대사에 기술되어 사료 자체의 정확도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기왕에 보고된 자료를 참고로 어느 지역이 가지는 자연환경 및 지리적인 위치 특성을 통하여 당시 인간활동을 검토하는 일은 고고학자와 고대사학자들의 연구와 함께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접근으로 생각된다.

가야는 영남분지 낙동강 우안에 위치하였는데, 초기 북쪽 경계는 성주분지까지 포함되었으나, 성주는 일찍 신라의 영향권으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3C 중반 경에는 고령-가야산-거창으로 이어지는 지역이 가야의 가장 북쪽 경계가 되었다. 후기 가야의 중심부인 서부 경남지역과 백제의 중심부였던 호남지방 서부의 저평한 평야 사이에 있는 덕유산지와 무주·진안·장수의 산악 지역이 가야의 북서쪽 경계가 되었다. 남서쪽으로는 폭이 넓은 지리산지가 후기가야시대 동안 서부 경남과 전남 동부를 분리시키며 정치, 문화적인 경계가 되었다. 이들 산지의 안부에 육십령, 팔랑치 등의 고개가 있어 대가야세력이 호남 동부에 영향을 미치는데 통로가 되었다. 그리고 낙동강 좌안의 신라와는 낙동강 중·하류부를 경계로 하고 있었는데, 이 유역은 연중 배들의 항해가 가능하였으므로 교통로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김해지역은 3C 중엽 사로국이 낙동강 우안으로 진출하면서 영남지방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권이 크게 축소되었으나 서기 400년 고구려 남정 이전 가야의 중심이 고령으로 이동하기 전까지 가야의 중심이었으며 한반도 남부의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전기 가야시대 동안 정치, 경제적 중심이었던 금관가야는 가야 제국(諸國)을 포함하는 영남 내륙 지방과 낙동강의 수운을 이용하여 교역하였으며, 해상 교통로를 이용한 국제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본고에서는 영남 내륙 지방을 관통하는 낙동강의 약 2,000년 전 하천 지형을 검토하여 수운 가능성을 살펴보고, 영남 지방의 정치적 변화에 따른 시기별 금관가야의 수운 교통의 변화를 논의하였다.

II. 금관가야 시기 낙동강의 개관

영남분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낙동강은 한반도 남부의 인간생활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낙동강은 하폭이 넓고 유량이 많은 대하천이므로 좌, 우안을 분리하지만 동시에 양쪽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므로 분리와 통합의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특히 교량과 같은 기술적 방식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지 못하였던 고대에 낙동강 유역에는 다양한 국가들이 분포하였으므로 국가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변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낙동강 중, 하류부의 교통로로서의 기능은 낙동강 양안의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와 깊은 관계가 있었다.

낙동강은 증수기에는 수심이 깊고 유속이 빠르지만, 평수기와 갈수기에는 상대적으로 하폭이 좁아지고 유속도 크게 빠르지 않게 된다. 증수기에는 낙동강 상류부까지 수운이 가능하므로 교통로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조선시대 말까지 유지되었으나, 현재는 하구언과 같은 구조물 및 하천 지형변화로 인해 거의 대부분 구간에서 그 기능이 소멸되었다.

낙동강 하류부의 지형은 최종빙기 이후 역동적으로 변하였다. 최종빙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해수면이 현재 수준에 도달한 7,000년 전 경 해안선은 현재 대구시 부근까지 전진하였으며, 김해만의 수심은 40~50m에 달하였다. 이후 상류부로부터 운반하여온 물질이 퇴적되면서 해안선은 후퇴하고 수심은 얕아졌다. 낙동강 하구언이 조성되기 이전 만조시에 염수가 삼랑진까지 도달한 것으로부터 추정하면 기원 전후한 시기 만조시 염수가 도달한 곳은 하남읍보다 더 상류쪽까지 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해진극상기 이후 낙동강 유역에 생식피복은 대단히 양호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낮았으므로 낙동강으로 공급되는 퇴적물량이 그리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관가야 시기 동안 낙동강은 동결되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연중 교통로로서 충분히 기능하였을 것이다. 아울러 낙동강의 지류에서도 가항종점이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상류 쪽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결절점에 자리잡은 항구의 수심도 상당하였으므로 규모가 큰 선박이 접안하였을 것이다.

III. 기원 전후 시기 김해의 지역의 지형 특성

김해 지역은 최종빙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해수면이 현재 수준에 도달한 이후 내만환경이 조성되었다. 특히 금관가야의 중심이었던 시기 김해를 중심으로 한 고김해만에는 여러 개의 항구가 분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국제항구는 현재 김해시에 있었음이 분명하다.

IV. 기원 전후 낙동강 교통로 특징

교통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먼저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교통로의 입지에서 경제적 변수는 교통로 건설에 드는 고정비용(fixed cost)과 가변비용(variable cost)이다. 고정비용은 실제 교통로를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을 말하는데, 자연환경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고정비용은 교통로 연장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가변비용은 일단 조성된 교통로를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볼 때, 낙동강의 수운은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측면에서 교통로의 조성과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대단히 유리하다. 고정비용은 선박을 접안할 수 있는 부두를 건설하고 파랑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비용, 가변비용은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운은 육상 교통로에 비해 운송비가 적게 든다.

금관가야의 낙동강 수운은 운송비 경쟁의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였으므로, 교역품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었다.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562년 가야연맹의 멸망까지 영남지방에 있었던 정치적, 군사적 관계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경상도에서 성립된 유일한 국제관계였다. 이러한 국제관계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당시 낙동강의 중류부와 하류부는 선박의 항행이 자유로울 정도로 수심이 있었다.

V. 영남지역 정치 상황과 낙동강 수운 환경

1. BC 1C-AD 2C

한반도 남부에 철기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는 대체로 기원전 100년 경으로 보고 있다. 이때부터 한반도 남부는 소위 원삼국 시대, 삼한 시대로 들어간다. 이때 김해지역에는 변한 12국 가운데 가장 유력한 구야국이 있었는데, 이것은 『삼국지』의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的 소국에 해당한다.

영남지방에는 기원 1C 경 김해지역과 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제철산업이 시작되면서 영남지방에 급격히 철기가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주의 사로국은 AD108년 다벌국(대구)을 정복하고 AD 185년 의성의 소문국을 정복하면서 낙동강 좌안 지역을 자신들의 세력권에 편입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낙동강 우안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구 지역을 교두보로 성주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시도도 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 고령과 성주는 가야연맹 소국이 자리잡고 있었으므로 낙동강은 여전히 금관가야의 교역로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동안 금관가야는 철제품을 생산하여 낙동강 수로를 통해 영남내륙 지방으로 판매를 하였을 것이다. 금관가야는 낙동강을 거슬러 거의 상류부까지 시장을 확장하였으며,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 남강, 황강, 회천, 금호강, 감천, 위천

을 통해 교역망을 갖추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철제품, 소금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과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중계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교역품으로 주로 거래되었으며, 자급자족이 가능했던 토기, 곡물과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것들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교역망에서 금관가야에서 공급되는 철제품과 소금 교역에서 중계 무역을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 형성되고 가야연맹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밀양, 다호리, 함안, 의령, 진주, 합천, 창녕, 고령, 성주, 의성, 상주는 이런 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야연맹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구, 안동, 문경, 예천 지역도 금관가야의 경제권에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 낙동강은 군사적 긴장감이 거의 없는 교통로로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세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영남 내륙 지역은 거의 대부분 금관가야의 경제권이었을 것이다.

2. 3C 한반도 남부 정치상황과 낙동강 수운

3C에 들어와 사로국은 낙동강 우안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포함하기 시작한다. AD 231년 감문국을 정복하고 3C 중엽 첨해왕대 합창의 사랑별국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사로국의 낙동강 우안으로의 진출은 금관가야에게 대단히 큰 충격이었다. 이것은 낙동강의 금호강 합류점보다 상류부는 더 이상 금관가야의 교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관가야는 그들의 시장을 상당히 많이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 금관가야는 김해부터 성주까지 본류와 밀양강, 남강, 황강, 회천을 연결하는 교역망을 통해 종래의 방식으로 교역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금관가야의 교역을 통한 이익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중심지 기능은 이전 시기에 비해 축소되었을 것이다.

3. 4C 후반 한반도 남부 정치상황과 낙동강 수운

4C 후반부에 들어 오면, 백제는 가야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364년에서 366년에 걸쳐 백제는 卓淳國의 협조를 얻어 금관가야가 가진 왜와의 대외교역권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369년 군사 시위를 통해 원래의 목적인 대외교역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상하관계를 통해 가야를 친백제 세력화 하는데 그쳤다¹⁾. 백제는 가야지역 대외교섭로 가운데 하나인 다사성(하동)을 장악하였는데, 이곳은 당시 대가야의 주요한 대외교섭로였을 가능성이 높다²⁾. 이렇게 하여 대가야는 백제의 강력한 영향권에 놓이게 되었으며, 왜와 백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가야는 역시 왜와 우호적인 관계였을 것이다³⁾. 이와 같은 가라(대가야)의 대외관계 노선은 신라의 반발을 불러와 신라와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게 되며, 마침내 382년 신라의 조종을 받는 세력이 가라를 공격하고, 이것이 백제의 개입으로 수습되어 정치적으로 백제에 대한 종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⁴⁾.

한편 369년까지 존재하던 비사벌은 이후 행방이 묘연해지는데, 이 시기에 비사벌은 백제의 영향권으로 잠시 편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 아울러 382년 신라의 조종을 받아 가라를 공격한 세력은 창녕지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⁶⁾. 즉 창

1) 이문기, 1995,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연구(한국고대사연구회), P212.

2) 이문기, 1995,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연구(한국고대사연구회), P213; 일본서기, 권9, 신공기 50년 하4월조. 이곳은 경남 하동으로 보는 견해(김태식, 1997)가 우세하다.

3) 이문기, 1995,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연구(한국고대사연구회), P213.

4) 이문기, 1995,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연구(한국고대사연구회), P214.

5) 후보돈, 2009, 문헌상으로 본 고대사회 창녕의 향방,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주보돈, 등), 43.

6)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녕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은 신라가 창녕 지역으로 그의 영향력을 높이면서 낙동강 우안으로 후퇴하고, 이때부터 창녕지역은 신라의 영역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시에 신라 영역의 창녕 지역과 고령 지역의 두 세력 사이에 갈등 관계가 시작되었으며, 가라와 연맹 관계에 있는 금관가야와 신라 사이의 긴장감이 증폭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관가야의 낙동강 교통로는 자유로운 항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낙동강과 지류인 남강, 황강, 회천의 연결도 제한을 받게 되었다. 금관가야에 남은 교역망은 낙동강의 가장 하류부와 밀양강 정도였으므로 금관가야의 경제권은 대부분 사라진 셈이다. 그리고 낙동강의 남강 합류점보다 상류부는 신라와 가야 연맹국들 사이의 국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수운의 제한은 금관가야의 국가 경제의 기반인 교역망을 붕괴시키며 가야연맹의 리더 지위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금관가야에게 중대한 결실을 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광개토대왕비문에 기록된 400년 금관가야와 왜 연합군의 경주 침공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4. 5C 초반 한반도 남부의 정치상황과 낙동강 수운

백제-가야제국-왜로 연결되는 연합세력이 형성되었다. 신라는 이들과의 대립을 타결하기 위하여 399년 사신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광개토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400년 고구려군의 가야지역에 대한 정벌로 상황이 확대되기에 이른다. 고구려-신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하류 유역의 가야 세력이 극심한 타격을 입게 되고, 김해 중심의 금관가야가 쇠퇴하고 회천의 고령, 황강의 옥전, 남강의 함안을 남-북 축으로 하는 후기 가야시대가 성립된다. 한편 백제는 일본과 교역을 위해 이전에 가야지역에 만들었던 교두보를 상실하였다.

5C 초 백제는 여전히 왜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고령의 가라는 이들과 상호친선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신라와 그 배후의 고구려와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이 시기 백제는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진을 방어하는데 국력을 투입하여야 하므로, 가야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줄여야 했다. 금관가야의 쇠퇴로 많은 사람들이 고령으로 이주하면서 대가야는 많은 엘리트들이 충원되어 사회전반적인 수준이 크게 상승한다. 특히 야로의 철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인구도 크게 늘어 국력이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의 상실로 국제교역에 있어서 항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왜와의 교역에 있어서 백제가 주도권을 상실하였으므로, 대가야는 아마 섬진강 하류 하동지역과 사천지역을 차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400년 이후 금관가야는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채 532년까지 국가의 명맥만 유지하였다. 낙동강은 교통로로서 기능은 대부분 상실하고 신라와 가야연맹의 국경이 되었다.

VI. 결론

BC 1C부터 AD 2C까지 낙동강은 금관가야의 교역로로서 기능하였다. 이 시기 동안 영남 내륙은 금관가야의 경제권이였다. 금관가야는 철제품을 생산하여 낙동강 수로를 통해 영남내륙 지방으로 판매를 하였을 것이다. 금관가야는 낙동강을 거슬러 거의 상류부까지 시장을 확장하였으며, 낙동강 지류인 밀양강, 남강, 황강, 회천, 금호강, 감천, 위천을 통해 교역망을 갖추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철제품, 소금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물품과 왜, 낙랑군과 대방군, 예로부터 수입품, 해안과 내륙 지역의 특산물과 같은 중계무역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교역품으로 거래되었다.

이와 같은 교역망에서 금관가야에서 공급되는 철제품과 소금 교역에서 중계 무역을 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조성될 수 있는 지역에는 도시가 형성되고 가야연맹의 중심지로서 기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 낙동강은 군사적 긴장감이 거의 없는 교통로로서 선박 운항에 있어서 세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이용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영남 내륙 지역은 거의 대부분 금관가야의 경제권이었을 것이다.

3C에 들어와 사로국은 낙동강 우안을 자신들의 영향권에 포함하기 시작한다. 사로국의 낙동강 우안으로의 진출은 낙동강의 금호강 합류점보다 상류부는 더 이상 금관가야의 교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관가야는 영남 내륙 시장의 1/2 이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시기 금관가야는 김해부터 고령과 창녕까지 본류와 밀양강, 남강, 황강, 회천을 연결하는 교역망을 통해 종래의 방식으로 교역을 진행하였다.

4C 후반부에 들어 오면, 백제는 가야지역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령과 창녕 지역에 정치적 변화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부는 교통로로서 기능이 대부분 상실되고 금관가야의 교역망이 대부분 붕괴되면서 가야연맹의 리더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뒤집기 위한 마지막 노력은 400년의 가야-왜 연합군의 경주 침공이었다. 이러한 노력이 무산되면서 가야연맹의 중심은 낙동강 하류부의 고령, 함안과 옥전으로 이동하였다. 400년 이후 금관가야는 경제적 기반을 상실한 채 532년까지 국가의 명맥만 유지하였다. 낙동강은 교통로로서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고 신라와 가야연맹의 국경이 되었다.

■ 참고문헌

- 고령군·한국상고사학회, 2001, 대가야와 주변지역, 제2회 대가야사 국제학술세미나 발표집.
-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경상남도 거창군, 2004, 거창의 역사와 문화(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경상남도 거창군 공동학술회의 발표문).
- 김세기, 2001, 대가야의 발전과 주변지역, 대가야와 주변지역(제2회 대가야사 국제학술세미나발표문, 고령군·한국상고사학회), 16.
- 김종훈·이청규·이한상·윤순옥·황상일, 2001, 국가형성기 경주와 주변지역, 학술문화사, 서울.
- 김태식, 1997, 가야연맹사, 일조각.
- 金元龍, 1996, 韓國考古學概說(一志社, 제3판).
- 노중국·권주현·김세기·이명식·이형우·이희준·주보돈, 2002,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 한국학연구원, 대구.
- 부산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0,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서울.
- 부산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1,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서울.
- 부산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2003, 가야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혜안, 서울.
- 이문기, 1995, 대가야의 대외관계, 가야사연구(한국고대사연구회), 도서출판, 춘추각, 서울.
-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기원과 성장, 학연문화사, 서울.
- 이용현, 2000, 가라(대가야)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과 그 대외교섭, 한국고대사연구, 18, 47-48.
- 이희연, 1992, 경제지리학, 법문사, 서울.
- 이희준, 2017, 대가야고고학연구, 사회평론아카데미
- 정중환, 2000, 가라사연구, 혜안, 서울.
- 주보돈·김용성·이한상·조효식, 2009, 한국 고대사 속의 창녕, 창녕군·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 천관우, 1997, 가야사연구, 일조각, 서울.
- 한국고대사연구회, 1995, 가야사연구-대가야의 정치와 문화-, 춘추각, 서울.
- Bösler, K.A., 1983, Politische Geographie, B.G.Teubner, Stuttgart.



03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

이수연 » 기장군청

-
- I. 머리말
 - II. 가야지역의 육상포유류
 - III. 사슴 연령 분석 및 계절성 추론
 - IV. 수렵 방법에 대한 검토
 - V. 맺음말

주제어 사슴, 수렵, 사망연령, 수렵계절, 사냥도구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

-김해 신문리유적 사슴 유존체를 중심으로-

이수연(기장군청)

I. 머리말

바다와 인접한 가야시대의 패총에는 무수히 많은 고고자연유물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패총에서 확인되는 자연유물 대다수가 굴, 백합 등의 패각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육상포유류인 사슴, 멧돼지 등의 유존체도 확인된다.

패총에서 출토된 동물자료는 당시 사람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이자 생업활동,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 등을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장에서 수집된 동물자료는 과학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적의 성격, 계절적 점유 양상, 가축화 과정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야지역 동물자료는 일부 저습지 유적을 제외하면 모두 패총유적에서 확인된다. 해안에 위치한 패총에서 육상포유류의 유존체가 많이 확인된다는 것은 바다와 함께한 가야인들의 식생활에서 육류의 섭취가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들의 생업에 수렵이 일정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야지역의 생업 중에서도 수렵과 관련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대상이 된 동물자료는 해상포유류를 제외한 육상포유류이다. 우선 창원, 김해, 부산지역에서 출토된 가야시대의 동물자료를 검토하여 주요 수렵종을 파악하고 부위별 동정가능표본수(NISP)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주된 수렵종과 대상 분석 부위가 명확해 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후 수렵 대상종의 사망나이와 계절을 분석하여 당시 가야인의 수렵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자료 및 암각화, 도식 자료 등을 종합하여 가야시대 수렵방법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당시 사회의 가야인의 수렵경제체계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II. 가야지역의 육상포유류

패총 및 저습지에서는 석기, 철기, 토기 등의 무기질(無機質) 유물 이외에도 뼈, 뿔, 씨앗 등의 유기질(類脂質) 유물도

다수 출토된다. 이 중에서 뼈는 수렵 등을 통해 포획한 것이 대다수로서 당시 수렵의 대상을 확인하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가야지역의 동물자료는 저습지 유적인 창원 신방리, 부산 고촌리유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총유적에서 출토된다. 이들 유적에서 확인되는 척추동물은 어류, 포유류, 파충류, 조류이며, 포유류는 총 16종으로 사슴, 멧돼지, 개, 소, 말 등의 중대형 포유류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표 1〉은 가야지역 육상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¹⁾를 나타낸 표이다. 각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사슴의 수가 우위를 차지하며 전체 7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유적에서 사슴의 표본수가 높다는 것은 대량의 사슴을 소비했으며 실제적으로 주요 수렵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유적별 육상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NI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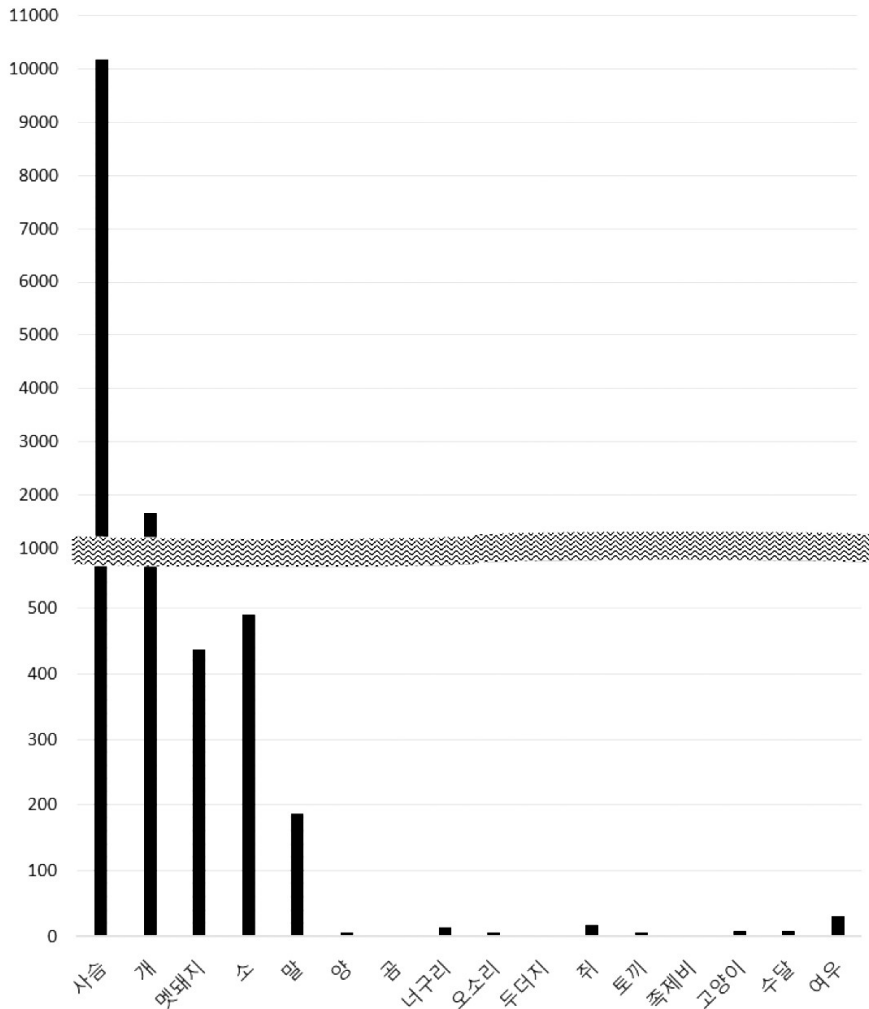
구분	창원				진해		부산				합계
	신방리	신문리	봉황대	회현동	용원	웅천	분절	조도	동래	고촌	
사슴	298	2,660	211	3,266	342	93	331	115	2,414	766	10,496
멧돼지	114	230	43	662	62	9	65	10	337	127	1,659
개	26	16	12	40	17		168		132	26	437
소	15	10	13	184	1		76		169	21	489
말	16	9	10	46		3	76		25	1	186
여우				3			24		1	2	30
쥐				18							18
너구리		8		3	1		2				14
수달					5				4		9
고양이				8							8
양			1	6							7
오소리		6									6
토끼		3		3							6
곰			1	1					1		3
족제비							3				3
두더지		1									1
합계	469	2,943	291	4,240	428	105	745	125	3,083	943	13,372

사슴²⁾이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은 가야시대 뿐만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이미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선사 시대의 유적에서 출토되는 사슴뼈의 비율을 살펴보면 후기구석기시대의 유적들에서 사슴뼈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 동정가능표본수 (NISP, Number of identified Specimens) : 동정가능표본수란 종별로 동정이 가능한 자료의 수를 말한다. 이는 동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각 종별로 자료의 수를 세어서 얻게 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해 부위나 파편화 정도에 관계없이 유적에서 출토된 동정이 가능한 모든 자료의 수를 나타낸다(이준정, 2003).

2) 한반도 고고학 유적에서 발견되는 사슴 족(Family Cervidae)로는 시카 사슴(또는 일본 사슴, 꽃사슴, Cervus nippon), 고라니(또는 북작노루, Hydropotes inermis), 노루(Capreolus capreolus)가 있다. 시카 사슴은 다시 13종의 아종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우수리 사슴(Cervus nippon horvulorum)과 대륙사슴(또는 만주 사슴, Cervus nippon manchuricus)이 유적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이준정, 2003).

80%가 넘으며, 특히 구석기시대의 단양 구남굴 유적의 경우는 93%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에 들어서 점유율은 낮아지지만 사슴은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짐승뼈 집합의 가장 우위를 차지하는 짐승이라 할 수 있다(조태섭, 2004).



〈도면 1〉 가야지역 육상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NISP)

사슴이 주요 수렵 대상이었던 이유는 사냥의 위험률이 낮아 안전한 수렵을 할 수 있었던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첩하고 예민하지만 무리생활을 하는 사슴은 경우에 따라서 단기간에 여러 마리도 수렵이 가능했으며, 사슴의 활용도도 높았으므로 좋은 수렵대상이 될 수 있었다. 특히 사슴의 고기는 상대적으로 많은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사슴 고기는 소고기·돼지고기에 비해 칼로리는 40%로 낮지만, 100g당 단백질은 월등히 높은 함량을 보인다. 저지방의 고단백질 사슴고기는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것이다. 특히 사슴고기는 들짐승에서 나는 노란내가 없어서 야생조수(野生鳥獸)인 꿩고기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식품이다. 보통 야생동물의 고기는 봄·여름은 맛이 없으나 가을·겨울이 되면 기름져 독특한 풍미를 발휘하는데 비하여 사슴고기는 가을·겨울 보다 오히려 봄·여름이 더 맛이 있다고 한다(김태홍, 1997).

〈표 2〉 가축별 영양소 함량(100g당)(김상우·진영화, 2014)

구분	칼로리(kcal)	단백질(g)	지방(g)
사슴고기	126	21.0	4.0
소고기	313	16.9	26.7
돼지고기	323	16.4	28.0

이밖에도 사슴은 의복 및 도구 제작의 재료로서 활용도가 높았다. 사슴 가죽의 이용은 현장에서 확인된 골격의 관찰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사지골, 하악골 등에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커팅흔은 가죽 분리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가늘고 긴 사슴의 뼈는 도자병·화살촉·복골 등의 재료로 이용되었다.

Ⅲ. 사슴 연령 분석 및 계절성 추론

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종의 연령은 수렵방법, 사냥 능력, 가축의 기원과 이용양식을 비롯하여 생업경제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다.

특히 가야지역의 주요 수렵종인 사슴은 계절번식을 하는 단일성(短日性) 동물로서 새끼는 5월부터 6월 사이에 태어나므로 뼈의 융합시기, 이빨의 교체시기, 뿔의 교체시기 등을 고려해 역수로 계산하면 사망한 사슴의 연령과 계절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사슴의 출토 부위를 검토한 뒤 대상 부위를 선정하여 연령 분석과 계절성을 추론하고자 한다.

1. 연령 분석의 부위

연령 분석의 부위는 수량이 많고 연령에 따른 변화가 확실한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표 3〉과 같이 유적에서 출토된 사슴의 주요 출토부위는 뿔, 사지골, 하악골 등에 집중되어 출토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유적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차지하는 부위는 단연 녹각이다. 녹각은 사슴의 확보방법과 취급과정을 알 수 있는 좋은 고고학적 자료로서 선사시대부터 중요한 골각기 소재로 이용되어온 부위이기도 하다. 다만 뿔(Antler)은 수컷만이 가지고 있어 분석대상에 암컷의 연령이 배제되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유적에서 출토되는 뿔은 온전한 것이 적고 수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각좌골의 존재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사슴의 연령 및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부족함이 있다.

다음으로 요골, 경골, 중수골, 중족골 등의 사지골이 있다. 일부 유적에서는 하악골보다 많은 수량을 보이며 출토되고 있다. 특히 중수·중족골은 뼈 자체가 가늘고 긴 형태를 띠어 골촉 등의 주요 소재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뼈에 남아 있는 커팅흔 등을 통해 사슴의 해체와 소재 제작의 방법을 유추하기 좋은 자료이다. 또한 이들 뼈의 골격은 각 시기에 따른 융합 시기를 가지고 있어 연령을 판단하기에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다만 골격마다 융합 시기가 다르고, 제한적인 개월 수만 산출 가능하므로 사슴의 연령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표 3〉 사슴의 부위별 출토 수량

부위 \ 유적	신방리	신문리	회현리	낙민동	고촌	합계(%)
뼈	133	584	334	305	341	1,697(23%)
두개골	3	52	20	63	103	241(3%)
상악골	2	5	25	16	13	61(0%)
하악골	20	333	228	109	62	752(10%)
견갑골	24	43	168	34	12	281(3%)
상완골	7	131	161	94	12	405(5%)
요골	8	196	249	102	19	574(7%)
척골	3	71	57	27	3	161(2%)
중수골	10	227	126	97	50	510(6%)
수근골			29			29(0%)
관골	3	64	94	57	12	230(3%)
대퇴골	10	120	76	52	19	277(3%)
경골	18	180	185	131	25	539(7%)
거골	3	18	79	24	2	126(1%)
종골	9	82	95	50	4	240(3%)
중족골	8	290	129	72	38	537(7%)
족근골			35			35(0%)
지골	4	60	271	13		348(4%)
추골	6	83	152	11	42	294(4%)
합계	271	2,539	2,513	1,258	757	7,33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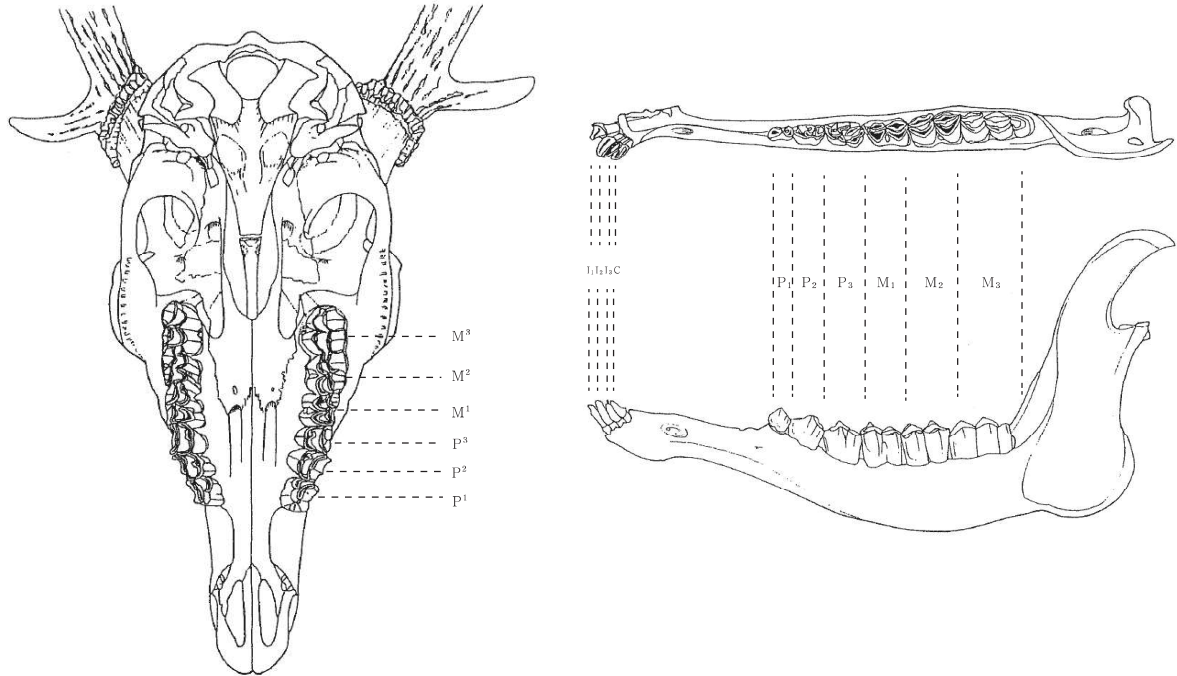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하악골은 녹각 다음으로 출토량이 많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부위이다. 하악골에는 특별히 해체흔이 잘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악과 결합되는 돌기부위에 횡방향의 자른 흔적이 확인되기도 한다. 하악골은 상악골에 비해서 잔존상태가 양호하며, 이빨을 통한 연령분석은 전략적인 수렵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므로 연령분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이빨을 통한 연령 분석은 동물의 나이를 상당히 정확하게 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방법은 이빨 둘레의 성장테도 셀 수가 있지만 이는 표본의 파괴가 수반되고 또 광물질 함유작용 때문에 그 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령 분석은 이빨의 발아 단계와 마모 정도에 근거한다.

아울러 턱뼈 속의 젓니 유무를 조사하여 현대 모집단에서의 발아 순서를 참조함으로써 대략적인 나이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구치의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마모 정도만이 증거가 되는데, 다시금 나이를 파악할 수 있는 동물로부터 나온 일련의 턱뼈들과 비교를 하는 방법을 쓴다.

지금까지 가야지역 패총 및 저습지에서 확인된 하악골은 752점으로 신문리패총에서 출토된 333점이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인다. 다만 보고된 하악골이 전부 온전한 것인지, 일부 이빨만 잔존한 것을 하악골로 보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보고된 자료중에는 별도로 보고 없이 동정만 한 것이 대부분이라 이들 자료를 통해 사슴의 사망 연령과 계

절성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사슴의 연령분석과 수렵 계절을 추론하기 위해서 신문리패총에서 출토된 333점의 하악골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도면 2〉 사슴의 상악골(Maxilla)과 하악골(Mandibil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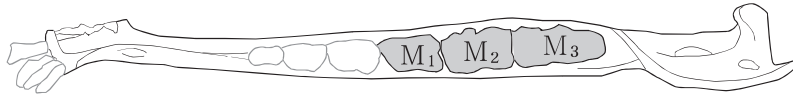
2. 사슴의 연령 분석

앞서 신문리 유적에서 보고된 사슴의 하악골은 총 333점이지만, 하악치만 남은 경우와 결실 또는 파손이 심해 계측과 치아 교체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그 외 122점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령을 판단하는 방법은 붓출, 마모도, X선분석이 있으며 이 중 X선분석의 경우는 파괴분석이므로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에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붓출 및 마모도의 분석은 유적에서 출토된 사슴의 하악골을 분석하여 계량화 한 뒤 현생 비교집단에 대입해 연령을 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된다. 이 경우 비교집단을 구하는 것이 관건인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현생 비교집단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 이후 꽃사슴이 거의 전멸하여 비교하고자하는 현생종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金東岩·辛炯泰, 1989). 하지만 일본 현생종을 비교한 연구결과(大泰司, 1980)가 있기에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를 일본 연구결과에 대입하여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다.

사슴의 연령은 우선 마모도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붓출순서를 통해 좀 더 객관적인 개월수를 추론할 수 있으나 3살 이전의 사슴에게만 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연령에 대한 분석은 마모도를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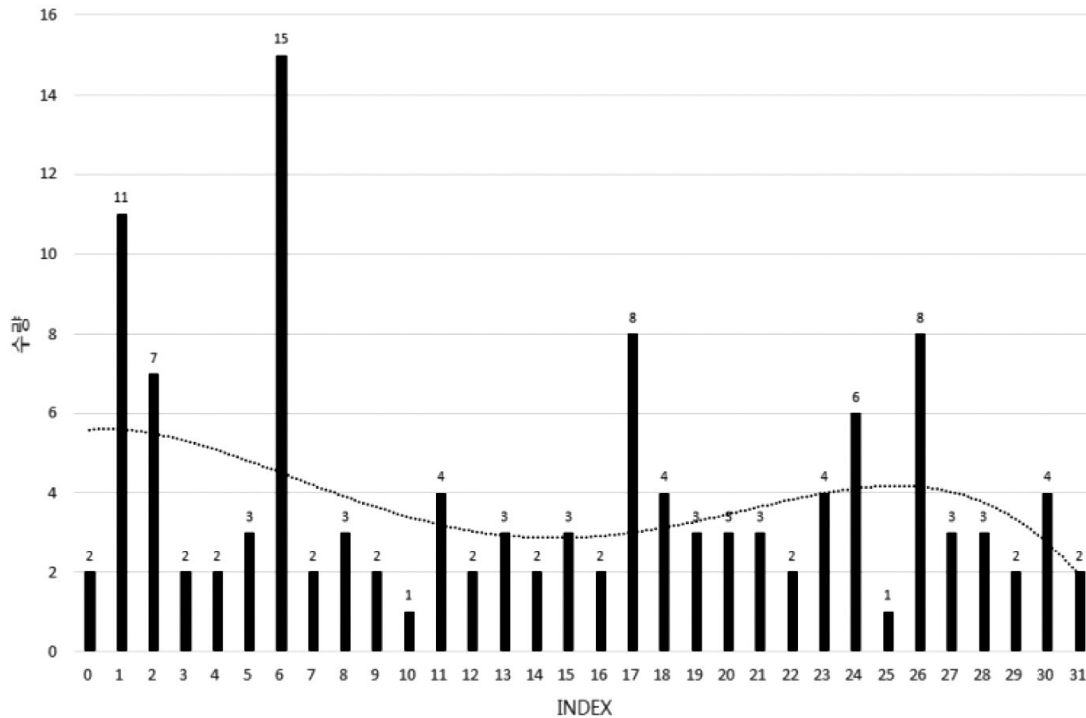
Index	M ₁	M ₂	M ₃	Index	M ₁	M ₂	M ₃
0				16			
1				17			
2				18			
3				19			
4				20			
5				21			
6				22			
7				23			
8				24			
9				25			
10				26			
11				27			
12				28			
13				29			
14				30			
15				31			

〈도면 3〉 신문리패총에서 출토된 사슴의 마모지수

마모도를 분석하는 방법은 大泰司(1980)³⁾의 연구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大泰司의 연구는 대구치의 마모도 진행을 모식화해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다. 다만 필자가 분석하면서 이들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도 확인되어 전체 이빨의 마모도를 이해하기 위한 도식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던 중 데니즈-페인 방법⁴⁾과 같이 도식화 해보았다.

3) 일본 학자 大泰司(오타이시 노리유키)는 시카사슴의 이빨 발아, 교체, 그리고 성장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해 최근 표본 1700여점을 조사 연구한 바 있다. 그는 턱니의 발아 시기 및 마모 유형을 근거로 일련의 나이 순서를 설정하고 시멘트질을 검사하여 나이테를 셈으로써 나이 및 사망 계절을 판정하였다.

〈도면 3〉은 신문리유적에서 출토된 사슴 하악골의 마모지수를 나타낸 것으로 이빨의 발생순서와 마모상태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모두 122점의 하악골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마모의 순서는 M_1 이 붕출하기 시작하는 “0”부터 M_2 가 거의 마모되기 직전상태인 “31”까지 총 32개의 경우의 수로 구분하였다. 배열은 M_1 의 마모정도를 우선 기준으로 정한 뒤 M_2 와 M_3 의 마모상태와 발생 순서를 고려해 나열하였다. 가는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붕출중인 상태를 표시한 것이며, 차이를 점점 겹겹 표현한 것은 에나멜질이 닳아서 이빨의 내부가 노출된 것을 표현한 것이다.



〈도면 4〉 마모지수에 따른 출토량(N=122)

신문리 자료를 마모지수에 대입하여 수량을 산정하면 〈도면 4〉가 된다. 수량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고른 양상이며, 10점 내외의 것도 일부 확인된다. 특히 마모지수 1~6은 M_1 붕출에서 M_2 붕출 완료 직전의 단계로 수렵계절은 가을부터 봄으로 추정된다. M_1 교합면이 초승달 형태로 변한 13부터는 연령이 대체로 3.5세이며, M_1 · M_2 · M_3 가 모두 초승달 형태를 보이는 것은 8세에서 11세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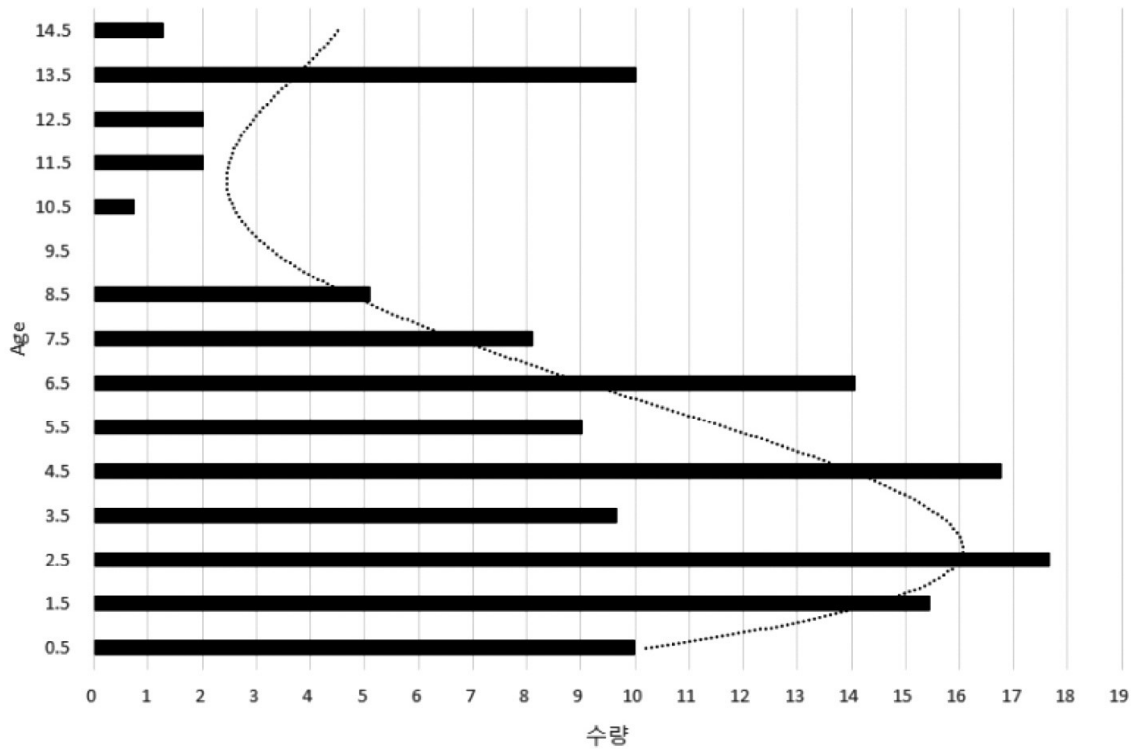
다만 색인의 번호가 시간적인 양상을 절대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M_3 가 붕출된 이후의 것은 사슴의 먹이 섭취와 습성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大森司의 연구에서 대상이 되었던 사슴의 이빨의 마모지수와 연령의 관계를 신문리 패총자료에 대입하여 표로 나타

4) 이빨이 나오는 순서, 이빨의 대체 상태와 마모 상태를 분석의 기초로 삼는 방법이다. 즉, 어린 개체의 유치어금니는 자라고 나면 영구치 작은어금니로 대체되며, 다 자란 개체에서 큰 어금니는 첫째 큰어금니(M_1), 둘째 큰 어금니(M_2), 셋째 큰어금니(M_3) 순으로 발아한다. 이빨이 일단 잇몸 밖으로 나오면, 각 이빨은 씹는 작용을 하며 마모하게 된다. 예를 들어 큰어금니에는 이빨 앞쪽과 뒤쪽에 각각 한 쌍씩 에나멜로 덮여 있는 네 개의 교두가 있으며, 각 쌍의 교두는 가운데 ‘골짜기(누두부)’에 의해 나누어진다. 교두의 마모와 더불어 표면을 덮은 에나멜도 닳아, 그 아래에 있는 이빨 속이 노출된다. 마모가 약간 진행된 양이나 염소 이빨의 교합면은 마치 ‘C’자 꼴을 이루며 초승달 형태 4개가 있는 듯한 모습이 특징적이다. 마모가 계속되면 가운데 누두부의 에나멜은 외곽의 에나멜로부터 분리되어 ‘골짜기’는 ‘호수’가 된다(Colin Renfrew·Paul Bahn, 2006).

낸 것이 <도면 5>이다. 참고로 <도면 5>는 M₀의 마모지수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이러한 사슴의 연령분포대는 고령보다 번식이 쉽게 이루어지는 초·장년대에 분포하고 있는 표주박형태이다. 대체로 사슴은 생후 1년에서 1년 6개월이 지나야 번식이 가능하며, 암사슴의 번식 최성기는 4~6세이나 6~8세까지도 번식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번식 가능기의 사슴을 중심으로 수렵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⁵⁾.



<도면 5> 사슴 연령에 따른 출토량

신문리 유적의 사슴 소비는 어린 개체를 상대적으로 덜 잡는 대신 한창 때의 개체들을 좀 더 많이 잡는 양상인 재앙적(Catastrophic)패턴이라 할 수 있다(Simon J.M. Davis, 2014). 성성숙(性成熟)이 이루어진 사슴을 대상으로 사냥을 하였다면 당연히 어린 개체와 나이든 개체의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도면 5>의 출토량은 다 자란 젊은 개체의 비중이 더 크고 살아 있는 동물 무리의 나이 구조를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연령분포는 세대교체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집단의 특징적 양상이며 가야인의 포식행위 심화로 인해 유발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3. 사슴의 수렵 계절

사슴의 수렵 계절은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통해 추론이 가능하다.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의 수렵기사들 중 사슴과 관련된 기사를 토대로 대략적인 수렵 계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분석해 수렵 계절의 시기를 검토한다면 좀 더 객관적인 추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낙민동 133-2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사슴 하악골의 경우도 3~6세의 사슴 연령이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정관박물관, 2017).

가. 문헌자료를 통한 사슴의 수렵 계절

〈표 4〉 삼국사기에 기록된 사슴 수렵 기사

출전	기사
新羅本紀	奈勿王21年 “二十一年 秋七月 夫沙郡 進一角鹿 大有年” 太宗武烈王2年 “二年 冬十月 牛首州獻白鹿” 昭聖王1年 “元年 春三月 … 冷井縣令廉哲進白鹿”
百濟本紀	溫祚王5年 “五年 冬十月 巡撫北邊 狩獵神鹿” 溫祚王10年 “十年 秋七月 王出獵 獲神鹿 以送馬韓” 多婁王4年 “四年 七月 王田於橫岳下 連中雙鹿 衆人歎美之” 肖古王48年 “四十八年 秋七月 西部人苗會獲白鹿 獻之 王以爲瑞 賜穀一百石” 古尔王3年 “三年 冬十月 王獵西海大島 手射四十鹿” 比流王22年 “十一月 王獵於狗原北 手射鹿” 辰斯王7年 “七年 秋七月 獵國西大島 王親射鹿” 東城王5年 “夏四月 獵於熊津北 獲神鹿” 東城王14年 “四十年 冬十月 王獵牛鳴谷 親射鹿”
高句麗本紀	大祖大王10年 “十年 秋八月 冬獵 得白鹿” 大祖大王46年 “四十六年 春三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麓山 獲白鹿” 西川王7年 “七年 夏四月 王如新城 獵獲白鹿” 西川王19年 “十九年 秋八月 王東狩 獲白鹿”

〈표 4〉는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슴에 관한 기사를 정리한 것으로 총 16건이 확인된다.

고구려에서는 3월·4월·8월에 흰 사슴을 잡았다는 총 4건의 기사가 확인된다. 왕이 상서로운 흰사슴을 수렵함으로써 정치적인 통치의 신성성을 공표하기 위한 행위의 것으로 파악된다. 왕의 수렵을 일반 백성의 수렵과 비교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기사의 내용으로 보아 당시 수렵 계절의 일반성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백제에서는 4월·7월·8월·10월·11월에 총 9건의 사슴 기록이 확인된다. 여름에 사냥을 한 동성왕을 제외하면, 모두가 가을이나 겨울에 수렵이 행해지고 있다. 특히 고이왕의 경우 40마리 사슴을 쏘아 맞추어 선사(善射) 능력을 강조한 예가 발견된다.

마지막으로 신라에서는 3월·7월·10월에 사슴 수렵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슴 수렵 기사는 시조신화에는 찾아볼 수 없고 내물왕때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일각(一角)사슴을 잡은 뒤 연이어 풍년이 들어다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들 기사를 종합해보면 사슴 수렵을 통치자가 통치 권력이나 왕통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확인된다. 기사의 사슴 수렵 계절은 3월·4월·7월·8월·10월·11월에 집중되어 확인되며, 수렵의 계절이 가을·겨울에 집중되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되는 사슴 관련 기사는 총 128건이 확인된다. 주요 기사 내용은 사슴 사냥, 사신접대용 사슴고기의 준비, 사슴납획 금지, 사슴사냥의 폐단, 사슴가죽 상납 등의 기사들이 확인된다. 이들 기사 중에서 사냥과 관련된 있고 계절이 명확한 기사를 추출하면 모두 74건으로 〈표 5〉와 같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한 사슴의 수렵은 대개 가을~겨울 내지는 초봄 무렵이 중심이며, 이는 주생업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농번기인 6~7월은 보리 등의 수확과 이앙기가 중첩되는 시기이므로 수렵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에서의 수렵을 조절하여 개체수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슴의 수렵을 지속 가능하

게 하려면 번식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는데, 5~8월이 사슴의 분만이 행해지는 기간이므로 이 시기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사 내용 중에는 사냥해 잡는 것이 지나치면 번식할 시간이 없다는 기사가 확인되는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앙에서 의도적으로 수렵기를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표 5〉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슴 수렵 기사

시기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태종		3	2						1			2	8
세종	1	2	6	2					1		2		14
단종			1										1
세조	4	1		2					6	8			21
예종		1											1
성종	1	2	2	1					4		1		11
연산군	3	2							1	1			7
중종	1			1						2			4
명종									1				1
선조				1						1			2
인조	1												1
경종											1		1
정조		1								1			2
합계(건)	11	12	11	7	0	0	0	0	14	13	4	2	74

나. 가야지역 사슴 수렵의 계절

고고학 자료에 있어 계절성 연구의 접근법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동물은 일정한 하나의 출산기를 갖고 있고, 신체조직 변화의 속도는 그것이 이빨의 발아나 마모이건 혹은 경질조직의 추가적 증가이건, 현재 살고 있는 친척별 동물과 과거의 동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이다(Simon J.M. Davis, 2014).

이러한 근거는 사슴에도 적용되는데, 사슴은 6~7월이라는 분만기와 성장에 따른 치아 붓출의 기간을 가진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일본 등의 현존하는 사슴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 6> 사슴 연령에 따른 이빨 봉출(大泰司, 1980)

Month of death	Age	Arrangement of teeth
June	0 Month	
July	1 "	
August	2 Months	↓
1 st year	September	3 " $\begin{array}{ccccccc} & & & & p^1 & p^2 & p^3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end{array}$
	October	4 " $\begin{array}{ccccccc} & & & & c & p^1 & p^2 & p^3 & M^1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 M_1 \end{array}$
	November	5 "
	December	6 "
January	7 "	
February	8 "	
March	9 "	
April	10 "	
May	11 "	
2 nd year	June	1 year 0 Month $\begin{array}{ccccccc} & & & & c & p^1 & p^2 & p^3 & M^1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 M_1 & M_2 \end{array}$
	July	1 "
	August	2 Months
	September	3 " $\begin{array}{ccccccc} & & & & C & p^1 & p^2 & p^3 & M_1 & M_2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 M_1 & M_2 \end{array}$
	October	4 "
	November	5 "
December	6 " $\begin{array}{ccccccc} & & & & C & p^1 & p^2 & p^3 & M_1 & M_2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 M_1 & M_2 \end{array}$	
January	7 "	
February	8 "	
3 rd year	March	9 " $\begin{array}{ccccccc} & & & & C & p^1 & p^2 & p^3 & M_1 & M_2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 M_1 & M_2 & M_3 \end{array}$
	April	10 "
	May	11 "
2 year	June	0 Month
	July	1 " $\begin{array}{ccccccc} & & & & C & P^1 & P^2 & P^3 & M_1 & M_2 & M_3 \\ \hline i_1 & i_2 & i_3 & C & P_1 & P_2 & P_3 & M_1 & M_2 & M_3 \end{array}$

생업과 관련된 계절성 연구는 대체로 패류 및 어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김건수1996·2001, 안덕임1997·2017, 안덕임·류동기2010·2013·2016, 안덕임·이인성1996·2001·2014·2015)⁶⁾. 다만 포유류의 수렵 계절 분석이 적었던 이유는 패류의 성장선 분석처럼 일단위로 파악이 힘들며 분석 부위의 대상 수가 작아 계절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사슴의 계절 분석이 없었던 것은 유적에서 출토된 낙각된 뿔을 기초로 대략 4~5월인 봄에 수렵이 이뤄졌다고 판단해 별도의 계절 추론이 없었던 이유도 있다. 하지만 낙각된 뿔은 수렵을 통한 대상물이 아닐 수 있고, 습득하여 보관한 뒤 버려진 경우도 있어 계절분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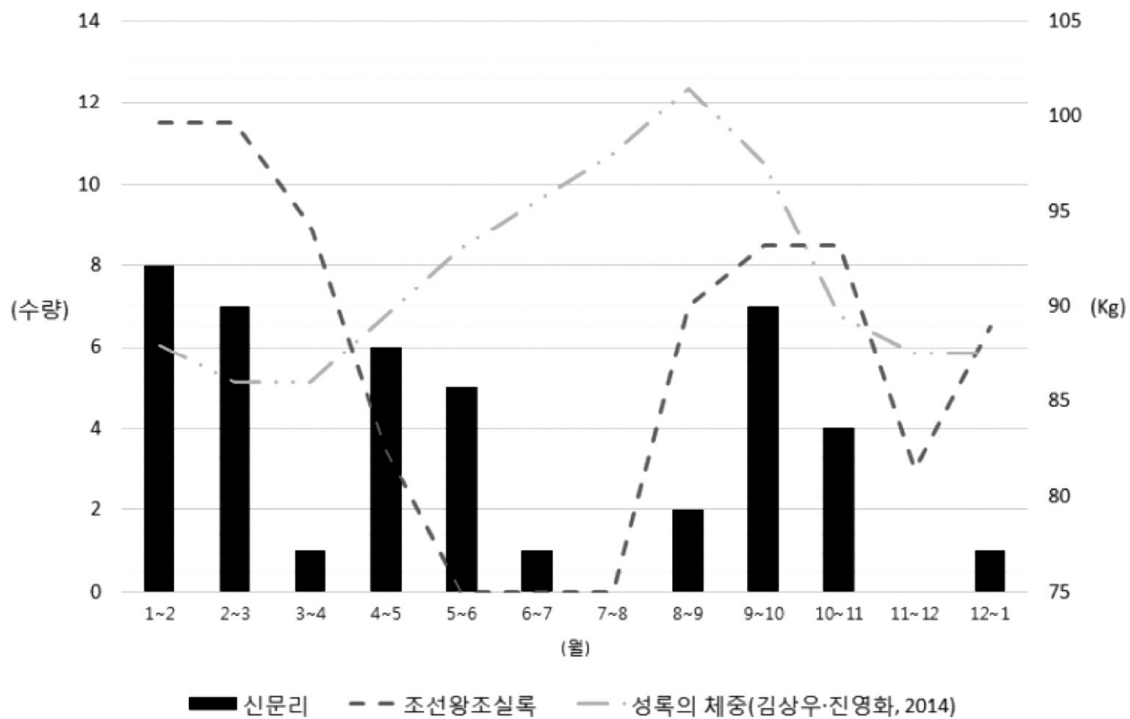
반면에 사슴의 이빨 봉출 및 교체시기를 분석기준으로 한다면 3살 이하의 사슴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수렵의 계절을 판단할 수 있다.

사슴 수렵의 계절성 분석은 신문리유적에서 출토된 하악골 42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표 6>과 같이 3살 이하의 사슴은 태어난 개월 수를 고려하면 사망한 날의 개월을 알 수 있다. 먼저 6월에 태어난 사슴은 모두 유치만을 가지고 태어난다. 같은 해 8~9월에는 M₁ 봉출 중이며, 9~10월에는 M₁ 봉출이 완료된다. 동년 8~10월에는 M₂가 봉출을 위해 치조가 열린다. 다음해 4~5월정도가 되면 M₂가 봉출중이며, 5~6월이 된다. 봉출된 M₂는 6월 이후에 마모가 이루어진다. 대구치 M₂의 봉출이 완료되면 절치가 유치에서 영구치로 교체된다. 다만 하악골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하악골 자체가 좌우가 분리되어 나오는데다가 절치는 기늘고 얇아 하악골에 남아있는 경우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후 다음해 1~2월에는 소구치가 조금씩 봉출하며, 같은 기간에 남은 M₃도 봉출 한다. M₃의 봉출은 2~3월이 되어야 완료되고 3월 이후에는 마모가 진행된다. M₃의 봉출이 완료된 시점에는 소구치의 봉출도 절반 이상이 이뤄진 상태이며, 7월이 되면 최종적으로 소구치의 봉출도 완료된다.

신문리유적에서 보이는 사슴 수렵의 계절은 가을부터 봄까지가 주요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6>은 신문리 출토 사슴의 사망계절과 문헌기록, 성록의 월별 체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먼저 신문리 유적에서 나타나는 수렵시기는인 3월·6월·7월·8월·11월·12월에는 수렵량이 적어진 것이 보인다. 다만 11월과 12월은 <표 6>에 해당되는 개월이 소구치와 대구치가 아닌 전구치에 집중되어 하악골에서 확인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월에 수렵 빈도가 적은 것도 이 개월을 대변하는 흔적이 적어 상대적으로 수렵을 안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렵의 빈도가 낮은 6월에서 8월은 사슴의 분만기로서 분만기의 사슴은 극도로 예민해져 흥분하기 쉬우므로 수렵시 위험성이 따른다. 아울러 이 시기는 삼림이 우거져 수렵에 부적절한 계절이고, 농번기 등의 이유로 수렵에 전념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이다.

6) 생업과 관련된 계절성 연구는 아래와 같다.

김건수, 1996, 「군곡리패총출토 반지락의 계절성 검토」, 『한국상고사학회』23, 한국상고사학회.
 김건수, 2001, 「군산 노래섬패총 식료자원의 계절성 검토」, 『한국신석기연구』2, 한국신석기학회.
 안덕임, 1997, 「산소동위원소법을 이용한 선사시대 조개채집의 계절성 결정에 관한 연구」, 『선사와 고대』 8, 한국고대학회.
 안덕임, 2017, 「참돔 비늘의 성장선 분석을 이용한 고남리 패총의 어로 및 점유 계절성 연구」, 『한국상고사학회』95, 한국상고사학회.
 안덕임·류동기, 2013, 「서산 대죽리 패총 출토 말백합을 이용한 패류 채집의 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29, 한국패류학회.
 안덕임·류동기, 2010, 「고남리 패총 출토 반지락을 이용한 계절성 연구」, 『한국상고사학회』69, 한국상고사학회.
 안덕임·류동기, 2016, 「인천 을왕동 패총 출토 말백합의 성장선 분석을 이용한 패류 채집의 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32, 한국패류학회.
 안덕임·이인성, 1996,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조개채집의 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12, 한국패류학회.
 안덕임·이인성, 2001,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대죽리패총 조개채집의 계절성 연구」, 『한국신석기연구』2, 한국신석기학회.
 안덕임·이인성, 2014,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당진 가곡리 패총 굴의 채집 계절 연구」, 『한국패류학회지』30, 한국패류학회.
 안덕임·이인성, 2015, 「산소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신석기시대 연대도 패총의 굴 채집 계절성 연구」, 『한국패류학회지』31, 한국패류학회.



〈도면 6〉 신문리 유적의 수렵 계절

또한 실록 기사와 같이 남획을 막아 사슴의 개체수를 유지하고자 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사슴은 단태동물로서 한 마리 새끼만 낳는 동물이다. 만약 분만 기간에 사슴을 잡는다면 사슴의 개체량은 급감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9월 이후부터는 사슴 수렵이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이 기간은 성록의 체중이 최정점에 도달한 기간이자 낙엽이 떨어지는 시기로 수풀 속에서 사슴을 발견하고 수렵할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줄 것이다. 아울러 10~12월 동안의 교미기를 이용한다면 수렵이 수월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이 기간에는 수컷의 발정기이므로 발정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슴의 위치를 찾아 수렵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준비된 녹각을 비벼 소리를 만들어내면 발정기의 사슴이 소리를 듣고 올 수 있으므로 숨어 있다가 수렵이 가능했을 것이다. 덧붙여 이 기간에는 분만이 이뤄진 뒤로 민첩하지 못하고 약한 새끼를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발정이 끝난 겨울에도 수렵이 계속 이뤄진다. 이 경우에는 사슴의 흔적을 쫓거나 동물 등을 이용해서 사슴을 수렵했을 가능성이 높다. 생산활동이 끝나고 먹을것이 떨어지는 춘궁기에 다다를수록 수렵의 비중이 생업에서 최고조로 이르렀을 것이다. 패총유적에서 사슴의 낙각이 많이 출토되는 이유도 낙각기인 이시기에 수렵활동 중 습득해서 주저리로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양상은 신문리 뿐만 아니라 낙민동유적에서도 확인되는데, 낙민동 출토 하악골 30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1~5월에 수렵이 이뤄진 것이 확인된다(조태섭, 2004).

IV. 수렵 방법에 대한 검토

사슴은 평지에서부터 고산에 이르는 삼림에 주로 살며, 먹이를 섭취할 때 외에는 삼림을 떠나지 않는다. 가야인의 수렵 대상지 역시 주거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주변 삼림이었을 것이다. 가을과 봄 사이에 행해진 가야인들의 수렵은 축적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통해 치밀하게 이뤄졌을 것이다.

사슴은 후각이 발달된 동물로서 은밀하고 조심성이 많으며, 날렵해 포획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슴을 수렵한다는 것은 인내심과 더불어 다양한 수렵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가야인의 사슴 수렵은 사슴을 직접 찾아 나서며 시작했을 것이다. 사슴이 지나는 길, 서식지, 좋아하는 먹이, 사슴의 발자국, 굽아먹은 흔적 등을 쫓아 사슴을 추적했을 것이다. 특히 사슴은 먹이자원이 풍부한 봄, 여름보다는 먹이가 부족한 가을, 겨울에 더 많이 이동하는데(진기정, 2013), 사슴의 활동량이 왕성할수록 외부 노출을 통한 포획물의 수렵이 더 용이했을 것이다.

사슴을 직접 찾기 힘들다면 은닉처를 만들어 기다리는 방법을 통해 사슴을 사냥했을 것이다. 이 경우 막연히 은닉처에 숨어 사슴이 오기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먹이, 사슴 오줌, 사슴 뽕 소리 등을 이용해 사슴을 유인하였을 것이다. 사슴의 습성을 이용한 방법은 대체로 번식기의 사슴에게 주요하게 이용되었는데, 특히 암사슴의 오줌냄새는 수사슴을 끌어당기는데 효과적이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슴뽕을 부딪쳐 내는 소리는 수사슴을 유인하는데 효과가 좋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도 사슴의 유인이 어렵다면 동물을 이용한 수렵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물을 이용한 수렵법은 곽종철(2003), 유병일(2003)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이 방법은 동물과 함께 공조하여 사슴을 포획하는 것으로 사람보다 앞서 나가 사슴 등을 어느 한 장소에 머물게 한 후 사람이 포획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수렵법은 최근에도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개를 이용한 수렵의 예는 창원 가음정동패총 패각층(II층)에서 개의 왼쪽 경골 중간부분이 부러진 후 다시 붙은 뼈를 통해 짐작 가능하다(유병일, 2003). 또한 『삼국사기』김후직전의⁷⁾에는 매와 사냥개를 이용해 수렵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경주 쪽샘 44호에서 출토된 신라 행렬도가 새겨진 토기에서 동물을 이용한 수렵의 예를 찾아 볼 수 있는데, 말을 탄 주인공 앞의 개가 함께 수렵을 나가는 모습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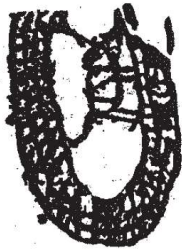
이렇듯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하면 가야지역 사슴 수렵의 다음의 몇 가지로 추정된다. 먼저 사슴의 수렵은 가을부터 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여름에 수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분만기인 사슴의 활동량이 적고 삼림이 우거져 수렵에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생업인 1차산업은 계절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 주력하는 산업이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여름에는 수렵보다는 농경, 채집 등의 생업이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성숙(性成熟)이 이뤄지고 성장한 사슴을 대상으로 주된 수렵이 이뤄졌으며, 이러한 양상은 남획 및 개체수 유지 등과는 무관하게 포식자로서 무분별한 수렵을 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유적에서 확인되는 동물자료가 그다지 많지 않은 점과 사냥도구 및 사냥기술의 발전이 지금과 같지 못한 점을 미루어 보면 수렵으로 사슴 개체수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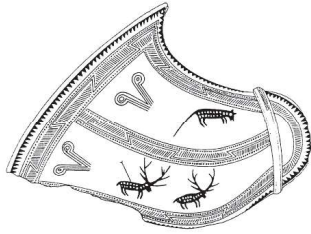
7) 『三國史記』卷第四十五 列傳 第五

大王頗好田獵，后稷諫曰，“古之王者，必一日萬機，深思遠慮，左右正士容受直諫，孳孳矻矻，不敢逸豫，然後德政醇美，國家可保。今殿下，日與狂夫獵土，放鷹犬逐雉兔，奔馳山野，不能自止。老子曰，‘馳騁日獵，令人心狂。’書曰，‘內作色荒，外作禽荒，有一于此，未或不亡。’由是觀之，內則蕩心，外則亡國，不可不省也。殿下其念之。”王不從。又切諫，不見聽。

사냥의 방법은 강력한 철제무기의 도입과 궁시법의 발전으로 사냥의 성공률이 더 높아 졌을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수렵의 성공을 위해 개와 같이 동물을 이용해 수렵이 이뤄졌으며, 그 시기는 발정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춘궁기인 봄까지 줄곧 이루어졌다. 특히 겨울에 이뤄진 수렵은 주된 생업활동이 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행해졌으며 이 기간에 삼림에서 습득된 녹각 등은 유적으로 반입되어 골각기의 재료로서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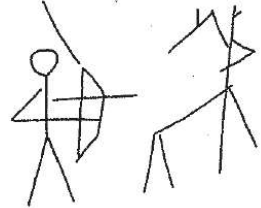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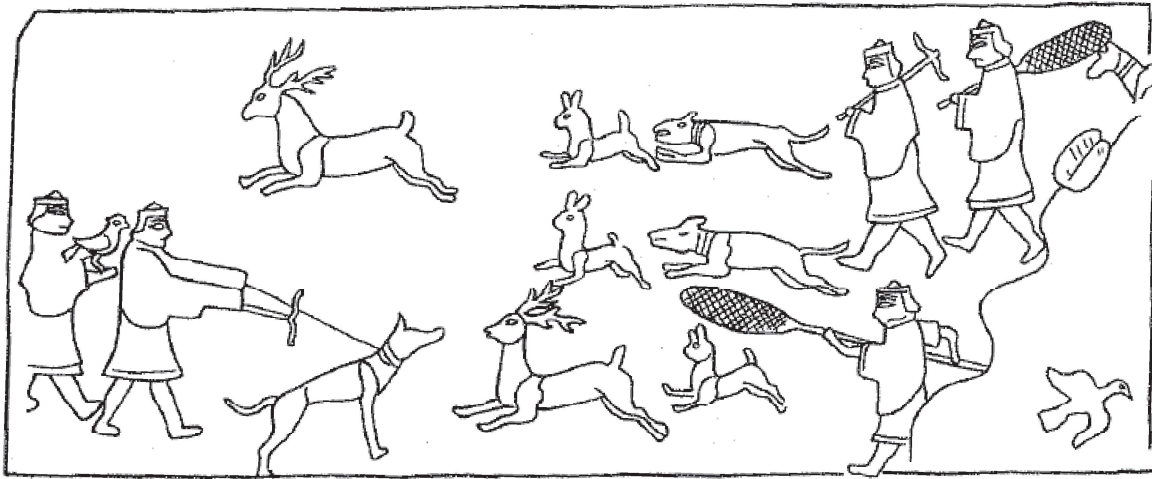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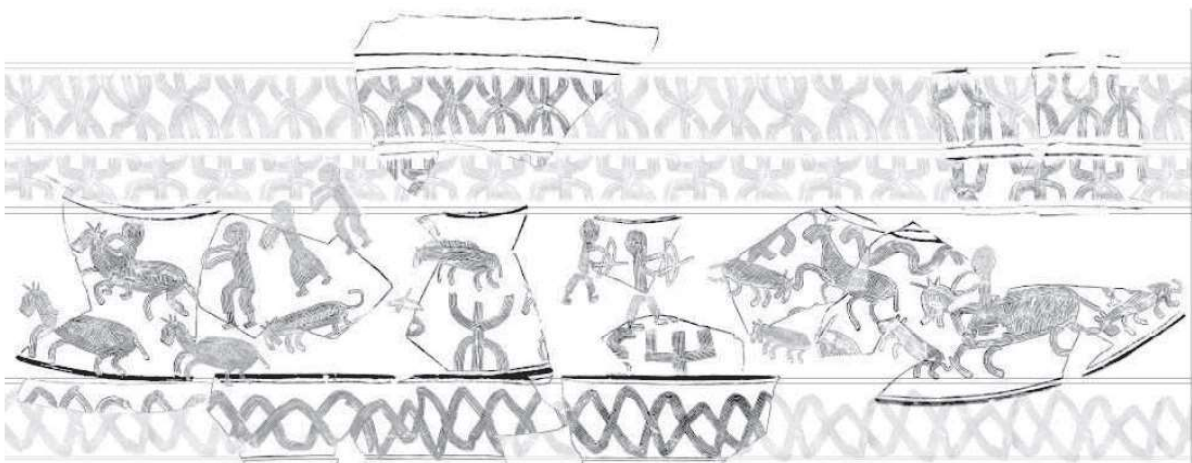
3



4



5



6

<도면 7> 사슴의 수렵방법

(1: 반구대암각화, 2: 傳경주출토 건감형 동기, 3: 水內古墳, 4: 塚山西古墳, 5: 嘉祥縣蔡氏園, 6: 쪽샘44호분출토 신라행렬도 토기)

V. 맺음말

사슴은 구석기시대부터 중요한 수렵대상이었다. 가야지역에는 많은 양의 사슴 유존체가 패총과 저습지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 사슴 자료를 단순히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남긴 중요한 생업활동의 단서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즉 수렵의 대상물인 사슴은 가야인의 의복 재료, 단백질공급원, 도구의 재료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특히 바다와 함께 생활한 가야인의 일면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수렵과 관련된 사슴 자료는 유적에서 남아있는 분석 가능 부위를 고려해 이뤄지는데, 이 글에서는 연령과 계절분석을 위해 사슴의 하악골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슴의 하악골은 분석개체수가 가장 많은 신문리패총의 하악골 122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분석은 치아의 마모도를 통해 사슴의 사망 연령을 추정했다. 출토된 이빨의 마모도를 경우의 수에 따라 도식화해 분류한 뒤 大泰司(1980)의 분석결과를 참고해 전체 연령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사슴의 연령분포는 성성숙(性成熟)이 이뤄진 개체를 대상으로 분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사슴의 수렵 계절을 파악하기 위해 3살 이전의 하악골을 대상으로 계절을 추론하였다. 이빨 봉출 시기를 고려해 판단한 결과 가을부터 봄까지 수렵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의 기사를 분석한 계절별 수렵시기와도 유사했다.

마지막으로 앞선 자료를 기초로 사슴의 수렵 방법을 고찰하였다. 사슴의 수렵은 발정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이뤄졌고, 주생업이 수렵에 집중될 수 있는 겨울과 봄 동안에도 줄곧 이뤄졌다. 아울러 이러한 수렵은 도식자료와 문헌자료를 고찰해서 살펴 본 결과, 궁시법과 동물을 매개로 이용해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이뤄졌다.

다만 가야인의 사슴 수렵은 사슴 연령에 국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어리고 늙은 개체도 수렵되는데서 확인이 가능하다. 다만 성성숙(性成熟)이 이뤄진 개체의 수렵 비중이 높은 것은 사슴의 습성 및 행태를 습득한 가야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추정된다.

끝으로 이 글에서 논의한 사슴의 수렵과 관련된 내용은 치아를 끊임없이 관찰한 과정의 연속이었다. 동물고고학의 있어서 계량과 수치 자료를 다루는 모든 과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데이터를 산출하고 비교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일련의 결과가 오류가 없는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삼국사기』

『조선왕조실록』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한겨레문화재단연구원, 2015, 『金海 新文里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2009, 『金海會峴里貝塚 I·II』.

中央文化財研究院, 2004, 『東萊 樂民洞 貝塚』.

國立中央博物館, 1998, 『東萊樂民洞貝塚』.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4, 『金海 會峴洞 消防道路 區間 內 遺蹟』.

경상문화재단연구원, 2018, 『부산 낙민동 100번지 유적』.

정관박물관, 2017, 『동물뼈, 이야기를 시작하다』.

곽종철, 2003, 「가야의 생업」, 『가야 고고학의 새로운 조명』, 해안.

김상우·진영화, 2014, 『사슴기르기』, 농촌진흥청.

김태홍, 1997, 「우리나라 사슴고기와 노루고기 調理法の 歴史的 考察」, 『한국식생활학회지』 vol.12 No.3, 한국식생활 문화학회.

이준정, 2003, 「동물자료를 통한 유적 성격의 연구」, 『한국고고학보』 50집, 한국고고학회.

유병일, 2003, 「사슴(鹿)의 捕獲·解體·利用에 대한 試論」, 『嶺南考古學』 33號, 嶺南考古學會.

진기정, 2013, 「국내 도심지 숲에 방사된 꽃사슴 모니터링을 통한 행동양식 및 서식지 특성분석 연구」, 『환경생물학 회지』 31(4), 한국환경생물학회.

조태섭, 2004, 「동래 낙민동 건물 신축부지 발굴 동물뼈의 분석 연구」, 『東萊 樂民洞 貝塚』, 中央文化財研究院.

山崎 健, 2012, 「動物遺存体の形成過程をめぐる民族考古學と實驗考古學」, 『動物考古學』29, 動物考古學研究會

小池裕子, 1992, 「生業動態からみた先史時代のニホンジカ狩獵につい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第42集, 國立歷史民俗博物館.

加藤九祚, 1986, 『北東アジア民族學史の研究』, 東京.

松井 章, 2008, 『動物考古學』, 京都大學學術出版會.

大泰司紀之, 1980, 「遺跡出土ニホンジカの下顎骨による性別·年齡·死亡季節査定法」, 『考古學と自然科學』13.

林巳奈夫, 2009, 『中國古代の 生活史』, 吉川弘文館.

Simon J.M. Davis(역 이선복), 2014, 『동물고고학 입문』, 사회평론.

Colin Renfrew·Paul Bahn, (역 이희준), 2006, 『현대 고고학의 이해』, 사회평론.



04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

이하얀 » 부경대학교 사학과

-
- I. 머리말
 - II. 해양 활동이 남기는 흔적
 - III. 해양성 식생활을 담은 흔적
 - IV. 인골로 복원하는 해양문화
 - V. 맺음말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

이하얀(부경대학교 사학과)

I. 머리말

유적에서 출토되는 고인골은 형질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점차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며 성별, 나이, 키와 같은 정보를 넘어서 개인의 일생에 대한 복원이 시도되고 있다. 뼈대에 남겨진 여러 흔적은 개인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얻어진 경험이다. 일회성이나 단기적인 활동이 아닌,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활동들은 신체에 축적되며 특징적인 형태를 남기게 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선사, 고대사회 집단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이전에는 고고학에서 과거 집단의 모습은 유물이나 유구, 유적들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복원하였으나, 집단 내의 세밀한 모습이나 특정 개인의 일생 전반에 걸친 모습에 대한 접근에는 한계가 있었다.

뼈대의 형태적 특징이나 병변의 발생, 그리고 뼈 안에 남겨진 동위원소들을 분석하여 생전에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고, 어떠한 질환에 노출되어 있었는지, 어떠한 식료들을 먹었는지 등에 대하여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의 사회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등장하고 변화했으나, 가장 오랜 기간, 많은 지역에서 비교적 공통으로 영위한 생업 방식인 수렵, 채집, 어로, 농경 활동은 국지적인 접근을 넘어서 인류사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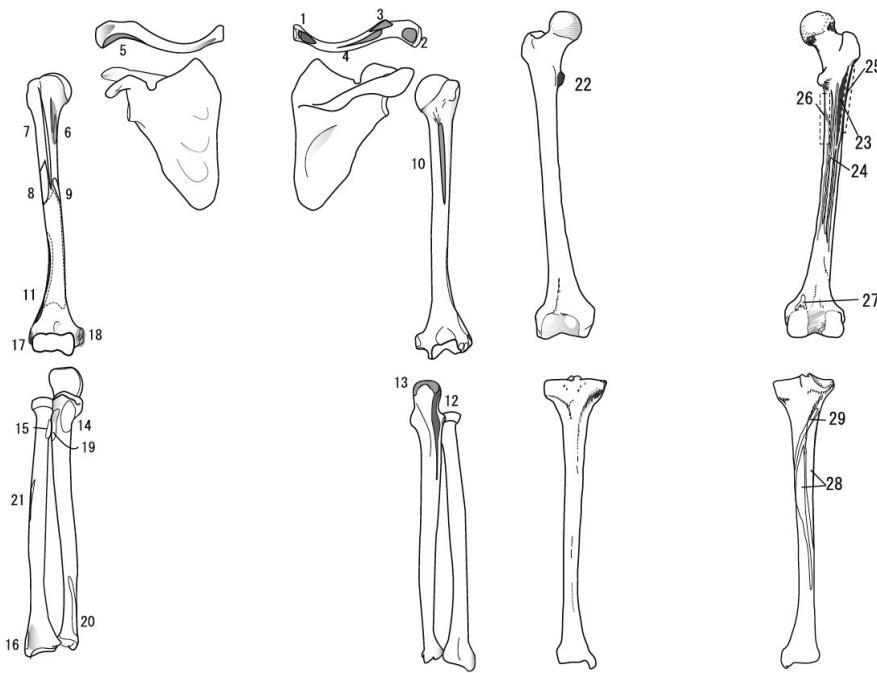
인류는 지구의 70%에 해당하는 바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선사시대부터 관련된 유물들은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 사람들이 바다를 활용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적의 형태나 선박과 같은 구조물 혹은 출토된 유물의 내용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대상자를 직접 분석하면 그들이 해양을 얼마만큼 이용하고, 어떤 것을 획득하여 섭취하였고, 어떠한 작업을 하였으며, 나아가 그들이 어디 출신인지와 같은 질문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고인골 자료를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는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모습에 관하여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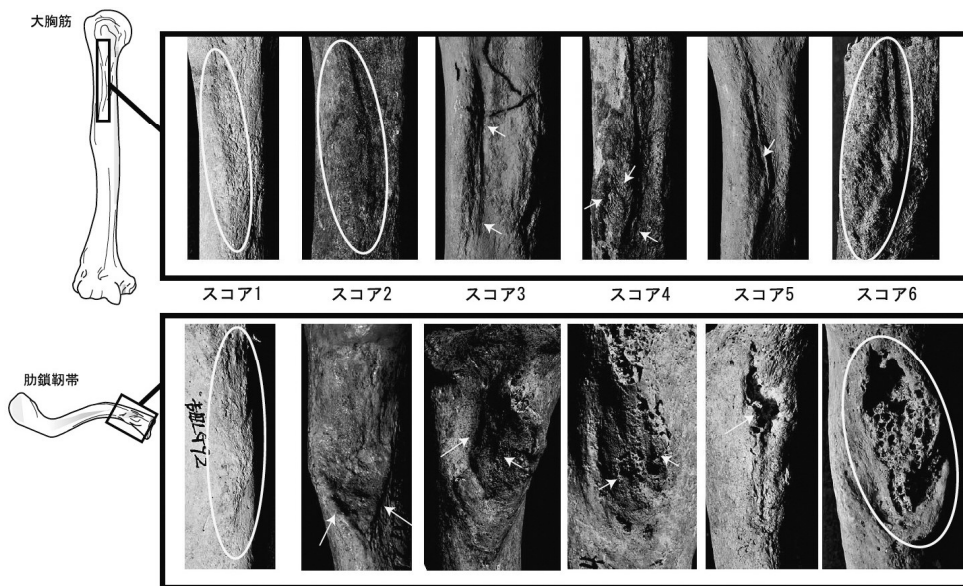
II. 해양 활동이 남기는 흔적

1. 근골격 stress marker (M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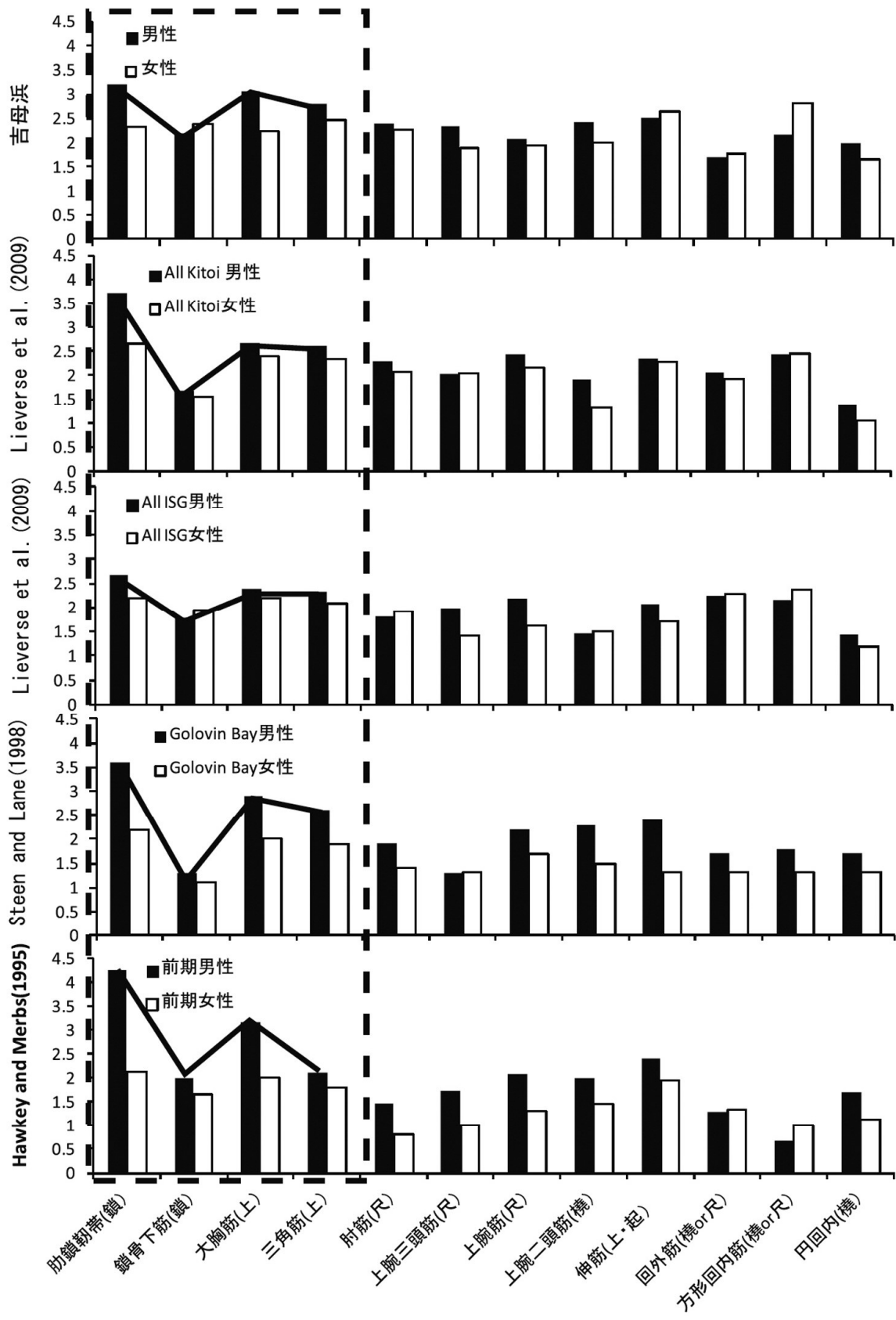
사람의 뼈대를 유지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다양한 근육과 인대, 힘줄이다. 이들 조직은 골격의 여러 부위에 부착되어 자세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특정한 동작을 가능하게 한다. 이 조직이 부착된 부분을 근부착부로 통칭하는데, 특정 부위의 사용이나 부하가 클수록 이에 대응하여 근부착면의 조면(粗面) 변이가 심화된다. 이처럼 근육, 인대, 힘줄같은 조직이 뼈대에 부착되어 흔적을 형성하는 것을 근골격 스트레스 마커(musculoskeletal stress marker -MSM-)라고 부른다.



〈도면 1〉
MSM를 평가하는 부위
(米元 2012)



〈도면 2〉
MSM의 발달 정도에
따른 단계 변화양상
(米元 2012)



〈도면 3〉 어로집단의 MSM 패턴 비교(朱元 2012)

특정 직업이나 계층집단 혹은 선사집단에 따라 현저하게 발달하는 근부착부가 존재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MSM은 전신 근부착부의 발달 정도를 평가하여 신체 사용방식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米元의 연구를 참고하면, 선행연구성과에서 어로 활동을 집중적으로 하는 집단은 늑쇄인대(〈도면 1〉의 1번 부위)의 스코어가 가장 높고, 대흉근과 삼각근(〈도면 1〉의 7번과 8번)의 값이 다음으로 높았는데, 특히 늑쇄인대의 발달은 노를 저을 때 관절의 급속적이고 반복적인 회선(回旋)운동으로 증진된다. 그리고 대흉근과 삼각근은 노를 저을 때 상완을 굽히거나 내전(內轉) 동작 그리고 수중에 노를 원래의 위치로 돌릴 때 상완의 외전(外轉)이나 측방으로 회선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발달 정도가 강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에 이용된 일본의 중세 유적인 吉母浜유적은 주업을 어로로 삼고, 부업으로 농경 활동을 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은 선행연구 결과처럼 어로와 관련된 활동 부위로 분류하는 부위의 강한 발달이 확인되었으나, 여성에서는 해당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다(米元 2012).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생업활동에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여성에게 발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위는 전완으로 확인되므로 해상에서의 활동보다는 육상에서 그물망의 손질이나 가사 및 농경 작업 등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瀧川의 연구에서도 어로, 수렵 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홋카이도 죠몬 시대 남성 집단은 대흉근, 삼각근, 광배근 등에서 높은 MSM 스코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작살 던지기나 노 젓는 행위의 지속적인 반복의 산물로 추정하였다(瀧川 2015).

반면에 일본의 중세 농민과 야요이시대 북부큐슈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농경 활동에 대한 특징을 참고하면, 어로 수렵 활동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MSM의 스코어가 제시되어 있다. 농경구의 사용에 상대적으로 근육에 큰 부하가 걸리지 않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근부착부의 발달이 강하지 않은 상지골과 달리, 하지골에서는 발달된 부위가 다수 확인이 되어서 농경 작업에 하지의 근육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米元 2012, 瀧川 2015).

2. 변형성관절증

인체를 구성하는 뼈는 단일의 구조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 형태와 부분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연결되는 뼈들 사이에는 움직임에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관절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관절에는 연골이 형성되어 보다 부드럽고 안전한 움직임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연골과 주변 조직의 기능이 저하되면, 관절면의 마찰은 증가하게 되면서 해당 부위의 부담은 증가되어 이상(異常)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병변을 통칭하여 변형성관절증으로 표현하는데, 관절연골의 변성과 연골하골의 골 변화가 발생하여 진행되면, 해당 부위의 파괴와 변형을 야기하는 변성 관절질환으로 병리학적으로는 마모와 증식이 혼재되는 것이 특징인 만성적이고 진행성의 비염증성관절 질환으로 정의할 수 있다(石田 외 2011). 대표적으로 발현하는 부위는 척추,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이다.

변형성관절증의 요인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노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상이나 유전적 요인, 그리고 생활방식의 역학적 스트레스도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근거하여 오랜 기간 연구자들은 생업 방식이 특정 관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주목하였고, 수렵채집, 농경 등과 같은 선사 집단의 생업 방식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현대인과 비교하면 선사, 고대사회에서 생업활동은 상당한 육체적 노동이 동반되었고, 이는 관절에도 부하를 주어 변형성관절증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石田들의 연구에서는 해양포유류와 어로를 생업으로 한 집단은 요추의 척추 추체와 추간관절에 중증의 변형성관절증 발생빈도가 높았다. 이는 배를 젓는(rowing, paddling) 동작, 그물을 던져 올리는 동작 등을 할 때, 허리를 강하게 굽혔다 펴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요추에 골극(골증식) 발생이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사지골의 변형성관절증은 팔꿈치관절, 어깨관절, 무릎관절에서 중증의 변형이 확인되었는데,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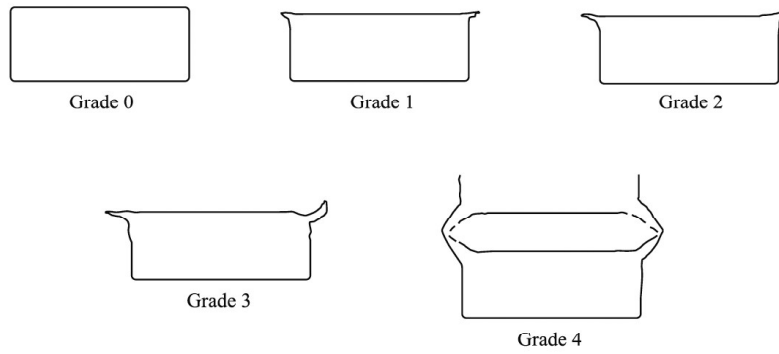


Figure 2. Progressive stages of osteophytes on the body of vertebrae. Grade 0: normal condition; Grade 1: horizontal growth; Grade 2: growth in vertical direction; Grade 3: significant growth in vertical direction; Grade 4: bridging with adjacent vertebrae. Redrawn from Rogers (1966) and Wada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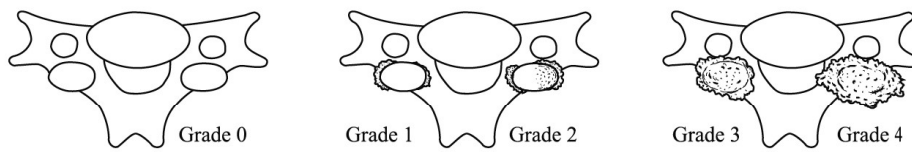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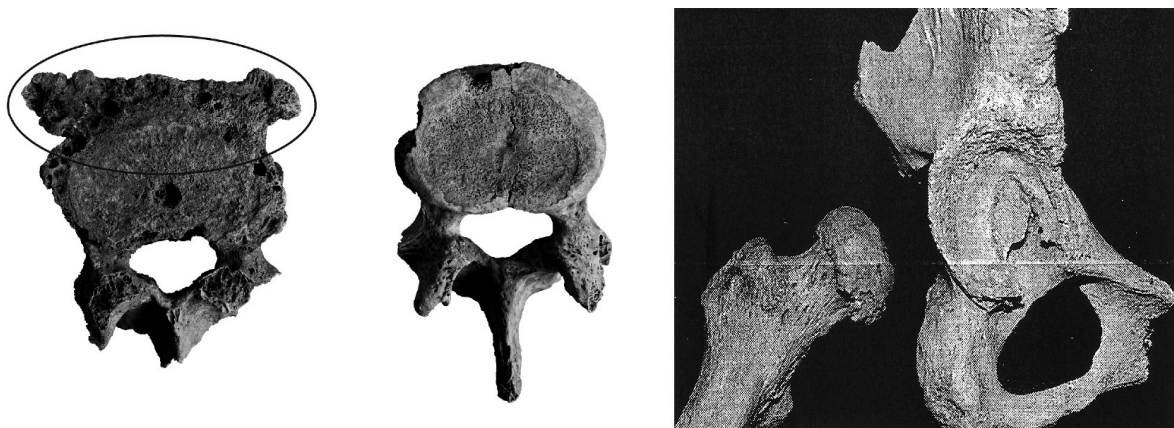


Figure 3. Progressive stages of degenerative change of apophyseal joint surface. Grade 0: normal condition; Grade 1: osteophyte growing on the rim of articular surface without pitting; Grade 2: osteophyte growing on the rim of articular surface with lipping and slight pitting; Grade 3: osteophyte growing all around the rim of articular surface with moderate pitting; Grade 4: osteophyte significantly growing with severe pitting and unclear rim. Redrawn from Higuchi (1983).

〈도면 4〉 변형성척추관절증의 변화 단계(Y.Shimoda et al. 2012)

당 집단에서 여성이 팔꿈치와 무릎관절에 높은 빈도로 발생한 것에 반하여, 남성은 어깨와 팔꿈치관절에서 높은 빈도가 확인되었다(石田 외 2013). 이러한 결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강하게 상체를 사용하는 활동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앞서 척추의 변형에서 유추한 것처럼 어로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하여 중증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5〉 변형성관절증 흔적1(좌-국립김해박물관 2015, 우-鈴木 他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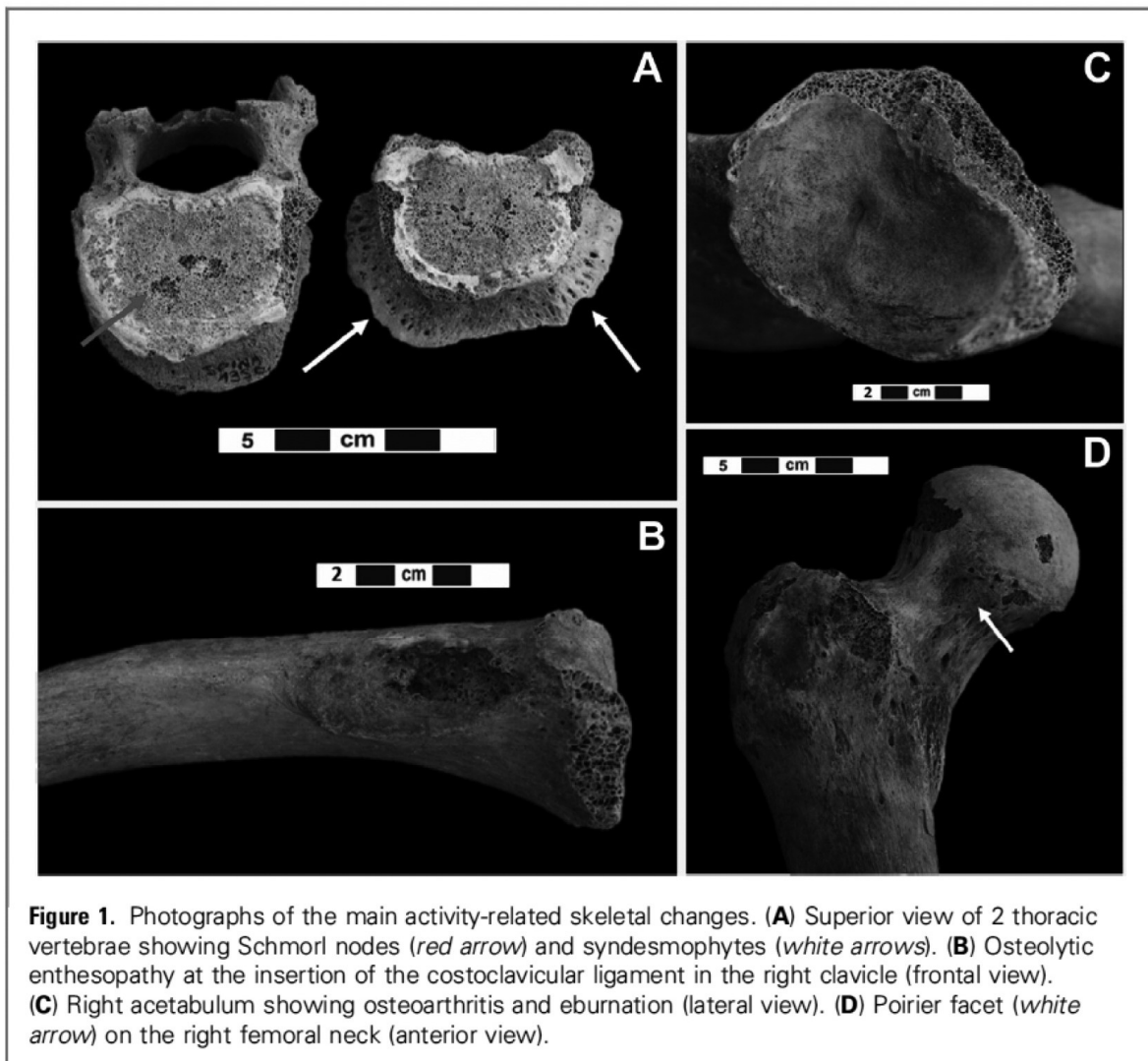


Figure 1. Photographs of the main activity-related skeletal changes. **(A)** Superior view of 2 thoracic vertebrae showing Schmorl nodes (red arrow) and syndesmophytes (white arrows). **(B)** Osteolytic enthesopathy at the insertion of the costoclavicular ligament in the right clavicle (frontal view). **(C)** Right acetabulum showing osteoarthritis and eburnation (lateral view). **(D)** Poirier facet (white arrow) on the right femoral neck (anterior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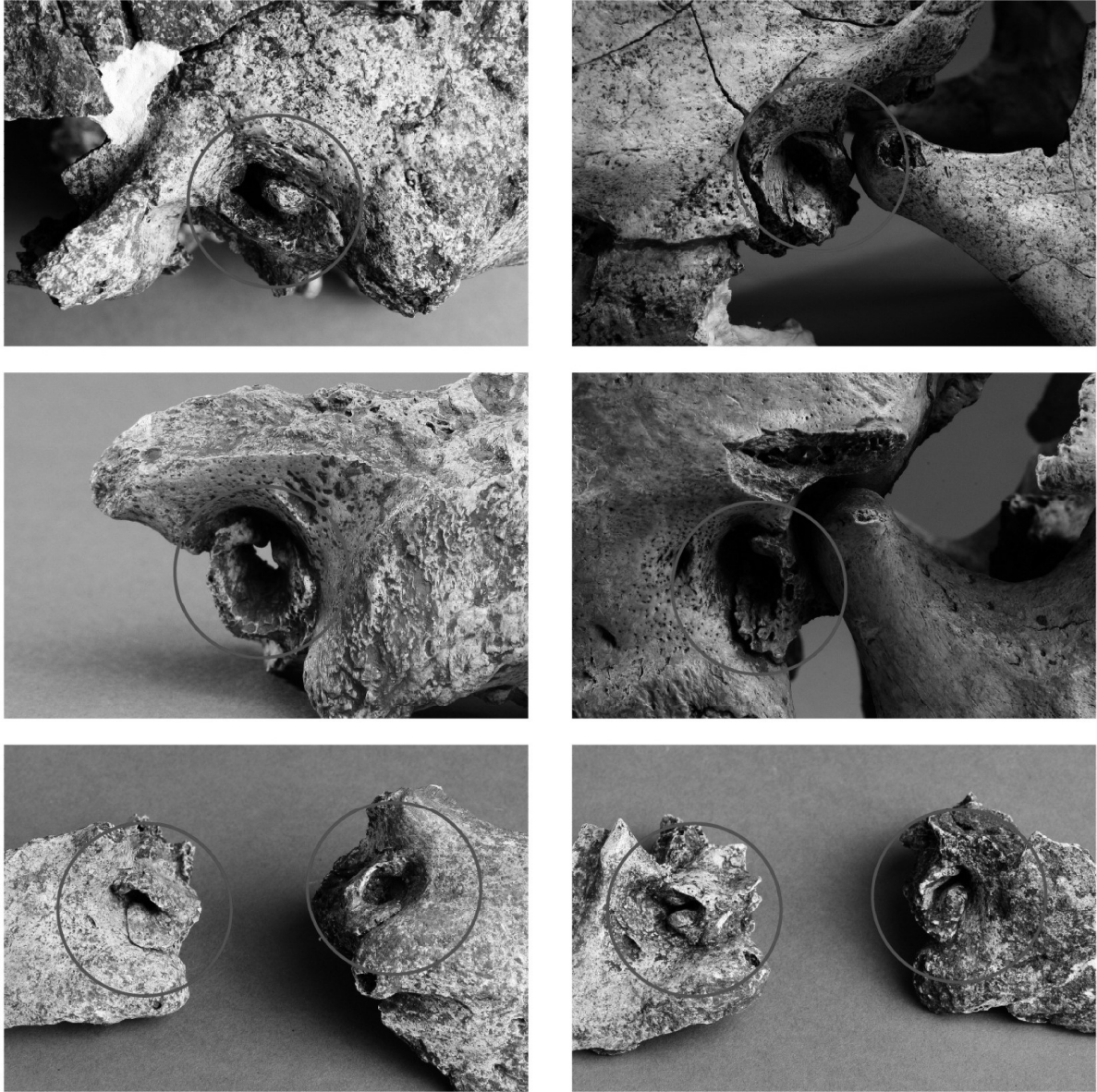
<도면 6> 변형성관절증 흔적2(E. Gualdi-Russo et al. 2020)

3. 외이도골종

귀의 내측부인 외이도에 이상적으로 뼈가 융기되어 자라나는 것을 외이도골종이라 부른다. 외이도골종은 발병이 진행되면 결국에는 외이도를 좁게 만들다가 폐쇄에 이르게 된다. 기본적으로 양성 골성 종양이기 때문에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폐쇄된 외이도 내부에 귀지가 쌓이거나 염증이 발생하여 주변 부위에 추가적인 병증을 발생시킬 위험도 존재하고, 난청이나 이명 등으로 청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변이다.

이러한 외이도골종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유전이나 외상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연구 성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귀에 냉수 마찰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吉岡에 의하면 대략 15~19℃의 수온에서 장기간 활동하게 될 경우 외이도골종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며, 냉수에서 활동하는 시간과 빈도에 비례하여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직업군인 잠수부나 해녀, 그리고 서퍼와 같은 수상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외이도골종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현대 사례 중에서 외이도골종이 나타난 대상 중에 수영선수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수중활동이 장

시간이루어질수록 발병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죠몬시대 고인골에서는 대략 15~20%에 이르는 비율로 외이도골종이 확인되었다(吉岡 1994).



〈도면 7〉 외이도골종 발생사례(국립김해박물관 2015)

외이도골종은 인종, 성별에 따른 발생빈도의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낮은 수온이 형성되는 중위도 이상의 해수역권에서 주로 확인되며, 해양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심대 이전의 개체에서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염증이나 외상에 의해서 외이도골종이 드물게 발생하여도 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 편 측에만 외이도골종이 발생하는 것에 반하여, 해양활동에 근거한 냉수 자극에 따른 발생 시에는 대칭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 있다.

〈표 1〉 외이도골종이 발생한 수영선수(吉岡 1994)

報告書	外骨腫	泳者
Van Gilse 1936, 1938	205	188
Hlaváčěck 1941	24	24
van den Wildenberg 1947	2	2
Adams 1949, 1951	28	28
Harrison 1951, 1962	60	60
Guerrier et al. 1966	17	14
Bremond et al. 1968	11	9
DiBartolomeo 1979	50	50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외이도골종의 흔적이 발생한 고인골에 대한 해석은 잠수나 어로 활동에 활발히 종사한 삶의 흔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조사된 다수의 유적에서 외이도골종이 확인된 대표적인 유적은 대부분이 해안가 혹은 섬에 위치한 신석기시대 유적들이다(〈표 2〉). 따라서 신석기시대에 해양활동이 매우 본격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위되었음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표 2〉 외이도골종이 확인된 인골

유구번호	가덕도장항유적				안도패총		연대도패총					육지도패총
	1호	2호	14호	38호	1호	3호	2-A호	5호	7호	9호	10호	2호
성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연령	숙년	숙년	노년	숙년	성년	성년	숙년	성년	성년	숙년	성년	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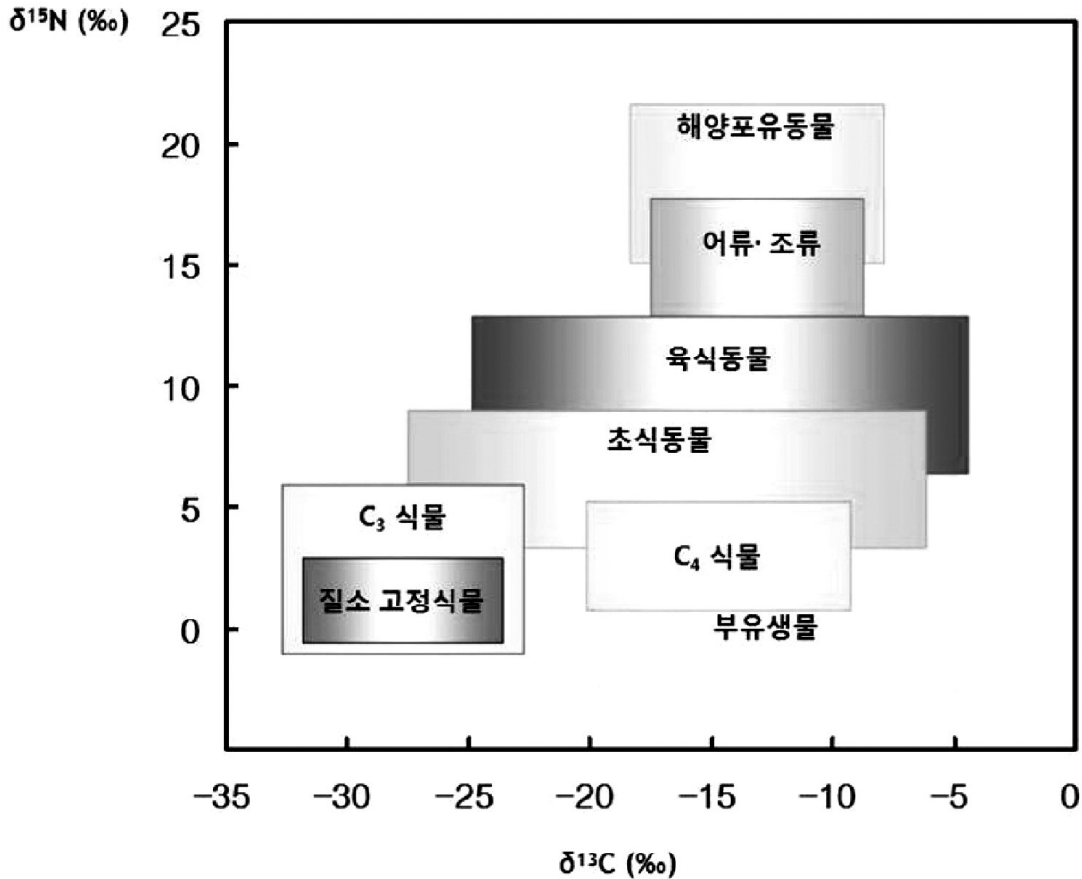
III. 해양성 식생활을 담은 흔적

인골의 콜라겐에 남겨진 안정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사망 전 10년 동안 이루어진 주된 섭취물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한반도 선사, 고대사회의 식생활 파악을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인골에서부터 삼국시대 고분 출토 인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집단의 식생활 분석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대략적인 식생활의 특징적인 모습을 복원할 수 있다.

안정 동위원소 분석 중에서 식생활 복원에 이용되는 원소는 탄소와 질소이다. 탄소의 경우, 주로 섭취한 식물군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C₃식물과 C₄식물을 구분할 수 있다. C₄식물은 옥수수나 조, 기장과 같은 잡곡 종류가 해당하고, C₃식물은 C₄식물을 제외한 식물 대부분이 해당한다. 현재 한국인의 주식인 쌀도 C₃에 속한다. 이들의 동위원소값은 C₃식물이 -22~-38‰, C₄식물이 -9~-21‰의 값을 가지고 있다. 질소는 육식성과 채식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데, 먹이사슬이 상승함에 따라 질소의 동위원소값 또한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당 개체의 주된 섭취물에 대한 추정 이 이루어진다. 특히 질소동위원소는 먹이사슬이 한 단계 상승할 때마다, 3~5‰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해

당 값을 고려하여 인골의 분석값이 어느 생물군을 주된 섭취군으로 삼았는지 추정하게 된다(안덕임 2011).

분석된 다양한 유적 중에서 해양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례는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을 들 수 있다. 해빙기에 돌입하며 활발한 어로 활동 등을 이어나간 신석기시대인들의 삶은 해양과 밀접한 생활을 했음을 다양한 고고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일상적인 식생활 또한 그러한 환경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루어진 조사 결과들은 이러한 예측을 반영하는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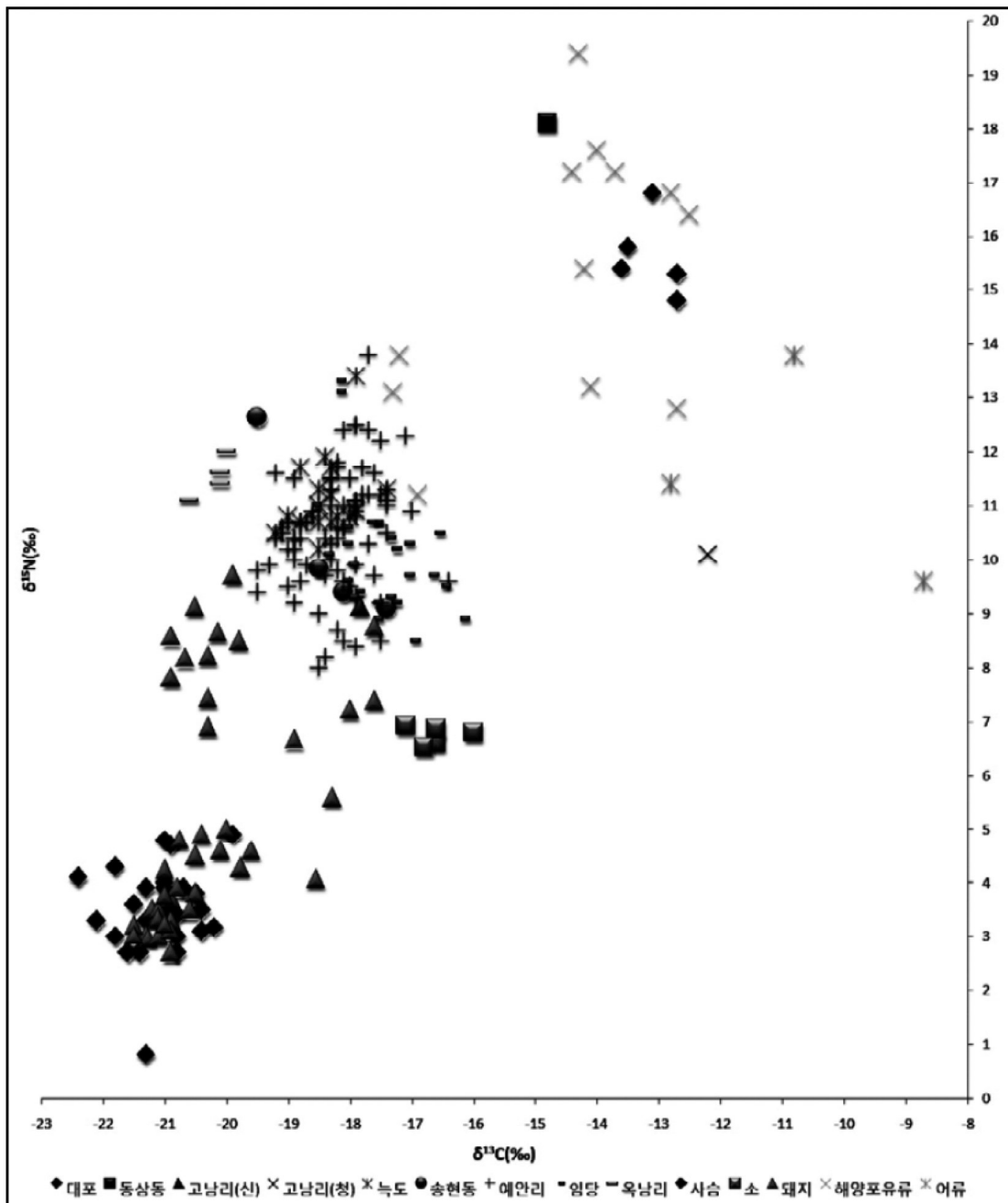
〈도면 8〉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신지영 2015)

부산 가덕도 장항유적(신지영 외 2013), 부산 동삼동패총(choy et al. 2010), 거제 대포패총(김현석 2010), 여수 안도패총(choy et al. 2012), 태안 고남리패총(안덕임 2006), 서산 대죽리패총(안덕임 2011) 등을 들 수 있다. 유적들은 신석기시대 전기에서 후기까지 한반도 남해안과 서해안에 조성된 곳으로 인골이 출토되어 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유적의 탄소, 질소 동위원소의 평균값은 아래의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하면, 장항유적과 동삼동패총은 매우 유사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비교적 높은 탄소동위원소 값에 높은 질소동위원소 값이 확인되는데, 반면에 서해안에 위치하는 고남리패총과 대죽리패총의 질소동위원소 값은 상당히 낮다. 이를 통해서 부산의 장항유적과 동삼동패총에 매장된 선사인들은 활발히 해양성 식료를 섭취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으며, 고남리패총과 대죽리패총인들은 상대적으로 해양성 식료의 섭취 비중이 낮았으며, 주로 육상의 식재료를 섭취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도면 9〉를 보면 동삼동패총과 해양포유류의 값이 비슷한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류를 주로 섭취하던 강치와 유사하게 해양 어류 섭취 빈도가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적에서 조사된 동물뼈 중에는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육상동물도 확인되었으므로 해양성 식료를 주로

〈표 3〉 한국 출토 고인골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의 유적별 평균값

	부산장항 유적 ¹⁾	부산동삼동 패총 ²⁾	거제대포 패총 ³⁾	여수안도 패총 ⁴⁾	태안고남리 패총 ⁵⁾	서산대죽리 패총 ⁶⁾	사천늑도 패총 ⁷⁾	김해예안리 고분군 ⁸⁾	경산임당 고분군 ⁹⁾
^{13}C	-14.5	-14.8	-13.1	-13.5	-17.8	-15.4	-18.3	-18.2	-17.5
^{15}N	17.4	18.1	15.6	15.2	9.1	10.6	11.2	10.5	10.3
n	10	1	2	5	1	1	15	80	18

1) 신지영 외 2013, 2) choy et al. 2010a, 3) 김현석 2010, 4) choy et al. 2012, 5) 안덕임 2006, 6) 안덕임 2011, 7) choy et al. 2009, 8) choy et al. 2010b, 9) 신지영 외 2009



〈도면 9〉 한반도 유적 출토 인골 및 동물유존체의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값 분포 (이준정 2011)

섭취하며 다른 동물성 단백질 및 식물군을 섭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해안과 남해안의 안정동위원소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 대해서 안덕임은 연중 패총지역에 머물며 어로활동을 하던 남해안 선사인들에 반하여 서해안 선사인들은 특정 계절 혹은 일정 기간에만 패총지역에 머무르며 해양성 식료보다 C₃식물 섭취에 치중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유추하였다(안덕임 2006).

가야의 대표 유적 중 하나인 예안리고분군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는데, 해당 값은 남해안 패총 출토 인골들과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인 개체의 평균값을 보면, 탄소 -18.2‰, 질소 10.5‰로 고남리패총과 유사하며, 비슷한 시기의 임당고분군의 분석값과도 유사하다. 이를 보면, 삼국시대 예안리, 임당 및 고남리패총인은 해양성 식료보다는 육상 식료에 대한 비중이 높았으며, 육상동물이나 여러 곡물을 중점적으로 섭취했음을 알 수 있다. 고남리패총을 제외하고, 예안리고분군이나 임당고분군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신석기시대 유적들과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구조 또한 다르다. 더욱이 입지적으로 보더라도 해안가에 접해있거나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신석기시대 유적들과는 다르다. 사회적, 환경적 차이가 두 시대의 유적들의 식생활 모습에 큰 차이를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이러한 섭취물에 대한 대략적인 파악을 통하여 주된 식생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재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활동이 연계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특히 계급화가 고착되어 각자의 사회적 역할이 고정되기 이전의 사회일수록, 일상적인 섭취물은 개인 혹은 집단의 직접적인 행위의 결과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IV. 인골로 복원하는 해양문화

인간의 행위는 신체에 크고 작은 흔적을 남긴다. 특히 일상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높은 강도의 활동일수록 강하고 큰 흔적을 남길 확률이 높아진다. 특정한 활동은 반복되는 움직임에 따라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부하가 축적되어 stress marker를 남기기도 하고, 병변으로 진행되어 형태적 변이도 만들어낸다. 이에 착안하여 많은 연구자가 고인골에 대하여 생전의 활동이나 생업을 복원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생업활동의 모습인 수렵, 채집, 어로, 농경들의 패턴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는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생활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농경문화의 정착이었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더 넓고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어로 활동에 대한 관심도 높다. 해빙기로 접어든 이후 접근성이 높아진 수중환경은 세계 각지에서 신석기시대 이후 관련 활동들이 증가하였고, 당연히 고고 유적과 유물을 통해 많은 흔적들이 알려져 있다. 그중에서도 바다는 무한에 가까운 식재료를 공급하기도 하고, 바다를 통해 멀리 떨어진 다른 대륙으로의 이동도 이루어진다. 문화 확장의 배경으로서 바다의 이용은 오랜 기간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이었고, 불안정한 식생활의 전체 혹은 일부를 담당하는 요소이기도 하였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변 환경을 이용하고, 정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육체적인 활동이 동반되었다. 육지나 해양의 식재료 관계없이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오랜 시간 조상의 지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도전적으로 환경을 개척해 나갔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발전적인 도구들이 만들어졌으며, 그러한 도구를 이용하여 바다 혹은 강으로 나아가 파도와 싸우며 다양한 해양 생물들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해양에서 최선을 다해 획득한 수확물은 고향으로 가지고 돌아와 가족 혹은

공동체 구성원과 함께 나누었을 것인데, 지속적으로 섭취한 이러한 음식물은 몸 속 콜라겐 안에 정보를 담아 후대에 제공하여 준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탄소와 질소 안정동위원소는 주로 섭취한 식재료가 식물성 재료인지, 육식성 재료인지를 구분할 수 있으며, 분석값의 특정 범위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분류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선사, 고대사회 집단의 식생활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데, 한반도 신석기시대 남해안 지역에서는 해양성 어류의 섭취가 비교적 비중 높게 이루어졌으나 동 시기의 서해안 지역에서는 식물성 재료(C₃식물군)의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는 해양 이용에 대한 두 지역의 차이에 기반하는 것으로 보이며, 패총지역에 오랜 기간 상주하며 생활하는 남해안 선사인과 달리, 서해안 선사인들은 주된 본거지는 패총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존재하며 단기적이거나 특정 계절을 중심으로 생활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식재료에 대한 개개인의 선호도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해당 산물을 빈도 높게, 대량으로 접하게 될 경우 섭취의 기회도 동반하여 올라갈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 생물을 상시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은 해안가 지역의 집단들은 높은 빈도로 해양에서 획득한 다양한 식재료를 섭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식재료를 얻기 위해서는 바다로 나아가야 하는데, 깊이 얇은 연안가의 해양 생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하게도 배를 이용하여 바다로 전진할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비봉리유적에서 신석기시대 배와 노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해양활동의 실체를 뒷받침하였으며, 실물의 배가 아니더라도 선형토기 등의 존재를 통해서도 한반도 신석기시대인들이 실질적으로 해양활동을 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어로 활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다 건너 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도 이용했음을 많은 유물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노 혹은 삿대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끊임없이 동작을 반복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체는 주로 상체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움직임이 이어지는데, 현재 rowing이나 paddling으로 표현하는 동작과 유사한 방식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반복되고 강도 높은 이 활동은 결국에는 신체에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과도한 근육 및 인대의 사용으로 musculoskeletal stress marker(MSM)의 강한 발달을 만들어낸다. 강한 흔적으로 확인되는 대표적인 부위는 상체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펴고, 팔의 회전에 관여하는 부위로 늑쇄인대, 대흉근, 삼각근이다. 세계 각지에서 공통적으로 MSM의 높은 발달이 확인되는 부위인데, 지역적으로 사용하는 도구나 방식의 차이가 다소 존재하기 때문에 발달 정도나 더불어 발달하는 부위의 차이가 약간씩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개체 혹은 집단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MSM의 발달 부위에 대한 세밀한 접근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관련된 도구와 사용방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고고자료나 문헌기록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활동들은 근육 등의 과도한 부하로 남게 되는 MSM 흔적 이외에, 뼈와 뼈가 이어지는 관절 부위에서는 형태적 변화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관절 부위에는 연골 등으로 움직임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작동하게 되는데, 연령의 증가와 과도한 부하가 축적되면 연골은 손상을 입게 되고 점차적으로 관절면이 직접적인 마찰과 부담을 받으면서 골증식 같은 형태적인 변화가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은 변형성관절증이라는 병변으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가 가장 큰 발생 요인으로 판단되지만, 강도 높은 활동에 따른 발생 요인도 지적되고 있다. 그래서 생업 방식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부위에 강한 부하가 더해져 골 변형의 속도를 촉진하게 되는 것이다. 어로 활동에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를 젓거나, 작살을 던지거나, 그물을 던졌다가 끌어올리는 행위 등을 반복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요추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에 중증의 변형성관절증이 발생한다. 요추의 경우에는 허리를 굽혔다 펴는 동작의 반복으로 요추의 척추추체와 추간관절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팔에 힘을 실어 돌리거나 당기는 동작으로 어깨관절과 팔꿈치관절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동일 집단 내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나타나는 흔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다. MSM이나 변형 성관절증의 증증 발현 부위가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차이가 확인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담당하는 역할이 성별마다 달랐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직접적으로 바다에 나아가 어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남성이고 여성은 육지에 남아 가사나 농경 등 다른 활동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더욱이 동위원소 분석이 이루어진 일부 집단에서는 여성과 남성 사이에 해양성 단백질의 섭취 차이가 확인되기도 하며, 생업 활동의 차이와 더불어 식생활의 내용에도 차이가 존재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로 활동의 하나의 방식인 잠수 작업 또한 그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냉수 마찰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귀 안의 외이도 부분에 뼈가 용기되어 증식하게 된다. 이것을 외이도골종이라고 부르며 일본의 조몬시대에서는 상당한 비율로 확인된다.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도 여러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 신석기시대인들이 배를 이용한 어로 활동 이외에도 직접 물속에 들어가 해양 생물을 획득하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었음을 알 수 있었다.

V. 맺음말

인류가 바다를 활용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일이다. 시작은 물 속에 들어가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여러 식료를 획득한 것에서, 점차 각종 도구가 발달하며 배 같은 구조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를 이용해 바다 건너의 집단과 교류를 하기도 하고 먼바다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 생물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보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식료의 공급(일부 미식을 위한)을 위하여 선택해서 발전시킨 생업 방식이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노동력 또한 필요로 하였다. 노를 젓거나 작살을 던지거나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동작들을 반복하며 신체에 자연스럽게 부하를 가중시켜 해당 부위에 근부착부의 발달과 관절면의 변형성 질환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렇듯 삶을 위하여 평생에 걸쳐 들인 노력은 훈장처럼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

특정 집단에서는 남녀 간에 생업활동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는 발생 정도나 부위의 차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더욱이 일상적인 식생활에서도 성별의 차이가 확인되기도 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남녀의 사회적 역할이나 지위의 차이와 같은 세밀한 사회 복원에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일생은 단일한 활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간단하게 패턴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복잡한 삶의 모습을 단순화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흔적들은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다만, 연구자들이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특정 행위 활동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고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절대적 지표가 아니라 다양한 고고 자료나 역사적 기록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다면 과거의 사회상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립김해박물관, 『뼈?뼈!-고인골, 개인의 삶에서 시대의 문화를 읽다』, 2015.
- 김현석, 「대포패총출토 인골의 연대와 식성에 관해서」, 『한국신석기연구』 20, 2010.
- 신지영 외, 「인골 추출 콜라겐의 탄소,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경산 임당 유적 고층군 피장자 집단의 식생활」, 『한국고고학보』 70, 2009.
- 신지영 외, 「부산 가덕도 장항 유적 출토 인골의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본 신석기시대의 식생활 양상」, 『분석과학』 26(6), 2013.
- 신지영, 「뼈에 기록된 안정동위원소 정보 분석」, 『뼈?뼈!-고인골, 개인의 삶에서 시대의 문화를 읽다』, 2015.
- 안덕임, 「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생활 복원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54, 2006.
- 안덕임, 「동위원소 분석을 이용한 신석기시대의 식생활과 패총 유적의 점유 계절성 연구」, 『동방학』 21, 2011.
- 우은진, 박순영, 「역학적 스트레스 반영 뼈대지표를 이용하나 연구의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재고」, 『대한체질인류학회지』 25(3), 2012.
- 이준정, 「작물 섭취량 변화를 통해 본 농경의 전개 과정」, 『한국상고사학보』 73, 2011.
- 石田肇 他, 「第1節 日本列島の北と南の人々の生活誌復元—形質人類学からの研究」, 『考古学を科学する』, 2011.
- 石田肇 他, 「中世オホーツク文化人骨の生活誌」, 『北海道大学総合博物館研究報告』6, 2013.
- 小島博己 他, 「外耳道および側頭骨骨腫症例の検討」, 『耳展』48(2), 2005.
- 瀧川涉, 「縄文・弥生時代人における筋骨格ストレスマーカの地域的多様性」, 『Anthropological Science (Japanese Series)』123(1), 2015.
- 鈴木隆雄 他, 『骨の事典』, 2003.
- 諸見里恵一 他, 「沖縄県久米島ヤッチのガマ・カンジン原古墳群から出土した近世人骨の変形性脊椎関節症」, 『Anthropological Science (Japanese Series)』115, 2007.
- 吉岡郁夫, 「縄文時代の海人」, 『比較民俗研究』10, 1994.
- 米田穰, 「古人骨の化学分析による先史人類学—コラーゲンの同位体分析を中心に—」, 『Anthropological Science (Japanese Series)』, 2006.
- 米元史織, 「生活様式の復元における筋骨格ストレスマーカの有効性」, 『Anthropological Science (Japanese Series)』120, 2012.
- Emanuela Gualdi-Russo et al., 「Life and Death in Italian Prehistory: The case of the sailor from Spina」, 『World neurosurgery』 139, 2020.
- Kyungchel Choy et al., 「Stable isotope evidence of human diet at the Nukdo shell midden site, South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6, 2009.
- Kyungchel Choy et al., 「Isotopic evidence for diet in the Middle Chulmun period: a case study from the Tongsamdong shell midden, Korea」, 『Archaeological anthropological Science』 2, 2010a.

- Kyungcheol Choy et al., 「Isotopic Evidence of Dietary Variations and Weaning Practices in the Gaya Cemetery at Yeanri, Gimhae, South Korea」,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142, 2010b.
- Kyungcheol Choy et al., 「Stable isotopic analysis of human and faunal remains from the Incipient Chulmun(neolithic) shell midden site of Ando island, Korea」, 『Journal of archaeological science』 39, 2012.
- Yasushi Shimoda et al., 「Degenerative changes of the spine in people from prehistoric Okhotsk culture and two ancient human groups from Kanto and Okinawa, Japan」, 『Anthropological Science』 120(1), 2012.



1부 종합토론

—
좌 장 : 임학종(전 국립김해박물관)

토론자 : 곽종철(우리문화재연구원)

김현석(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임지영(부산대학교)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활동에 대한 토론

1

곽종철 (우리문화재연구원)

I. 兪炳一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가야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가야시대 패총·고분군·저습지유적 15개소에서 확인된 대형 어류 13개 종을 대상으로 그 어로구, 어로방법을 검토한 연구로, 낚시를 좋아하는 발표자의 취미와 경험도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 발표주제는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어렵고 까다로운 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적에서 확인된 어류(유체)와 어로구가 반드시 서로 특정되거나 연결되지 않으며, 당시 존재했으나 유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어로구 및 어로방법은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어떤 특정 어류의 어로구 및 어로방법은 하나가 아닌 여럿 있으며, 더욱이 시대, 지역, 국가별로도 달라지며, 또 일부의 낚시 바늘과 작살은 현대 사례에서는 새나 기타 동물의 수렵구로도 이용되는 점 등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고는 많으나 공이 적은 본 발표 주제에 대한 발표자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발표문 내용 가운데 3가지 점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1. 바닷가(외해) 입지 유적과 내해 입지 유적간에 확인되는 어류의 종류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후자 쪽이 더 많은 종류가 확인되는 배경이 무엇인지 좀 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참돔의 고대 어획법의 하나로 추정된 주낙어법의 경우, 그 근거로 제시한 늑도·방지리패총 출토 대형 석추의 용도에 대해서는 주낙어법 이외에도 망어법 등도 고려해 볼 수는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물 위로 뜨려는 부력이 있고, 유적에서 잔존하기 어려운 한계는 있으나, 목제, 죽제의 낚시바늘, 작살 등의 존재는 생각하기 어려운지 묻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본 발표주제에 벗어나는 질문입니다만, 꼭 토론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음 몇가지 점에 대해 발표자의 평소 의견이나 추정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4. 철제 낚시바늘·작살의 패총출토품과 무덤군(고분군) 출토품 간에 어떤 배경, 의미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5. 무덤군 내에서 상기 철제 어로구 출토 무덤과 비출토 무덤간의 차이, 위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6. 상기 3의 질문과도 관계되는지 모르겠으나, 가야의 어로민들에게 있어서 철제 어로구의 보유·사용은 어느 정도(비율)였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II. 이수연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 -김해 신문리유적 사슴 유존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에서는 가야의 생업 가운데서도 수렵문제를, 그것도 육상포유류 내에서 다수 출토된 사슴(유체)을 대상으로, 사슴이 주요 수렵대상이 된 배경(수렵시의 안전성, 식용, 가죽·뼈를 이용한 의복, 도구제작 재료로서의 이용 등), 사슴의 수렵시 연령 문제(성 성숙이 이루어진 개체가 주 대상), 크게 보아 가을~봄 중심의 수렵계절 문제, 먹이(미끼), 암사슴의 오줌냄새, 사슴뿔 부딪히는 소리, 개, 궁시범 등을 이용한 수렵방법 문제 등을 고고자료와 문헌기록을 통해 흥미로운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더욱이 본 발표에서는 유적별 육상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 주요 유적의 사슴 부위별 출토 수량, 하악골 및 이빨 잔존 개체수(김해 신문리유적) 등 상세한 고고자료의 통계치를 제시하였으며, 사슴의 수렵 연령, 수렵시기·계절의 판정에 3세 이하 개체의 하악골 이빨의 봉출 및 교체시기를 이용한 점, 조선왕조실록의 사슴 수렵 기사를 발췌해서 수렵시기·계절을 보완적으로 검토한 점 등의 분석 결과여서 토론자로서는 달리 언급할 부분은 없다.

다만 발표주제에 대해 지역적인 부분이거나 벗어나는 점 두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다.

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사슴 수렵 기사 가운데 5~8월 수렵기사가 전무한 점에 대한 해석의 하나로서 특히 6~7월이 보리 수확과 벼 이앙기가 겹치는 농번기여서 수렵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해석은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다. 논에서의 벼와 보리 2모작은 존재 그 자체는 꽤 이전으로 보급될 수 있겠으나 문헌기록상의 초출은 조선 후기이며, 조선시대에도 벼 1모작의 비중도 높았으며, 습답~반습답이 많았다고 보여지는 가야시대에는 더욱 높았다고 추정된다. 더욱이 이양법도 문헌기록상 고려시대부터 확인되나 역시 본격적인 전국적 전개는 조선 후기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5~8월 수렵기사의 공백에 대한 해석의 하나로서 본 논 2모작은 부분 설명은 되어도 조선시대 전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가야시대의 사슴 수렵이 농민의 수렵처럼 겸업적, 부차적인 것인지, 겸업적·부차적이라도 집단내의 전문집단이 하던 것인지, 아예 수렵전문집단에 의한 것인지, 사슴 수렵 집단의 문제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다.

Ⅲ. 黃相一 「금관가야 수운 항로의 시기별 변화」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고대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관가야를 대상으로, 금관가야의 융성, 그리고 그 약화, 멸망이라는 역사적 전개과정을 낙동강을 통한 수운·교역이라는 매개를 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으며, 이 점 기존의 고대사·고고학 분야에서의 그것과는 다른, 매우 흥미로운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낙동강의 수운·교역과 금관가야 흥망성쇠사는 최종빙기 이후의 낙동강의 환경변천은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에 대한 정치지리적, 경제지리학적 시각, 고대사·고고학의 연구성과들도 섭렵하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어서 공부 부족의 토론자에게는 부담스러운 토론 주제이기도 해서, 2~3가지 점에 대해서만 질문, 부연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발표자는 BC 1세기~AD 2세기 무렵의 금관가야 융성기, 위상의 배경으로서, 낙동강 수운을 통한 낙동강 중하류역, 일부의 상류역까지. 더욱이 중하류역의 1차 지류역까지를 편성하는 교역망의 전개, 그리고 그 교역 주 대상으로서 철과 소금을 들고 있습니다.

1. 여기서 먼저 여쭙고 싶은 것은, 철의 경우 금관가야에서 낙동강을 통해 영남 내륙의 가야 제국에 공급되었다는 근거로서 변한의 철 관련 기록 이외에 고고학적 자료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고자료로서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후대의 것을 포함해도 일부의 제련로, 단야로 유구는 있으나 대규모, 지속적인 생산을 시사하는 사례는 알지 못합니다.

2. 소금은 사람, 소·말 등에게도 절대 필수적인 식품이나, 아직 고고자료에서는 소금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실체가 밝혀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표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발표자는 금관가야의 약화, 멸망의 배경으로서, 3세기, 4세기 후반, 5세기 초반(고구려 남정) 각각에 보이는 사로국·신라의 가야영역인 낙동강 우안으로 진출·세력 확장, 백제의 섬진강 유역 진출, 가야·백제·왜와 신라·고구려 연합세력간의 대립·갈등속에서 지속적인 낙동강 교역망의 약화·축소가 금관가야의 정치·경제적인 기반을 약화시키고, 가야의 리더적 위치를 상실케하고, 이후 국가로서의 명맥만 유지하다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토론자는 금관가야의 약화·멸망의 배경으로서 상기한 낙동강 교역망의 약화, 축소 이외에도, 크게 보아 바다(내만)의 상실이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즉 1,700년 또는 1,800년 BP. 무렵의 해수면 재상

승(홀로세 최고 해수면 상승)과 고김해만의 재형성 이후, 해수면의 안정·정체·상하강해감과 동시에 낙동강 운반 토사의 만내 매적으로 내만의 축소, 마침내는 낙동강 하류 하구역화해감에 따라 바다(내만)를 매개로 하는 금관가야의 어떤 이 점이나 우위가 급격히 약해지거나 사라져 간 점 등도 함께 고려할 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소위 김해기패총이라는 해수산패총의 김해 각지 전개, 김해 대성동유적·양동리고분군 등에 보이는 외래계문물의 부장, 김해 일부 고분에서의 철제어로구 부장, 낙동강 유역 내륙지방의 여러 고분군 등에 보이는 해수산 어패류(반드시 금관가야 교역품이라고 단정키 어려우나)의 부장 등과 같은 바다 관련 요소·현상이 사라지고, 대신에 이후 재첩 중심의 기·담수산 패총의 전개(조선시대 등), 횡혈식석실을 끝으로 더 이상 무덤 축조가 없어지는 김해 예안리고분군(반농반어 집단으로 추정)의 종말? 등, 김해지역에서의 바다(내만) 상실과 하천역화라는 환경적 변천은 금관가야의 약화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배경의 하나로서, 또는 박차를 가하게 된 것으로서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IV. 이하얀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에 대한 토론문

어떤 사람, 사람들이 일생 동안 어떤 특정한 생계활동에 종사하면서 벌이는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어떤 특정한 신체활동의 결과, 신체부위 특히 뼈에 그 흔적이 남겨진다고 한다.

해양어로활동의 경우, 노젓기와 관련한 신체활동에 따라 근육·인대, 힘줄같은 조직에 연결된 뼈대에 생기는 근부착면의 변이 사례(일본 중세유적의 주 어로, 부농경집단의 사례), 역시 노젓기와 관련한 신체활동에 따라 뼈와 뼈사이에 충전·형성되어 있는 연골과 주변 조직의 기능 저하에 따라 뼈끝의 관절부(면)에 대한 마찰·마모가 커지면서 생기는 이상 병변인 변형성관절증(일본 중세 오호쓰쿠 문화기의 해상포유류 포획과 어로 생업집단 사례), 낮은 수온이 형성되는 중위도 이상의 해수권역에서 잠수작업을 주로 하는 해녀, 직업 잠수부 등에서 많이 확인되는 귀 내측부인 외이도의 골종(우리나라 신석기시대~삼국시대의 패총, 무덤군 등과 일본 죠포시대 고인골 등의 사례)에 대한 그간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정리·소개하고 있다.

또 사람, 사람들 뼈속의 콜라겐에 남겨진 탄소, 질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생존 당시의 식생활 복원, 더 나아가 식생활의 배경이 되는 생업활동을 복원해가는 연구 또한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고 한다. 활발한 해양성식료 섭취 경향을 보이는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의 부산 장항 유적·동삼동패총 출토 인골 사례와 상대적으로 육상식료의 비중이 더 높은 태안 고남리패총, 서산 대죽리패총, 삼국시대 김해 예안리고분군, 경산 임당동고분군 출토 인골 사례에 보이는 대조적인 현상 등,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의 흔적을 분석, 연구해 가는 상황을 알기 쉽게, 그리고 적절하게 정리·소개해 준 본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하나 묻고 싶은 점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노젓기 등과 관련해 나타나는 근부착면 변이사례나 변형성관절증, 다른 신체활동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징적인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연하면 해양어로민의 노젓기와 같거나 유사한 신체활동을 하는 조정·카약선수나 유사헬스운동 등과 관련해 현대의 스포츠의학·과학분야에서도 근부착면 변이사례, 변형성관절증이 확인된 적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활동에 대한 토론 2

김현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I. 대형어류의 포획방법과 활용-가야시대 패총자료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가야인은 당시의 환경 속에서 다양한 자원을 획득해 생업을 유지해 왔다. 그 중 바다자원(어류)과 이런 활동이 이루어진 바다 그리고 이를 진행한 인간에 대한 발표를 통해서 가야인의 생업에 대한 모습을 추정하는 논문들이다.

현재 가야시대 유적에서 출토하는 어류 중 대형어류의 출토 상황을 정리하고 포획방법과 그 활용 양상에 관해서 논의한 글이다. 발표문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어류의 확인은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계절 추정을 통해 생업의 계절성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되어져 왔으며 낚시바늘을 통해 낚시법을 통해서 포획했을 것으로 추정해 왔다. 본인도 대형어종은 외줄낚시 혹은 작살법을 통한 방법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낚시를 진행하는가에 대한 것을 고찰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의 생활 모습에 한 걸음 접근하는 발표문으로 생각되며 토론자의 역할을 위해 몇 가지 점의 확인과 의견을 구하고자 한다.

1.대형 어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은 상어이다. 상어는 신석기시대부터 패총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어종이다. 대부분 여름을 전후한 시기에 연안으로 접근하는 어종이 많은 점에서 여름이 적합한 시기로 추정하는지가 궁금하다.

2.상어가 출토하는 유적의 경우 돌고래, 강치가 같이 출토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상어, 돌고래, 강치의 경우 소형어류를 먹이로 하기에 동일한 수역에 머무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형어류 무리와 함께 상어, 돌고래, 강치가 모이는 시기에 포획활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다면 계절은 어떠한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3. 그리고 연안으로 접근하는 시기 외에 대형어류의 포획이 이루어졌다면 해역은 어디였을 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II.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는 유적에 남은 인골의 분석을 통해서 과거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연구 방법 및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주로 행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근육의 발달과 이와 관련된 골격 발달을 근거로 주로 행해진 행동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생업 활동을 했는지 추정한 것은 생업 연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연과학분석을 통해 생전 식생활 추정도 이루어지고 있어 자원의 획득에서 소비의 과정을 풀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인골임을 알 수 있게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산성의 토양으로 인해 인골의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가야시대의 인골도 대부분 고분의 피장자라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신의 골격이 남는 경우가 적은 점에서 종합적인 행동양상을 파악하기 힘든 점에서 자료의 축적이 선행되어야 하고 골격 하나하나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MSM의 분석을 통해서 인골의 행동을 얼마나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골격에 남는 흔적은 결국 근육의 발달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수치화한 분석이 MSM분석이고 전체적인 골격의 상황을 통해서 신체 움직임을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팔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동일한 각도로 움직이며 유사한 근육이 서로 다른 생업의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가야시대에 생업 활동의 분화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자료를 통해 본다면 어로집단, 농경집단, 수공예품 생산집단과 같은 마을의 성격을 볼 수 있다. 현재 가야시대의 인골 대부분이 고분에서 출토하기에 본격적인 육체 노동의 흔적이 남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런 생업활동을 전담한 인골의 사례는 쉽게 볼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의 유적이 있다면 간략한 소개를 듣고 싶다. 만약 없다면 동일한 신체 행동이 예상되는 집단이 있을 경우 MSM분석에서 그 차이를 판별할 수 있을지가 알고 싶다.

2. 현재 가야시대의 대표적인 생업활동인 농경, 어로, 골각기 생산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질 경우 인골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일지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Ⅲ.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김해 신문리유적 사슴유존체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본 발표문은 선사와 고대의 주요한 수렵대상이던 사슴의 수렵 시기와 그 이용 방법에 관해서 논의한 것이다. 대부분 유적의 점유시기에 대한 논의는 이빨의 발생시기를 이용하는 경우와 특정 계절에 포획되는 종을 이용한 것이 많았다. 본 발표에서는 사슴 사례를 통해서 이빨의 발생시기를 자세하게 나누고 이를 통해 수렵된 계절을 추론하고 있다. 그 결과 늦가을에서 겨울에 주된 수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사슴의 성장과 생태적 측면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고 수렵이 용이한 계절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는 점은 본인도 동감하는 바이다.

1. 수렵집단과 이용집단의 차이

사슴의 수렵시기를 늦가을부터 겨울의 시기로 추정하고 있는 점은 본인도 동의하는 바이다. 사슴의 수렵은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동삼동유적의 경우에서도 늦가을부터 겨울의 시기에 사슴의 수렵이 진행된 것으로 나오는 점은 고대부터 주변 동물에 대한 생태의 파악이 이루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렵의 시기를 결정하는 생업활동이 농경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인해 한정되는 영향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본 발표의 자료로 이용한 집단은 수공업과 관련된 집단으로 생각되는 신문리유적의 사람들이다. 그럼 유적 속의 인원에서 농경과 수렵이 동일한 집단이 한 것으로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신문리유적의 상황을 본다면 유적 속에는 적어도 수공업생산집단, 수렵집단, 농경집단의 3개 성격의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 집단이 다른 일을 겸업하는 형태일 경우 일년의 생업활동 스케줄의 모습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2. 유적 속 사슴의 반입 가능성

신문리유적의 경우 사슴의 두개골에 해당하는 부위가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유적 속의 집단의 사냥을 제외하는 경우라면 주변 집단에서 사냥한 후 머리부위를 집중적으로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신문리유적의 경우는 머리에 비해 사지골의 출토비율이 적은 점에서 특정한 사용을 목적에 둔 반입의 양상이 확인된다.

이러한 경우 발표문과 같이 사슴의 수렵은 늦가을에서 봄에 다양한 마을에서 수렵을 진행하고 머리만을 수공업생산 중심으로 가져오는 모습이지 않을까 추정된다. 이와 같은 수렵과 농경, 수공업 생산과 같은 가야의 생업활동이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되었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는 앞전 발표의 대형어류의 포획과 관련되는 것으로 대형어류의 주된 포획시기가 여름일 경우도 수렵은 진행하기 힘들다. 이와 같이 생업활동의 분화와 마을의 성격에 관한 생각이 있다면 의견을 듣고 싶다.

바다와 가야인의 생업활동에 대한 토론 **3**

임지영 (부산대학교)

I. <인골에 남겨진 해양문화>를 발표하신 이하얀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하얀 선생님은 인골에서 확인되는 근부착부, 관절의 변형, 외이도골종과 같이 생업활동에 따른 신체의 외형적인 차이와 더불어 인골의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통한 식생분석까지, 인골연구를 통한 해양활동 유추를 위해 상당히 폭넓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근골격스트레스마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도면2>에서 MSM 스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근부착면의 조면 변화는 현미경을 이용한 미세구조 관찰로 구분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세구조 관찰로 구분이 가능하다면 소형편인 경우에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시다씨의 연구를 인용한 <어로생업집단은 요추의 척추 추체와 추간관절에 중증의 변형성관절증 발생빈도가 높다>는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추의 척추 추체와 추간관절의 중증 변형성관절증은 농경, 혹은 타 생업 집단에서는 확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허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은 어로활동에만 적용되는 신체활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경생업집단과 어로생업집단에서 확인되는 변형성관절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4장에서 MSM, 변형성관절증 발현 부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해양성 단백질원의 섭취 차이가 확인된다고 하였는데 성별간 차이가 확인되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사례에 대해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표 2>의 외이도골종은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 모두 확인되는데, <표 2>에 제시된 유적 중에서도 성별간 단백질원 차이가 확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발표자는 안정동위원소 분석 결과에 대해 해양성식료와 육상식료로 대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의 주제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담수생태계 활용에 대해서도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II. <가야지역 사슴 수렵에 관한 검토>를 발표하신 이수연 선생님께 질문 드립니다.

출토 사슴의 연령 분포와 이빨 분석을 통한 수렵 계절 추정 등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흥미로운 발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시해주신 <도면 1>의 가야지역 육상포유류의 동정가능표본수를 보면 사슴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육상포유류가 개입입니다. 상당히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표 1>을 보면 분절패총의 자료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 벗어난 질문입니다만 분절패총에서 타 유적에 비해 다량의 개뼈와 확인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개뼈의 출토양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발표하신 바와 같이 사슴은 동물뼈 가운데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가야지역의 철제 무구류와 마구류에 사용된 가죽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됩니다.

사슴의 수렵 시기는 분만기를 피해 실시하여 남획은 막으면서도, 번식 가능한 개체를 중심으로 재양적 패턴의 수렵한 이유는 번식 가능한 개체에서 보다 양호한 질과 양의 단백질 및 도구와 의복재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맺음말에서 성성숙이 이뤄진 개체의 수렵 비중이 높은 것은 사슴의 습성 및 행태를 습득한 가야인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추정하였는데 보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加耶

가야인, 바다에 살다

2부 |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

2021. 2. 19.(금) 13:30~18:00

05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백승옥 | 국립해양박물관

06 弁韓의 對外交流

이창희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07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

김일규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08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조성원 | 부경대학교박물관

종합토론

좌 장: 이근우 | 부경대학교박물관

토론자: 이동희 | 인제대학교

심재용 | 김해시청

고영민 | 국립중앙박물관

海洋文化



05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백승옥 » 국립해양박물관

-
- I. 머리말
 - II. 중국과의 관계
 - III. 왜와의 관계
 - IV. 맺음말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¹⁾

백승옥(국립해양박물관)

I. 머리말

가야의 대외관계에 대해 논할 경우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加耶諸國의 존재형태이다. 가야는 포상팔국의 예와 같이 지역 단위로 일시적 연맹은 존재했을지라도 전체가 통합된 국가나 연맹체로 존재한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가야제국 전체를 아우른 대외관계를 살펴 볼 수는 없으며 가야 각국별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료의 영세성으로 인해 쉽지 않다. 여기서는 가야제국이 존재했던 지역을 가야로 보는 일반적 인식에 기반하여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둘째, 대외관계의 범위이다. 가야의 대외관계라고 하면, 가야제국과 주변 여타국들과의 관계 모두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가야의 주변국으로서 가장 인접한 신라와 백제가 있으며 고구려와도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할애하고 직접 국경을 접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뱃길을 통해서 상호 간에 통교했을 중국과 일본(왜)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한 문헌적 연구만 보더라도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가장 최근의 논고로는 백승옥,²⁾ 김태식,³⁾ 남재우의⁴⁾ 연구가 있다. 김태식은 가야제국 가운데 김해와 고령, 함안 위주로 가야국들의 대외 교류를 정리했다.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4세기 초, 이른바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가야 전기에는 경남 김해를 중심으로 한 교류 거점이 형성되었으며, 5세기 전반 이후부터는 고령의 가라국이 가야의 대외 교류를 주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6세기 전반에는 함안의 안라국도 대외 교류의 폭을 넓혔다고 하였다. 문헌에 바탕을 두면서도 고고학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였다. 남재우는 가야의 대외교류를 1~3세기부터 5~6세기까지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6세기 전반대의 임나일본부 관계는 별도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대내외관계라 제목하면서 대내관계는 신라와 백제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구사 정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대내외관계에 사용되는 주요 사료들을 동원하여 정리하였다.

1) 본 발표문은 필자의 新稿가 아니다. 注 2)의 글을 재정리하고, 일부 사료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였다.

2) 백승옥, 2018, 「가야와 중국·왜」, 『가야사 총론』-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129~153쪽.

3) 김태식, 2018,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 『가야고분군 II』-가야고분군 연구총서 3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5~33쪽.

4) 남재우, 2020, 「가야의 대내외교류-문헌사-」, 『伽耶』,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 I-연구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필자는 가야의 시원을 기원전 3세기까지 올려 보고 있다.⁵⁾ 衛滿에 쫓겨 準왕이 남분할 시기에 한반도 남부지역에는 이미 韓 소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史記』와 『漢書』 朝鮮傳에 보이는 '衆國(혹은 辰國)'이 그들이며 이 속에는 가야 전기의 변한 소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3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변한을 포함한 삼한 사회와 중국군현인 낙랑·대방과의 전쟁이 일어난 245년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의 결과 삼한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이후 삼한에서 삼국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II. 중국과의 관계

1. 3세기 중엽 이전

가야의 전신 弁韓은 馬韓, 辰韓과 더불어 三韓의 한 부류이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韓이 史書上 처음보이는 곳은 衛滿 세력에 밀려 南奔한 準왕이 韓왕이 되었다는 기사에서이다(B.C 194).⁶⁾ 『史記』와 『漢書』 朝鮮傳에 보이는 '衆國(혹은 辰國)'⁷⁾ 중에는 한반도 남부의 정치세력이 포함되었을 것인데, 그들이 중국 본토와 교섭하려고 하였으나 衛滿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음이 사서에 보인다(眞番旁衆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衛滿政權의 수립 후, 중국 본토와의 교섭이 衛滿 세력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점은 그 이전에도 중국 본토와의 교섭이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정치 세력이 이미 기원전 2세기 초부터 중국과 교통하고 있었으나 위만세력에 의해 통제받던 시기의 한반도 남부 사정은 衆國으로 표현되는 소정치 집단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중국 본토와 대외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漢 郡縣 설치 후부터 王莽의 新대까지(B.C. 107~A.D 24)는 漢이 군현을 통해 동방무역을 장악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한반도 제 정치집단과 중국과는 비교적 안정된 체제 속에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韓의 입장에서 보면 강화된 통제 속에서의 안정된 교섭이라는 측면이 있다. 1920년 일본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조사된 김해 패총에서 王莽의 新대에 주요한 貨泉이 출토되었다. 이는 당시 김해 지역과 중국과의 대외교섭의 실상을 보여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前漢 武帝가 설치했던 4郡은 漢의 쇠퇴와 함께 축소되었다. 玄菟·樂浪 이군만 남아 있었지만 현토군은 압록강 상류의 동북 측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한반도에는 낙랑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 漢은 낙랑에 신경을 쓸 수 없었다. 동방정책은 낙랑 자율에 맡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왕망의 新 건국 후 後漢 초까지의 전란기에 있어서 낙랑군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일시 독립된 상태였다. 이 시기 韓은 중국 본토보다는 낙랑을 상대로 활발한 교섭을 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한 우거수 염사치가 활약하는 때(20~23)도 바로 이 시기이며, 경남 창원 다호리유적 목관묘에서 다수 출토된 낙랑계 유물들도 이 시기 변한지역과 낙랑지역과의 교섭 결과를 보여 주는 것들이다.

왕망이 죽은 후 2년 뒤인 서기 25년, 光武帝에 의해 漢은 재건되었다. 이것이 後漢이다. 광무제가 정권을 안정시킨 후에는 중국 세력이 다시 낙랑에 그 영향력을 미쳤다. 建武 8년(32)에는 고구려가 후한에 조공하고, 建武 20년(44)에 韓이

5) 백승옥, 2011, 「辰·弁韓의 始末과 内部構造」, 『博物館研究論集』17輯, 부산박물관, 45~71쪽

6)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侯準既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7) 漢 武帝 때에 司馬遷에 의해 편찬된, 『史記』朝鮮傳에는 ‘眞番旁衆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이라 하여 ‘衆國’으로, 後漢代 班固 편찬의 『漢書』朝鮮傳에는 ‘眞番 辰國 欲上書見天子 又擁闕弗通’이라하여 ‘辰國’으로 되어 있다. 『漢書』의 註에는 ‘師古曰 辰爲辰韓之國也’라 하여 辰國은 곧 辰韓이라고 하고 있다. 師古의 註는 『三國志』韓條의 ‘辰韓者 古之辰國也’라고 한데서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 衆國과 辰國의 문제는 그 위치와 성격 등에 관한 구구한 설이 많다. 본고는 丁仲煥의 설을 따라 ‘辰國’이란 單數칭호가 아니고 복수칭호로 보아, ‘辰國’과 ‘衆國’은 내용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한다. 丁仲煥, 1956, 「辰國·三韓 及 加羅의 名稱考」, 『釜山大學校 十周年 記念論文集』부산대학교, 10쪽.

우리를 이끌고 낙랑에 나아가 내附하였다.⁸⁾ 建武 25년(49)에는 내몽고 동부의 烏桓이 조공하는 등 後漢의 동방 제국이 줄줄이 遣使入朝하고 있다. 이는 後漢의 동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져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멀리 바다 건너 倭도 建武 中元 2년(57) 사자를 後漢의 수도인 洛陽에 보내는 데,⁹⁾ 이도 이러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온 행동으로 볼 수 있다. 福岡市志賀島에서 발견된 金印(「漢委奴國王」)은 당시 倭의 奴國이 漢과 교섭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자료이다.

倭는 前漢 武帝가 朝鮮을 멸한 이후부터 漢과 통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간 루터가 되는 韓과도 최소한 B.C 2세기를 하한으로 하여 그 시기 이후부터는 통교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이 시기는 後漢의 강력한 통제 속에서 대외교섭이 행해지던 시기로 성격 지을 수 있겠다. 이때는 낙랑군과 요동군을 매개로 東夷의 諸族들이 중국 본토와 직접 교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¹⁾ 蘇馬謨 등이 樂浪에 나아가 貢獻하고, 光武帝로부터 韓廉斯邑君에 봉해지는 때도 이 시기이다.¹²⁾

그런데 後漢 말이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桓帝(146~167)·靈帝(167~189) 말기에 韓과 濊가 강성하여 군현이 제어할 수 없어, 많은 (군현의)백성들이 韓國으로 유입되었다는 기사(桓靈之末(146~189)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¹³⁾)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후한 말부터 요동의 공손씨 정권이 韓地에 대한 원활한 장악을 위해 대방군을 설치하기 전까지의 시기는 韓 사회 내부 발전을 바탕으로 활발한 대외교섭을 행한 것으로 보인다. 군현이 시장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함은, 교섭 상대국으로서 상대적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을 것이다. 韓이 급속히 발전한 시기로 보인다.

한편, 후한 말 각 지방 호족과 군벌들이 독자의 세력을 구축하는 정세에서 189년 요동태수가 된 公孫度는 자립하여 遼東侯 平州牧을 칭하고 요동에 자신의 세력권을 구축하였다. 이때에 이미 낙랑군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적극적인 기지화 정책을 펼 것은 公孫康 때였다. 公孫康은 建安中(196~220)에 낙랑군의 둔유현 이남에 대방군을 두고 韓과 濊를 정벌한 다음 통제하에 두었다.(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¹⁴⁾)

대방군 설치 이후 공손씨 정권의 韓地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면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등과 같이 군사력을 동반하는 적극적인 방식이었음이 유의된다. 이는 역으로 韓濊의 강성이 단순히 樂浪郡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교섭·교역체제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 압박을 통하여 郡縣의 영역을 잠식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음을 시사한다.¹⁵⁾ 이는 상대가 공손씨 정권이였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公孫氏 정권은 景初 2년(238), 魏의 太尉司馬宣王에 의해 토벌되고 낙랑, 대방 2군도 魏의 관할하에 들어간다. 이후 魏의 韓地에 대한 정책은 신지들에게 읍군의 인수를 주는 등 유화적이었으며, 韓人들도 조공 무역을 통한 교섭을 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景初中 明帝密遣 帶方太守劉昕 樂浪太守鮮于嗣 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 千有餘人).

그런데 郡의 部從事吳林이 辰韓 8國을 낙랑에 편입시킬려는 것에 대해 韓의 신지들이 반발하여 마침내 韓과 2郡과의 전쟁으로까지 비화된다.¹⁶⁾ 이 전쟁으로 인해 한 사회 내부는 크게 변화되어 이전의 소국 병립 상태를 벗어나 大國 중심

8) 『後漢書』 권1 下 光武帝紀 第1下 建武20年. “東夷韓國人 率衆詣樂浪內附[東夷有辰韓·卞韓·馬韓 謂之三韓國也]”

9) 『後漢書』 東夷傳 倭條.

10) 『後漢書』 倭條. “自武帝滅朝鮮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

11)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第75. “於是 東夷始通上京”

12) 『後漢書』 卷85 東夷列傳 韓條. “建武二十年 韓人廉斯[廉斯邑名]人蘇馬謨等 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謨爲韓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이는 光武帝紀 建武 20년조의 기사와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3)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14) 『三國志』 卷30, 魏書 東夷傳 韓條.

15) 林起煥, 1999, 「3세기~4세기초 魏·晉의 동방정책-낙랑군·대방군을 중심으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삼국의 대외관계』 한국역사연구회 제67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3쪽.

의 결합이 가속화되었다. 이 시기를 변한사회에서 가라사회로의 이행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2. 3세기 중엽 이후

이 시기 동아시아 국제질서는 급변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東晉과 5胡 16國으로 분열된 극심한 혼란기였다. 따라서 그들의 동방정책은 적극적인 수는 없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중국 동북부지역과 한반도 제국의 역관계에 의해 가야 주변의 국제환경이 조성되어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45년 삼한 제국과 二郡(樂浪·帶方)과의 전쟁 결과, 『三國志』의 찬자 陳壽는 '韓滅'로 표현했지만 이는 中國 측 입장에서 滅일 뿐이고, 韓 측에서 보면 滅이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⁸⁾ 중국에서는 266년 魏가 亡하고 晉이 들어서는데, 東夷諸族이 晉과 통교하는 기사는 『晉書』에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삼한 가운데 마한과 진한의 경우는 晉과 활발히 교섭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¹⁹⁾, 변한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선석열은 변한의 경우, 진한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았다.²⁰⁾ 김태식은 『晉書』가 비교적 후대(唐 貞觀 18년 ; 644)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인용에 오류가 많아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거나, 가야 지역 소국연맹체들이 경제적 이익만을 증시하는 성격 때문으로 보았다.²¹⁾

그러나 『晉書』四夷列傳(東夷列傳)의 편찬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달리 생각해 볼 바도 있다. 『晉書』의 東夷列傳은 唐代 世界觀의 영향을 받아 체제나 형식에 있어서는 四夷列傳으로 체계화되었으나, 서술의 구체적 내용은 대체로 『三國志』와 『後漢書』의 내용을 축약하고 晉代의 통교사실만 추가되었다.²²⁾ 이 점을 고려하면 『三國志』와 『後漢書』에 각 각 구분하여 쓰고 있는 진한과 변한을 晉代에 혼용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이 시기 변한은 晉과 통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 해석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 시기 가야(구체적으로 가락국)가 晉과 통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3세기 중-후엽 변한지역에서 주도권을 잡는 새로운 정치집단의 성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문헌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은 곧 대성동고분군을 축조했던 집단이다. 대성동고분군을 축조했던 집단은 전기가야를 주도한 가락국의 지배층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북방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다. 대성동고분군에 보이는 북방 문화적 요소가 북방계가 남하하여 지배집단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기존의 선주집단이 북방계와의 교섭 속에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단할 수 없다. 다만 당시 가락국의 지배집단이 북방계와 교섭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점은 당시 북방유목민들과 대립, 경쟁관계의 晉과 3세기 중-후엽 김해 중심의 가야집단(南加羅)이 통교하지 않은 이유로서 설명 가능하다.

『晉書』가 東夷列傳을 편찬할 때 자국과 경쟁·대립 관계에 있었던 國은 입전에서 제외 시켰다는 점은 고구려가 입전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엿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세력이나 역할로 보아 당연히 입전되어야 할 것이지만 당시 고구려는 晉과 대립·경쟁 상태에 있었던 까닭에 입전되지 않았던 것이다.

16) 『三國志』韓條,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 崎離營 時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17) 白承玉, 1998, 「3-5세기의 加耶南部諸國 -'변한'에서 '가라'로의 변화와 고구려 南征을 중심으로-」, 『加耶史大觀: 加耶文化遺蹟 調査 및 整備計劃』, 경상북도·가야대학교 부설 가야문화연구소, 129쪽.

18) 백승욱, 위의 논문, 128~129쪽.

19) 辰韓지역이 晉과 교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실물 자료로서는 慶北 迎日郡 新光面 馬助里에서 출토된, “晉率善穢佰長”銅印이 있다. 梅原末治, 1967, 「晉率善穢佰長 銅印」, 『考古美術』, 8-1, 2쪽.

20) 宣石悅, 1996, 「3세기 後半 弁辰 勢力圈의 變化」, 『加羅文化』, 13, 87쪽.

21) 김태식, 2018, 위의 글, 10쪽.

22) 國史編纂委員會, 1987, 『中國正史 朝鮮傳 譯註 一』, 322쪽.

4세기 초 중국의 동방교섭 거점이었던 樂浪·帶方二郡이 고구려에 접수되었다. 이 시기 가야의 대 중국 관계도 이러한 정치적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倭의 對한반도 교섭 목적은 전통적으로 鐵을 비롯한 선진문물의 도입이었다. 철은 주로 가야지역과 백제를²³⁾ 통해서였고, 그 외 선진문물은 가야·백제를 비롯하여 중국 군현과 본토로부터였다. 그런데 고구려의 낙랑·대방고지의 장악으로 인해 중국과의 통교가 차단되어 선진문물의 구입처를 전통적 우호국인 가야와 백제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대방고지인 현 황해도 일대를 고구려가 장악한 이후부터는 가야의 對 중국 海路는 심각한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해안의 해류는 힘들이지 않고 전라도 지역 해안까지 남하할 수 있어 고구려는 서해안 대부분을 그들의 수중에 넣고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도 여전히 가야 대외교섭의 중심지는 김해의 가락국이다.

고구려는 4세기 전반 樂浪·帶方故地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성장과 팽창 일변도의 시기만은 아니었다. 342년에는 前燕에게 수도 丸都를 함락당하고, 371년 대백제전에서 故國原王이 戰死하는 쓰라린 패배를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수림왕대에는 내부체제를 정비하고, 광개토왕·장수왕대에는 이를 바탕으로 대외적인 재도약을 이룩하게 된다. 4세기 대 고구려는 흔히 성공에 이은 좌절 또는 西進 실패에 따른 南進으로의 선회로 설명하기도 한다.²⁴⁾

서력 400년 고구려 광개토태왕은 5만의 군대를 신라 구원의 명분을 내세워 남쪽으로 파견한다. 이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인해 가야지역에서는 세력 재편이 진행된다. 그러나 전쟁 후 가야 각지에서는 기존 세력을 바탕으로 독립국들이 지역색을 보이기 시작한다.

고구려 남정 후 정국의 구도는 신라를 부용화한 고구려와 백제·가야·倭를 한편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고구려는 현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 그들의 군사거점을 두기까지 하였다. 이 시기 가야의 대외관계 특징 중의 하나는 김해 가락국이 기존의 역할, 즉 대외교섭 센터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점이다. 倭는 266년의 전사를 끝으로 단절되었던 중국과의 관계를 413년에 재개한다.²⁵⁾ 무려 150여 년간이나 중국과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는 왜와 중국과의 관계를 중개하고 있었던 낙랑·대방군의 몰락과 그들을 멸망시킨 고구려의 방해 때문이었을 것이다.²⁶⁾

5세기 중엽 이후 가야 사회의 특징은 고령의 加羅國이 획기적 발전을 구가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가야를 둘러싼 주위의 백제와 신라가 가야로의 적극적 진출을 시도 한 때이다.

고구려는 427년 환도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후 475년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책에 대해 신라와 백제는 433년 이른바 羅·濟東맹을 결성한다. 고령 加羅國의 급격한 성장은 이러한 주위 정세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락국의 479년 중국 남제와의 교섭은 그 성장의 증거이다. 『남제서』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加羅國은 三韓의 한 계통이다. 建元 원년(479년, 신라 照知麻立干 1년)에 국왕 荷知가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쳤다. 이에 詔書를 내렸다. 널리 헤아려 비로소 (조정)에 올라오니, 멀리 있는 夷가 두루 德에 감화됨이라. 加羅王 荷知는 먼 동쪽 바다 밖에서 폐백을 받들고 관문을 두드렸으니, 輔國將軍本國王의 벼슬을 제수함이 합당하다.”²⁷⁾

23) 『日本書紀』卷9 神功皇后 攝政52年 秋9月條, “久氐等從千熊長彥詣之 則獻七枝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重寶 仍啓曰 臣國以西有水 源出自谷那鐵山 其遡七日行之不及 當飲是水 便取是山鐵 以永奉聖朝 乃謂孫枕流王曰 今我所通 海東貴國 是天所啓 是以 垂天恩 割海西而賜我 由是 國基永固 汝當善脩和好 聚斂土物 奉貢不絕 雖死何恨 自是後 每年相續朝貢焉”

24) 余昊奎, 1999,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對前燕關係를 중심으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삼국의 대외관계』, 한국역사연구회 제67회 연구발표회 발표요지, 17쪽.

25) 栗原朋信, 1978, 『上代日本對外關係の研究』, 吉川弘文館, 134~136쪽.

26) 金鉉球, 1997, 「가야의 대외관계」,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381쪽.

27) 『南齊書』卷58 列傳39 東夷傳,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가라국왕을 안라국왕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당시 가야의 전반적 상황으로 보아, 고령 가라국(대가야)의 왕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남조와 통교한 이 기사로 보아 가라국이 5세기 중·후반 대 가야제국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加羅王荷知'라는 구체적 이름을 가진 왕명도 보이고 있다.

6세기 대 가야의 대 중국 대외교섭을 살필 수 있는 사료는 찾기 쉽지 않다. 다만 521년 백제가 중국 남조의 梁에 遣使한 사신을 그린 것으로 보이는 『梁職貢圖』에 가야국들의 이름이 보이므로 이 당시 중국 남조에 가야가 알려졌음은 알 수 있다. 『梁職貢圖』는 梁武帝(502~549) 때에 蕭繹(508~554; 후의 梁元帝로 재위기간은 552~554)이 직접 그리고 그 序를 지은 것으로 편집 시기는 그가 荊州刺史로 있었던 시기(526~539)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 악부의 쟁을 모방하여 가야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볼 때,²⁸⁾ 이 시기 중국 문화가 가야에 직간접적으로 수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륵이 지은 가야금곡 12곡 가운데 10곡의 이름은 당시 가야 여러 나라들의 국명이지만, 사자기와 보기 2곡은 중국 南朝에서 전래된 것으로 보이는 伎樂曲이다. 이는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음악이 가야에 들어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III. 왜와의 관계

1. 3세기 이전

한반도 남부지역의 가야와 왜는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일찍부터 왕래하면서 교류하여 왔다. 가야는 왜로의 선진 문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가야 초기에는 남해안을 연한 김해 가라국 중심의 교류가 이루어 졌지만 점차 가야 내륙지역에서도 왜와의 교류를 확대해 갔다. 가야 왜 사이의 교류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倭가 최초로 등장하는 문자 사료는 先秦 자료인 『山海經』이며²⁹⁾, 後漢 王充(27~97)이 찬술한 『論衡』에도 “周的 시대는 천하태평으로 倭人이 蓍(창초; 香草)를 바쳤다”라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 正史의 기록으로는 後漢 班固(32~92)가 찬한 『漢書』 地理志에 등장한다. 이 시기의 倭는 100여 개의 소국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漢 낙랑군에 조공을 바쳤다고 한다. 그리고 『後漢書』 東夷傳에는 서기 57년 倭의 奴國王 사신이 낙양을 방문하여 광무제로부터 印綬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³⁰⁾. 이 기록은 1784년 일본 후쿠오카의 지카노시마에서 “漢委奴國王”이라고 새겨진 金印이 실제로 발견되어 더욱 주목된다. 1세기 대 倭의 존재를 확인시켜준은 물론 당시 왜가 중국과 통교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2세기 대 倭의 모습과 대외교류 사실을 알 수 있는 考古 자료가 있다. 1970년 중국 安徽省 亳縣에서 발견된 元寶坑 1

28) 『三國史記』 권32, 잡지1(악) 가야금조. “가야금 역시 중국 악부의 쟁을 모방하여 만들었다. -(중략)- (신)라고기(羅古記)에 말하기를 가야국의 가실왕이 중국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으며, 왕이 여러 나라의 방언에 성음의 차이가 있어 하나로 통일하고자 성열현 사람 우륵에게 명하여 12곡을 만들게 하였다. 뒷날 나라가 어지럽게 되자 우륵은 악기를 가지고 신라 진흥왕에게 투항했다.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국원(지금의 충주)에 안치했다. -(중략)- 우륵이 지은 12곡은 1. 하가라도(下加羅都) 2. 상가라도(上加羅都) 3. 보기(寶伎) 4. 달이(達己) 5. 사물(思勿) 6. 물혜(勿慧) 7. 하기물(下奇物) 8. 사자기(師子伎) 9. 거열(居烈) 10. 사팔혜(沙八兮) 11. 이혁(爾赤欠) 12. 상기물(上奇物)이다. (加耶琴 亦法中國樂部箏而爲之 -(중략)- 羅古記云 加耶國嘉實王見唐之樂器而造之 王以謂諸國方言各異聲音 豈可一哉 乃命樂師省熱縣人于勒造十二曲 後于勒以其國將亂 攜樂器投新羅眞興王 王受之安置國原 -(중략)- 于勒所製十二曲 一曰下加羅都 二曰上加羅都 三曰寶伎 四曰達己 五曰思勿 六曰勿慧 七曰下奇物 八曰師子伎 九曰居烈 十曰沙八兮 十一曰爾赦 十二曰上奇物) ”

29) 『山海經』 「海內北經」, “蓋國在鉅燕南 倭北 倭屬燕”

30) 『後漢書』 「東夷傳」 倭條,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使人…(중략)…光武賜以印綬”

호묘 출토의 博에서 '倭人'의 모습을 볼 수 있다. 後漢 2세기 후반에 축조된 元寶坑 1호묘에서는 文字博 160점 정도가 출토되었다. 그 중에 "...有倭人以時盟不"이라는 명문 벽돌이 발견된 것이다³¹⁾.

3세기 대 倭의 모습은 陳壽(233~297)가 편찬한 『三國志』 魏志 倭人傳에 비교적 자세히 보인다. 이에 小國 간의 다툼이 격화되어 왜에 전국적인 대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보인다. 일본 열도의 소국들이 다투는 혼란기가 계속되다가, 3세기에 접어들면서 멸망과 통합을 거듭하며 정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중 30여 나라를 지배하였던 邪馬台國이 가장 큰 나라였다. 아마타이국의 여왕 卑彌呼는 239년, 魏에 사신을 파견하고 다수의 구리 거울과 親魏倭王의 칭호를 얻었다. 히미코 사후 아마타이국은 혼란에 빠지나 여왕 壹與가 왕위에 오른 후 안정을 찾았다. 일여의 泰始 2년(266), 晉에 사신 파견 이후 백여 년 동안 왜는 중국 사서에서 사라진다.

이러한 倭가 중국과 교섭함에 있어서 중간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 변한이었다. 변한의 입장에서 보면 왜와 중국 양쪽을 아우르는 대외관계를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대방군에서 왜로 가기 위해서는 뱃길을 통해서였다. 『삼국지』 왜인조에서는, "서해안을 따라 7,000여 리의 뱃길을 거쳐 狗邪韓國의 북쪽 해안에 이르고, 다시 1,000여 리의 바다를 건너면 쓰시마국(對馬國)에 이른다."고 기록하고 있다. 구야한국은 가락국의 전신 구야국이다. 쓰시마에서는 이키섬을 거쳐 후쿠오카로 향했을 것이다. 『삼국지』 韓傳에서는 韓은 왜와 접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변진조에는 "瀆盧國은 倭에 경계를 접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독로국은 지금의 부산 동래지역이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경계가 접해 있다고 본 것처럼, 한과 왜는 교류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위치임을 알 수 있다. 교류의 내용물은 철 등의 선진문물을 왜로 수출하는 것이었다. "나라에는 철이 나는데 마한과 濊, 倭에서 모두 그것을 가져갔다."라는 『삼국지』의 유명한 기록이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 왜로부터 받는 상대 급부는 소금 등의 특산물과 노동력일 가능성이 있다.

2. 4~6세기

4~5세기 대 가야제국과 왜의 대외교류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진문물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것이었다. 鐵자원은 여전히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왜의 가야에 대한 반대급부는 소금 등의 특산물과 노동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派兵 형태의 군사지원도 이해관계에 따라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세기 대 가야와 왜국과의 대외교류 상황을 살펴 볼 수 있는 문헌 자료로는 『古事記』, 『日本書紀』 등이 있지만 이는 전승 자료로서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시기 중국 측 사료는 결락되어 있어 비교적 객관적이라 할 수 있는 사료는 없는 셈이다. 이에 일찍부터 4세기 대를 '수수께끼의 시기'라고 할 정도이다.

여기에서는 4~5세기 대 가야와 왜의 대외교류에 대해 『日本書紀』 신공기 기사와 광개토태왕릉비문, 『宋書』의 이른바 왜 5왕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가. 「神功紀」 기사를 통해서 본 가야와 왜의 대외교류

중국의 동방교섭 거점이었던 樂浪·帶方二郡이 고구려에 접수되고 난 뒤부터 고구려군이 남진하는 5세기 초까지 가야와 왜의 대외교류 상황은 살펴볼 수 있는 문헌기록은 거의 없는 셈이다. 다만 『日本書紀』의 「神功紀」 46년(366)~49년(369) 기사를 2주갑 인하하면 4세기 중·후엽이 되는데, 비록 전승적 사료이지만 가야와 倭 사이 교류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들 기사는 종래 倭의 加耶(=任那)지배의 시원으로서, 혹은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과 관련하여 검토되어 왔었다.

31) 森浩一 編, 1985, 『倭人の登場』, 中央公論社, 13쪽.

사료 A) : 斯摩宿禰를 탁순국(사마숙네는 무슨 姓의 사람인지 모르다)에 보냈다. 이때에 卓淳王 未錦阜岐는 사마숙네에 고하여 말하기를 “甲子年의 칠월 중에 百濟人 久氐와 彌州流, 莫古 삼인이 우리 땅에 와서 ‘백제왕은 東方에 日本이라는 貴國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들을 보내 그 貴國에 가게 하였습니다. 고로 길을 찾아서 그 나라에 가고자 합니다. 만일 신들에게 길을 가르쳐 통하게 하시면, 우리 왕은 반드시 군왕의 덕으로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中略)- 그래서 사마숙네는 종자인 爾波移와 卓淳人 過古 둘을 百濟國에 보내어 그 왕을 위로하게 하였다. 백제의 肖古王은 기뻐하고 후대하였다. 오색의 綵絹 각 한 필, 角弓箭과 아울러 鐵鋌 사십 매를 이파이에게 주었다. 또 보물창고의 문을 열어, 각종의 진기한 물건을 보이며 “이 진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貴國에 공상하려 해도 길을 모르다. 뜻은 있어도 따르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사자에게 부탁하여 공헌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 때 이파이는 받아가지고 돌아와 志摩宿禰에게 고하였다. 그리고 卓淳에서 돌아왔다.³²⁾

사료 B) : 卓淳에 모여 신라를 쳐서 깨부수고 이로서 比自燧 南加羅 喙國 安羅 多羅 卓淳 加羅의 七國을 평정했다.³³⁾

이들 기사에 대해서는 이른바 任那日本府의 기원문제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많은 언급이 있었다. 李基東은 이들 기사에 대한 그 동안의 인식을 否認論, 肯定論, 修正論으로 대별하고 있다.³⁴⁾ 그런데 末松保和의 任那日本府論이³⁵⁾ 극복된 현 단계에 있어서 긍정론은 이미 그 생명력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부인론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百濟측 사료의 흔적과 더불어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欽明紀 속의 百濟 聖王이 언급하고 있는 4세기 후반의 百濟와 加耶제국과의 관계 설명으로 보아 이들 기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한편, 부정론의 입장인 田中俊明은 神功紀 49년조의 기사를 기본적으로는 조작이라고 하면서 이 시기에 있어서 倭는 물론이고 百濟도 加耶를 정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百濟의 가야지역 영유를 반박하고 있다.³⁶⁾ 이들 기사를 가지고 왜 또는 백제가 가야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왜와 백제가 가야지역을 매개로 한 대외교류는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이 기사들의 편년이다. 연대를 수정함에 있어서 3주갑 인하설³⁷⁾도 있지만, 2周甲(120년)을 내려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들 기사 속에는 2주갑 내지 3주갑을 인하하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음이 사실이다. 이는 百濟系 자료와 倭系 전승 자료를 혼합하여 가상의 神功紀를 설정하여 기술한 까닭에 생긴 혼란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가상의 神功紀에 한반도 남부경영의 시원이라는 역사상을 메우기 위해 비교적 풍부한 후대의 사실이 정확한 기준 없이 소급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百濟系 사료에 한정하는 한 薨去記事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그 기준은 2주갑 인하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欽明紀 속의 百濟 聖王 언급기사와 더불어 神功紀 55년조의 “百濟肖古王薨” 기사와 56년조의 “百濟王子貴須立爲王” 기사를

32)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攝政 46年(246+120=366) 春3月條.

33) 『日本書紀』 권9 神功皇后 攝政 49年 3月條.

34) 李基東, 1989, 「4세기 韓日關係史 연구의 문제점」, 『韓國上古史』, 民音社, 271~272쪽. 李基東, 1990, 「百濟의 勃興과 對倭國關係의 成立 - 近肖古王代에 있어서 百濟의 倭國과의 交渉-」, 『古代韓日文化交流研究』, 韓國精神文化研究院, 271~273쪽.

35) 즉, 일본의 大和(아마토)朝廷이 4세기 중엽(神功紀 49년을 기준으로 수정, 서력기년 369년)부터 6세기 중엽(欽明紀 23년과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23년의 加耶滅亡 기사를 기준으로 서력기년 562년)까지 약 200년 동안 한반도 남부지역에 任那日本府라는 통치기관을 두고 다스렸다는 說로서, 末松保和(1949, 『任那興亡史』, 大八洲出版.)에 의해 체계화되어졌다.

36) 田中俊明, 1991, 「大成洞古墳群と任那論」,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8號, 65쪽.

37)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113~127쪽. 山尾幸久는 『日本書紀』 雄略紀 속의 『百濟新撰』의 기사를 주시하여, 神功紀 49년조를 중심한 神功紀의 기사를 3주갑 인하하여 새로운 역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은 5세기 대 倭五王의 시대를 부각시키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2주갑 인하하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近肖古王 三十年 “冬十一月 王薨” 기사와 近仇首王 元年의 “即位”와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은 2주갑 인하설의 중요한 근거이다. 그리고 이러한 薨去와 即位 기사의 일치는 神功紀 기사를 완전히 버릴 수 없는 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神功紀의 보다 정밀한 분석은 同 52년조의 七枝刀 헌납기와 日本 奈良縣 天理市에 있는 石上神宮 所藏의 七支刀의 製作年代問題 등과 관련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³⁸⁾

사료 A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甲子년에 百濟使 久氐 등 3인이 日本에 조공하기 위해서 卓淳까지 갔다. 그러나 日本에 가기 위해서는 험한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돌아갔다. 2년 후 卓淳에 파견된 日本(倭)의 斯摩宿禰가 卓淳王 末錦早岐로부터 백제 사신이 왔다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從者 爾波移를 卓淳人 過古와 함께 百濟에 파견한다. 이에 百濟 近肖古王은 그들에게 많은 선물을 줌과 동시에 百濟에는 많은 珍寶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을 日本에 바치고 싶지만 길을 몰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미루어 보면, 백제와 왜가 통교함에 있어 가야의 一國인 卓淳이 양국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백제와 왜가 쉽게 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탁순의 위치를 남해안에 인접한 창원에서 구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4세기 중-후엽의 시기는 백제-고구려의 대치 상황 속에서 기존 백제-왜와의 서해 해로를 통한 전통적 교역 루트가 안정적이지 못했다. 이에 왜에게 있어서 서해안 해로를 통한 대외교류는 백제와 고구려의 興衰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왜는 백제와의 안정적 교역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다. 위의 기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온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 즉, 기존 해로보다는 육로를 통한 새로운 교역로를 확보 개척하는 모습을 『일본서기』 찬자가 마치 왜가 한반도 남부지역을 장악하는 모습으로 왜곡 변환한 것이다.

倭의 對한반도 교섭 목적은 鐵과 선진문물의 도입이었다. 철은 주로 가야지역을 통해서였고, 선진문물은 백제 및 중국 균현을 포함한 본토로부터였다. 그런데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의 장악으로 인해 중국과의 통교가 차단되어 선진문물의 구입처를 전통적 우호국인 가야와 백제로 한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백제와의 교섭에 있어서 400년 이상의 전통적 통로인 서해연안이 帶方故地를 장악한 고구려로부터 방해받게 되자 새로운 통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卓淳의 위치와 이 시기 가야지역의 對外交渉像은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탁순은 4세기 중엽 왜가 백제와 육로로 통교하기 위한 중개지였다. 탁순의 위치는 내륙에서 전략적 요충지이면서 한성백제와 통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대구지역은 바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지역이다. 남해안에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탁순-백제 통로는 새로운 교역로이긴 하나 전혀 새로운 신개척로는 아니었다. 대구 만촌동 출토 왜계 대형 광형동모가 말해주듯 대구지역과 일본 열도와의 교류루트는 이미 열려 있었다. 부산에서 한성 서울로의 직선 상에 대구가 위치한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6세기대의 상황을 소급하여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나카 도시아키(田中俊明)는 신공기 49년조(사료 B)의 가야 7국명은 5세기 중엽 이후에야 등장할 수 있는 국명들이라고 하였다.³⁹⁾ 고령 대가야의 가라에 비해 김해 가야세력을 남가라라고 표기한 것은 고령 대가야가 주도적 위치에 있었던 시기의 국명 표기 나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함께 나오는 박제상 관련 기사에서 왜에 인질로 간 미사흔을 박제상이 구출

38) 신공기의 신빙성 문제와 관련한 七支刀의 제작년대 문제와 함께 七支刀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고들이 우선적으로 참고된다. 神保公子, 1973, 「七支刀研究の歩み」, 『日本歴史』 301. 神保公子, 1975, 「七支刀の解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84-11, 35-56쪽. 神保公子, 1981, 「七支刀銘文の解釋をめぐっ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148-175쪽.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村上英之助, 1978, 「考古學から見た七支刀の製作年代」, 『考古學研究』 99.

39) 田中俊明, 2018 「『일본서기』를 통해 본 안라와 왜의 관계」, 『안라(아라가야)의 위상과 국제관계』, 학연문화사, pp.216-230.

해 오는 연대를 『일본서기』에서는 신공기 5년(205)에 두고 있지만, 『삼국사기』에서는 눌지왕 2년(418)의 사실로 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기존에 제출된 2주갑 또는 3주갑 인하설로서는 해명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신공기 49년조의 이해는 사료에서 고대 일본의 천황주의 사관을 제거한 후,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정황에 근거해 이해해야 한다. 사료의 주체는 역시 백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서기』의 한반도 관련기사들이 『백제삼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점과 더불어 사료에서 '南蠻枕彌多禮'에서의 '南蠻'이라는 표현은 백제를 주체로 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신공기가 후대의 필요에 의해 설정되었음은 『일본서기』의 편찬 과정상의 순서를 통해 보더라도 추정 가능하다. 『일본서기』는 持統朝(687~696)에 권14 雄略紀부터 권21 用明·崇峻紀와 권24부터 권27 天智紀가 먼저 만들어졌다. 권1 神代紀부터 권13까지는 다음 대인 文武朝(697~707)에 찬술되었다.⁴⁰⁾ 이는 신대기부터 권13까지의 내용이 이후 사실에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가상적으로 정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케 한다. 권13 이전의 기사는 문제가 많은 것이다. 이 점은 동일 사건이 양쪽에서 언급, 서술되었을 경우 권14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준다. 이는 신공기의 내용을 통해서 倭가 신라는 물론이고 가야제국을 정벌했다고 볼 수 없음을 말한다. 모두가 후대에 조작된 것이다.

그러면 주체 수정론에 입각하여 백제가 가야 7국을 정복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판단 여부는 당시 한반도의 상황 속에서 추구해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에 는 가야 7국 중, 고령의 가라국이 김해의 남가라 보다 우위적 위치를 점하는 시기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연대 설정과 관련하여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금석문이다. 최근 충주 고구려비의 건립연대를 397년으로 보는 설이 학계에 제출되었다. 고광의는 비의 題額 부분을 '永樂七年歲在丁酉'로 읽었다.⁴¹⁾ 丁酉는 397년에 해당한다. 碑는 이해 5월에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새기고 있지만, 건비연대와 동일시해도 무방하리라 생각한다. 고구려 광개토태왕 7년, 신라 내물왕 42년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고구려의 이 지역 장악은 백제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아신왕(6년)은 태자 肅支를 倭에 質子로 보내 동맹을 공고히 할 수 밖에 없었다. 3년 후 고구려 步騎 5만은 신라 왕성에 쳐들어 온 왜적을 쫓아 임나가라 종발성까지 진출한다. 임나가라는 남가라를 의미하며 종발성은 오늘 날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연제구 일대로 보인다.⁴²⁾ 고구려가 경주를 거쳐 남부 해안에까지 이른 것이다. 고구려가 한반도 중남부에서 위세를 떨치며 세력을 유지한 시기는 늦어도 5세기 중엽까지는 가능했다. 반면 이 시기까지 백제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 외의 정황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433년 이른바 나제동맹의 결성은 고구려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공동 방어선 구축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475년 백제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다. 8천명의 포로가 발생하고 개로왕은 전사한다.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길 수밖에 없었으며, 거의 패망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백제가 위의 사료와 같은 내용의 상황을 일어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의 진출과 그를 두고 신라와 쟁패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영산강유역에까지 눈길을 둘 수

40) 森博達은 『일본서기』의 음운과 문장을 분석하여 그 표기의 성격 차이를 바탕으로 α 群(권14~21·24~27)· β 群(권1~13·22~23·28~29)·권30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나아가 α 群은 持統朝(687~696)에 續守言과 薩弘恪이 正音에 의한 正格漢文으로 述作했으며, β 群은 文武朝(697~707)에 山田史御方이 倭音을 바탕으로 한 일본식 한문으로 찬술하였다고 하였다. 권30은 元明朝(708~714)에 紀朝臣清人이 찬술하였다고 한다. 모리 히로미치 지음·심경호 옮김, 2006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41) 고광의, 2020 「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 -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98, p.86.

42) 백승욱, 2020 「임나가라(任那加羅) 종발성(從拔城)과 고대 부산」, 『항도부산』40, pp.110~122.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백제가 웅진 천도 후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간 시기는 6세기 초 무녕왕 즉위(501) 이후로 보인다.

사료 C) 백제가 姐彌文貴將軍과 州利卽爾將軍을 穗積臣押山(『百濟本記』에 의하면 '倭의 意斯移麻岐彌'라고 한다)에게 딸려 보내 오경박사 段楊爾를 바쳤다. 따로 주청하여 “伴跛國이 신의 나라인 己汶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천은으로 판단하여 본래의 소속으로 되돌려 주십시오”라고 하였다.⁴³⁾

사료 D) 조정에서 백제의 姐彌文貴將軍, 斯羅의 汶得至, 安羅의 辛已奚, 賁巴委佐, 반파의 旣殿奚, 竹汶至 등을 나란히 세우고 은칙을 받들어 선포하고, 己汶, 帶沙를 백제국에 주었다. 이 달에 반파국이 증지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기문의 땅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⁴⁴⁾

이들 기사도 번국사관에 의해 윤색 왜곡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백제가 기문 대사지역으로의 진출을 보여 주는 내용임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는 지금의 경남 하동지역에 기문은 전북 남원 또는 그 주변 지역에 비정된다.⁴⁵⁾ 백제가 신공기 사료의 가야 제국들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이들 양 지역(기문-대사)에 진출한 이주가 될 것이다.

나. 광개토태왕릉 비문 속의 가야와 倭

4세기 말~5세기 초, 가야와 왜의 대외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414년 고구려에서 세운 광개토태왕릉비문(이하 비문으로 약칭함)이 있다. 이에선 아주 단편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가야에 관한 기록이 있다. 그리고 왜에 대해서는 고구려 측에서도 매우 주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倭는 비문에 9~12회 정도 등장한다. 등장 횟수에 차이가 있는 것은 비문의 결락 등으로 인해 논자들마다의 이견 때문이다. 그 외 등장하는 나라들로는 百殘(百濟) 9회, 新羅 7회, 東夫餘 3회, 任那加羅 1회, 稗麗 1회, 帛愼(肅愼) 1회 등장한다. 이로 보면 적어도 비문 속에서의 倭는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상대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출현 횟수의 다수로서 그 실체를 가늠할 수는 없으며, 비문의 내용 속에서 그 성격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동안 비문 속의 倭 관계기사에 대한 연구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왔다. 하나는 倭의 입장에서 비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시각이고, 다른 한 시각은 고구려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비를 세운 주체가 고구려이기 때문에 비문의 연구는 당연히 고구려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특히 일본학계의 경우 최근까지도 倭國의 국가 형성사 등과 같은 일본 고대사의 構築이라는 차원에서 비문의 내용을 이용하고 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비문을 연구하는 쪽도 결점이 없지 않다. 정확한 석독에 근거하지 않은 채 伏字에 대한 무리한 추정을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점 등이다. 학문적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倭는 광개토태왕의 훈적을 명기한 기사 가운데 영락 5년과 6년 사이의 이른바 신묘년조 기사를 필두로 9년 기해년

43) “百濟遣姐彌文貴將軍 州利卽爾將軍 副穗積臣押山[百濟本記云 委意斯移麻岐彌] 貢五經博士段楊爾 別奏云 伴跛國略奪臣國己汶之地 伏願天恩判還本屬.”(『日本書紀』卷17, 繼體 7년(513) 6월조)

44) “於朝廷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安羅辛已奚及賁巴委佐 伴跛旣殿奚及竹汶至等 奉宣恩勅 以己汶帶沙賜百濟國 是月 伴跛國 遣戢支獻珍寶 乞己汶之地 而終不賜.”(『日本書紀』卷17, 繼體 7년(513) 11월조)

45) 백승욱,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 pp.95~96의 <표 1> 참조.

조, 10년 경자년조, 14년 갑진년조에서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른바 신묘년조 기사이다.

사료 E) ; 百殘新羅舊是屬民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破百殘新羅 以爲臣民

신묘년 기사는 그 명성만큼이나 그 동안의 연구 성과 또한 대단한 것이어서 구구의 설이 있다⁴⁶⁾. 이 구절은 釋讀도 일치하고 있지 않다. 특히 I-9-13자(비의 제1면 9번째 줄 13번째 글자를 의미함)에 대해서는 옛 일본학계에서는 ‘海’로 읽어 왔으나, 水谷悌二郎⁴⁷⁾과 武田幸男⁴⁸⁾, 任世權·李宇泰⁴⁹⁾는 모르는 글자로 처리했다. 북한학계의 손영중은 이를 ‘溷’로 석독하고 있다⁵⁰⁾. 이를 伏字로 처리하고 신묘년조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百殘과 新羅는 오래전부터 (우리 고구려의) 屬民이었다. 그래서 朝貢을 받쳐왔다. 그런데 倭가 辛卯年에 (우리 속민의 땅에 침범해)오므로, (왕이) □를 건너 백잔을 치고 新羅를 □□하여 臣民으로 삼았다.”

여하든 倭는 신묘년 즉 391년에 바다를 건너 왔으며, 이는 고구려가 백제를 정벌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고구려 광개토태왕은 396년 당시 백제의 수도를 공격하여 백제왕의 항복을 받았다. 비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때 또한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3년 뒤(399년) 백제와 倭는 또 다시 和通하여 고구려를 위협하였다.

“영락 9년 己亥(399년)에 백제가 맹서를 어기고 倭와 화통했다. 왕이 평양으로 순행하여 내려갔다. 신라가 사신을 보내 왕에게 아뢰어 말하기를 ‘倭人이 그 국경에 가득차고, 城池를 부수고 奴客으로서 民을 삼으려 하니 왕에게 와서 命을 청합니다.’ 하였다. 대왕이 은혜롭고 자애로우 (신라왕의) 충성을 가늠하게 여겨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계책을 돌아가서 고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백제가 맹서를 어겼다는 것은 영락 6년조에 ‘왕에게 앞드려 스스로 맹서하기를 지금부터 영구히 (고구려 왕의) 奴客이 되겠다 跪王自誓 從今以後 永爲奴客.’고 한 맹서를 어겼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삼국사기』 「백제본기」 아신왕 6년(397)조에 백제가 倭國과 結好하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내는 내용과 한강의 남에서 열병식을 거행하는 기사를 참고해 볼 수 있다.⁵¹⁾ 이로 보아 백제는 396년 고구려에 대파되고 항복했으나 이듬해인 397년에 항복의 맹서를 어기고 倭와 연결하는 등 고구려에 맞설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지왕 즉위년조와⁵²⁾ 『日本書紀』⁵³⁾에서도 확인된다.

46) 전반적 연구사의 정리는 李基東 및 武田幸男, 특히 신묘년조 기사의 정리는 徐榮洙의 논문이 참고된다. 李基東, 1988,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史市民講座』 3, 一潮閣.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徐榮洙, 1996, 「辛卯年記事의 변상과 원상」, 『廣開土好大王碑研究 100年(中)』(제2회 高句麗國際學術大會 발표요지), (社團法人)高句麗研究會.

47) 水谷悌二郎, 1959, 「好大王碑考」, 『書品』 100號.

48)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49) 任世權·李宇泰 編著, 2002, 『韓國金石文集成(1)』, 韓國國學振興院.

50) 손영중, 1988, 「광개토왕릉비 왜관계기사의 올바른 해석을 위하여」, 『역사과학』 126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사회과학출판사. 손영중, 2001,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도서출판 중심.

51)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아신왕 6년(397)조, “六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秋七月 大閱於漢水之南”.

52)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 전지왕 즉위년조, “腆支王(或云直支) 梁書 名映 阿莘之元子 阿莘在位第三年立爲太子 六年出質於倭國 十四年 王薨 王仲弟訓攝政 以待太子還國 季弟磔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既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棄世 王弟磔禮殺兄自立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磔禮 迎腆支即位”.

53) 『日本書紀』 권10 應神天皇 8년(丁酉277+120)조, “八年春三月 百濟人來朝[百濟記云 阿花王立无禮於貴國 故奪我枕彌多禮 及嶺南 支侵 谷那東韓之地 是以 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

다음은 비문의 十年庚子條의 부분이다.

사료 F) ;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卽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寇大*潰

비문 속에서 가야관계 기사가 나오는 곳이다. 倭는 결락이 심해 정확히 몇 번 나오는지 헤아리기 힘들지만, 3~7회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대략적 내용은 (신라의 구원요청에 의해)고구려의 광개토왕은 庚子年(400년)에 步騎 五萬을 보내 倭에 점령당한 신라를 구원하고 한반도 남부의 김해 지역까지 진출하며⁵⁴⁾ ‘安羅人戍兵’과도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왜병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비문 속에서 倭는 ‘倭’, ‘倭人’, ‘倭賊’, ‘倭寇’ 등으로 표기되고 있어 표현 자체만으로 볼 때 倭는 고구려에 멸시당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도 ‘大潰’당하는 상대로서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적 시각에서 기록된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4세기 말~5세기 초의 倭세력은 고구려가 무시할 수 없었던 존재이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리고 백제와 화통하는, 즉 동맹을 형성하여 고구려에 대적하는 세력이었다. 이에 가야도 백제, 왜와 더불어 궤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세기 후반 碑 발견 이래 한동안 비문 속의 倭는 당시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을 지배하는 존재로 대접받아 왔다. 이는 가야를 비롯한 고구려, 백제, 신라, 왜가 존재했던 당시의 실상보다는 제국주의 일본과 식민지 조선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였다.

다. 『宋書』所載 倭5王 기사와 가야와 왜의 대외교류

왜5왕이란 중국왕조에 책봉된 5명의 왜국왕 讚·珍·濟·興·武를 말한다. 『宋書』⁵⁵⁾ 등 사서에 전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중국 사서에 보이는 倭5王

서 력	내 용	출 전
413	① 是歲, 高句麗倭國及西南夷銅頭大師並獻方物.	『晉書』安帝紀
	② 晉安帝時, 有倭王讚遣使朝貢.	『南史』倭國傳
	③ 晉安帝時, 有倭王贊 贊死 立弟彌 彌死 立子濟 濟死 立子興 興死 立弟武	『梁書』倭傳
421	④ 詔曰: 「倭讚萬裏修貢, 遠誠宜甄, 可賜除授.」	『宋書』倭國傳
425	⑤ 讚又遣司馬曹達奉表獻方物.	『宋書』倭國傳
430	⑥ 是月, 倭國王遣使獻方物.	『宋書』文帝紀
438	⑦ 讚死, 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 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 征虜, 冠軍, 輔國將軍號, 詔並聽.	『宋書』倭國傳

54) 비문에 나오는 ‘任那加羅’의 위치를 고령의 가야세력으로 볼 경우, 고구려군의 부산·김해지역으로의 진출은 부정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비문 속의 ‘任那加羅’를 당시 부산·김해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했던 가야로 보는 입장을 갖는다. 백승욱,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 89~100쪽.

55) 『宋書』 권97 「列傳」57 東夷傳 倭國條.

서 력	내 용	출 전
438	⑧ 以倭國王珍爲安東將軍(중략) 是歲, 武都王, 河南國, 高麗國, 倭國, 扶南國, 林邑國並遣使獻方物.	『宋書』文帝紀
443	⑨ 倭國王濟遣使奉獻, 復以爲安東將軍, 倭國王.	『宋書』倭國傳
	⑩ 是歲, 河西國, 高麗國, 百濟國, 倭國並遣使獻方物.	『宋書』文帝紀
451	⑪ 加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將軍如故, 并除所上二十三人軍, 郡.	『宋書』倭國傳
	⑫ 安東將軍倭王倭濟進號安東大將軍.	『宋書』文帝紀
460	⑬ 倭國遣使獻方物.	『宋書』孝武帝紀
462	⑭ 濟死, 世子興遣使貢獻 世祖大明六年, 詔曰: 「倭王世子興, 奕世載忠, 作藩外海, 稟化寧境, 恭修貢職. 新嗣邊業, 宜授爵號, 可安東將軍, 倭國王.」	『宋書』倭國傳
477	⑮ 倭國遣使獻方物.	『宋書』順帝紀
478	⑯ 興死, 弟武立, 自稱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 順帝昇明二年, 遣使上表曰(중략)詔除武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	『宋書』倭國傳
	⑰ 倭國王武遣使獻方物, 以武爲安東大將軍.	『宋書』順帝紀
479	⑱ 新除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武號爲鎮東大將軍.	『南齊書』倭國傳
502	⑲ 鎮東大將軍倭王武進號征東大將軍	『梁書』武帝紀

그동안 『宋書』倭國條에 보이는 왜5왕 기사는 왜 왕권성립과 관련하여 5세기 대 왜가 한반도 남부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료로서 이용되어왔다.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의 주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倭의 일방적 청구 주장에 의한 것이며, 중국 남조의 허락 또한 사실보다는 명분적 제수일 뿐이었다. 따라서 이 기사를 가지고 가야와 왜의 관계를 규정지을 수는 없다.

438년 왜왕 珍은 송에 조공을 보내면서 ‘使持節 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國王’을 자칭하고 이를 제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安東將軍 倭國王’으로만 제수받을 뿐이었다. 그런데 478년 武는 꾸준한 요청 끝에 ‘使持節 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 安東大將軍 倭王’으로 제수받게 된다. 여기서 ‘使持節 都督’이란 황제의 信標인 符節을 받아 독자적으로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6국 諸軍事’는 6국 지역의 군사권을 행사한다는 의미이다. ‘○○將軍’은 상하서열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진 용어이다. 이러한 의미 때문에 소위 임나일본부를 주장하는 논자들은 왜왕이 6국을 지배 통치한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이도 역사적 史實이 아니다.

또한 <표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으로부터의 장군호 임명에 있어서도 倭는 고구려와 백제보다 하위직이었다.

〈표 2〉 高句麗·百濟·倭 3국왕의 將軍號 임명 비교⁵⁶⁾

高句麗	百濟	倭
413年 (高璉)征東將軍	372年 (余句) 鎮東將軍	438年 (珍) 安東將軍
416年 征東大將軍	386年 (余暉) 鎮東將軍	443年 (濟) 安東將軍
463年 車騎大將軍	416年 (余映) 鎮東將軍	451年 安東大將軍
480年 驃騎大將軍	420年 鎮東大將軍	462年 (興) 安東將軍
494年 (高雲)征東將軍	457年 (余慶) 鎮東大將軍	478年 (武) 安東大將軍
502年 車騎大將軍	480年 (牟都) 鎮東大將軍	479年 鎮東大將軍
508年 撫東大將軍	490年 (牟太) 鎮東大將軍	502年 征東將軍
520年 (高安)寧東將軍	502年 征東大將軍	
526年見 (高延)撫東將軍	521年 (余隆) 寧東大將軍	
548年 (高成)寧東將軍	524年 (余明) 綏東將軍	
562年 (高湯)寧東將軍	526년 撫東大將軍	

3국의 최초 장군호의 제수를 보면 고구려는 征東將軍, 백제는 鎮東將軍, 倭는 安東將軍이었다. 宋代의 관품표에 의하면 이들의 서열은 ①征東將軍←②鎮東將軍←③安東將軍의 순이다. 이후 각국은 보다 높은 품계를 받게 되는데, 고구려왕은 征東將軍(제3품)→征東大將軍(제2품)→車騎大將軍(제1품)→驃騎大將軍(제1품)을 받게 된다. 백제왕은 鎮東將軍(제3품)→鎮東大將軍(제2품)→征東大將軍(제2품)을 받는다. 이에 대하여 倭王은 安東將軍(제3품)→安東大將軍(제2품)→鎮東大將軍(제2품)을 받게 된다. 처음부터 고구려에 대해서는 물론, 백제보다도 낮은 품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⁵⁷⁾. 이는 당시 3국의 국제적 위상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讚-珍-濟-興-武 5왕을 『古事記』, 『日本書紀』의 어느 천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江戸時代부터 진행되어 왔다. 천황의 계보와 이름의 유사성 등을 비교하여 濟-興-武 3왕에 대해서는 각각 사서상의 允恭·安康·雄略에 비정함에 이르지 않는다. 또한 『송서』는 讚과 珍을 형제, 濟-興-武를 부자와 형제로 명기하고 있다⁵⁸⁾. 이를 보면 이 시기 왜의 왕은 기본적으로 혈연에 의한 계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송서』에는 珍과 濟와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런데 『양서』에는 濟의 아버지를 彌로 적고 있다(〈표 1〉의 ③). 〈표 1〉의 사료 ⑦에 보이는 珍은 ③에 보이는 彌와 동일 인물로 보아 좋을 것 같다. 두 글자의 異體字(혹은 略字) 玠과 弥가 유사한 데에서 기인한 誤記로 보인다. 『宋書』의 珍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⁵⁹⁾.

일본 고대사학계에서는 『宋書』에 보이는 武를 『日本書紀』의 雄略으로 비정하여 왜 왕권 성립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즉 『日本書紀』의 大泊瀨幼武天皇(おほほはつせのわかたけのすめらみこと=雄略天皇)과 『宋書』의 倭王 武는 동일 인물로서 武의 경우 ‘大王’으로도 지칭되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日本 埼玉縣 埼玉古墳群 稻荷山古墳 출토의 辛亥銘鐵劍銘文의 “乎獲居世世爲杖刀人首奉事來至今 獲加多支鹵大王寺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今作此百練利刀 記吾奉事根原也”속에서 ‘大王’이 보이고, 熊本縣의 江田船山古墳 출토의 劍銘, “治天下獲□□□鹵大王世奉□典曹人名无利弓

56) 笠井倭人, 1973, 『研究史 倭の五王』, 吉川弘文館, 236쪽.

57) 笠井倭人, 1973, 『研究史 倭の五王』, 吉川弘文館, 235쪽.

58) 田中史生, 2013, 「倭の五王と列島支配」, 『岩波講座 日本歴史』 1, 237쪽.

59) 노중국, 2005,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14쪽.

八月中用大鎗釜并四尺廷刀 八十練六十拵”에서도 ‘大王’이 보인다. 獲加多支鹵大王(=獲□□□鹵大王)은 ‘ワカタケル’로 발음되며, 이로 보아 雄略이 大王으로 칭해졌음은 분명하다고 보는 것이다⁶⁰).

왜왕들이 自稱號를 추구하면서 이를 宋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한 배경은 무엇일까? 일본 열도의 倭 세력은 3세기 후반 이후 5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중국과의 교섭이 단절되었다. 이 상태에서 왜의 각 세력들은 한반도 남부지역, 특히 가야와의 교섭을 통해서 鐵 등의 선진문물을 받아 들였다. 왜의 제 세력 가운데 大和 왜의 경우, 비교 우위를 점하게 되었고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외교섭에 대한 독점권과 배타적 우월권을 가지는 방안으로 宋으로부터의 군사호를 제수받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점이 왜 열도 내의 정치적 상황 때문이었다면 대외적 배경 또한 있었다고 생각한다. 4~5세기 대의 왜는 고구려-북조-신라에 대응하는 축으로서 백제-가야-남조-왜의 축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축의 형성은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왜의 경우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연관계가 있었지만, 중국 본토와의 직접 통교는 꾸준한 열망이었다. 漢대 이래 낙랑-대방과의 통교를 통해 맛보았던 선진문물들의 希求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욕망이었던 것이다. 4세기 초 고구려의 낙랑-대방지역 장악과 동시에 왜의 對中國行 해로 차단은 백제와의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되는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은 왜왕 武의 상표문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료 G) ;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道逕百濟, 裝治船舫, 而句驪無道, 圖欲見吞, 掠抄邊隸, 虔劉不已, 每致稽滯, 以失良風, 雖日進路, 或通或不.

왜왕 武는 謙辭하면서 조상 대대로 중국에 가고자 했으나 무도한 고구려 때문에 가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광개토태왕비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왜는 실제 고구려에 군사 대응을 하고 있다. 다음 기사는 왜왕 濟가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준비했으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미수에 그치고 말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사료 H) ; 臣亡考濟實忿寇讎, 壅塞天路, 控弦百萬, 義聲感激, 方欲大舉, 奄喪父兄, 使垂成之功, 不獲一簣.

倭王의 상표문이 군사호를 제수받기 위한 修辭로 가득차 있으며, 실제 지배권이나 영향력 하에 두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군사권까지도 除授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적 내용이라고 모두 버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倭國의 기본적 대외 노선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상표문의 내용에는 고구려에 대한 적대적 표현이 지나칠 정도이다. 이는 결국 왜와 고구려의 적대적 관계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비문에서도 倭를 倭寇, 倭賊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6세기 대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 계체, 흠명기에서 倭가 고구려에 대해 北敵 또는 強敵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라. 任那日本府의 실체

고대 한일관계사 연구에 있어서 키워드(Keyword)라 할 수 있는 것은 任那日本府 문제이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自國民 또는 自民族위주의 감정도 개입되어 연구되어져 온 점도 부정할 수

60) 藤間生大, 1968, 『倭の五王』, 岩波新書, 685쪽. 原島礼二, 1969, 『倭の五王とその前後』, 塙書房. 笠井倭人, 1973, 『研究史 倭の五王』, 吉川弘文館.

없다. 따라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부분이 많은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간에 제출된 수 많은 연구 성과들 가운데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도 있다. 6세기 대 가야와 왜 관계의 실상도 임나일본부 관련 기사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그동안 연구되어온 任那日本府에 대한 연구 경향을 一瞥해 보면 다음과 같다.⁶¹⁾

첫째, 任那日本府에서의 '府'의訓이 '미코토모치(ミコトモツチ)'라는 점에 주목하여 임나일본부를 '임나(=가야)에 파견된 왜왕의 사신'으로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임나일본부는 '御事持' 즉 왕의 命을 받은 '使臣'을 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외교사신설'이라 한다. 이러한 해석은 1970년대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에서 비롯되었으며, 이후 한일 양국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보인다.⁶²⁾

둘째, 임나일본부의 활동무대에 대해서는 '안라일본부'의 존재를 근거로 안라국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임나일본부의 등장시점은 웅락기의 한 예를 제외하면, 그 용례가 모두 흠명기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6세기 전 반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임나일본부의 파견주체에 대해서는 야마토왕권 파견설, 백제 파견설,⁶³⁾ 諸倭파견 在地倭人說⁶⁴⁾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야마토왕권 파견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야마토 왕권이 안라에 임나일본부를 파견하고 諸倭를 통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⁶⁵⁾

任那日本府는 任那 + 日本 + 府의 합성어이다. 이 가운데 일본이란 국명은 7세기 후반이 되어야 등장하는 용어이다. 府 또한 그 기원이 되는 大宰府가 법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大寶元年(701)에 제정된 大寶令이며, 水城·大野城 등 주변 방어시설과 大宰府의 주요 건물이 갖추어진 시기, 즉 大宰府의 실질적인 성립시기도 天智 3년(664) 무렵이라고 한다.⁶⁶⁾ 따라서 任那日本府란 용어는 7세기 대 후반 이후에나 나올 수 있는 용어이다. 5~6세기 대에 등장하는 『日本書紀』 상의 임나일본부는 기본적으로 날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使臣說의 근거는 府가 미코토모치로 읽혀지며, 이는 나라시대 이후 御事持(미코토모치)로 혼동한 것에서 비롯한다. 『日本書紀』에서의 府는 웅락기에 초출하는데, 府는 원래 일본 將軍들의 軍府인데 후대에 상설적인 정치기관이 되었다고 한다.⁶⁷⁾ 임나일본부의 출현 배경을 살피는 데에 있어서 府가 군사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고 생

61) 한일 양국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사 정리는 이연심, 2004, 「임나일본부의 성격 재론」, 『지역과 역사』14, 119~120쪽. 나행주, 2005, 「6세기 한 일관계의 연구사적 검토」,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19~48쪽. 仁藤敦史, 2013, 「『日本書紀』의 任那觀」,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79, 449~451쪽의 주64 참조.

62) 鈴木靖民, 1974, 「いわゆる任那日本府及び倭問題-井上秀雄「任那日本府と倭」評を通して」, 『歴史學研究』405. 奥田 尚, 1976, 「任那日本府と新羅倭典」, 『古代國家の形成と展開』, 吉川弘文館. 鬼頭清明, 1976, 『日本古代國家の形成と東アジア』, 校倉書房. 鬼頭清明, 1991, 「所謂任那日本府の再檢討」, 『東洋大學文學部紀要』45. 李永植, 1993,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2002, 「任那日本府を通じてみた六世紀の加耶と倭」, 『東アジアの古代文化』110号, 27~28쪽. 山尾幸久, 2003, 「任那日本府の二, 三の問題」, 『東アジアの古代文化』117号. 이연심, 위의 논문. 백승중, 2009, 「임나일본부의 용례와 범주」, 『지역과 역사』24; 2010, 「任那日本府의 파견 주체 재론-百濟 및 諸倭 파견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37.

63) 千寛宇, 1977-1978, 「復元 加耶史」, (上)(中)(下)『文學과 知性』28-29-31; 1991, 『加耶史研究』, 一潮閣. 金鉉球, 1985,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및 1993, 「任那日本府研究-韓半島南部經營論批判-」, 一潮閣. 김현구 외, 2002~2003,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II), 일지사.

64) 연민수, 1998,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263~266쪽.

65) 임나일본부의 파견 주체에 대한 최근의 정리는 백승중, 2010, 「任那日本府의 파견 주체 재론-百濟 및 諸倭 파견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37 참조.

66) 田村圓澄, 1987, 「東アジア世界との接點-筑紫」, 『古代を考える大宰府』, 吉川弘文館, 1쪽; 박옥희, 2013, 「日本 古代 大宰府 기원에 관한 연구-那津官家を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89, 부산경남사학회, 303쪽에서 재인용.

67) 小島憲之 등 校注·譯, 2004, 『日本書紀』②, 小學館, 177쪽 頭註 8.

각한다. 初出하는 웅락기의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6세기 대 가야(=임나) 및 백제가 왜에 사신을 파견하여 왜로부터 요구하는 것은 출공 군대(군사력)이기 때문이다. 왜의 군대가 파견 시도된 경우도 있었으며,⁶⁸⁾ 백제가 왜에 구원병을 청하는 기사가 『日本書紀』 곳곳에 보인다.⁶⁹⁾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다면, 임나일본부의 출현배경은 임나지역에 왜의 군사력이 필요한 시기이면서, 가야(=임나)와 倭와의 사신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임나일본부가 존재하고 있었던 541년 대 가야 주변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라는 4세기 중엽 이후 계속되는 고구려의 압력에 못 이겨 5세기 초 고구려 廣開土王의 南征을 전후해 그 부용적인 세력이 되고 만다. 그 후 고구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은 433년의 이른바 羅·濟同盟 結成과⁷⁰⁾ 450년 高句麗 邊將 掩殺 事件,⁷¹⁾ 468, 470, 471, 473, 474년의 築城⁷²⁾ 등의 기사를 통해 볼 때 꾸준히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는 495년 百濟 雉壤城 戰鬪⁷³⁾ 전후해서 주 공격대상을 백제로 돌리게 된다. 이때를 틈타 신라는 백제와의 약속이행을 소홀히 하면서 내부기반 다지기에 진력한다. 즉 羅·濟同盟이 유효한 기간이었지만 502, 507, 512, 523, 529년에⁷⁴⁾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지만 신라는 백제에 원군을 전혀 보내지 않고 있다.

500년에 등극한 智證王은 즉위 4년에 國號와 尊號를 정하고 그 다음해에는 喪服法을 제정 반포하였다.⁷⁵⁾ 514년에는 신라 중흥의 王이라고 하는 法興王이 왕위에 오른다. 신라는 이때부터 年號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는 당시 신라의 획기적 발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517년의 兵部設置,⁷⁶⁾ 520년의 율령반포와 공복제 실시,⁷⁷⁾ 528년⁷⁸⁾ 내지 535년⁷⁹⁾의 佛敎 公認 등은 그동안 신라가 내부적으로 쌓은 역량이 비로소 표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쪽 가야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내부역량 축적과 더불어 당시 東北亞의 국제정세도 신라의 가야 진출을 가능케 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다. 6세기 초반까지 지켜져 온 동북아 정국의 세력균형 상태와 고구려의 패권은, 531년 安藏王이 시해당하고 544년에는 ‘大亂’이 일어나는 등 고구려의 내란과⁸⁰⁾ 東魏를 계승한 北齊와 활기찬 팽창세를 보이는 突厥로 인해 고구려는 중대한 압박을 받게 되었다. 신라는 비록 고구려에 부용적이라 할지라도 인질 등을 통해서 이러한 정세를 일찍부터 읽었다. 신라는 6세기 초가 되자 그동안 고구려 때문에 유보해 두었던 가야로의 진출을 개시하였다. 524년 무렵 이미 가라국지역을 장악했으며, 540년대가 되면 탁기탄, 탁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이 무렵 가라국은 522년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어 친신라적인 노선을 취했으나 오래가지 못하고 결렬된다(529년). 이는 기본적으로 신라의 가야진출 야욕 때문이었다.

68) 『日本書紀』卷17, 繼體 21년(527) 6월조.

69) 『日本書紀』卷19, 欽明 8~11년 기사.

70)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17年(433) 7月條, 18年 2月條. 卷25, 百濟本紀 毘有王 7年(433) 7月條, 8年 2, 9, 10月條.

71) 『위의 책』卷3, 新羅本紀3 訥祗麻立干 34年(450) 7月條.

72) 『위의 책』卷3, 新羅本紀3 慈悲麻立干 11年(468) 13, 14, 16, 17年條.

73) 『위의 책』卷3, 新羅本紀3 照知麻立干 17年(495) 8月條. 卷26, 百濟本紀4 東城王 17年(495) 8月條. 卷19, 高句麗本紀7 文咨王 4年(495) 8月條.

74) 『위의 책』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年(502) 11月條, 7年 10月條, 12年 9月條와 聖王 1年(523)條, 7年 10月條.

75)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智證麻立干 4年(503), 5年 4月條.

76)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4年(517)條.

77)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7年(520)條.

78) 『위의 책』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5年(528)條. 한편 『삼국유사』에는 법흥왕 14년에 이차돈이 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9) 李基白, 1976, 「新羅 初期佛敎와 貴族勢力」, 『震檀學報』40; 1978, 「新羅時代의 國家佛敎와 儒敎」, 82~86쪽.

80) 『日本書紀』卷17, 繼體 25年(531)條. 권19, 欽明 6年(544)條.

백제 또한 6세기 대가 되면 가야 서남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다. 475년,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수도 漢城이 함락된 후 熊津으로 천도한 백제는 무녕왕과 성왕 대에 이르러 중흥의 시기를 맞이한다. 북쪽으로는 구토회복에 힘쓰는 물론 남방으로의 진출도 모색되어 졌다. 그런데 5세기 후엽 이래 6세기 전반 대에도 고구려의 남쪽으로의 압박은 계속되었다. 이에 백제와 신라는 對고구려 군사동맹을 맺어 남북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백제는 중국 南朝의 諸國과 交聘하면서 우호를 다지는 한편 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친선책을 펼친다. 백제는 倭의 지원을 받으면서 국경에 접한 가야제국을 점령해 간다. '任那4縣과 己汶·帶沙로의 잠식이다. 원래 백제의 땅이었던 己汶을 伴跋가 차지하자 백제는 倭의 힘을 빌려 기문과 대사를 차지한다. 반파는 이에 대해서 반발하였지만 결국 2地는 백제에 귀속되고 만다.⁸¹⁾ 반파는 처음에는 가라국과 별개의 나라였지만 후에 가라국에 복속되었기 때문에 520년대 후반이 되면 가라국과 백제는 직접 접하게 되었다.⁸²⁾ 529년 무렵 帶沙(=多沙=하동)까지 진출했던 가라국은 그 지역을 백제에게 빼앗기게 된다. 백제는 더욱 남진하여 531년 무렵에는 현 진주지역까지 진출한다.⁸³⁾

이러한 신라와 백제의 가야로의 잠식과정 속에서 가라국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4세기 중엽 이후 친백제적이었던 洛東江以西의 가야제국은 5세기 후반이 되면 고구려의 압력에 의한 신라와 백제의 對加耶 지역 힘의 공백을 틈타 백제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다. 建元 원년(479년)에 加羅國王 荷知는 南齊에 견사하여 輔國將軍本國王의 벼슬을 제수받는데, 이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⁸⁴⁾ 또한 가라국의 성장을 보여주는 일례이기도 하다. 『三國史記』卷3, 照知麻立干 18年(496년)條에 보이는 “加耶國이 꼬리가 다섯 척 되는 흰 뿔을 보냈다”라는 기사는 당시 가야제국의 주축이었던 加羅國이 신라와 연계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백제 영향력의 일시 공백기를 틈타 신라와 밀착하여 우호관계를 수립함으로써 對百濟 牽制 및 자립책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야제국의 자립책은 529년대까지 이어진다.⁸⁵⁾ 그러나 이러한 가야의 노력들은 自主化가 아니라 오히려 신라에로의 복속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529년 안라에서 개최된 안라고당회의는 안라국이 주동이 된 회의였다. 이미 신라에 복속된 가라국, 탁기탄, 탁순의 복건과 가야제국의 자존책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 회의에 가라국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가야제국 전체를 아우르는 힘의 구심체가 없었음을 보는 주는 것이다. 541년과 544년 백제의 수도 사비에서 열리는 회의에 안라국과 가라국 사신을 비롯한 가야제국의 대표들이 모이지만 실효는 없었다.⁸⁶⁾ 가야부흥을 위한 회의였지만 백제의 야욕만 확인될 뿐 가야제국의 복건과 자존을 위한 방안은 모색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나일본부가 등장한다. 흠명기에 보이는 임나일본부의 정치적 성향은 친신라 반백제적인 모습이다. 백제와 倭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倭에서 파견된 일본부는 반백제적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究明은 향후 임나일본부에 대한 이해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동안 고대 일본 야마토 정권의 한반도 남부지역 지배기관으로 활용되어 왔던 임나일본부는 6세기 전반 가야지역에 파견된 왜왕의 사신이였다. 6세기 전반 가라국이 신라에 복속되자, 함안의 안라국과 고령의 가라국이 가야제국 세력을 양분하여 주도하게 된다. 이에 백제와 신라의 가야잠식에 대응하여 安羅와 加羅는 각각 倭 세력을 이용하여 가야의

81) 『일본서기』 계체기 6년(512) 12월조, 동 7년(513) 6월조, 동 8년, 9년조.

82) 반파는 원래 경북 성주지역에 존재한 가야국이었지만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가라에 복속된다. 백승욱, 2007, 「己汶·帶沙의 위치비정과 6세기 전반대 加羅國과 百濟」,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도서출판 서울기획, 222쪽;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

83)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5년(531) 12월 分註, “師進至于安羅 營乞千城”에서 乞千城의 위치를 현 진주지역 주변으로 비정한다.

84) 『南齊書』東南夷傳 加羅國條.

85) 『日本書紀』卷17, 繼體 23년(529) 3월조.

86) 『日本書紀』卷19, 欽明 2년(541년) 4월조, 동, 欽明 5년(544) 11월조.

독립과 부흥에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임나일본부는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IV. 맺음말

가야와 중국과의 대외관계를 통시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하지만 가야의 전신인 변한시기부터 가야가 멸망하는 6세기 중엽 때까지 비록 간단은 있었지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야가 중국에 바랐던 것은 선진문물의 수입이었다. 이는 가야의 바람 속에서도 이루어졌지만 왜와 중국과의 교류 속에서 중간 중개 자료로서의 역할도 중요했다. 기본적으로는 책봉체제 안에서 대외교섭이 행해 졌다고 보여 지지만, 이를 벗어난 경우도 없지 않았다. 김해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북방계 유물은 이러한 상황을 웅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479년 가라국의 남제 遣使는 당시 가야와 중국과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기록이면서, 가라국의 성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가야금의 제작과 琴曲名의 내용으로 보아 가야와 중국과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가야와 倭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倭의 입장과 상황에 주목하면서 그 관계를 살펴보았다. 倭의 선진문물 수입에 대한 갈망은 집요했다. 선진문물의 수입과 그에 대한 주도권의 장악은 곧 열도 내에서의 헤게모니 장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왜의 중국과의 통교는 지리상 가야 또는 백제의 중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서해를 가로지르는 해상로는 7세기 이후에야 가능했기 때문에 연안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4세기 초 낙랑,대방지역을 포함한 서해 해상권을 고구려가 장악하게 되자 왜는 더 이상 중국으로 가기가 어려워졌다. 백제와 고구려간의 대결 구도 때문이었다. 왜는 전통적으로 백제와 친화적 관계였다. 이에 왜는 광개토태왕릉 비문에 보이는 것처럼 백제와 연맹하여 고구려에 대적해 보기도 하지만 바라는 바를 이루지 못했다. 5세기 중엽이 되면 아마도 왜는 일본 열도 대개를 아우르는 국가로 성장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5세기 후반이 되면 '大王'이 '治天下'하는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성장은 결국 가야제국과 백제 등 한반도 선진지역과의 교섭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

『일본서기』 신공기 46~49년조에 보이는 가야와 왜 관계는 기존의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에서 말하는 왜의 가야지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사의 내용으로 가야와 백제, 왜의 관계를 알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러나 사료의 편년이 문제였다. 2주갑 혹은 3주갑 인하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문제점이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6세기 전반 백제가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시기에 주목해 보았다.

광개토태왕릉 비문 속의 가야와 倭 관계기사로 보아 당시 고구려와 백제의 대결 구도 속에서 왜는 고구려가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다고 보여 진다. 가야는 왜와의 전통적 관계 속에서 신라로 나아가는 진입로 역할과 백제-왜 연결의 중개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송서』 등에 보이는 倭 5왕의 가야지역에 대한 군사권 인정 요구도 왜의 일방적인 것이었다. 이에 대한 중국 남조의 허락 또한 명분적 제수일 뿐이고 사실이 아니었다.

가야 왜의 대외관계사에 있어서 핵심적 사항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로 볼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뿐만 아니라 20세기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논리로 사용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에는 이에 대한 사실성이 밝혀져 가고는 있지만, 고대 일본의 한반도 남부 경영설은 여전히 많은 일본인들이 믿고 있고, 믿고 있는 내용이다. 임나일본부는 왜가 가야에 설치한 통치기관이 아니다. 왜왕이 6세기 전반 일시적으로 가야지역에 파견한 사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태식, 2014, 『사국시대의 한일관계사 연구』, 서경문화사
- 김태식, 2018,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교류」, 『가야고분군Ⅱ』-가야고분군 연구총서 3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남재우, 2020, 「가야의 대내외교류 -문헌사-」, 『伽耶』, 가야 역사·문화 연구 총서 I -연구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백승옥, 2003, 『가야 각국사 연구』, 해안.
- 백승옥, 2015, 「廣開土太王陵碑文 辛卯年條에 대한 新解釋」, 『東洋學』 58,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 백승옥, 2018, 「가야와 중국·왜」, 『가야사 총론』-가야고분군 연구총서 1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 백승옥, 2020, 「반파국 위치 재론」, 『전북사학』 58.
- 백승옥, 2020, 「임나국가(任那加羅) 중발성(從拔城)과 고대 부산」, 『항도부산』 40.
- 申敬澈, 1994, 「加耶地域出土倭系遺物の歴史的意義」, 『伽耶および日本の古墳出土遺物の比較研究』, 國立歴史民俗博物館.
- 李基東, 1988, 「研究의 現況과 問題點」, 『韓國史市民講座』 3, 一潮閣.
- 李基東, 1989, 「4세기 韓日關係史 연구의 문제점」, 『韓國上古史』, 民音社.
- 이문기, 1995, 「大伽耶의 對外關係」, 『加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 양기석, 2007, 「5世忌 後半 韓半島 情勢와 大伽耶」,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定森秀夫, 2002, 「陶質土器로 본 倭와 大伽耶」, 『大伽耶와 周邊諸國』, 고령군·한국상고사학회.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편, 2005, 『임나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편, 2005,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景仁文化社.
- 笠井倭人, 1973, 『研究史 倭の五王』, 吉川弘文館.
- 佐伯有清, 1977, 『七支刀と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 神保公子, 1981, 「七支刀銘文の解釋をめぐって」,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 3, 學生社.
- 西谷正, 1985, 「四~六世紀の朝鮮と北九州」, 『東アジアの古代文化』 44호.
- 山尾幸久, 1989, 『古代の日朝關係』, 塙書房.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 鈴木靖民, 1990, 「廣開土王碑文の「倭」關係記事 -最近の研究成果をめぐって-」, 『東アジア古文書の史的 연구』, 刀水書房.
- 田中俊明, 1991, 「大成洞古墳群と「任那論」」, 『東アジアの古代文化』 68號.
- 田中史生, 2013, 「倭の五王と列島支配」, 『岩波講座 日本歴史』 1.



06

弁韓의 對外交流

이창희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 I. 弁韓의 黎明
 - II. 對中交流
 - III. 對日交流
 - IV. 小考
 - V. 弁韓에서 加耶로
 - VI. 弁韓 출토 外來系遺物의 분포(도면)

弁韓의 對外交流

이창희(부산대학교 고고학과)

I. 弁韓의 黎明

한반도 남부에서 세형동검문화는 청동기기류가 부장된 무덤의 분포로 보아 서에서 동남으로의 중심 이동이 나타나며, 그 이동은 시간과도 이어진다. 비파형동검이 계승·발전된 세형동검 외에 다뉴조문경을 비롯한 각종 이형동기 중에는 중국 동북지역에 기원을 두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한반도 남부에서의 출토 양상과 생업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원래의 기능 그대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알려진 대로 당시의 정세(문헌기록)와 관련한 북에서 남으로의 이민 유입으로 인해 한반도 남부로 전해졌으며, 그들의 정착, 재지민과의 문화 접변·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청동기의 제작 기술 발전에 동반한 한반도 남부 독자의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된다. 다뉴세문경을 비롯하여 각종 무기형 청동기기류, 공구류, 방울류 등 소위 진정한 한국식동검문화로의 발전 양상이 나타나는데, 전 단계의 중국 동북지역 기원의 이형동기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을 청동주조기술의 발전과 세형동검문화를 영위한 집단의 정체성 강화로 보기도 한다(김효정 2021).

이 즈음에 세형동검문화가 가장 발전해 있던 한반도 남부 중서부지역에는 새로운 철기문화가 유입되었고, 머지않아 그 중심은 진한지역(경북)으로 이동하게 된다. 세형동검문화는 점차 쇠퇴하게 되고, 철기도 국산품을 생산해내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발전된 철기문화가 변한지역에서도 두드러지는 시기는 창원 다호리유적이나 사천 늑도유적과 같은 굴직한 유적이 두각을 보이게 되는 기원전 2~1세기경이다. 사회발전과 생업의 변화 속에서 집단의 정체성과 우두머리의 역할은 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장송의례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형동검문화의 목관묘 장송의례를 계승하고 있다. 다뉴세문경과 같은 주요 부장 기물이 漢鏡으로 바뀌고, 화폐가 출토되는 등 직접적으로 중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물이 확인되며, 동물형대구나 철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중국과 연결시킬 수 있는 유물도 확인된다.

이상의 물질문화 변화상은 기원전 3~2세기 중국의 혼란과 맞물려 있는데, 燕國의 東進, 秦漢의 교체, 위만조선의 성립, 한사군 설치 등의 史實과 利器의 측면에서 석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의 변화, 그에 따른 생업 환경의 변화라는 고고학적 事實에 기반한다.

이하 발표문에서는 학술대회의 테마와 관련하여 공간적으로는 변한지역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데¹⁾, 진한과의 경계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편의상 그 北限을 합천-밀양-부산지역으로 설정한다. 시간적으로는 낙랑군 설치 전후를 시작으로 하여 김해 대성동 29호분 축조 이전까지를 다루도록 한다.

II. 對中交流

1. 토기

고고학적 물질자료 중 인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토기이다. 취사, 저장, 이동 등의 기능을 가진 일상토기는 인간의 장기체류(이주)가 동반되지 않는 한 대외교류(교역) 장소에서 생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낙랑토기가 변한지역에서 생산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시기의 중국계 유물을 편의상 漢式과 非漢式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한다.

우선 변한지역에서 낙랑(계)토기를 포함한 漢式土器는 늑도유적을 제외하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늑도 유적에서 출토된 화분형토기와 ‘ㄱ’자상 구연의 회백색구형용, 단경호 정도를 들 수 있는데, 단경호는 그마저도 한식인가 비한식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기원전 1세기부터 변한지역의 목관묘에는 새로운 토기인 와질토기가 본격적으로 부장되기 시작하여 자체 발전을 거듭하면서 3세기까지 계속해서 부장토기를 대표한다. 와질토기는 삼한고고학을 좌지우지한 낙랑영향설의 대표적 산물이다. 출현기의 와질토기는 모두 재지의 점토대토기문화의 계통에서 이어지는 것이어서, 기종과 형태보다는 소성과 제작기술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처음에 와질토기가 정의되었을 때에도 한반도 남부 재래의 무문토기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낙랑토기의 신제도술에 의해 생성된 한반도 남부 특유의 주체적인 토기문화로 설명되었다(신경철 1982; 최종규 1982). 그런데 부장된 와질토기의 대표 기종 중 단경호는 대체로 신기종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낙랑의 단경호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도 다른 점도 많다. 특히 와질토기와 낙랑토기에서 드러나는 상이성은 와질토기의 戰國系土器 기원설을 보충하게 되는데, 기원의 문제는 연대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다. 어쨌든 기원전 1세기의 변한 와질토기는 고속의 회전물손질, 승문타날, 얇은 기벽, 환원소성, 점토대토기보다 정선된 태토 등 제작기술 상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기술 유입의 동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유사하고 가까운 곳은 낙랑임에 틀림없다. 이하에서 설명할 와질토기와 공반되는 중국계 유물 역시 대부분이 漢式이다.

현재까지 낙랑(계)토기-漢式-든 전국(계)토기-非漢式-든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중국계토기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漢人の 이주를 상정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중국계토기에 대한 同定이 정확하다면, 그것은 반입품과 모방품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 와질단경호는 광의의 범주에서 모방품에 넣을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단경호를 비롯한 초현기의 와질토기를 漢式 위세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된 漢式土器文化의 모방, 신 제도기술의 습득에 따른 하이브리드(hybrid) 토기라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변한에서 와질토기는 거의 부장 專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와질토기가 등장하더라도 변한의 일상토기 문화는 여전히 삼각형점토대토기이다. 즉,

1) 주로 변한지역에서 출토된 외래계유물을 중심으로 다루는 이유는 서북한지역이나 일본열도에서 출토되는 韓系유물은 특정한 유물에 국한시켜 세목을 따져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진한지역에는 달성 평촌리유적의 활석혼입 화분형토기나 울산 달천유적의 낙랑계 단경호 정도가 확인된 바 있다.

장송의례 과정에서 부장되는 토기만이 외부의 영향을 받은 토기라는 점이다. 대체로 한식 위세품이 공반되고 있는 당시의 목관묘란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무덤이다. 바로 거기에 광의의 한식계토기가 부장되고 있는 것이다. 일상토기는 오랫동안 재지의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하다가 한참이 지난 2세기가 되어서야 한식토기의 영향을 받은 와질토기의 제작방법이 융합된(적갈색)연질토기로 변모하게 된다.

2. 금속기

漢鏡 창원 다호리 1호분 성운문경, 同119호분 이체자명대경, 밀양 교동 3호분 성운문경, 同17호분 이체자명대경, 사천 늑도 139호 이체자명대경, 김해 회현리패총 휘룡문경, 내덕리 19호분 박국경, 양동리 162호분 사유조문경 및 내행화문경, 고성 동외동패총의 수대경, 이 외에도 傳양동리 출토 이체자명대경 및 박국경이 있다³⁾.

화폐 늑도유적의 반량전 3점과 오수전 1점, 다호리 1호분의 오수전 3점, 회현리패총 출토 화천 1점, 성산패총 출토 오수전 1점을 들 수 있다.

그 외 馬鐸으로 추정되는 小銅鐸, 鐵莖銅鏃, 銅鼎 등이 직접적인 한식유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호리 1호분의 소동탁이나 늑도유적의 철경동축은 출토 양상으로 보아 故地에서 사용된 기능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된 물품으로 보기는 어려워 위세품에 가까운 유물로 생각된다. 한편, 양동리 322호분 동정은 前漢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정인성 1996; 임동재 2012), 3세기로 편년되는 무덤의 연대와 시차가 크다. 한경을 비롯해 진한대의 위세품이 한반도 남부에서 장기간 傳世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이재현 2005) 3세기 대중교류의 존재를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런데 마치 와질토기처럼 그것이 낙랑산인지 변한에서 제작된 모방품이거나 단순한 기술의 영향만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유물도 있다. 예를 들어 漆靱銅劍을 비롯한 각종 칠기류, 鐵鏡, 動物形帶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영남지역에서는 세형동검문화의 청동의기류 부장이 쇠퇴해가는 대신, 漢式유물과 칠기 부장 중심으로 변해가는데, 세형동검만은 늦게까지 남아 漆靱와 세트가 되어 주요 부장품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칠초동검은 서북한지역에서도 출토되었지만 양질적인 면에서 영남지역이 더 우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낙랑으로부터의 수입품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세형동검의 칼집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칠초동검이 오히려 영남지역에서 낙랑으로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분석결과는 신선하다(이재현·장용준 2019). 또한 낙랑에서 출토되는 철복과 유사한 것이 양동리 162호분에서 출토되었지만 진한지역에서 출토된 철복과 유사하기도 하고(경주 사라리 130호분), 북방계 유물로 알려진 다호리, 밀양, 김해에서 출토된 동물형대구도 진한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입수되었거나 변한지역에서 재지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낙랑군이 설치된 직후 한반도 남부에서 한식유물이 두드러지게 확인되는 곳은 단연 영남지역이다. 한식유물의 출토량으로 보건데, 대중교류는 변한지역보다 진한지역이 우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 해서 변한이 진한보다 늦었다고 볼 수는 없어 바닷길을 통한 직접적인 대중교류, 혹은 진한과의 교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식유물이 유입되었다. 특히 위세품을 대표하는 한경은 진한지역에서는 휘룡문경 이후로 출토가 되지 않는 반면, 변한지역에서는 박국경을 비롯하여 후한경이 부장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전세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김해 대성동유적에서는 4세기대의 무덤에서도 후한대의 수대경과 사신박국경 등이 출토된다(이재현 2005). 그러나 이 즈음에는 당시의 톱클래스 무덤에 반드시 거울이 부장되지 않기 때문에 세형동검문화부터 이어져 온 거울 부장 습속은 퇴색되었고, 더 이상 최고의 위세품 반열

3) 이 밖에 양동리 390호분 주변에서 출토된 내행화문경 1점이 있다.

에 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Ⅲ. 對日交流

1. 弥生土器(야요이토기)

야요이시대 중기의 토기가 대부분이다. 전기의 토기에 대해서는 금번 학술대회에서 다루는 시기와 거리가 있어 생략한다. 야요이시대 중기의 연대는 일본고고학계의 구연대관과 신연대관에 따라 100년가량의 차이를 보인다. 신연대관에 따르면 후술할 須玖式(수구식) 야요이토기는 기원전 300~1 정도의 시간을 갖는다. 늑도유적을 비롯해 영남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야요이토기는 수구Ⅱ식인데, 이 형식은 신구연대관 공히 기원전 1세기대의 연대로 보면 문제가 없다. 한반도 남부 출토 야요이토기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성과가 발표되었고, 그 중심에는 항상 늑도유적이 있었다. 변한지역에서는 늑도유적을 제외하면 김해 구산동, 대성동(소성유구), 구지로, 봉황동, 부원동, 지내동, 부산 복천동(내성유적), 온천동, 북정, 조도 등 김해-부산지역이 중심이다. 이들 유적과 병행하는 시기의 군집 목곽묘 유적과 생활유적은 변한 각지에 분포하고 있지만, 늑도유적(방지리 포함)과 다호리유적의 1점을 제외하면 김해-부산만이 두드러진다. 출토된 야요이토기는 대부분 수구식에 속하고, 북부큐슈의 옹가가와(遠賀川) 이서지역 토기가 중심이다. 야요이시대 후기의 토기는 늑도유적과 고성 동외동유적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데 이마저도 극소량이다. 다시 말해 김해-부산에서는 기원전후한 시점을 경계로 갑자기 야요이토기가 출토되지 않으며, 3세기 후반 다시 하지키(土師器)가 출토되기 전까지 그 어떤 왜계토기도 출토되지 않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금속기

전술하였듯 야요이토기가 소멸함과 동시에 변한지역에 등장하는 왜계유물은 청동기이다. 그중에서도 銅矛와 소형의 倣製鏡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제작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특히 방제경은 김해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한경(韓鏡)과 왜경(倭鏡)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 제작지 문제는 논외로 하고 방제경까지 범주에 넣고 설명하도록 한다. 동모는 내덕리 19호분과 양동리 200호분, 동외동패총을 비롯하여 김해 출토품(양동리, 명법동 등)으로 전해지는 廣形銅矛 수 점이 있다. 특히 傳 양동리 출토품을 포함한 양동리 고분군에서만 10여점의 왜계동모가 확인된 점은 주목된다. 방제경 역시 양동리 427호분을 비롯하여, 55호분이나 162호분에서 출토된 점, 단연 양동리 고분군이 돋보인다.

김해지역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왜계청동기는 양동리 427호분의 소형 방제경과 내덕리 19호분의 광형동모이다. 공반 유물로 보아 대체로 1세기 후반~2세기 전반의 시기에 해당된다. 기원전 시기에는 김해지역에서 왜계청동기가 출토되지 않는 반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출토 사례가 많다. 즉, 왜계청동기의 분포는 시기가 내려올수록 그 중심이 김해지역으로 옮겨갔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기원후에는 대구-경북지역에서 왜계청동기가 출토되지 않기 때문이다.

2세기 전~중반, 그리고 목곽묘가 출현하는 시기가 되더라도 왜계청동기의 출토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양동리 55호분과 162호분의 방제경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3세기가 되어 양동리 200호분의 광형동모를 제외하면 무기형청동기와 방제경은 자취를 감춘다⁴⁾.

4) 김해지역 3세기대의 중·대형 목곽묘는 보고된 수가 많지 않다. 양동리 200호분, 同 212호분, 同 235호분, 대성동 1호분, 同 45호분, 同 29호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4세기가 되면 다시 왜계청동기가 출토된다. 대성동 88호분, 양동리 90호분, 390호분의 광형 동모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본열도에서는 대체로 3세기 이후에는 유행하지 않는다. 즉, 제작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전세(傳世)든 아니든 제작과 부장 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3. 서일본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

기존의 연구성과 및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전형적인 삼각형점토대토기는 70여점에 이른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쓰시마(對馬)에서 출토되었고, 나머지는 서일본 각지에 산재한다. 원형점토대토기처럼 한곳에서 집중되는 사례가 없다.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야요이시대 중기후반~후기초두(기원전 1세기 후반~1세기 전반)에 속한다. 즉 공반된 야요이토기가 대부분 수구Ⅱ식이거나 병행 시기인데, 이전 토기형식인 수구Ⅰ식과는 공반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원형점토대토기단계와는 다른 문화가 일본열도로 도래한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이 舶載品일 가능성이 높으며, 토기의 출토양상으로 보아 韓人의 이주나 야요이사회의 동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IV. 小考

對中 변한지역에서 본격적인 대외교류가 시작된 것은 대체로 漢式유물이 나오는 시기부터이다. 세형동검문화는 가깝게는 진한, 멀게는 중서부지역에서 건너 온 목관묘문화에서 비롯된다. 철기의 국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청동의기류의 부장은 쇠퇴하게 되었고, 낙랑군 설치를 즈음해서 한식유물이 두드러진다. 비록 비한식계토기와 같은 낙랑군 설치 이전의 물질자료가 밝혀지고 있지만, 그 유입 배경이 묘연할 뿐만 아니라 위서동이전의 '國出鐵' 기사에도 동조시키기 어려워 교역과 교섭이 포함된 의미의 대외교류를 상정하기 어렵다. 단편적인 문헌기사를 통해 '漢-衛滿朝鮮-辰國'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북에서 발생한 유이민의 남하가 변진한에 다원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전제가 작용하고 있는 정도이다. 한 가지 환기해야 할 문제는 한반도 남부 독자의 세형동검문화가 형성·발전되는 과정에는 청동주조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합금에 필요한 원료의 수급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이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는 주석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이재현 2005), 그렇게 되면 낙랑군 설치 이전에도 안정적인 대중교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한사군의 설치가 동북아시아에서 漢文化圈이 형성된 주요 계기임은 틀림없다. 기원전 1세기 변한지역의 목관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장위세품은 前漢鏡과 漆靽銅劍, 帶鉤, 五銖錢 등의 청동기인데, 실상 韓 독자의 청동기물에 대한 가치는 퇴색되었고 한식유물로 대체되었다. 즉, 변한의 엘리트층은 漢式 위세품을 갈망하였고, 수입과 모방을 통해 실현하였다. 그렇다면 수출품은 무엇인가. '國出鐵' 기사를 이 시기까지 끌어올려 同調시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지만, 우리는 늘 철과 철기로, 물질자료로 남지 않는 대체물로 갈음해왔다. 전술한 칠초동검의 역수출과 같은 想像도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문헌기사로만 보면 변한과 중국의 교류는 후한시기에 더욱 활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질자료로는 한식

구지로 38호분 정도이다. 양동리 고분군 중 보고가 되지 않은 대형목곽묘가 많지만 그 중에서 알려진 왜계청동기는 없기 때문에 양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유물이 더욱 빈약해진다. 後漢鏡 몇 점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진한지역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다. 전술하였듯이 시기에는 목곽묘를 위시로 한 새로운 장송의례 속에서 한경의 가치 변화, 한식문물의 간접적 영향으로 볼 수 있는 대구나 마탁 등과 같이 대부분의 위세품이 재지화되고 독자적인 변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방제경은 앞에서 왜계유물의 범주에서 설명하였지만, 역시 한경의 모방품이나 다름없다. 변한지역에서는 농공구에 이어 무기까지 철제품 量産이 가능해지면서 내재적 발전을 기반으로 한 완전한 정치체의 모습이 나타난다. 2세기 목곽묘사회로의 변화 배경으로는 ‘桓靈之末’의 기사가 자주 언급되는데, 漢, 가깝게는 낙랑군의 정세변화와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변한지역에서 한식문물이 급감할 무렵 중부지역에서 낙랑토기가 급증하는 점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3세기대에는 대방군이 설치되고, 魏와 쯤이 차례로 건국되면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강력한 영향을 받아 오던 漢文化는 점점 동력을 잃게 되었다. 동시에 변한지역은 철이라는 안정적인 생산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왕조사회를 구현해 가는 내재적 발전을 이루게 되면서 대중교류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수장급 무덤에 부장된 위세품의 변화가 당시의 사회 및 대외관계의 변화와 괴를 같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3세기에 들어 대중교류가 시들해졌다고 보는 것도 어렵다. ‘國出鐵’ 기사는 3세기의 상황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조공이 아닌 공급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변한과 낙랑-대방군과의 교역은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다.

對日 기원전 1세기까지는 한반도 남부 최대의 한일교역 거점은 사천의 늑도유적이었다. 그러나 기원전후부터 늑도가 와해되기 시작하면서 김해지역이 각광 받기 시작한다. 당시 한일교역의 거점은 사천지역, 김해-부산지역, 울산지역의 3곳이었는데, 김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후 양동리와 대성동유적군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일교역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변한사회는 큰 전환점을 맞이한다. 중심축의 東進은 늑도교역시스템의 해체로 이어졌고, 서부경남 지역에서는 이후의 와질토기-목곽묘문화를 공유하지 못한 채 문화지체 현상이 나타난다. 뒤이어 김해지역은 목곽묘사회로 변모하게 되면서 정치체를 형성하여 금관가야의 맹주가 되어간다. 특히 왜계유물의 출토양상, 즉 기종과 분포의 변화는 한일 개별집단의 상공업적 성격이 강한 재화의 교역에서 정치체 간의 권력창출형 교역으로 변화한 것을 시사한다(이창희 2016).

김해가 목곽묘사회로 접어들 무렵, 2세기 일본열도에서는 동모와 동탁을 필두로 한 靑銅祭器의 대립적 관계가 명확해진다. 즉, 서일본 전체를 다시 동서로 구분한다면 四国(시코쿠)지방을 경계로 하여 북부큐슈의 銅鐸祭祀圈과 近畿(긴키)의 銅鐸祭祀圈으로 나눌 수 있다. 김해에서 긴키식 동탁이 한 점도 출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세기까지는 여전히 한일교류의 중심축은 ‘김해-북부큐슈’였다.

그러나, 금관가야 시기부터 대성동 29호분의 定角式 철촉을 시작으로 대성동 고분군과 양동리 고분군을 중심으로 통형동기, 파형동기, 축형석제품, 비취곡옥 등 다양한 왜계유물이 출토된다. 이러한 왜계유물은 주로 긴키에서 출토되는 것으로 금관가야와 긴키 정치세력 간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신경철 2013).

V. 弃韓에서 加耶로

변한지역에서는 대성동 고분군이 축조되기 이전까지는 신석기시대부터 이어져 온 동남해안과 북부큐슈의 밀접한 한일관계의 전통이 이어져 주로 북부큐슈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또한 낙랑군 설치와 같은 직접적인 한문화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이미 일본열도의 야요이사화와 교역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고, 그것은 변한지역에서 출토된 城ノ越式(조노코시식)이나 수구 I 식의 야요이토기가 증명해주고 있다. 단, 변한 시기부터는 대외관계의 측면에서 광의의 의

미로써 교류(interchange)로만 一囑하기보다는 교역(trade)이나 교섭(negoti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진다. 교역에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용한다. 변한은 각종 공구류나 무기류와 같은 利器의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모두 지역 내에서 수급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특히 철기나 철소재를 필요로 했던 왜는 교역을 통해 원료와 제품을 구해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역의 거점이 한반도 남부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 당해 시기 일본열도에는 그러한 거점이 보이지 않는다. 북부큐슈의 博多灣(하카타만)이나 壱岐(이키)섬을 교역의 거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열도 내의 대내교역이 중심이고, 대외교역의 측면에서는 늑도나 김해와 같은 시장성을 가진 거점이 아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야요이인이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기도 하였는데, 반대의 경우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덧붙이자면 외래계토기의 기종구성과 생산의 증거는 외래인의 이주를 의미하는데(이창희 2011), 변한지역에서 漢式土器와 야요이토기의 출토 양상이 완전히 다른 점은 漢人和倭人の 변한으로의 접근 방식이 애초에 달랐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점은 기원전후한 시점을 경계로 한반도 남부 한일교역 최대의 거점이었던 늑도의 왜해가 김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야요이인의 한반도로의 이주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오히려 동모와 같은 대형의 왜계청동기가 한반도로 입수된다. 이러한 청동기는 일본에서는 주로 매납유구에서 출토되는 제기의 성격이 짙은 유물이기 때문에 이전의 교역품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利器의 수입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小國 레벨의 정치체간 교섭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서일본에서는 이때를 즈음하여 본격적인 철기사회로 진입하게 되고 북부큐슈 이외의 지역에서도 철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정보가 서일본 전역으로 확산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김해-쓰시마-이키-하카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교역루트에 더해 下関(시모노세키)를 지나 瀬戸内海(세토나йка이)가 주요 교통로로 부상하게 되면서 그 종착점인 大坂灣(오사카만)까지 루트가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김해는 대성동 고분군의 축조시점부터 긴키의 정치세력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한다. 일본열도는 전방후원분의 시대로 접어들고 광역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해 나간다. 한반도 남부 역시 소국의 통합과 재편이 반복되면서 사회발전단계론 상 국가의 단계로 진입하는 단계여서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고 있던 시기이다. 무장 중심의 왜계유물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VI. 弁韓 출토 外來系遺物의 분포(도면)



- ① 변한의 외래계유물 - BC 1세기 ~ AD 3세기, 漢式유물 및 모방품(재지생산물), 왜계유물
- ② 변한의 외래계유물(1단계) - BC 1세기 ~ AD 1세기, 목관묘 중심, 빨간색
- ③ 변한의 외래계유물(2단계) - AD 2~3세기, 목곽묘 중심, 대성동 29호분 단계 이전, 파란색

■ 참고문헌

- 김효정, 2021, 「청동의기로 본 세형동검문화의 의례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경철, 1982, 「부산·경남출토 와질계토기」, 『한국고고학보』12, 한국고고학회
- 신경철, 2013, 「대성동 88, 91호분의 무렵과 의의」, 『고고광장』13, 부산고고학연구회
- 이재현, 2005, 「남한출토 낙랑관련 유물의 현황과 성격」, 『낙랑의 고고학』, 한국상고사학회(제33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이재현·장용준, 2019, 「삼한시대 영남지역의 철기」, 『삼한의 신앙과 의례』, 국립김해박물관(가야학술제전 심포지움)
- 이창희, 2011, 「토기로 본 가야성립 이전의 한일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주류성)
- 이창희, 2016, 「변한사회의 중심지이동론-다호리집단의 이주와 김해지역의 성장-」, 『영남고고학』76, 영남고고학회
- 임동재, 2012, 「김해 양동리고분군의 편년과 외래계 유물의 검토」,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제18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 정인성, 1996, 「한반도 출토 (청동)정의 성격」, 『고문화』48,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최종규, 1982, 「도질토기의 성립전야와 전개」, 『한국고고학보』12, 한국고고학회



07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

김일규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 I. 머리말
 - II. 가야성립 이전의 교류 양상
 - III. 가야와 중국과의 교류 양상
 - IV. 맺음말 -대중국 교류의 성격과 배경-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

김일규(부산대학교 고고학과)

I. 머리말

고금을 막론하고 교역을 통한 사람과 물자가 왕래가 잦은, 즉 교류가 왕성한 지역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서 번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인류가 농경사회로 진입한 이래 교역과 교류가 활발한 지역들은 도시로 발전하였고, 금속기의 사용과 함께 이러한 도시들의 연합은 정치체로서의 국가로 발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고대 한반도 남부에서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대표지역으로는 낙동강하구 유역을 들 수 있다.

한반도에 철기문화가 본격화한 삼한 후기부터 낙동강하구 유역은 한반도 남부의 대내외 교류 창구를 담당하였다(김일규 2018). 영남내륙 각 지역의 산품은 낙동강 수로를 통해서, 한반도 서부와 동부 각지 및 중국과 일본의 물자는 바닷길을 통해 이곳에 집하된 후 교역을 통해 각지에 유통된 국제적 교역항이었다. 아울러 중국의 선진 문물은 이곳을 거쳐 재차 일본열도로 전해졌다. 이처럼 삼한-삼국시대 낙동강하구 유역은 대내외 교역과 교류를 담당한 국제적인 물자 유통의 중개지로서 번영을 이루었다.

이 발표에서는 삼한 후기-삼국시대 낙동강하구 유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가야의 대외교류를 알 수 있는 고고 자료를 검토하여 가야와 중국과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검토는 주 대상을 가야성립 이전과 이후의 교류 양상 및 교류의 성격과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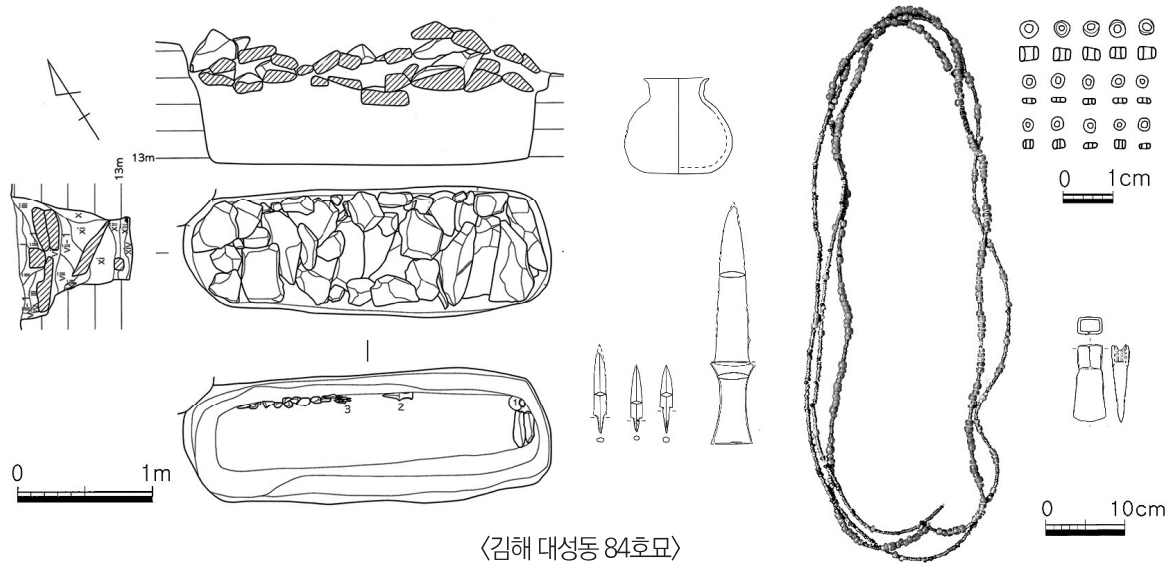
II. 가야성립 이전의 교류 양상

1. 목관묘 단계(서기전 1세기 전반~서기 2세기 중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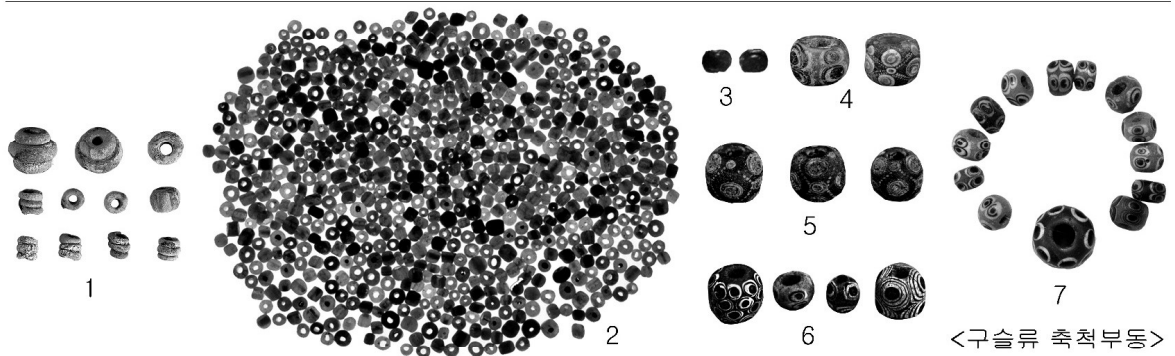
漢武帝 元封3년(B.C.108) 한반도 북부에 한의 4군이 설치되면서부터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漢帝國의 문명권에 포함되었다. 한 무제 사후 제국의 대외정책은 이전의 정벌론적 강공책에서 기미론적 유화책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대외정책의 변화에 연동하여 한은 4군을 낙랑군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한반도 남부 및 일본열도의 왜와 교류를 본격화하였다

(윤용구 1999; 김일규 2014). 이때부터 낙동강하구 유역의 변한은 漢[낙랑]-한반도 남부-일본열도[구슈]를 잇는 관계망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으며(김일규 2020b), 낙랑을 통해서 중원의 한식 문물을 본격적으로 입수하였다.

대성동 84호묘에서 출토된 칼륨(포타쉬)유리구슬은 대표적인 한의 문물로서 변한의 토착 사회에 한의 물질문화가 유입된 시점과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최상의 자료이다(김일규 2020c). 대성동 84호묘에서 출토된 유리구슬과 같은 형태의 남청색 칼륨유리는 중국 漢代 廣東·廣西省 일대 및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였는데(黃森章 1986), 광서성 합포 지역은 서한 중기 후반부터 세계 칼륨유리의 주요 산지 중 한 곳으로 되었다(黃啓善 1988; 崔劍鋒 외 2016).¹⁾



<김해 대성동 84호묘>



<구슬류 축척부동>

2: 西安北郊 秦墓M44(동일秦~秦漢교체기), 2: 廣西 合浦 漢墓(서한), 3,4: 廣州 南越王墓(B.C.121), 5: 廣州 漢墓M1048(서한 중기), 6: 南昌 海昏侯墓(B.C.59), 7: 山西 太原市 金勝村 趙卿墓(춘추 말)

<도면 1> 김해 대성동 84호묘 출토 칼륨유리와 비교자료(김일규 2020c에서)

1) 납동위원소 분석에서도 중국 남방지역의 납을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춘추시대 만기에 중국에 유리가 유입된 이후 중국에서는 대부분 납-바륨유리가 생산된 것에 반해, 칼륨유리는 해상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 동남아국가와 교류한 결과이며, 외래의 기술적 영향을 받아 서한 중기부터 이 지역에서 직접 생산이 이뤄진 것으로 해석한다(付强 외 2013; 김일규 2020c). 즉, 서한이 南越을 멸한 서기전 111년 이후 광동-광서성 일원이 중국에서 칼륨유리의 유통 내지는 생산의 중심지로 부상하여 서한 사회에 유통하기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생산 내지는 인도-동남아에서 수입한 칼륨유리가 한반도의 낙동강하구 유역까지 전해졌을 것이다(김일규 2020c). 서한 사회에서 칼륨유리의 생산과 유행 시점을 고려하면 대성동 84호묘에서 출토된 칼륨유리는 한사군 설치 이후 낙랑을 거쳐 변한에 전해졌을 것이다.



1:다호리1호묘, 2: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낙양공작점 소장, 3:밀양 교동17호묘, 4:중국 개인소장품

<도면 2> 변한 목관묘 출토 한경과 중국 한경

다호리 1호묘에서 출토된 성운문경과 오수전은 변한의 유적에서 출토된 당해 시기 한식 문물의 표지인데, 한식 유물은 한경을 비롯하여 사수반량전, 화천 등의 화폐, 거여구와 마구, 유리구슬과 수정제 경식, 칠기, 弩機, 붓과 환두도자, 추(衡), 한식 철기, 灰陶 등이 있다. 와질토기 또한 중원의 회도의 영향을 받아 이 지역에서 토착화한 토기이다(신경철 1995). 변한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한경은 서한 만기~신망대에 유행한 성운문경, 일광경, 소명경, 가상부귀경, 휘룡문경 및 신망~동한 초기에 유행한 박국경이 있는데, 전자의 거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중국과의 교류를 상징하는 대표적 유물로는 붓과 환두도자 및 추가 있다. 이 유물들은 각각 문자의 사용 및 물자의 교환, 유통과 관련된 것이다. 붓은 필기, 환두도자는 필기의 수정 도구이고, 추는 물자 교환과 유통의 기준 척도이므로 당시 중국을 비롯한 대외교류에서 문자와 기준화된 계량적 수치-도량형이 통용되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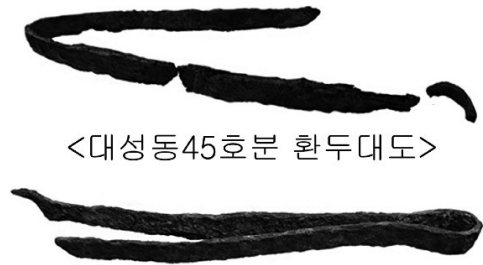
목관묘와 고식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는 이 단계는 변한이 대중국 교류를 시작한 시점이며, 한식 문물의 1차 파급기로 설정한다.

2. 목곽묘 단계(2세기 후반~3세기 중엽)

2세기 후반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재차 한식 문물이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출현기 목곽묘는 김해 양동리 162호묘, 대성동 45호묘, 울산 하대 44호묘가 표지이다. 이때의 대표적 한식 문물로는 무덤 구조인 목곽묘와 철기, 청동기, 신식 와질토기를 들 수 있다. 목곽묘는 깊이가 깊지 않고 판재로 결구한 단곽식 구조인데, 요서회랑에서 요동반도에 이르는 발해만 연안의 양한시대 패각묘(목곽묘)와 아주 유사하다.

철기는 이전 목관묘 단계에서는 출토되지 않던 장검, 환두대도와 같은 병장기 및 이조선주조철부 등의 공구류, 鐵鍬, 鐵釜 등 자비 용기와 銅鼎이 있다. 양동리 322호묘에서 출토된 鐵釜는 중원에서도 서한 만기~동한대에 유행한 형태이며, 양동리 162호묘에서 출토된 連弧文鏡과 鳥文鏡은 각각 동한 중만기~조위대 및 동한 만기~조위대에 유행한 형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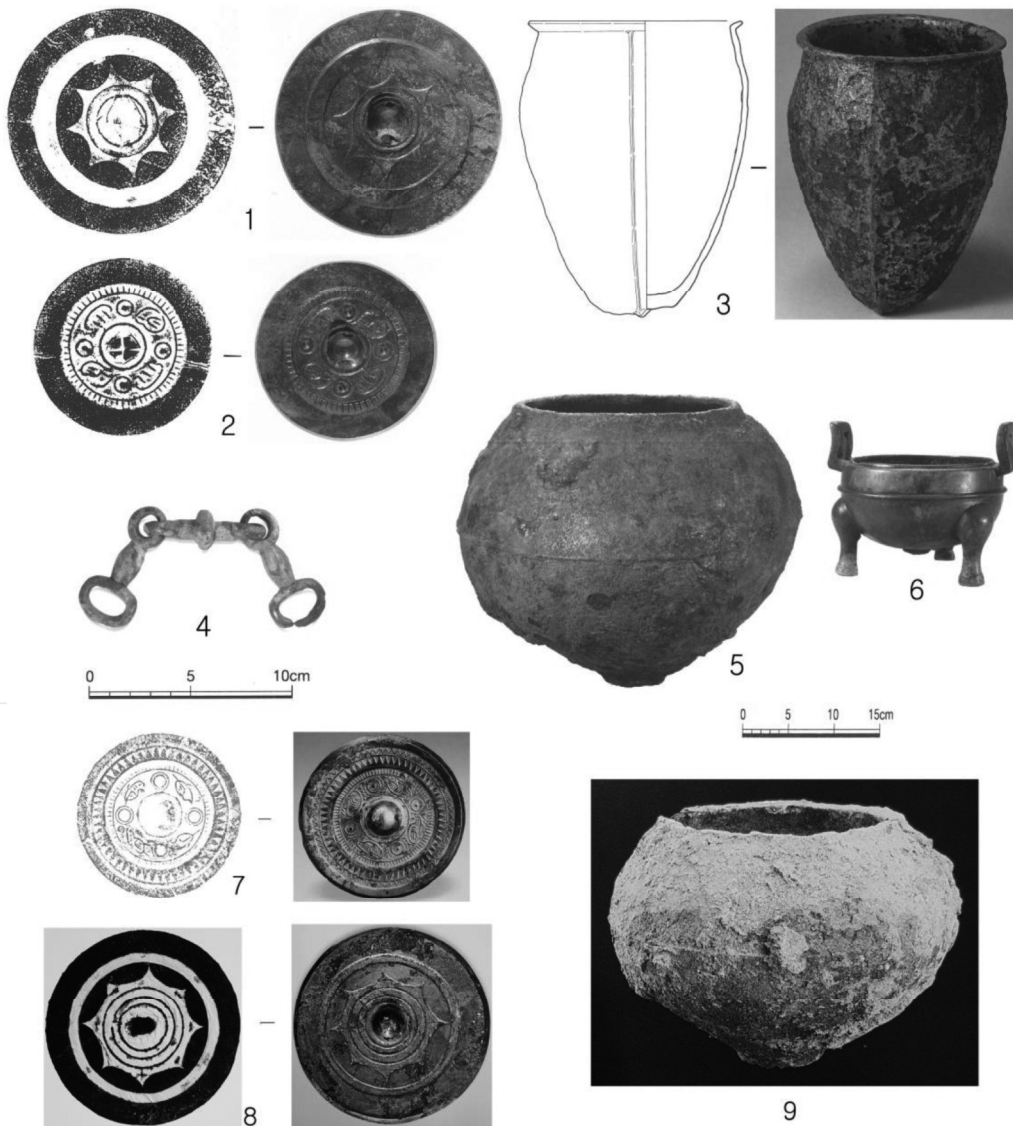
대성동 45호묘에서 출토된 U자상으로 접어 부장한 환두대도는 장송 의례에서 무기를 휘기하는 습속과 관련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무기의 휘기 습속은 부여의 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 길림성 길림시 모아산유적의 부여 무덤(목곽묘)에서 이와 똑 같은 형태로 휘기한 환두대도가 출토된 바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요서회랑과 요동반도 일대에서 확인된 한대 목곽묘와의 유사성과 더불어 당시 변한 사회의 대중국 교류 루트의 이원성을 거론케 한다. 즉 변한의 대중국 교류는 중원-낙랑-변한이라는 낙랑을 경유한 루트 이외에도 요서회랑-요동반도와 직접 교류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성동 45호분 환두대도>

<帽兒山 부여묘 출토 환두대도>

<도면 3> 휘기 환두대도



1~3: 양동리 162호, 4: 傳 양동리, 5: 양동리 318호, 6: 양동리 322호, 7: 西安 東漢墓曲江雁湖小區 M16, 8: 洛陽 機瓦廠 三中隊 建築工地, 9: 西安 東漢墓 西安郵電學院長安校區 M1233
<도면 4> 가야성립 이전 목곽묘 단계 중국 문물 및 비교자료(김일규 2016에서)

목곽묘와 신식와질토기를 표지로 하는 이 단계는 변한의 대중국 교류가 낙랑을 거치는 루트 이외에도 중국 동북지방의 요령지역과 직접 교류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한식 문물의 2차 파급기로 설정한다.

서기전 82년 한사군이 낙랑군으로 재편된 이후부터 낙동강하구 유역의 변한은 낙랑과의 교류를 시작하였다. 서기 1세기 전반까지 낙랑을 통한 대중국 교류는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이후의 고고학적 양상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 2세기 후반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전환되는 시점에 재차 중원의 한식 문물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양상은 변한과 중국의 교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한 사실을 시사하는데, 이때는 낙랑을 경유한 루트 이외에 중국 동북지방과의 직접적 교류도 상정할 수 있다.

III. 가야와 중국과의 교류 양상

가야의 대중국 교류에 관한 연구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기점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²⁾ 복천동 고분군, 지산동 고분군, 말이산 고분군 등 대성동 고분군 발굴 이전에 이루어진 가야 고분의 발굴조사 결과, 광개토왕의 경자년 남정은 신라와 가야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측면에서 큰 변혁을 초래하였다는 패러다임을 형성하게 하였다. 물질적 측면에서는 가야가 이때부터 고구려를 통해 중국의 문물을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즉 고구려가 경자년 남정을 시점으로 중국과 교류에서 받아들인 문물이 신라와 가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鎧馬重甲騎兵, 기승용 마구와 마장 체계이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는 가야와 중국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한 고고학적 인식의 틀이 확보되지 않았다(김일규 2020a).

1990년부터 행해지고 있는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발굴 결과 중국, 일본과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외래문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대성동 고분군 발굴에서 확보한 고고학 자료 가운데 중국 문물은 가야의 대외교류에 관한 연구범위를 중국 본토까지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는 慕容鮮卑의 공격을 받아 옥저로 피신한 부여 왕족의 일부가 낙동강하구 유역으로 남하하면서 고대국가로서의 가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대성동 29호분으로 대표되는 주부곽식 목곽묘와 출토된 도질토기, 순장, 동북, 보요부 금동관을 부여족 남하의 고고학적 증거자료로 제시하였다(신경철 1992). 이외에도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최근까지 三燕의 마구와 무구, 中原의 진식대구와 한경, 위진경을 비롯하여 로만 글라스 등 중국과의 교류를 방증하는 문물이 계속하여 출토되고 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중국 문물은 크게 중원계와 북방계로 구분되는데 이를 중심으로 가야와 중국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자.

1. 중원계 문물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대표적인 중원계 문물은 등요와 도질토기, 한경과 위진경, 진식대구 등이 있다.

가. 등요와 도질토기³⁾

대성동 29호분이 조영되면서부터 낙동강하구 유역에서는 이전의 와질토기와 다른 도질토기를 부장하기 시작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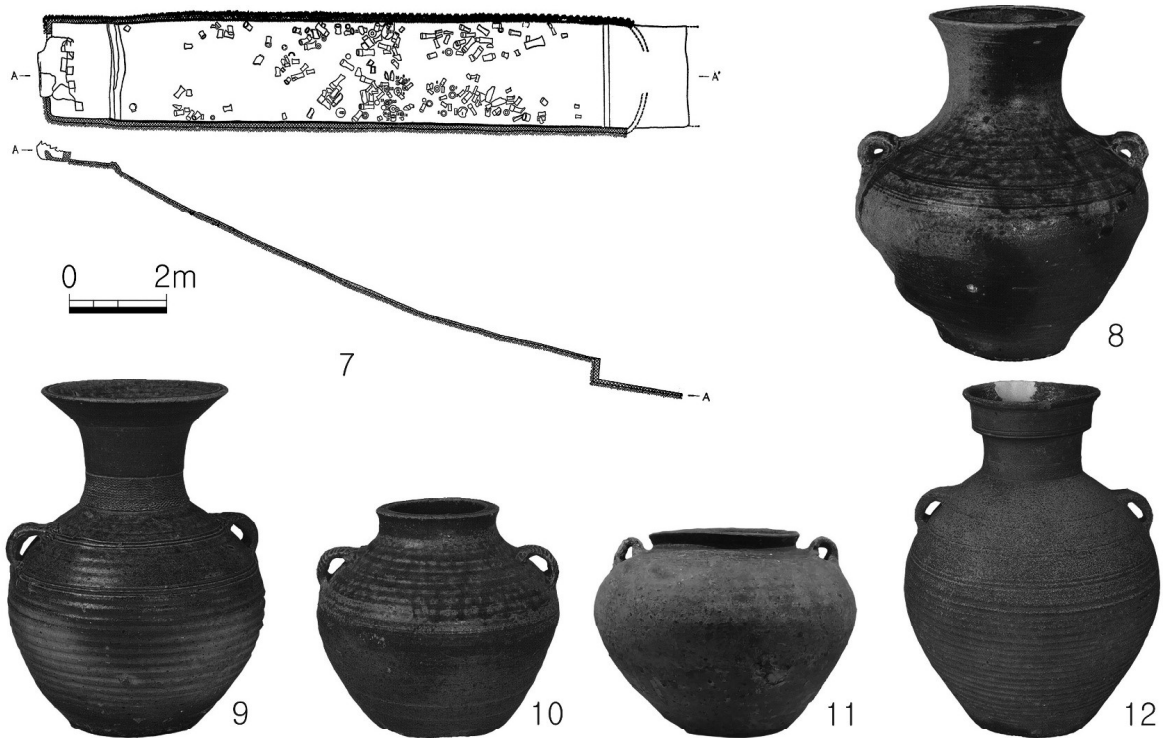
2) 그 이전의 가야 대외교류 연구는 일본열도 왜와의 교류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3) 전기 가야의 등요와 도질토기는 김일규(2018)의 글을 수정 요약해서 인용하였다.

다. 도질토기와 이를 소성한 登窯는 중국 장강 유역의 龍窯와 硬陶 製陶技法에서 기원한 것이다.



<전기 가야의 등요와 도질토기>



<장강유역의 용요와 경도>

1:구산동1895호 등요, 2:대성동91호분. 3:동 29호분, 4:동 18호분, 5:동 94호분, 6:동 1호분
7:浙江省 上虞 三國시기 용요, 8~10,12:杭州 余杭義橋 漢墓, 11:常州 三國시기 吳墓.

<도면 5> 전기 가야의 登窯와 도질토기 및 장강 유역의 龍窯와 硬陶

낙동강하구 유역에서 도질토기가 출현한 대성동 29호분 단계에 도질토기를 소성한 가마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당시 해당 가마의 정확한 형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4세기 중엽으로 편년하는 구산동 1895호 가마와 창녕 여초리가 마, 그리고 함안 우거리 토기 가마터의 전기 가야의 토기 가마가 모두 등요이며, 또한 가야토기는 4세기 중엽부터 대부분 기종이 도질 소성으로 제작되는 등 도질토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출현 당시의 도질토기도 등요에서 소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세기대 가야권역에서 확인된 등요는 외형과 구조, 소성 원리 등에서 장강 유역의 용요와 거의 흡사하므로 용요를 충실히 모방한 가마일 개연성이 크다.

중국의 화북지역에서는 등요가 아닌 평요 계열의 만두요가 일반적이었으며, 산동성 일부 지역에서만 5세기 후반부터 용요가 운영되었다. 아울러 화북에서는 5세기 후반부터 하남성 북부의 안양-산동성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국한된 지역에서 비로소 자기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그 이전까지는 자기를 모방한 연유도와 회도를 생산하였으며 회도가 일상적인 용기였다.

도질토기는 장강 유역의 경도와 유사성이 많다. 경도는 주로 장강 유역에서 상주시대부터 원시자기와 인문도기 등으로 생산되어 동한시대 만기 청자가 본격 생산되기까지 유행한 도기이다. 도질토기는 硬陶와 소성정도, 기물 내·외면과 自然釉의 색조와 상태, 타날 등에서 너무나도 흡사하다. 도질토기와 경도를 깨뜨려 섞어놓으면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등요와 용요 및 도질토기와 경도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등요와 도질토기의 기술적 원형은 장강 유역의 용요와 경도의 製陶術에서 구할 수 있겠다.

나. 동경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된 중국계 동경은 연호문경과 박국경, 신수경이 있다.

연호문경은 70호분과 108호분, 14호분에서 출토되었다. 앞의 두 거울은 중국 내지의 중원지역에서 동한시대 중·만기~조위시대에 유행한 거울인데, 간혹 16국시대의 무덤에서도 출토되는 예가 있다. 특히 대성동 70호분 출토 거울은 도굴로 인해 훼손이 심하지만 연호문의 외연에 2조의 절치문이 일주하고 그 가운데 운뢰문을, 연호문이 연결된 각 꼭지에 운문을 배치하고 호문과 퇴문을 대칭적으로 배치한 連弧雲雷文鏡으로 동한 중만기에 유행한 장의자손명연호운뢰문경과 동일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14호분 출토품은 파손된 거울에 구멍을 뚫어 펜던트로 재활용한 것이다. 이 거울은 연호문과 문양대, 뉴좌의 경계를 선문으로 표현하였는데, 세부 속성과 법량에서 이와 꼭 같은 형식의 거울은 湖北省 鄂州의 동진묘에서 출토된 바 있으므로 이 형식의 거울은 위진경으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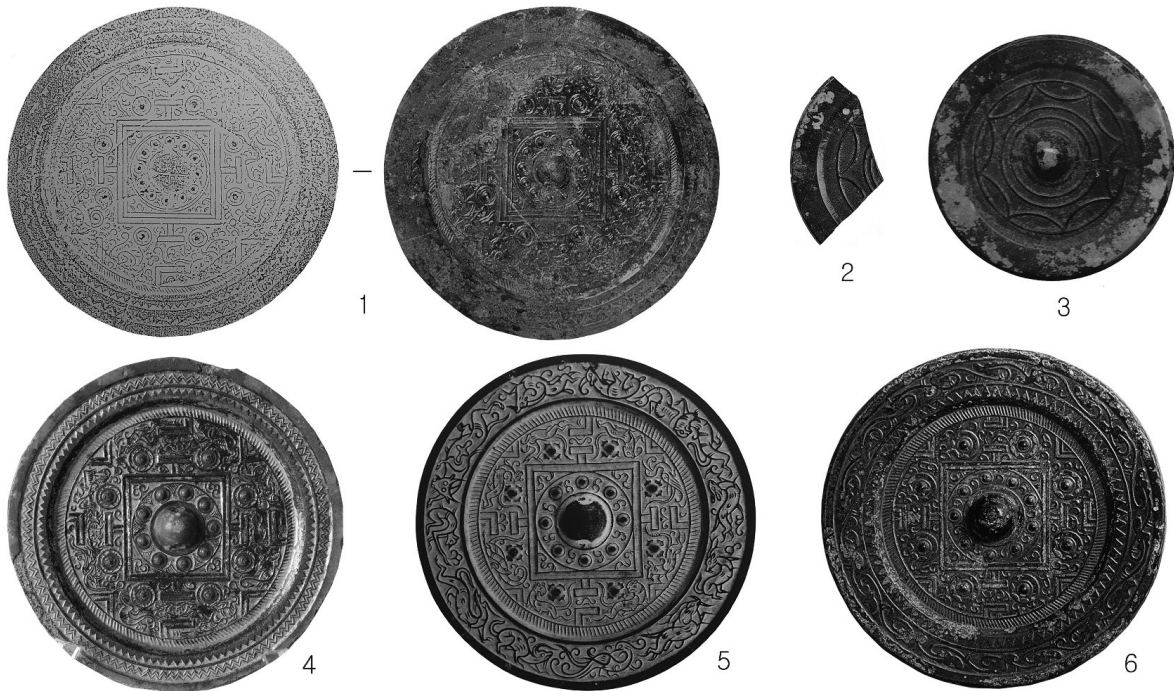
23호분에서는 박국경이, 2호분에서는 신수경편 출토되었는데, 전자는 서한 말~신망시대, 후자는 동한대에 출현한 형태이다. 전자와 같이 원형 뉴좌에 다유를 배치한 박국경 및 후자처럼 문양대를 중심으로 내외에 사선문대가 있으며, 원형 뉴좌를 가진 4유신수경 내지는 5유신수경은 동한 조·중기에 유행하였지만, 화남지역에서는 삼국시대 동오와 서진대 무덤에서 출토되기도 하는 등 유행한 시간대가 길다(鄂州市博物館 2002).

대성동고분군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漢鏡을 4세기대까지 부장하는 예가 종종 확인된다. 전연~후연의 무덤군인 라마동과 방신촌 유적에서도 동한경인 7유조문경과 위진경인 위지삼공경이 출토되었고, 16국시대 무덤군인 함양 16국묘에서도 박국경, 조문경, 연호경의 동한경은 물론 일광경과 같은 서한경이 출토되었다.

양한시대에는 洛陽-南陽 지역이 동경 생산의 중심이었는데, 동한 만기부터 장강 유역의 鄂州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새롭게 그 생산중심지로 부상하였으며, 또한 동진-16국시대가 되면서 중원문화의 중심은 강남으로 옮겨갔다. 화북 지역은 서진 말 이후 5胡 諸國의 패권 쟁투로 인한 전란으로 생산경제가 파쇄하였으며, 東晉과 5胡 諸國의 적대적 관계를 감안하면 화남에서 주로 생산된 고급 일상품인 동경이 장강 이북으로 자유롭게 유통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

령 화남에서 생산한 거울이 화북지역에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그 양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화북지역에서는 동경의 품귀현상이 초래되어 이전 시기의 동경이 계속 사용되었을 것을 생각된다. 관중과 중원의 16국시대 무덤 부장품에 한경이 포함된 것은 당시의 이러한 시대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한경들은 그것이 제작, 유행하던 해당 시기에 김해지역에 유입된 후 오랜 전세 과정을 거친 것 이라기보다는, 제작된 중국 원형에서 전세 사용되던 것을 가야가 수입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부장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5胡에 점령당한 중국 화북지역의 정세 및 상기한 바와 같이 화남지역에서 이 유형의 거울들이 서진~동진대에도 유행한 것을 고려하면, 이 유물들은 한화 정책을 표방하고 동진과 친화적이던 전연이 후조를 멸하고 중원지역에 진출한 352년 이후에 가야가 전연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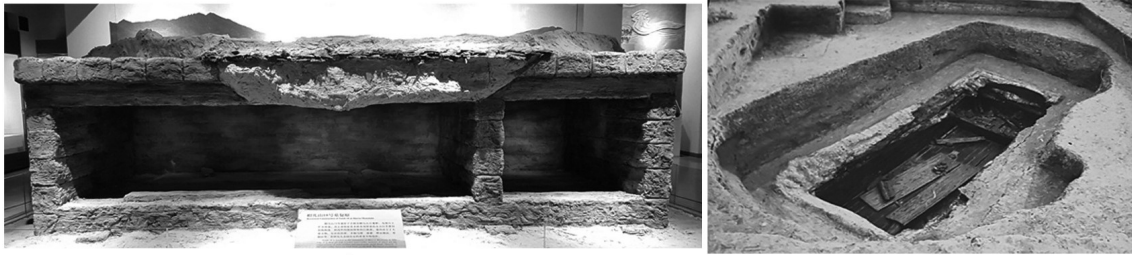
1:대성동23호분, 2:동 14호분, 3:湖北省 鄂州 西山水泥廠79號 東晉墓, 4:중국 개인소장품, 5:중국 狄秀斌 소장품, 6:洛陽 澗西區 東方紅拖拉機廠 西漢墓M6.

〈도면 6〉 대성동 고분 출토 중국제 거울 및 비교자료

다. 晉式帶鉤

대성동 88호분에서 출토된 진식대구는 江蘇省 宜興 周處墓 출토 진식대구와 유사하다. 의흥 주처묘의 보고문에 제시한 帶鉤 도면은 테두리(邊框)의 속성이 李鉉宇(2019:107)의 무문형으로 유문A형인 대성동 88호분 대구와 다르다. 그렇지만, 중국 국가박물관에 전시된 주처묘의 은제 진식대구를 직접 살펴본 바에 의하면, 주처묘의 대구 역시 유문A형인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양자는 제법과 세부 속성에서 같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김일규 2015:43-45; 李鉉宇 2019:107), 의흥 주처묘가 297년에 조영된 것을 고려하면 서진 만기의 유행 시점을 알 수 있다.

진식대구의 유입 경로와 배경 또한 위의 동경과 같을 것이다.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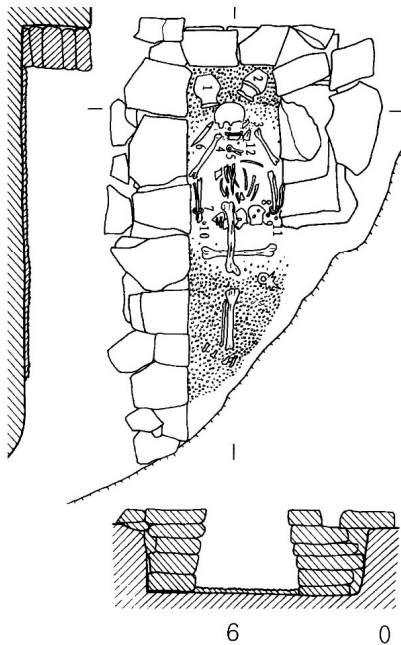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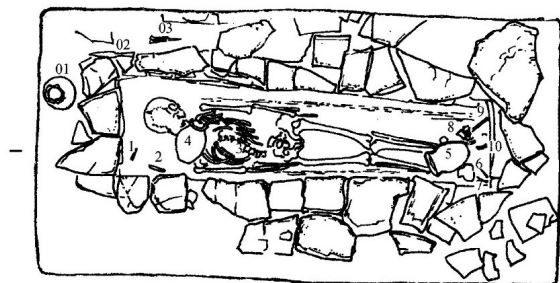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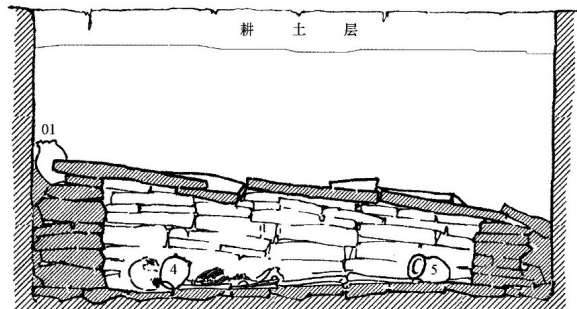
5



6



7



0 1m

1,2: 길림 帽兒山 18호묘(동혈주부곽식목곽묘, 1:2의 복원), 3~5: 대성동 35호 석곽묘와 출토유물 6:北票 大板營子 95M2 석곽묘, 7:北票 大板營子 99M8 석곽묘.

<도면 7> 帽兒山 18호목곽묘 및 요서 지역 석곽묘와 대성동 35호석곽묘(김일규 2020b에서)

2. 북방계 문물⁴⁾

가. 장송 의례와 이데올로기

고대 사회에서 이데올로기의 최정점에 있는 무덤 등의 장송 의례는 배타적이고, 보수성이 강하다. 그러므로 전기 가야의 수장급 무덤에 반영된 급격한 사상적 변화는 단순한 교류와 문물의 유입에 따른 결과로만 치부할 수 없다. 이는 북방 세력의 이주와 그에 따른 권력 구조의 재편을 통해 김해 대성동 고분군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전기 가야가 성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신경철 1995).

1) 목곽묘

중국 내지의 중원에서 목곽묘는 동주~서한대까지 유행하였지만, 서한 만기에 전축묘가 출현하면서 점점 사라졌다(劉振東 2015: 38-57쪽, 93-129쪽). 그러나 부여와 모용선비의 무대였던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5세기까지 이용된 무덤 구조이다. 특히 3~5세기 부여의 무덤군인 길림 帽兒山 고분군에서 발굴된 모아산 18호묘는 목곽의 한쪽에 격벽을 설치하여 꺼묻거리를 위한 부장 공간인 부곽을 조성한 동혈 주·부곽식 목곽묘이다. 전연의 무덤군으로 알려진 라마동 유적의 IM17, IM5와 같은 목곽묘도 깊은 묘곽에 발치 부분에 도기 등의 유물을 부장한 별도공간인 副槨의 존재가 예상된다. 이러한 목곽묘들은 전기 가야 최고의 목곽묘인 대성동 29호분과 꼭 같은 구조이다.

2) 석곽묘

석곽묘는 주로 5세기에 영남지역에서 유행한 묘제인데, 전기 가야에서 석곽묘는 4세기 중엽에 대성동 35호분을 시점으로 하여 출현하였다. 35호 석곽묘와 같이 판석형 할석을 평적하여 축조한 석곽묘는 삼한시대 및 4세기 전반의 전기 가야의 무덤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묘제이다.

대성동 35호분과 같은 형태의 석곽묘는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모용선비가 요서지역에 진입한 이후 채용한 묘제로, 내몽고 동남부~요동에 걸친 지역에서 확인된다(李鉉宇 2019). 대성동 35호분은 벽석의 축조 형태로 볼 때 대·소릉하 주변의 요서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는 이현우 분류의 B형 석곽묘와 유사하다. 따라서 대성동 35호분과 같은 석곽묘 역시 전연과의 교류 과정에서 전기 가야에 유입된 북방계 문물이다.

3) 순장과 순생

대성동 고분군 29호분에서 처음 시작된 순장은 전기 가야의 수장급 고분은 물론 지산동 고분군과 말이산 고분군 등 후기 가야 고분에서도 계속되었다.

대성동 고분군에서 주 피장자 범위 바깥 부분에서 인골과 장신구 등이 출토되어 순장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데, 29호분을 시작으로 대형분에서는 대부분 殉人이 확인되었다. 전기 가야의 대성동 고분군에서는 목곽 내부와 목곽을 충전한 보강범위에서 모두 순인이 확인되었으며, 후기 가야의 지산동 고분군에서는 매장주체부인 목곽과 석곽 내부 및 보강범위와 봉토 내부에 별도의 관곽을 마련하여 순장하였다. 고대 중국의 순장과 비교하면, 목곽 내·외 殉人의 구별은 각각 무덤 주인과의 遠近 관계 또는 순장자의 신분 차이를 나타낸다(張學鋒 2009:57-58).

4) 중국 북방문물에 대한 것은 김일규(2020b)의 글을 일부 수정 요약 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회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야의 성립이 변한 사회의 내적 발전보다는 외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시기 중국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에 따른 북방민족의 정치적 변혁과 그에 따른 집단의 이주가 낙동강하구 유역에까지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장송 의례의 상기한 현상은 그 부수적인 산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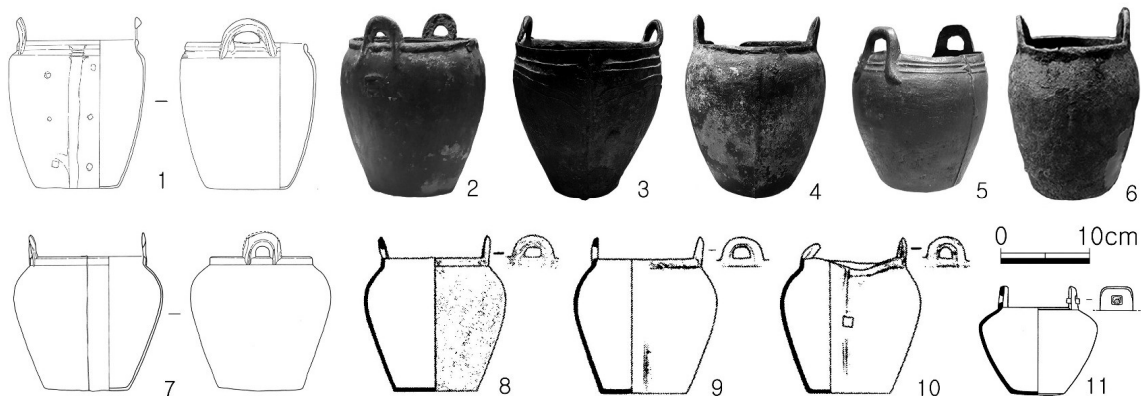
4) 사슴 토토편

대성동 91호분에서는 사슴 토토편과 연관할 수 있는 사슴뿔 관식이 출토되었다. 유물은 사슴뿔의 하단에 못 구멍이 있는 돌출부를 만들어 삽입부에 끼워 고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관을 장식한 사슴뿔로 예상할 수 있다. 사슴뿔 토토편은 유라시아 초원지대에서 수렵과 목축을 영위한 민족들의 대표적 토토편이다. 흉노의 고고 자료 중에는 금제, 청동제 사슴과 사슴뿔 장식, 사슴문신이 있는 미라, 사슴 문양으로 뒤덮은 석인상 등 사슴뿔과 관련한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아무르강 유역의 민속품 가운데 사면 복식에는 사슴뿔 모양의 관식이 있으며, 지금도 이 지역의 사면은 박제한 사슴 대가리를 머리에 쓰고 주술과 제사 의식을 진행한다. 따라서 대성동 고분에서 출토된 관을 장식한 사슴뿔은 북방의 토토편상과 관련지을 수 있다.

나. 동북

김해 대성동 29호분과 47호분, 양동 235호분에서는 고대 유라시아 초원지대의 유목민족들이 사용한 대표적인 자비 용기인 동북이 출토되었다. 이 동북들은 모두 평저식 동북인데 흉노와 탁발·모용선비의 영역인 중국 북방은 물론 山西省과 陕西省, 湖北省 鄂州의 東吳 유적에서도 출토되어 華夏의 중심부인 중원까지 전파되었다. 29호분 동북은 동한~위진대에 유행한 형식이다. 潘玲(2015:111)은 대성동 29호분의 동북을 서진대 중국 동북지역·부여, 고구려·에서 전래한 것으로 보았다. 대성동 47호분에서 출토된 동북은 전연의 무덤군인 라마동 유적에서 출토된 동북과 비교하면 거의 흡사한 형식이다.

潘玲(2015:21-22)은 銅鑲이 출토된 라마동 유적의 무덤을 曹魏~十六國時代 前期를 전후한 무덤인 3세기 중엽~4세기 중엽으로 편년 한다. 田立坤(2003)은 라마동 유적의 무덤군을 모용선비 정권하의 부여유적, 즉 346년 전연이 부여를 멸망시킨 후 이주시킨 부여 유민의 무덤군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대성동 47호분에서 출토된 형식의 동북이 유행한 중심연대는 전연이 성립된 시점(337년)을 전후한 4세기 전·중엽으로 편년 할 수 있다. 대성동 47호분은 4세기 3/4분기로 편년하므로 이 형식의 동북이 유행한 시간대와 형식의 유사성도 이를 방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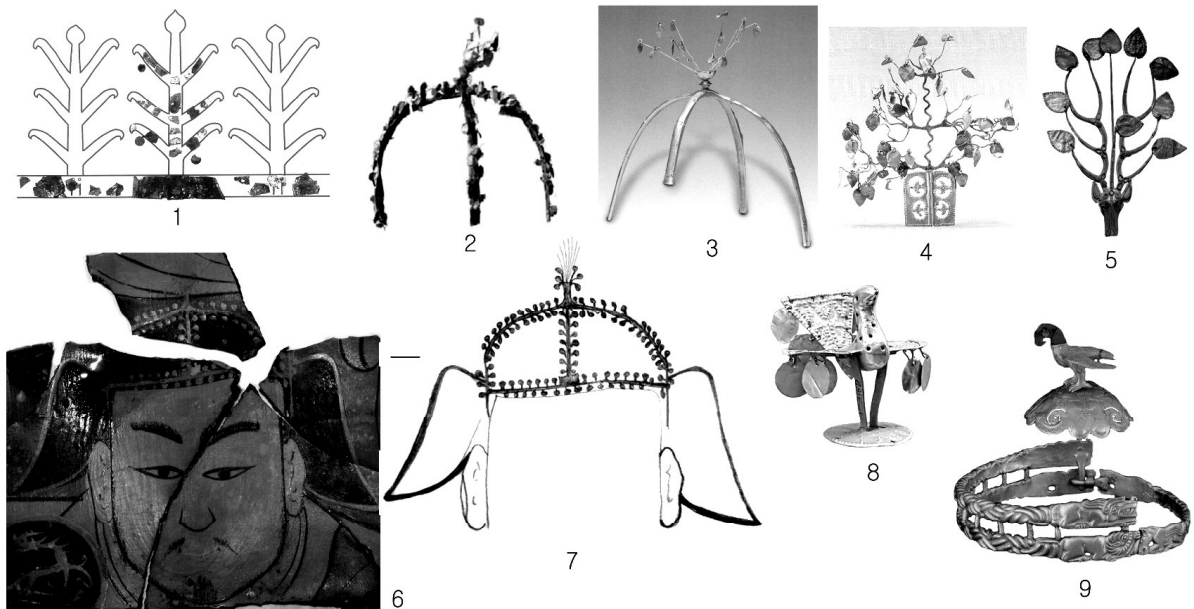
1:김해 대성동 29호분, 2:섬서성 神木市(섬서성박물관 소장), 3:鄂爾多斯청동기박물관 소장, 4:내몽고 烏蘭察布市, 5:黑龍江省 雙鴨山 有利南山城址, 6:吉林市 帽兒山 夫余 무덤군, 7:김해 대성동 47호분, 8:북표 라마동 II M166, 9:북표 라마동 II M125, 10:라마동 II M43, 11:북표 풍소불묘

〈도면 9〉 대성동고분 출토 동북과 비교자료(김일규 2020b에서)

다. 보요부금동관

대성동 29호분에서 출토된 보요부금동관도 대표적 북방식 문물이다. 도굴로 인한 훼손으로 파손, 결실 정도가 심하지만, 떨잠이 장식된 步搖冠으로 복원할 수 있다.

떨잠이 장식된 보요관과 같은 금(동)제 장신구는 동한 만기에 선비족이 남하하여 정착한 내몽고 중남부-산서성 북부-하북성 서북부에 해당하는 代지역 및 조위대 이후 모용선비의 주요 근거지였던 내몽고 남동부-요서지역에서 유행한 관식이다.⁷⁾ 해당 시기의 유물로는 내몽고자치구 通遼市の 檀石槐 시기의 선비 무덤에서 출토된 봉황 장식 금제 보요 및 전연 말~후연의 무덤인 遼寧省 北票房身村晋墓 M2 출토 보요 장식, 북연의 풍소불묘, 조양 왕분산묘에서 출토된 금제 보요관, 그리고 山西省 大同 沙岭 北魏 M7에서 칠기에 그려진 선비족 墓主夫婦의 머리에 보요관이 있다.⁸⁾ 더불어 『晉書』 卷108, 慕容廆載記, 『太平御覽』 卷121, 十六国春秋·前燕錄의 문헌 기록에는 慕容鮮卑의 “慕容”이라는 명칭이 步搖에서 파생했으며, 선비족이 보요관을 즐겨 착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문헌과 고고학 자료들은 보요 장식의 계보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선비족 사회에서는 금제 보요관을 비롯한 보요 장식이 유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성동 29호분의 금동제 보요관은 중국 북방 선비족의 보요 장식에서 기원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1:대성동 29호분, 2:朝陽 王墳山墓, 3:北票 馮素弗墓, 4:朝陽 姑草溝M2, 5:內蒙古 達爾罕茂明安聯合旗 前河子村, 6,7:山西省 大同沙岭北魏M7壁畫墓 8:內蒙古通遼市科左后旗鮮卑墓, 9:內蒙古 鄂爾多斯市 杭錦旗阿魯柴登 匈奴墓.

<도면 10> 대성동29호분 출토 보요부금동관 및 鮮卑族의 보요관식(김일규 2020b에서)

라. 마구

김해 대성동 91호분은 마구가 출토된 한반도 남부지방의 삼국시대 무덤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한다. 대성동 91호분에서는 재갈을 비롯하여 馬裝과 관련한 각종 마구가 공반하였는데, 마구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모용선비가 세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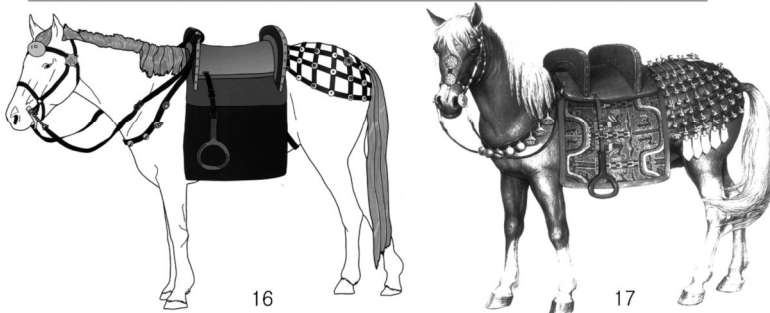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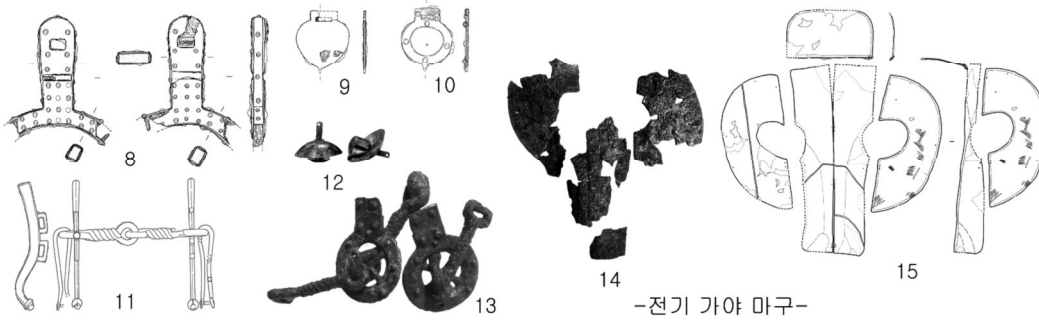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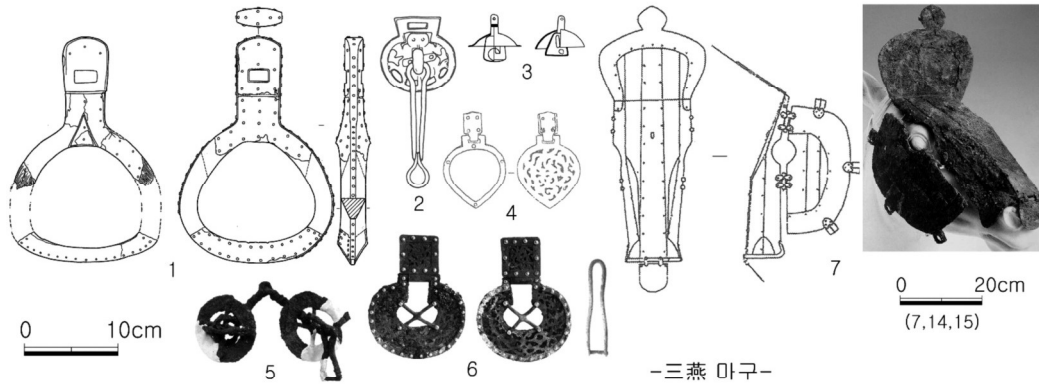
7) 양한~육조시대에 중원지역에서도 금제 장신구가 사용되었지만, 관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8) 이 무덤에서는 太延元年(435년)에 歿하였다는 명문이 있는 칠기도 출토되었다(王雁卿 2019).

전연의 마구와 공통되는 점이 많다. 출현 시점의 가야 마구에는 부여와 고구려 마구의 속성도 일부 확인되지만, 대체로 전연 마구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대성동 91호분에서 출토된 재갈, 굴레 장식, 마면을 장식하는 當廬, 복조식 후걸이 중앙교차부 장식운주(鞞帶纓座), 후걸이를 장식한 패각제 운주, 가슴걸이를 장식한 연자방형 영부운주와 방울, 금동제 마구 부품 등 마장 일체는 전연의 마장과 흡사하다.

한편, 복천동 38호분과 복천동 69호분에서 출토된 瓢形 인수를 가진 재갈 및 대성동 91호분의 연자방형 영부운주는 부여와 고구려의 마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전기 가야의 초기 마구는 해당 시기 중국 요서의 전연을 비롯하여 길림성 일대의 부여와 고구려에서 유행한 마구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원류가 중국 동북지역의 마구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세기 후반이 되면 가야 마구에서도 고안교 안장과 등자가 등장하였다. 등자는 먼저 單鐙이 출현하고, 4세기 말이 되면 雙鐙으로 발전한다. '단등→쌍등'으로의 등자 변천 과정은 중원 및 전연의 등자 변천과도 일치한다. 가야의 등자들은 먼저 나무로 등자의 형태를 만든 후 일부분 또는 전면에 철판을 덧대어 보강한 목심철판피륜등이다. 전연 말~후연 성립기의 무덤인 북표 북구M8에서 출토된 등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작한 최초의 목심동판피륜등이므로, 제법의 기원은 전연에서 구할 수 있다.



- 1: 풍소불묘, 2: 호민둔M154
- 3: 원대자벽화묘, 4,7: 십이대향88M1, 5: 북표 리마동 I M 10, 6: 리마동 II M16, 8, 10, 15: 대성동1호, 9: 대성동3호, 11, 12: 대성동91호, 13: 대성동2호, 14: 대성동57호.
- 16: 전기 가야 마장복원
- 17: 원대자벽화묘 마장복원

<도면 11> 삼연과 가야의 마구와 마주 (김일규 2020b에서)

4세기 후반의 가야 무덤에서는 장식성이 강한 마구인 판비와 환판비, 심엽형 말띠드리개[杏葉]도 동반하였다. 전연 무덤인 안양 효민동 154호묘와 조양 원대자벽화묘에서 원형 판비의 最古 실물자료가, 후연 무덤인 라마동ⅡM16에서는 청동제 X자형 환판비가, 조양 십이대향88M1에서 금동지판의 주연에 금동띠를 덧대어 장식한 행엽이 출토되었다. 가야 마구에서 확인되는 원형 판비와 환판비, 심엽형 행엽 역시 삼연 마구에서 원류를 구할 수 있다(김일규 2019).

가야에 북방 계통의 기승용 마구가 도입된 이후 전기 가야 마구는 삼연 마구의 변천 양상과 궤를 같이한다. 5세기 초의 가야 마구에서는 일부 고구려 요소가 보이지만 북연의 멸망 시점까지 여전히 삼연 마구의 속성이 유지되었다. 대성동 1호분과 복천동 25호분에서 출토된 등자가 북연 풍소불묘의 등자와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유물들의 형태와 제법이 아주 유사한 것은 이를 대변한다. 아울러 대성동 1호분에서 출토된 심엽형 행엽은 금 지판의 주연부에 철띠를 덧대어 못으로 고정한 구조인데, 금 지판은 고구려의 속성(이현우 2020)으로 볼 수 있더라도 전반적인 형태는 앞서 언급한 삼연 무덤인 십이대향88M1의 심엽형 행엽에서 그 계보를 구할 수 있다. 복천동 21·22호분에서 출토된 등자와 안장에서조차 여전히 삼연 마구의 속성이 잔존하고 있다.

전기 가야의 마구는 형식적 특징에서 전연 등 삼연 마구의 계보를 잇고 있으며 변천 양상은 삼연 마구와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가야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입수한 삼연의 마구 문화를 시간적 격차 없이 거의 곧바로 가야 마구에 적용하여 변화 발전을 이끈 것이다. 가야 마구는 5세기에 접어들면서도 북연 멸망 시점까지는 여전히 삼연 마구의 계보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고구려 마구의 속성이 혼합된 복합적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이는 광개토왕의 경자년 남정으로 인해 고구려의 마구 문화와 직접 접촉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세기 중엽 이후, 후기 가야가 되면 상기한 전기 가야 마구에서 확인되던 삼연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요소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마. 鎧馬重甲騎兵

1) 鎧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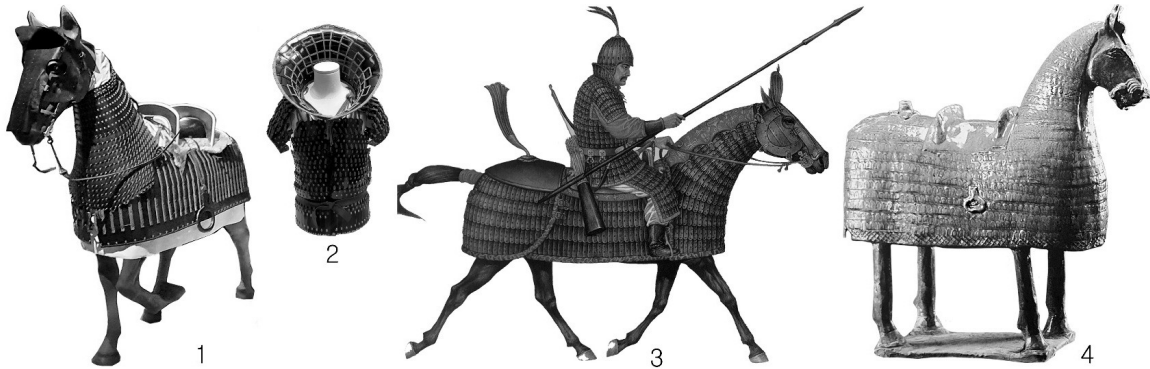
4세기 말로 편년하는 대성동 57호분에서 개마의 한 구성 요소인 馬胄가 출토되었다. 이 마주는 마면을 덮는 상판을 두 개의 철판을 연결하여 제작한 형태로 전연 마주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지만(이상울 2016; 김일규 2018), 세부 제작 속성에서는 뚜렷이 구별되어 토착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김일규 2020b). 중원지역에서는 철제 鎧馬重甲騎兵이 4세기 전반에 출현하였고, 전연과 고구려에서도 4세기 중엽에는 개마로 무장한 중갑기병을 갖추었다(김일규 2018). 전기 가야의 마주가 형식적, 구조적으로 전연의 것과 계통상 연결되는 것은 전기 가야가 전연의 개마중갑기병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대로 확보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마주 등 개마의 일부분을 가야의 기병 체제에 즉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세기 초엽이 되면 대성동 11호분을 위시하여 복천동 35호분에서 마갑이 출토하였다. 이때부터 말의 머리뿐만 아니라 몸통 전체에 소찰로 엮은 마갑을 착용한 개마, 즉 완전화된 개마중갑기병이 갖추어진 것이다. 이러한 개마중갑기병의 출현은 중국을 통한 것이 아니라, 광개토왕의 경자년(400년) 남정에 따른 반대급부로 고구려의 중갑기병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장경숙 2009; 우순희 2010; 김성호 2019). 그러나, 가야의 마주는 5세기 전반까지도 전연계 마주가 지속하였으며, 5세기 중엽 이후부터 신라 마주의 영향으로 고구려계 마주로 변화하였다.

2) 방호구

가야의 방호구는 찰갑과 판갑이 있는데, 반타원형과 타원형 소찰을 엮은 철제 비늘갑옷인 유동식 찰갑과 종장판주

도 대표적인 중국 문물로 분류할 수 있다. 대성동 13호분·18호분, 복천동 38호분 등에서 출토된 찰갑과 종장판주가 해당한다. 소찰제 갑주인 찰갑은 흑해 연안에서 그 기원을 구하는데, 서한 초기에 메탈로드를 통해 중원에 유입되어 유행한 방호구이다. 중원에서는 동한대에 성행하였는데, 이 무렵 북방지역에 전파된 후 유동식 등으로 구조 개량을 거친 형식이 4세기 전반에 가야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전기 가야에 유입되었을 것이다.



1,2:가야 鎧馬와 札甲 복원(김해박물관), 3:전연 鎧馬重甲騎兵 복원(劉永華 2013), 4:咸陽16國墓 平陵M1
 <도면 12> 전기 가야와 16국 시기의 鎧馬重甲騎兵

IV. 맺음말 -대중국 교류의 성격과 배경-

전기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중국 문물은 서진 말 중원의 혼란으로 북방민족이 남하하면서 야기된 동아시아의 정세 변동이 낙동강하구 유역에도 직접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진 말 팔왕의 난과 영가의 난, 그리고 5호 16국으로 이어지는 혼란은 중원을 포함한 화북지역 생산경제의 파탄을 초래하였고, 이는 생산체제의 기반인 철 생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조위~서진대에 二郡[낙랑군, 대방군]에 철을 공급했을 정도로 낙동강하구 유역은 당시 철 생산지로서 중원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중국 시각으로도 낙동강하구 유역은 철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역대상지였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성동 고분군을 필두로 하여 전기 가야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된 중국 문물은 가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한 사실을 방증한다. 낙동강하구 유역의 전기 가야는 성립 당시에는 중국의 북방 및 화남지역과의 교류 양상이 모두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후 4세기 중엽부터는 대중국 교류의 주 대상은 모용선비의 三燕이 되는데, 이 현상은 북연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하였다. 가야는 삼연을 대중국 교류의 거점으로 삼았지만, 전연과 후연이 중원을 권역에 두었던 시점에는 상호작용의 기반에서 화남의 동진과도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기 가야의 대중국 교류는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⁹⁾

첫째, 단순 교역에 의한 상품의 전래이다. 보요관, 동북, 진식대금구, 한경, 로만글라스 등과 같이 상품의 형태로 유입된 것으로, 이 유물들은 위세품으로 볼 수 있는 상징성이 강한 것이다.

9) 김일규(2020b)의 논문에서 제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임을 밝힌다.

둘째, 선진기술의 유입에 따른 신제품의 생산이다. 등요와 도질토기, 개마중갑기병, 마구 등이 해당한다. 장인집단 내지는 이러한 기술자를 대동한 세력이 가야에 들어와 현지의 사정에 맞춰 신제품을 직접 제작하고, 이 산품들이 주변으로 파급되는 과정에서 좀 더 토착화되었을 것이다.

셋째, 사상(문화)의 유입과 변화이다. 즉, 장송 의례와 관련한 葬具와 매장 프로세스와 같은 이데올로기의 유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부곽식 목곽묘, 석곽묘, 殉葬, 사슴뿔 토탑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야와 중국 북방의 교류가 단순한 물자의 교역을 넘어 잦은 사람들의 왕래는 물론 세력 집단의 이주에 따른 사상의 변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번영하던 낙동강하구 유역의 전기 가야는 경자년(400년)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타격을 입고 쇠락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436년 북연의 멸망으로 인해 대중국 교류의 거점을 잃으면서 중국-한반도 남부-일본열도를 잇는 국제적 교역망의 허브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를 기점으로 낙동강하구 유역 중심의 전기 가야는 급속히 약화하였다. 이후 가야의 정세는 재편되어 주변의 제 가야로 세력이 분산된 후기 가야가 전개되었다. 후기 가야와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방증하는 고고학 자료는 아직 찾아볼 수 없는데, 이때부터 한반도 남부의 대중국 교류의 주도권은 백제가 장악한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김성호, 2019, 「삼국시대 마갑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일규, 2014, 「嶺南地域 철문화의 출현과정과 전개」, 『영남고고학』69.
- _____, 2015, 『백제 고고학 편년 연구』, 학연문화사.
- _____, 2016, 「금관가야와 중국의 교류」, 『금관가야 고분의 축조세력과 대외교류』 2016가야고분 조사 연구학술대회,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18, 「금관가야고분 출토 외래유물의 성격과 의의」, 『호남고고학보』60.
- _____, 2019, 「三燕 馬具의 기원과 계통」, 『동북아 초기 역사시대 물질문화의 접촉과 변용』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기초연구 공동연구팀.
- _____, 2020a, 「가야의 대내외 교류」, 『가야역사문화 연구 총서 I』,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0b, 「전기 가야의 대중국 교류」, 『가야의 기록, 『가락국기』를 이야기하다』2020년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학 술제전, 국립김해박물관
- _____, 2020c, 「세형동검문화기 낙동강하구 유역 무덤 연구」, 『철기문화 시기의 분묘와 매장』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기초연구 공동연구팀
- 신경철, 1992, 「김해 예안리160호분에 대하여-고분의 발생과 관련하여」, 『가야고고학논총』1.
- _____, 1995, 「김해 대성동·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점묘-금관가야 이해의 일단」, 『부대사학』19.
- 우순희, 2010, 「동북아시아 출토 마갑 검토」,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 윤용구, 1999, 「삼한의 조공무역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162, 역사학회
- _____, 2020, 「영남지역 마구의 편년과 전개」,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지』16, 승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장경숙, 2009, 「말 갑옷(馬甲) 연구 시론」, 『학예지』16, 육군사관학교 육군 박물관.

-중문-

- 潘玲, 2015, 『中國北方晚期鍍研究』, 科學出版社.
- 付強 龐桂榮·呂良波·莫慧旋·李青會·干福熹, 2013, 「廣州出土漢代玻璃製品無損分析」, 『硅酸鹽學報』7.
- 鄂州市博物館, 2002, 『鄂州銅鏡』, 中國文學出版社.
- 王雁卿, 2019, 「头安金步搖 摇曳在平城桃形」, 『文博山西』.
- 劉振東, 2015, 『冥界的秩序』, 文物出版社.
- 李鉉宇, 2019, 『早期慕容鮮卑及三燕時期墓葬的考古學研究』, 北京大學博士研究生學位論文.
- 張學鋒, 2009, 『中國墓葬史』, 廣陵書社.
- 田立坤, 2003, 「關於北票喇嘛洞三燕文化墓地的幾個問題」, 『遼海考古文集』.
- 崔劍鋒·楊勇·朱忠華·王洪斌, 2016, 「雲南陸良縣薛官堡墓地出土漢代玻璃珠的分析與研究」, 『考古』第2期.
- 華陽, 2009, 「從考古發現看夫餘的厚葬之風」, 『東北史地』6.
- 黃啓善, 1988, 「廣西古代玻璃製品的發展及其研究」, 『考古』第3期.

黄淼章, 1986, 「廣州漢墓中出土的玻璃」, 『岭南文史』2.

-일문-

李尙律, 2016, 「古代東アジアと日本列島の馬具」, 『騎馬文化と古代のイノベーション』, KADOKAWA.



08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조성원 » 부경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II. 가야 출토 倭系遺物の 추출

III. 가야 출토 왜계유물로 본 倭와의 교류양상

IV. 맺음말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¹⁾

조성원(부경대학교박물관)

I. 머리말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류를 보여주는 물질자료는 선사시대 이래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영남지역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양 지역의 교류와 그 의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 삼한시대가 되면 양 지역의 정치체가 발전하면서 선사시대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교류가 시작되고, 삼국시대에 이르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삼국시대 영남지역에 자리 잡은 가야와 왜가 발전을 위해 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류가 본격화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삼국시대 가야와 왜는 다면적으로 맺어지고, 그 목적에 맞는 다양한 물질문화가 양 지역에 남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가야에서 출토된 소위 왜계유물과 일본의 가야계 유물과 그 의미를 도출해 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필자도 선학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가야와 왜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한 적이 있지만, 가야 전 시기에 걸친 통시적인 검토를 진행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전 연구를 토대로 새롭게 추가된 왜계 유물과 유구를 더해서 재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야와 왜의 교류가 어떠한 추이를 보이는지 접근해 보고자 한다.

그런데 양 지역의 교류관계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야지역 출토 왜계 유물만이 아니라 일본열도 출토 가야계 유물을 모두 섭렵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이를 모두 다루기에는 능력적 한계도 있고 정보의不知와 지역 간의 자료 편중 등으로 무리가 있음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왜계 유물 중에서도 출토량이 많은 토기류와 (청)동기류, 석제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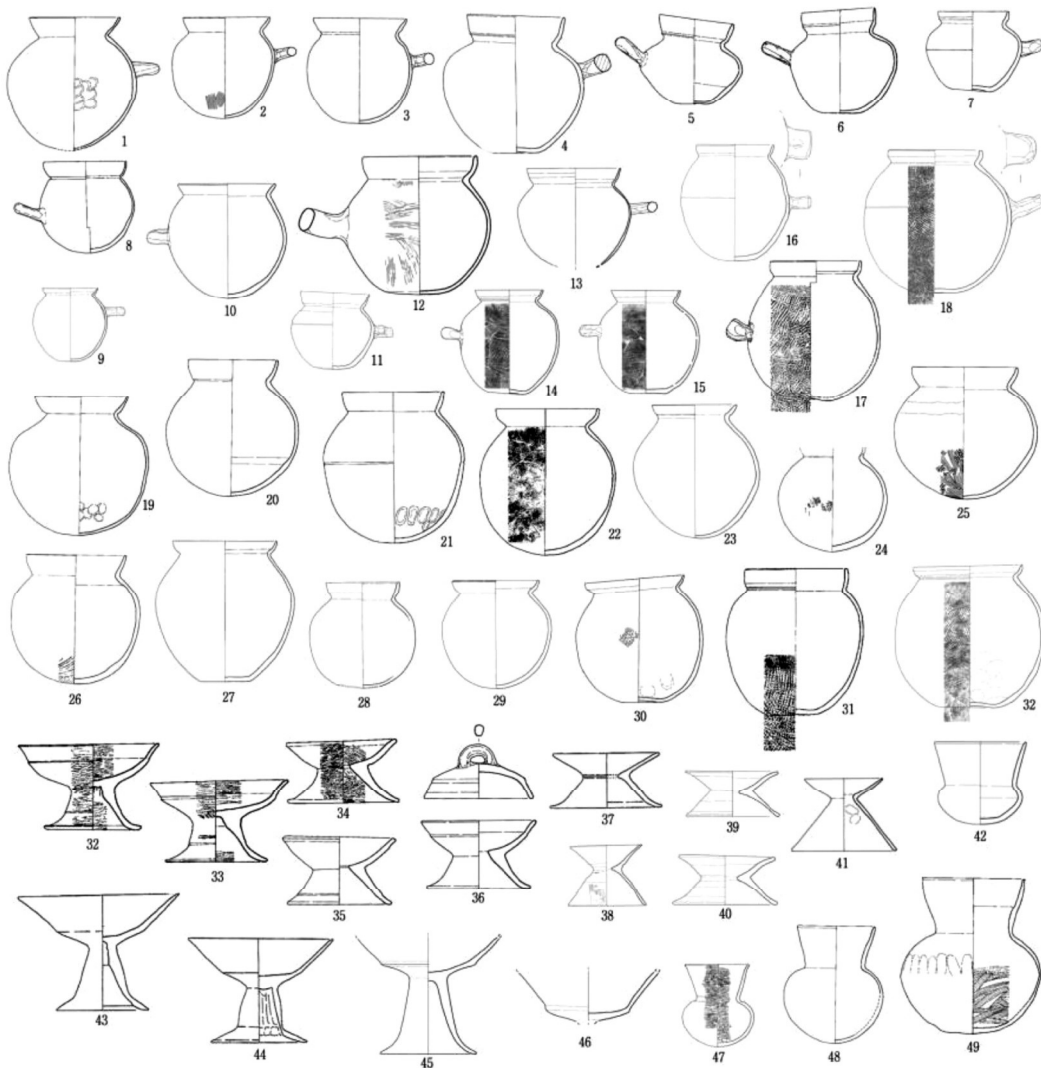
II. 가야 출토 倭系遺物の 추출

1) 본 글은 필자의 전고(2016, 2018, 2019)를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倭系土器는 일본에서 유입된 것은 물론 그와 유사한 형태를 가진 토기를 통틀어서 말한다. 지금까지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왜계 토기는 재질에 따라 하지키계와 스에키계 토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土師器系土器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土師器系土器는 출토 유적을 기준으로 분묘출토품과 취락출토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특수 목적을 가진 유구 즉, 제사유적이거나 생산유적 등에서는 아직 출토된 사례가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신경철 2001, 井上主税 2006, 조성원 2012)되고 있듯이 하지키계 토기 중 부장용으로 사용된 것은 모방품이 많고, 생활용에는 반입품 혹은 재현품이 많다. 이는 특수 기종을 제외하면, 하지키를 부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일본열도의 양상과 유사한 것 같다.



〈도면 1〉 가야 분묘출토 土師器系土器(축적부동, 趙晟元2016a 轉載後 追加)

1.金海 大成洞13号 2·3·35·36.大成洞47号 4.大成洞2号 5·6·22·32~34.釜山 福泉洞57号 7·8.福泉洞93号 9.福泉洞164号 10.金海 望德里 1-13号 11.釜山 美音洞1180番地 石槲47号 12.望德里 1-73号 13.望德里 1-143号 14·15.福泉洞25-26号 16.美音洞1180番地 石槲29号 17.金海 禮安里35号 18.美音洞1180番地 石槲51号 19.金海 龜旨路34号 20.龜旨路9号 21.禮安里31号 23.金海 良洞里 89号 24·25.福泉洞54号 26.釜山 華明洞 採集 27.昌原 道溪洞6号 28.慶州 舍羅里19号 29.福泉洞71号 30.金海 陵洞21号 31.禮安里 120号 37.福泉洞(東亞大)10号 38.大成洞70号 39·40.大成洞68号 41.馬山 大坪里22号 42.機張 清江里 1地區28号木槲 43.馬山 縣洞8号 44.金海 本山里15号 45.蔚山 北洞63号 46.北洞13号 47.福泉洞46号 48.大成洞35号 49.鶴巢臺1區1号

분묘유적 출토품은 주로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김해 양동리 고분군, 부산 복천동 고분군 등 김해-부산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서는 창원(마산)·기장·진영 등 남해안이나 울산·경주·포항 등 동해안에서도 확인된다. 주요 기종은 이 시기의 일본열도에서 유행하던 布留式 옹을 모방한 (把手附)内灣口緣甕, 小型精製器種에 포함되는 器臺와 廣口小壺, 고배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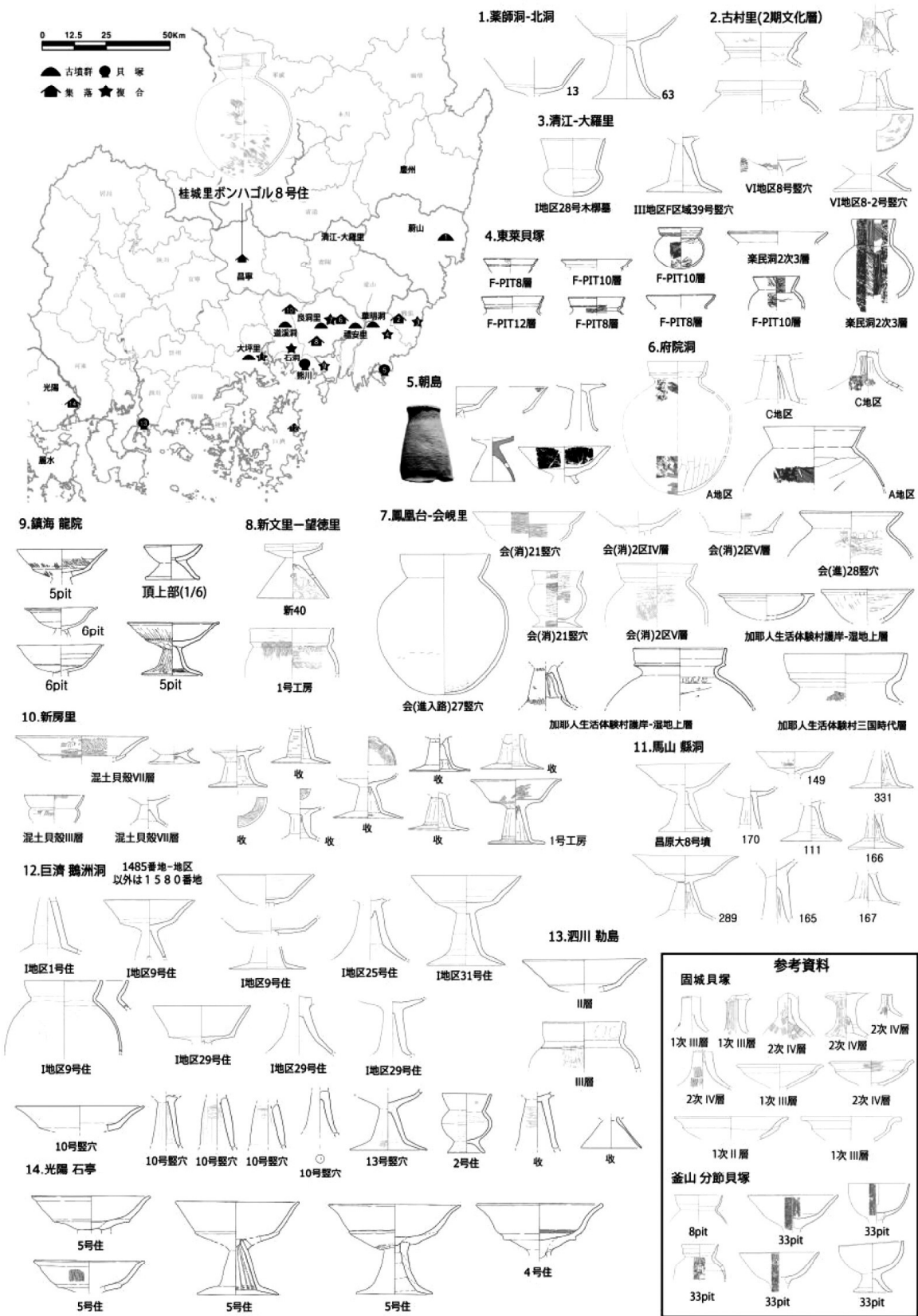
내만구연옹은 布留式甕과 유사하지만, 동체부에 격자문 타날기법을 채용하거나 회전물손질로 정면하는 등 布留式甕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형은 가장 이른 단계인 김해 대성동 13호 출토품부터 확인된다. 따라서 등장 초기부터 가야지역의 공인이 제작에 참여했거나 滯留倭人の 2~3세대(신경철 2013:98)가 嶺南의 기술로 제작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후술하는 것처럼 동 시기의 생활유적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하지키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가야의 공인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小形器臺는 東亞大 복천동 10호·57호·대성동 68호 등에서 출토된 수발부와 대각부의 길이가 1:1에 가까운 重藤의 器臺Ball式(重藤 2009), 대성동 70호·馬山 大坪里 II-22호 등에서 출토된 布留式의 'X'자형 小型器臺(久住 1999), 양동리 419호에서 출토된 鼓形器臺 등이 있다. 그런데 前者의 경우 도질제이거나 돌대가 있는 등 모방품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 두 종류는 木理調整이나 기형 등을 고려하면 반입품 내지는 재현품으로 생각된다. 특히 양동리 419호 출토품은 일본열도에서도 山陰에서 주로 제작되는 것으로, 다른 분묘 출토 하지키계 토기와 계통차이가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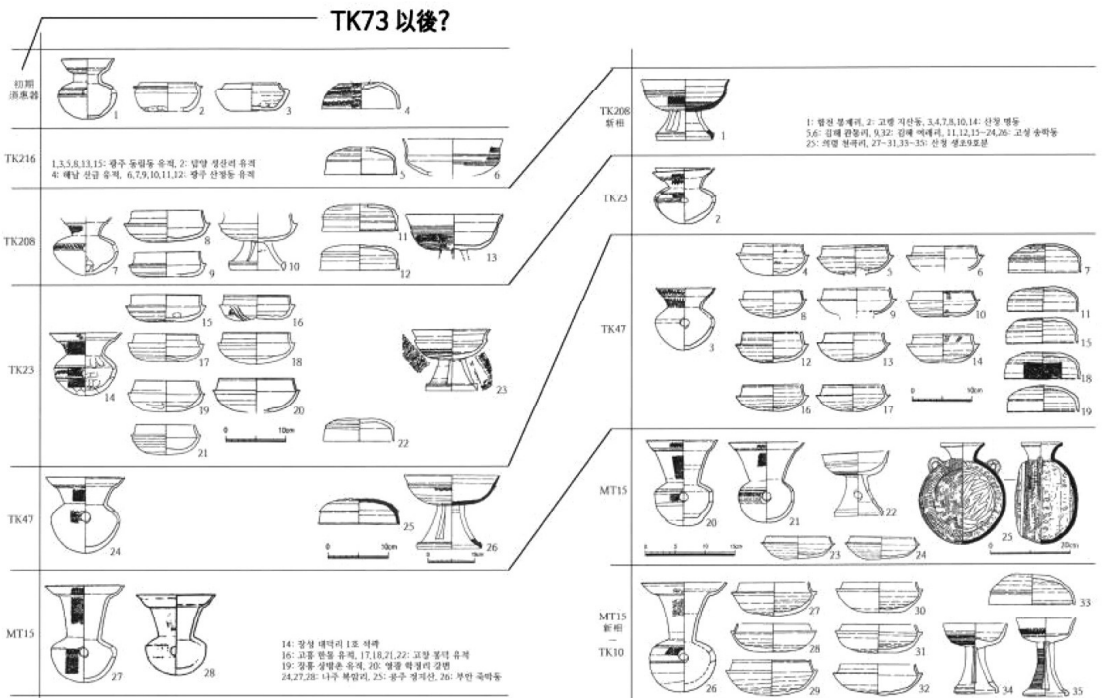
高杯는 가장 이른 단계에 속하는 복천동 57호 출토품이 내외면을 횡방향으로 마연한 점에서 布留式 新相(米田敏行 1991, 안재호 1993:178, 井上主税 2006)의 土師器 고배와 유사성이 지적된 바 있지만, 기형이 다르고 대각에 突帶가 부착되는 등 오히려 동 시기의 도질제 고배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4세기 말~5세기 초에 속한다고 생각되는 馬山 縣洞 8호분, 金海 本山里 II地區 15호 上部, 蔚山 北洞遺跡 13호 出土品은 臺脚 內面の 깎기나 杯身部의 목리조정, 엔타시스형 대각 등 土師器의 특징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어 반입품 내지는 土師器의 제작기술을 숙지했던 영남지역 工人의 재현품으로 생각된다.

생활유적 출토품은 3세기 4/4분기에서 4세기 1/4분기로 추정되는 동래패총 8·9·10·12층, jpit 교란층, 채집품 등을 시작으로 김해-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 동래패총의 하지키계 토기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布留式의 甕의 구연부편과 함께 정제기종 B군에 속하는 鉢, 山陰系 土師器가 중심이다. 최근 동래패총의 하지키계 토기가 石川縣의 漆町유적의 7群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다(米田 2016).

4세기 2/4분기부터는 김해 관동리유적, 부산 조도패총 등에서 庄内式系 精製器種 B群의 小型器臺 계통인 小型器臺와 高杯가 처음 등장한다. 예외적인 사례이지만, 고성 동외동패총에서는 앞서 언급한 山陰系의 鼓形器臺가 1점 출토되고 있다. 4세기 3/4분기에는 精製器種이 사라지고, 布留式 계통인 'X'形器臺와 그 모방품이 출토되며, 4世紀末~5世紀前半에는 甕의 출토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高杯가 증가한다. 하지키계 토기의 기종구성 중 고배가 증가하는 현상은 福岡 일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당시 일본열도의 토기문화가 그대로 영남에서 확인되는 점은 주목된다. 또한 분포 지역이 마산·창원·창녕·전라도 지역 등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며, 기장·울산 등 동해안을 따라서도 확인된다. 최근 보고된 거창 송정리유적에서도 하지키계 고배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므로, 향후 자료가 증가하면 4세기 후반부터는 가야 내륙 지역에서도 출토사례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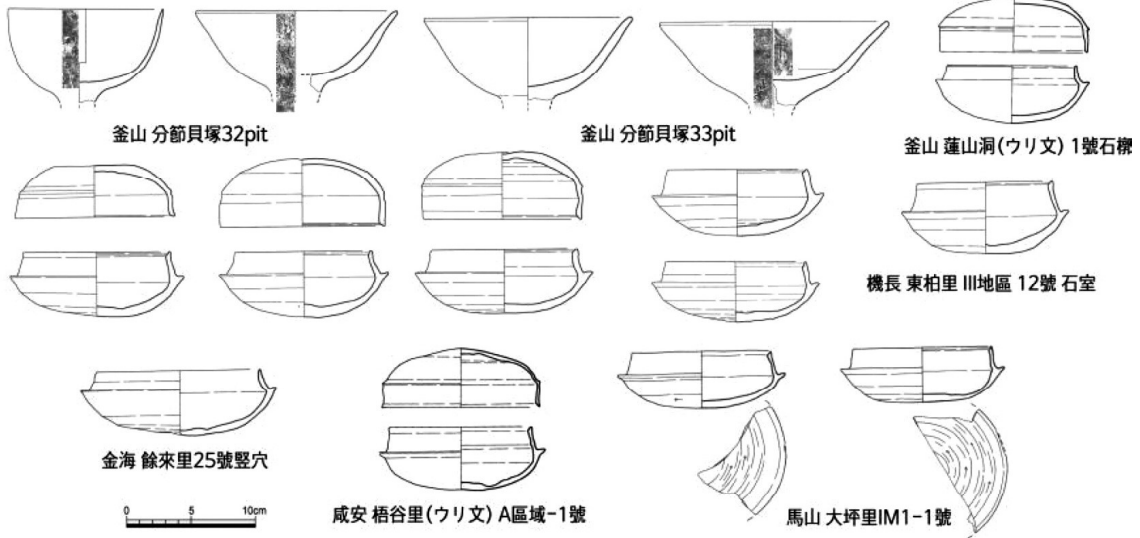


〈도면 2〉 가자지역 생활유적 출토 하지키계 토기(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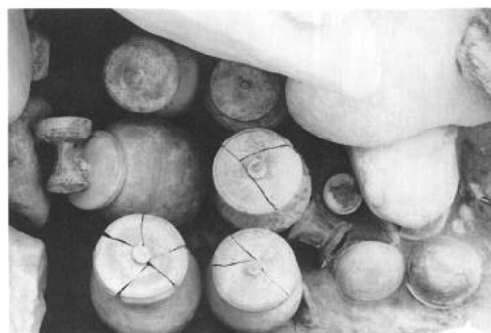


榮山江一帶出土須惠器系土器 編年(金一圭 2011의 圖6 轉載)

洛東江一帶出土須惠器系土器 編年(金一圭 2011의 圖7轉載)



機長東柏里III地區 12號石室



山清生阜 9號墳

〈도면 3〉 가야지역 출토 스에키계 토기

5세기 중반 이후에는 하지키계 토기는 거의 확인되지 않지만, 부산 분절패총에서 土師器의 제작기법을 채용한 대부분 완과 유공광구소호가 출토되었다. 대부분은 福岡 三苦遺跡群 2·3次 SC0001호 竪穴住居址의 출토품과 유사하고, 유공광구소호는 많이 변형된 것이지만, 역시 福岡 塚黨遺蹟 D地區 9호 住居址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 두 유적은 각각 TK23~TK47段階와 TK73~TK208段階에 병행한다(重藤 2009)고 한다. 이외에도 부산박물관 조사 연산동 23호와 95호 출토 연질 배 역시 이 시기의 하지키계로 추정된다.

2. 須惠器系土器

5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일본열도에서도 본격적으로 須惠器 생산이 진행되고, 그 중 일부는 가야지역에도 유입되고 있다. 한반도 출토 須惠器에 대해서는 木下亘(2003), 김일규(2011)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가야지역 이외에도 영산강 일대와 소량이지만 금강과 서울에서도 출토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부산 연산동 고분군, 기장 동백리 유적 등 지금까지 출토 사례가 적었던 부산일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어, 남해안 전역에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가야지역에서 확인된 기종은 개배가 가장 많고, 광구소호, 고배, 자라병 순이다. 스에키 편년에 따르면 시기는 주로 TK47~MT15 단계가 가장 많다²⁾. 이를 고려해보면 하지키계 토기가 소멸하고 약 반세기 이상의 공백이 존재하다가 스에키계 토기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토양상을 살펴보면 영산강 유역에서는 생활유적 출토품이 많지만, 가야지역에서는 주로 분묘에서 출토되고 있다. 하지키계 토기에 비교해보면 고성 송학동 유적, 산청 생초유적 등 소가야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고, 그 외에 지역에서도 함안 오희리 유적이거나 의령 천곡리 유적도 소가야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이 중 일부는 모방품일 가능성도 있지만, 대체로 반입품 내지는 재현품으로 생각된다. 주목되는 것은 사용방식인데, 山淸 生草遺跡 出土品과 機張 東柏里 出土品 등에서 蓋環 세트가 아닌 蓋와 蓋 또는 坏와 坏 등의 세트관계가 확인된다. 이는 使用者 즉 被葬者가 須惠器의 사용법을 잘 몰랐거나, 반입 시 망실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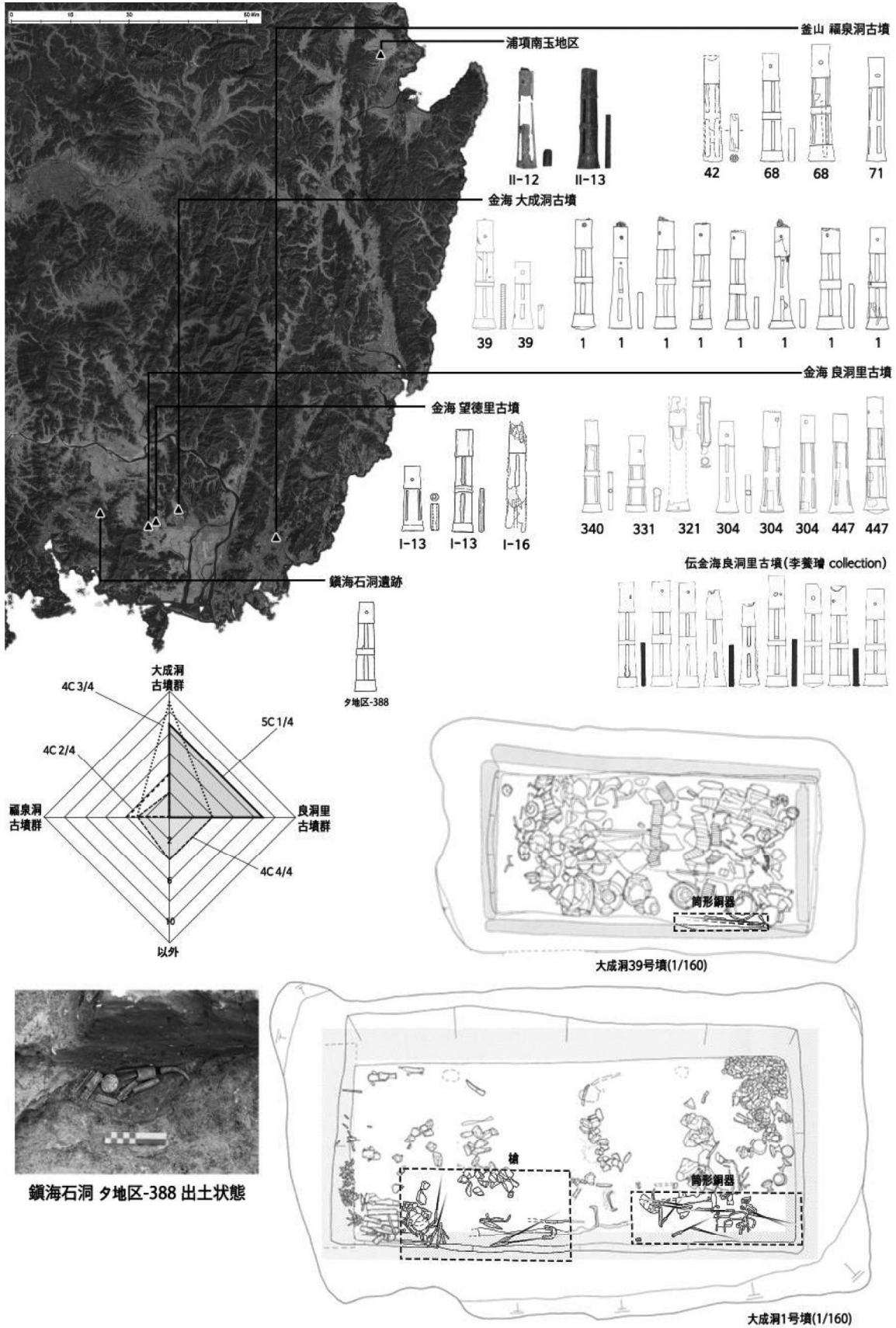
3. 청동기류

1) 筒形銅器

筒形銅器는 원류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가야와 일본열도와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임은 분명하다. 가야의 통형동기는 김해 대성동·양동리·부산 복천동 등과 같은 수장급 고분군은 물론 김해 망덕리 유적·진해 석동 유적 등과 같이 중소고분군에서도 출토된다. 과거 함안 사도리 출토품과 함께 최근 포항 남성리 유적에서도 출토되는 등 그 수량은 적지만, 향후 금관가야와 관계 깊은 주변지역에서 자료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³⁾.

2) 한반도 전체를 염두에 두면, 해남 신금 18호 주거지, 광주 산정동 1호 구, 담양 성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須惠器系土器가 TG232~TK73단계에 해당한다는 지적(김일규 2011)이 있기 때문에 서남해안 일대에는 이른 시기부터 流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김일규가 지적한 TG232 단계의 배는 저부의 깎기 흔적 등을 보아 TK73 단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中久保도 유사한 생각을 제시한 바 있다(2017:108). 나아가 스에키계로 다루어진 이 단계의 유공광구소호도, 형식학적으로 가장 이른 단계에 속한다면 須惠器가 아니라 한반도 제작 토기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까지 가장 이른 단계의 한반도 출토 須惠器는 TK73단계부터 출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라도 지역에 먼저 유입되는 것은 변함없다.

3) 중심 집단 이외의 중소집단에도 출토되는 사례로 보아 가야지역의 통형동기는 금관가야와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통형동기의 원류가 금관가야에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면 4〉 동형동기의 출토상황

현재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4세기 2/4분기의 대성동 91·18·15호에서 총 4점, 복천동 38호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3/4분기가 되면 대성동 11점, 복천동 3점, 양동리에서도 7점 등 총 21점이 확인된다. 4/4분기에는 수량은 줄어들지만 망덕리에서도 2점이 확인되는 등 분포범위는 넓어진다. 마지막 부장은 5세기 1/4분기인데, 대성동과 良洞里에서만 출토된다.

嶺南에서의 부장방식에 대해서는 최근 細川晋太郎氏에 의해서 檜의 石突로 사용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檜와의 공반이나 위치관계를 볼 때 儀仗으로도 사용했을 가능성(田中晋作2009:136)도 배제할 수 없다. 제작기법에 대해서도 細川氏에 의해서 상세한 검토가 진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良洞里 447호 출토품은 자체적인 모방 제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디의 것을 모방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불명이다.

2) 巴形銅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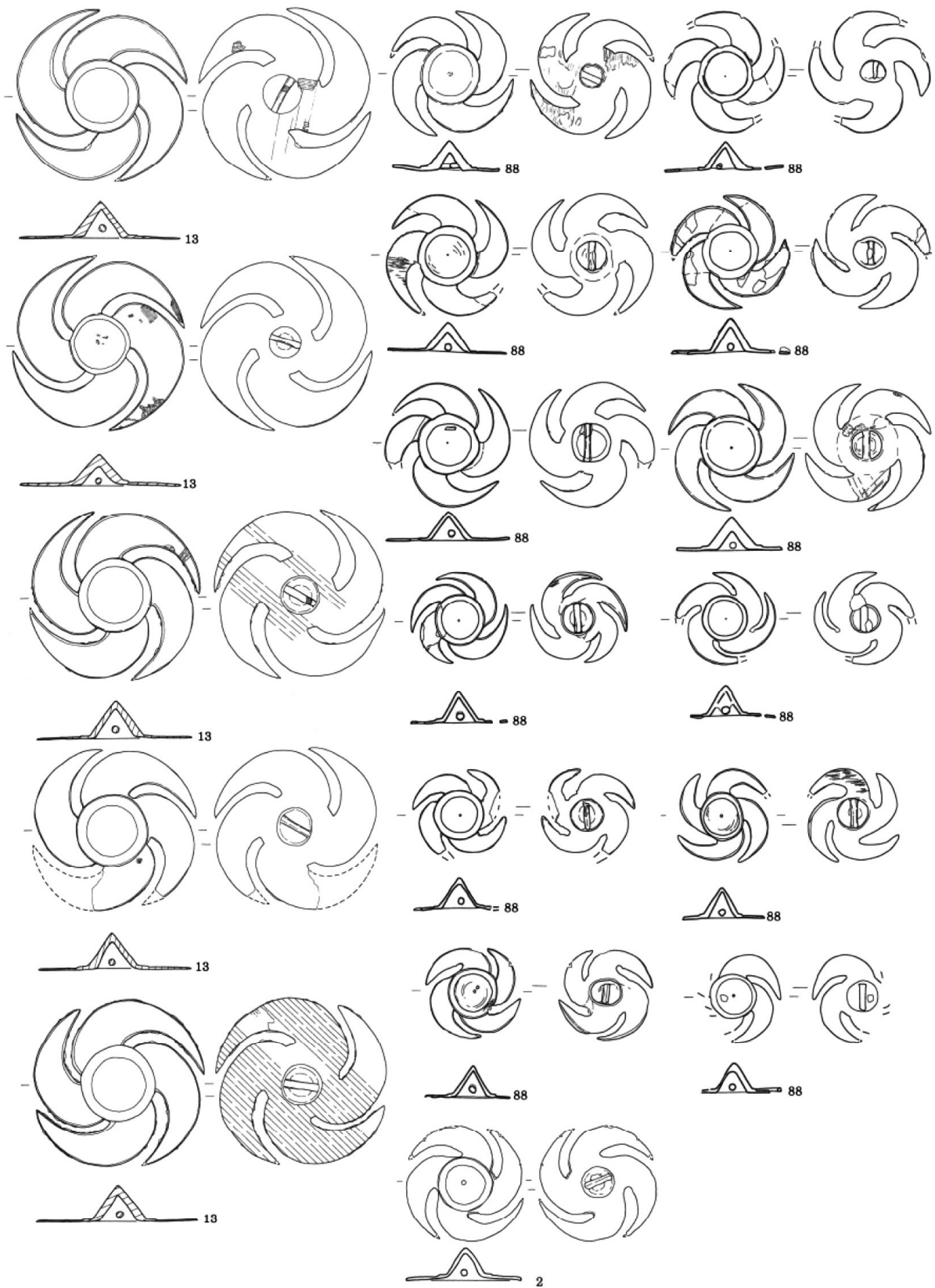
巴形銅器는 대성동 13·88·2·23(未報告)호 등 4세기 2/4 ~ 3/4분기 속하는 4기의 고분에서만 22점 출토되었고, 복천동과 良洞里 그 이외의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없어 筒形銅器의 분포양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로, 소형은 다시 脚의 回轉方向에 따라서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岩本崇 2013:78, 심재용 2016:72). 대형은 脚이 모두 시계방향이고, 18호분에서만 5점, 중형은 脚이 반시계방향이고 88호에서 6점, 2호에서 1점, 소형은 반시계방향이 4점, 시계방향이 2점으로 88호에서만 출토되었다. 출토양상을 볼 때 방패나 화살통 표면장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井上主税 2003:150).

巴形銅器는 계보는 가야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전체 출토 수량이나 분포범위도 일본에 미치지 못한다. 다만 일본열도에서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된 傳 千足古墳의 12점과 비교하면 대성동 88호에서 13점이 출토되어, 지금까지 유구 당 출토량은 가야가 높다. 또한 일본 고분시대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東大寺山古墳의 7점과 富雄丸山古墳의 1점(岩本崇 2013)에 비해 대성동 13호의 것이 월등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금관가야에 선물하기 위해 특수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銅鏃과 銅銚, 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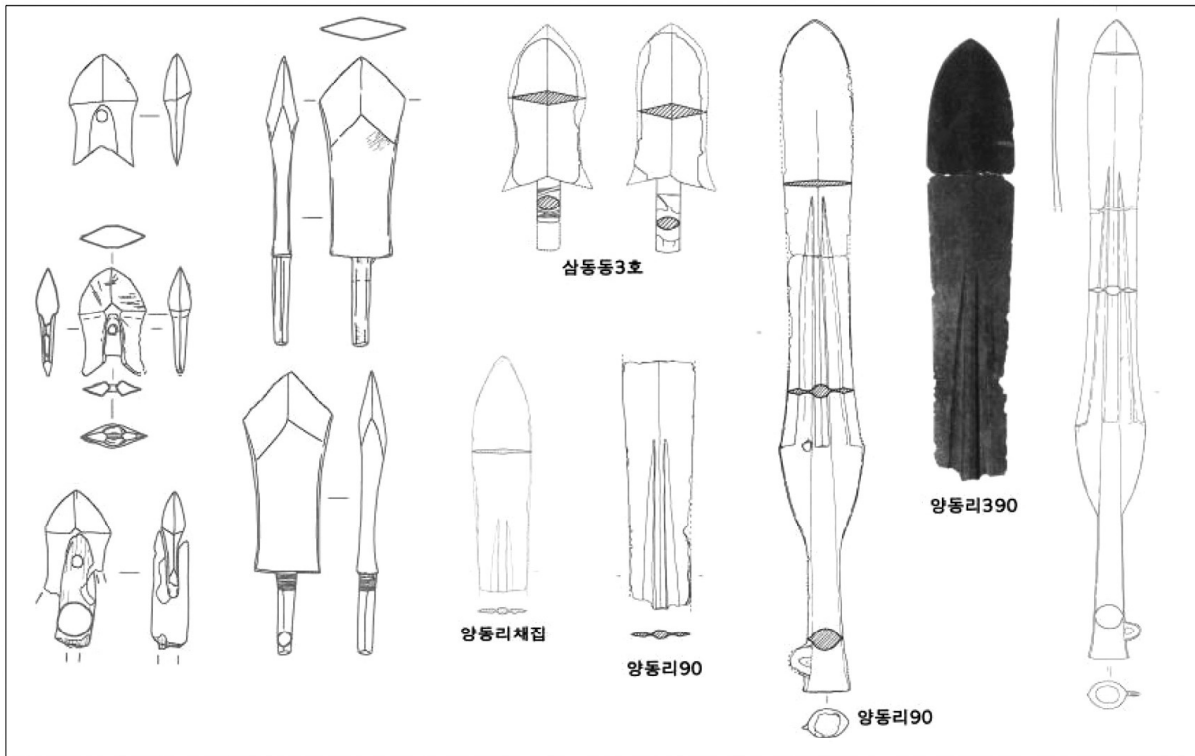
동축은 이 시기 금관가야에서는 거의 출토되지 않는 유물로 현재까지 보고된 것은 김해 대성동 88호에서 5점, 창원 삼동동 3호에서 2점이 보고되어 있다. 高田健一氏(2013)의 분류안을 기준으로 하면 無莖式, 短鋒正角式과 腸挾式A로 나뉜다. 無莖式은 3점으로 모두 대성동 88호에서 출토되었는데, 결입부가 삼각형인 것 2점, 梯形인 것 1점으로 세분된다. 이 중 제형인 것은 축신의 십자 능선과 형태에서 福岡 五島山고분에서 출토된 5점의 무경식철축과 흡사하다(赤阪享 2014, 심재용 2016). 有莖式 중 短鋒正角式은 대성동 88호에서 2점이 출토되었고, 腸挾式A는 창원 삼동동 3호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전자는 岡山の 聖陵山고분 출토품과 흡사하며, 후자는 会津椿井大塚고분 출토품과 유사하다⁴⁾. 최근 조사된 대성동 108호에서 다량 출토된 동축은 유엽식 중 대형품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으며, 진주 사곡리 111호 목곽묘 출토품은 유엽형의 소형품에 속한다.

4) 삼동동에서는 방제연호문경이 1점 출토되고 있다. 이와 유사한 것이 大阪 壺井御旅고분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마산 현동출토 쌍기경도 왜계일 가능성이 높고, 고흥 야막고분 출토품이나 죽막동 출토품과의 관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선생님 교시.



〈도면 5〉 김해 대성동 고분군 출토 파형동기

銅鉞는 대성동 88호에서 1점, 양동리 90호에서 2점, 200호 1점, 390호 2점, 채집품 2점 등 총 8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대성동 88호와 양동리 90호, 200호는 모두 中鑿形銅矛에 속하며, 390호는 鑿形銅矛에 속한다. 대성동 88호와 양동리 90호에서 출토된 것은 封土陷沒土 내지는 内部埋沒土에서 확인된 것으로 주목된다. 이들 銅矛는 일본열도에서 弥生中~後期에 유행하던 것으로 금관가야에서의 부장시기와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우연히 부장되었다고 보는 설(柳本照男 2012)과 위세품으로서의 기능상실과 함께 부장되었다고 보는 설(沈載龍 2016)이 제시되어 있다.



〈도면 7〉 금관가야 출토 왜계 동촉 및 동모

銅鏡은 三韓時代 前期에 集中的으로 出土되었으나 後期인 3世紀代에는 出土量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이후 4世紀에 들어서면서 대성동 3점, 良洞里 1점, 三東洞 1점, 馬山 縣銅 1점 총 6점이 확인된다. 종류는 博局四神鏡, 博局鏡, 獸帶鏡, 連弧文鏡으로 漢鏡 내지는 魏晉鏡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기존까지 傳世鏡이 많은 倭와의 關聯性에 주목(申敬澈 1993, 李在賢 2000)했지만, 李陽洙는 三東洞 18호 출토의 連弧文鏡을 제외하면 모두 漢郡縣을 통해서 전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이양수 2010: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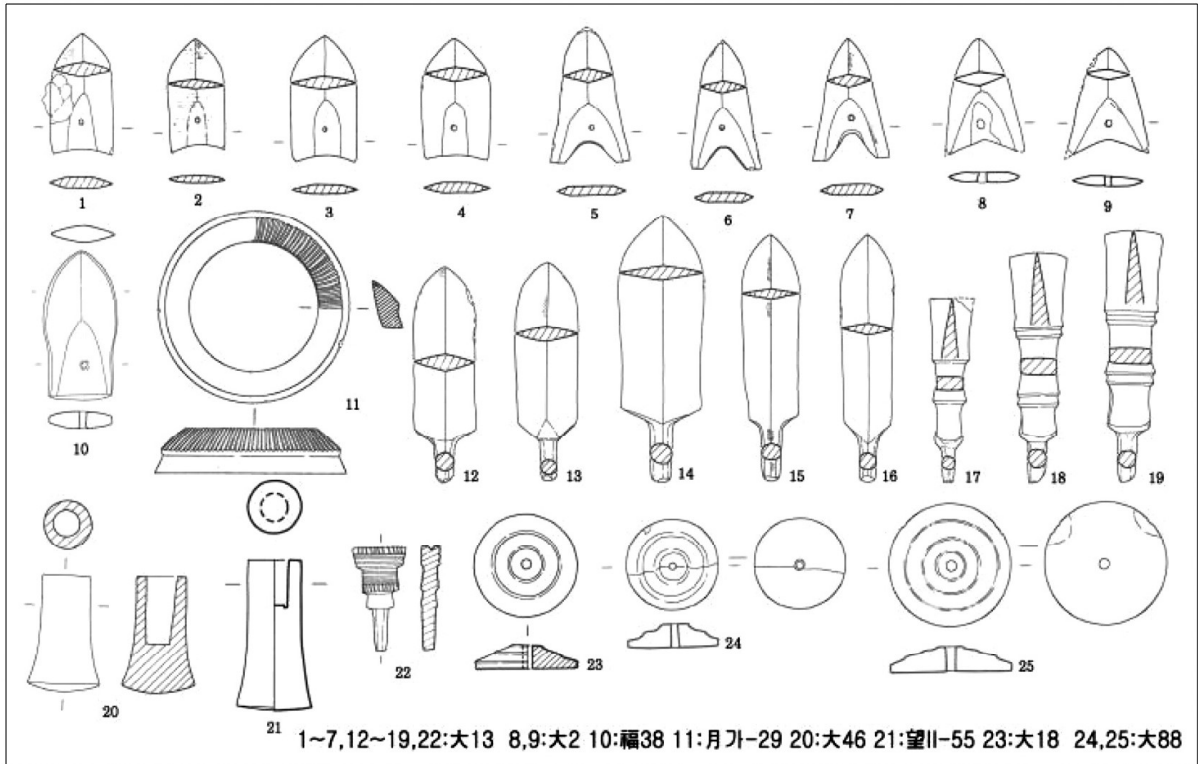
4. 石製品

전기가야에서 알려진 왜계 석제품은 녹색응회암으로 만든 축형·방추차형·통형 등의 석제품과 장신구로 활용된 비취 곡옥과 벽옥제 관옥이 대표적이다.

먼저 석제품 축형이 17점, 방추차형 3점, 통형 2점 등이 출토되었다. 이 중에서 김해 양동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방

5) 가야를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월성로 출토 석천은 제외하였다.

추차형 1점과 망덕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통형 1점, 복천동 38호 출토 마노제 축형 1점을 제외하면 모두 대성동 고분군에서 확인된다. 축형은 河村好光氏의 분류(2010:223)에 의하면 無莖式에는 오각형 4점, 삼각형 5점이 있다⁶⁾. 有莖式은 유엽식 5점과 착두형 3점이 모두 대성동 13호에서 出土되었다. 유엽식은 형태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착두형은 형태는 유사하나 규격이 다양한 편이다. 이외에 최근 조사된 대성동 108호에서는 몸통의 단면이 원형인 착두형도 다량 출토되었다.



〈도면 8〉 금관가야 출토 왜계 석제품

원통형은 대성동 46호와 망덕리 II-55호에서 각각 1점씩 출토되어 수량이 적다. 奈良県 桜井茶臼山古墳의 사례를 고려하면 玉杖의 일부로 추정된다. 대성동 13호에서는 앞선 착두형과 함께 유사한 형태의 석제품이 출토되었다. 이에 대해서 날을 세우지 않는 착두형으로 보는 견해(심재용 2016:73)도 있지만, 선을 이용해서 문양을 새기고 있고 선단에 요면이 있으며 녹이 붙어 있다는 보고를 고려하면 축이 아닌 杖의 일부였을 가능성도 있다⁷⁾. 방추차형은 대성동 18호 1점, 대성동 88호 2점, 양동리 303호에서 1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면 대형은 4단, 소형은 3단을 띠고 있지만 출토 수량이 적어서 분류에 어려움이 있다. 최근 조사된 대성동 108호에서는 신부가 원통인 착두형이 다량 출토되었는데,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奈良 富雄丸山古墳, 園部垣内古墳 등에서 유사 예가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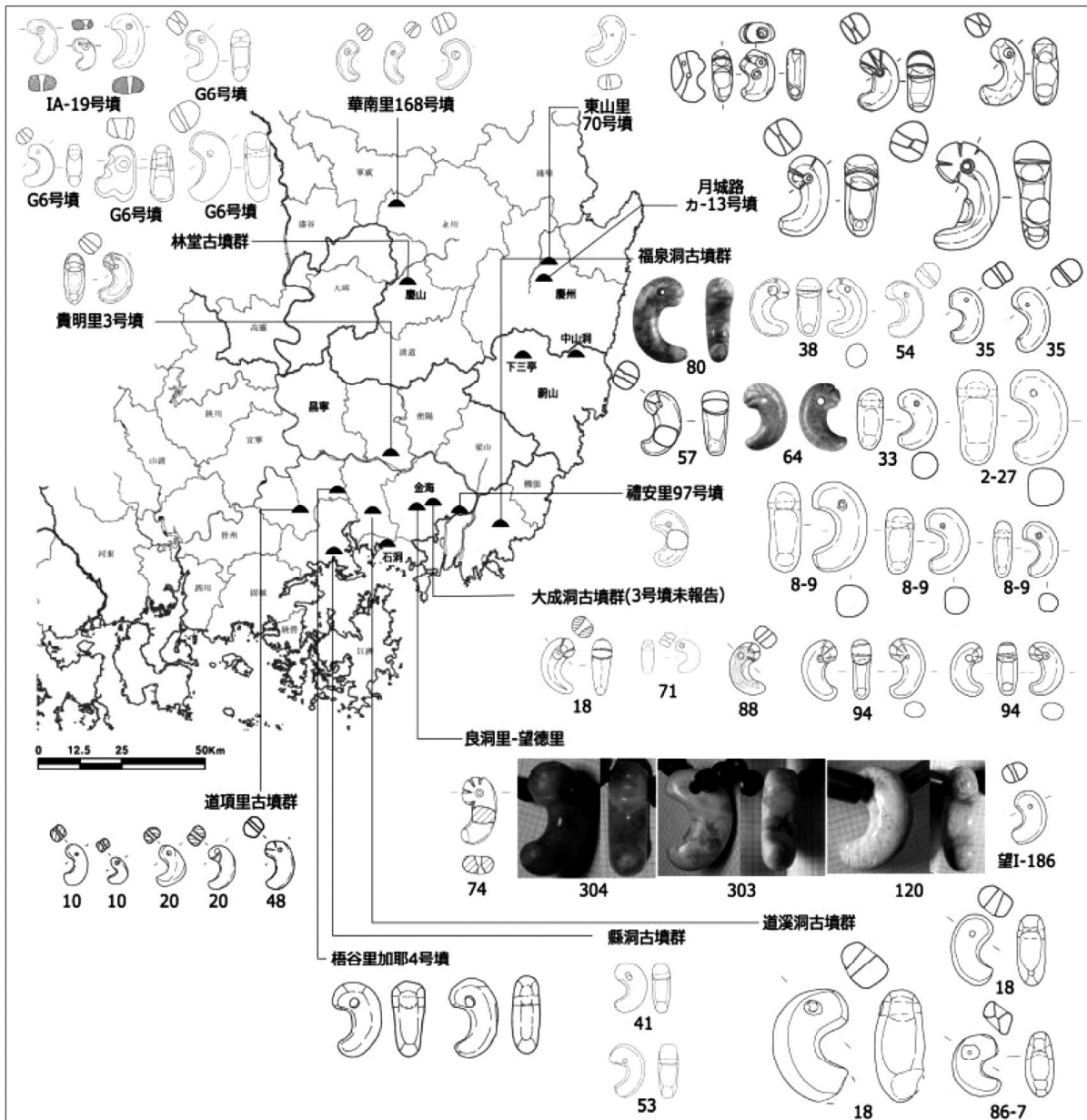
비취 곡옥은 산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의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일본의 糸魚川産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4세기 1/4~2/4분기에 속하는 복천동 80·38호, 대성동 18호 출토품이다. 이후 복천동 57호, 대성동 88호, 양동리 304호 출토품 등으로 이어진다. 복천동 80호를 제외하면

6) 심재용은 이 중 삼각형을 삼각역자형이라고 명명하고, 전장/결입부폭의 값 1.5를 기준으로 세분(沈載龍 2016:73)하였다.

7) 다만 일본에도 유례가 없기 때문에 향후 출토 사례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모두 고분 당 1점씩 출토되지만, 4세기 4/4분기의 대성동 3호나 慶山 林堂 IA-19호에서는 각각 2점과 3점으로 복수부장이 확인된다. 복수부장은 복천동 35-36호, 林堂 G-6호 등으로 이어지며, 慶州 月城路 가-13호에서는 26점이 副葬된다.

분포범위는 4세기에 대성동과 복천동을 중심으로 양동리의 미보고 자료를 고려하면 금관가야의 핵심지역에서 주로 출토되지만, 4세기 후반부터 확산이 시작해서 5세기대에는 영남 전역에서 출토된다. 勾玉을 副葬한 고분은 林堂과 禮安里의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古墳群 內 最上位階層이고, 복천동 38호나 대성동 88호와 같이 主被葬者는 翡翠, 殉葬者는 水晶곡옥을 着用하는 점 등에서 볼 때 翡翠곡옥의 착용은 階層性을 反映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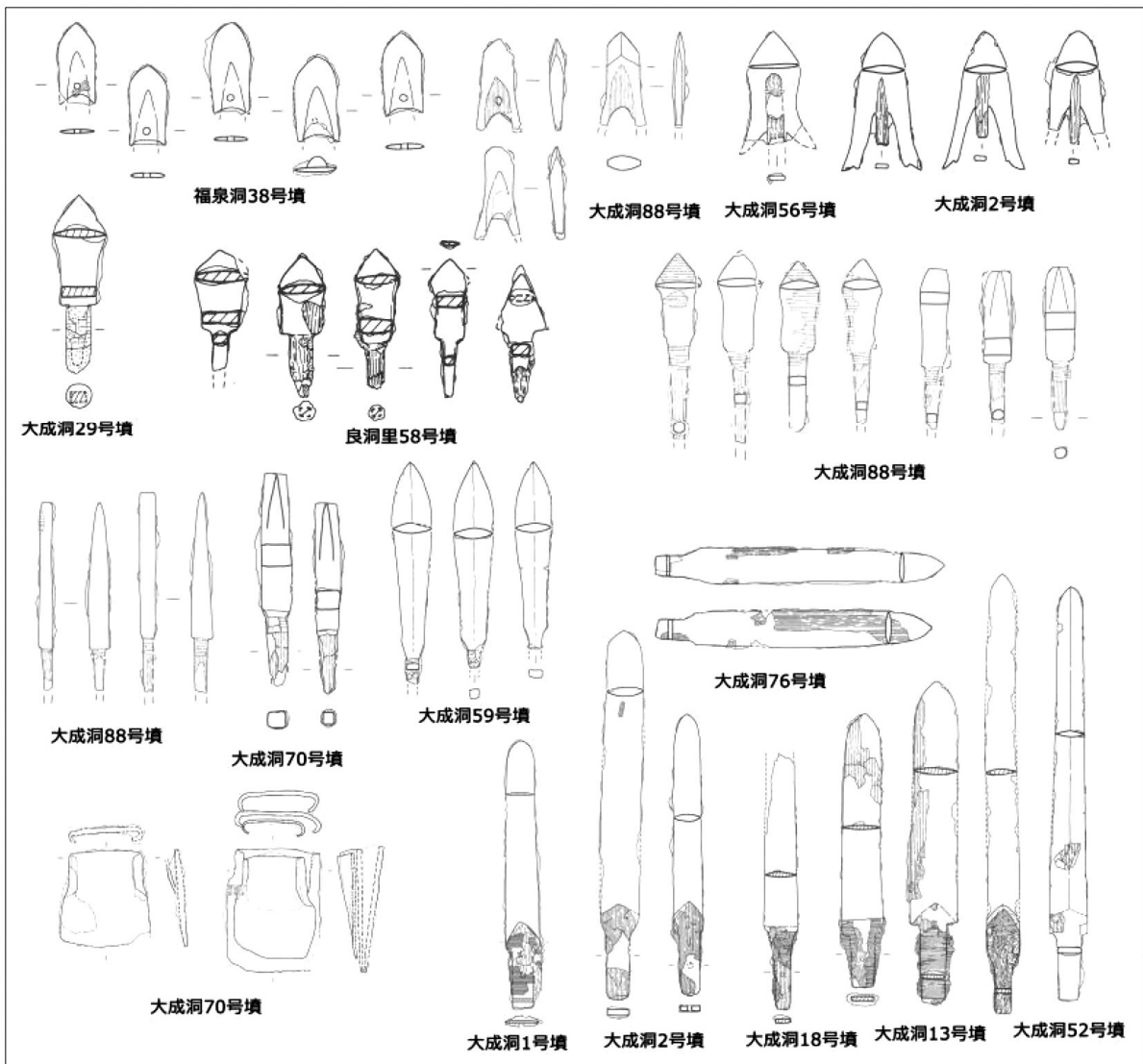


〈도면 9〉 4세기~5세기 전반 금관가야 및 주변지역 출토 비취곡옥

5. 철기류

3세기대 嶺南의 鐵鏃은 無莖式이 주류였지만, 4세기에 들어서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嶺南에서 출토된 倭系鐵鏃에 대해서는 水野敏典氏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다(2006; 2009). 이를 토대로 분류하면 無莖式에는 모두 역자를 가진 것으로 대성동 88호에서 3점, 대성동 56호에서 1점, 대성동 2호에서 3점이 출토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성동 88호의 것은 능이 뚜렷하게 진 유능계에 속하는데, 동 고분에서 출토된 銅鏃을 모방한 느낌이 있다. 56호와 2호에서 출토된 것은 모두 腸挾式이지만, 역자부의 꺾임과 길이에서 차이가 있다. 無莖式에는 대성동 29호와 양동리 58호에서 출토된 定角式, 대성동 59호에서 출토된 柳葉式, 대성동 88호와 70호에서 출토된 鑿頭式 등이 있다.

定角式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편으로 統一感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두 고분 출토품 모두 有稜系와 平根系(鈴木有一 2012:109)가 混在하고 있으며, 특히 良洞里 58호의 것은 더욱 심하다(細川晋太郎 2012:204). 柳葉式은 현재까지 알려진 형태에 비해서 매우 세장한 형태로 莖部로 갈수록 身部가 좁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鑿頭形은 대형과 소형 2가지로 구분되며, 有稜系는 보이지 않는다.



〈도면 10〉 금관가야 출토 왜계 철기류



3~4세기 嶺南의 대표적인 刺突形 무기는 鐵劍과 鐵矛이다. 槍은 4세기에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하며, 일본과 製作技法의 유사성이나 출토수량 등을 근거로 倭系遺物로 보는 細川晋太郎씨의 연구가 있다. 이에 반해 鐵劍形 鐵槍으로 명명하고 筒形銅器와의 공반관계를 통해 韓半島製라는 견해도 제시되어 있다(김영민 2010:139). 하지만 현재까지의 출토양상을 고려하면, 역시 倭系遺物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현재까지 대성동에서 39점, 복천동 38호에서 2점 등 총 41점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대성동 2호분과 1호분에서 각각 14점과 13점을 다량 부장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명확하지 않지만, 農器具에 있어서도 倭系로 추정되는 것이 확인되는데, 대성동 70호에서 출토된 鐵鏟이다. 이 鐵鏟은 細長한 鐵板의 끝부분을 조금 안쪽으로 접어서 裝着部를 제작한 것으로, 報告者는 鐵斧라고 했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鐵斧와는 제작방법이 전혀 다르다. 접는 형태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大阪 紫金山古墳, 島根縣 社日1, 岡山 金藏山古墳, 福岡 舞松原古墳 등에서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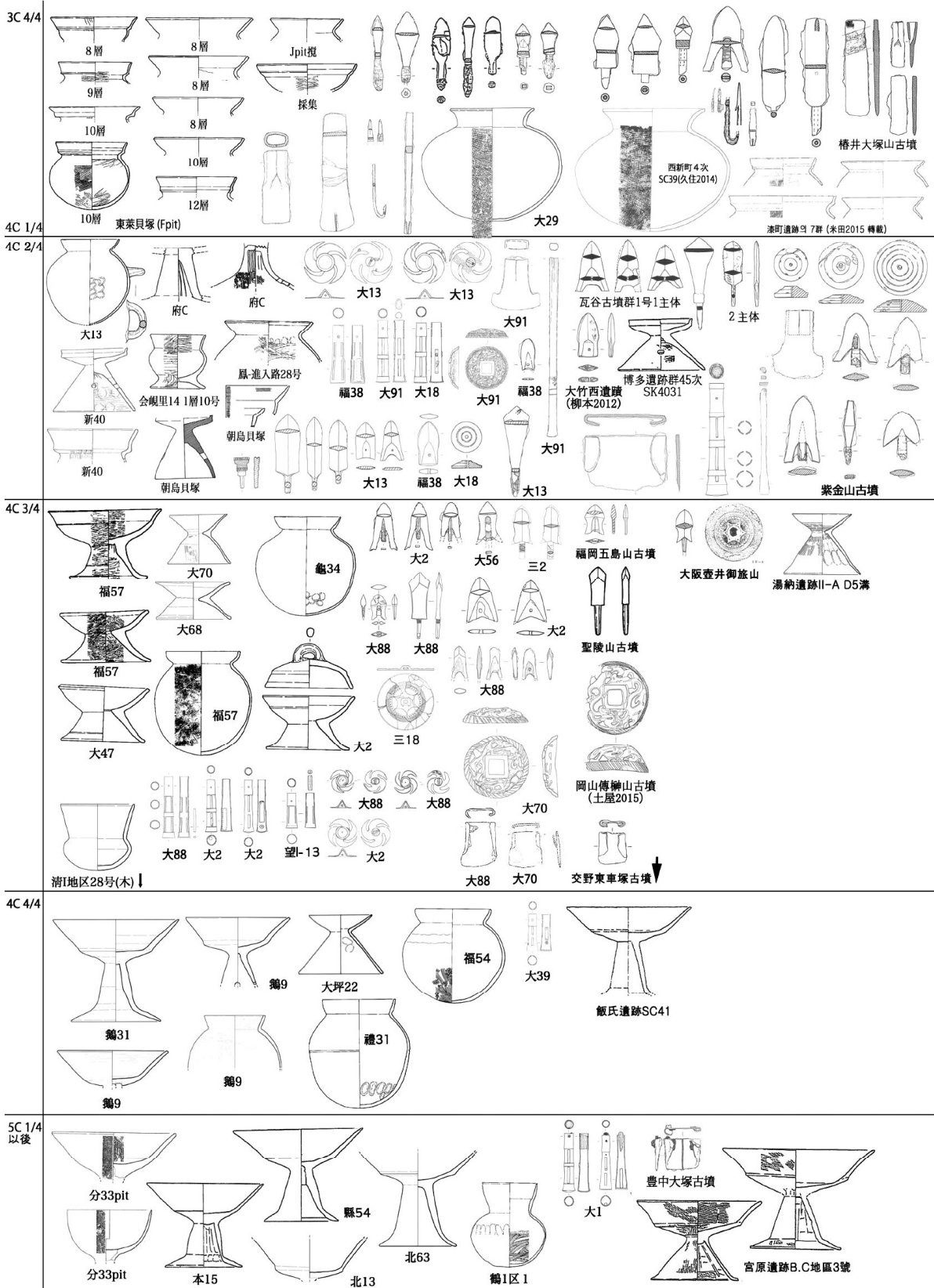
III. 가야 출토 왜계유물로 본 倭와의 교류양상

이상 가야지역 출토 왜계유물을 통해서 가야와 왜의 교류 양상과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두고자 한다. 본격적인 언급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교차편년 먼저 언급해 두겠다. 가야와 왜의 교차편년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적게는 50년, 많게는 100년 가까이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룰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큰 틀에서 기존 연구성과 중에서도 신경철(2000)을 필두로 하는 금관가야 연구에서 사용하는 연대관을 차용하고 싶다. 다만 상대연대에 대해서는 형식학적 판단에 의한 미묘한 차이가 있을 뿐, 절대연대만큼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까지 언급된 양 지역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전기가야의 교차편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것이 아래의 도면이다. 즉 대성동 29호의 鐵鏟과 대성동 13호의 鐵鏟 및 凝灰巖製 石製品은 각각 桜井大塚山古墳, 瓦谷1호와 유사하고, 복천동 38호 출토 瑪瑙製 鏟製品과 大阪府 八尾市 大竹西遺跡에서 유사한 瑪瑙製 鏟製品이 布留2式 新段階와 3段階를 포함하는 土器와 共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申敬澈 2000, 柳本照男 2012, 井上主税 2014, 심재용 2016).

또한 대성동 88호에서 출토된 短鋒定角式은 岡山 聖陵山古墳 출토품과 유사하고, 廣島石鎚山 1호의 鐵鏟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 한편 無莖式 銅鏟은 十字鎬나 形態狀 福岡 五島山古墳 出土品과 類似(赤坂亨2014, 심재용2016) 하고, 廣島 大迫山古墳이나 福岡 和田B4호 出土品 보다는 빠른 것 같다. 이들은 모두 4세기 전반에서 4세기 중반, 즉 금관가야Ⅲ~Ⅳ에 집중되어 있고 그 이후 단계의 병행관계를 보여줄 만한 자료는 극히 드물다. 물론 하지키계 토기가 존재하고는 있는지만, 이것만으로는 교류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병행관계 설정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장방판판갑과 철촉 중 일부가 왜와 관련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자료의 증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듯하다.

가야에서 확인된 倭系遺物은 현재까지 庄内式土器와 그에 共伴되는 유물은 현재 확인되지 않으며, 대체로 3세기 후반 이후에 해당한다. 그러나 久住猛雄氏의 지적(2014: 138)과 같이 3세기에 北部九州의 재래계 토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며, 교역의 가능성은 대성동과 양동리에 부장된 (중)광형동모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3세기에 도 지속적인 일본열도와의 교류가 있었다면, 교류 대상지역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회현리패총에서 출토된 近江系土器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3세기 이전에는 일본열도 각지와와의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도면 8〉 전기가야 시기의 가야 출토 왜계유물과 대비자료

그러나 北部九州 在來系 土器는 물론 (中)廣形銅矛와 같이 九州지역에 집중되는 유물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면, 3세기 이후에는 교류대상이 九州로 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양상은 ‘桓靈之末’의 국제적 혼란과 ‘倭國大亂’ 등의 일본열도 내부의 혼란으로 九州 이외의 집단이 교역에 참가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이는 庄内式 시기 내 九州地域의 철기량이 近畿지역을 압도(寺沢薫 2000:294)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정치적으로 九州지역이 교역을 독점 장악했다기보다는, 내부적 혼란으로 인해 다른 지역이 교역에 불참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들어서면, 대성동 29호에서는 定角式鐵鏃이, 동래패총에서는 布留式土器와 山陰系 二重口緣壺가 출토되고 있다(柳本照男 2012:132). 게다가 바로 直後인 북천동 80호에서는 처음으로 翡翠勾玉이 출토되고 있어, 九州 이외에 일본열도의 다른 지역에서도 가야와의 교류가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세기 2/4분기에는 筒形銅器와 巴形銅器는 물론 凝灰巖製 石製品과 土着化된 土師器系土器도 출토되기 시작한다. 筒形銅器의 기원을 어디에 두는가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유물은 당시 近畿와 瀬戸内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파형동기와 응회암제 석제품 역시 畿內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倭國의 중심인 畿內정권이 가야-그 중에서도 금관가야와의 교류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세기 3/4 ~ 4/4분기에는 왜계유물이 급증한다. 특히 대성동 88호와 2호에서는 巴形銅器, 筒形銅器, 銅鏃, 石製品이 공반되고(심재용 2016:81), 88호에서는 거기에 더해 倭系鐵鏃, 櫛, 中廣形銅矛, 翡翠 등 土師器系土器를 제외한 당시 가야로 들어왔던 거의 모든 종류의 왜계유물이 부장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해서 신경철은 이 단계부터 金官加耶와 近畿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申敬澈 2013:100). 다만 이것이 近畿 중심적인 교류로의 전환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기존까지 출토된 왜계유물을 지역별로 재분류해 보면, 近畿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파형동기·응회암제석제품, 近畿 중심으로 특정할 수 없는 土師器·貝製·骨製品·銅製品·鐵製品, 왜계인지 의문이 있는 통형동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土師器系土器에는 계속해서 山陰系와 九州系, 西部瀬戸内系(井上主税 2008)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고, 석제품 중 翡翠 역시 近畿의 통제 하에 유입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산지인 北陸에서 山陰, 福岡 등을 거쳐 영남지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骨製品도 당시 畿內정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던 이모가이 등이 유입된 점을 고려하면, 산지에서의 직접적인 교류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국 近畿지역의 왜 왕권이 교역에 참여한다고 해도 倭의 전 지역을 컨트롤했다고 하기 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각지의 집단이 영남지역과 교섭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반대로 왜와의 교섭 창구인 영남지역의 제 집단은 당시 최고 세력이었던 대성동 고분군의 관할 하에 있었는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는 여러 계통의 왜계유물이 대성동집단에 주로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단일 창구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하지키계 토기와 비취제곡옥 등과 같이 비교적 넓은 분포를 가진 왜계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 지역을 대표하는 대성동집단 이외에도, 각 집단 간의 독자적인 교류의 존재 가능성도 고려해 두고 싶다. 또한 교류에는 단순히 왜의 위세품만이 아니라 다양한 물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홍보식의 지적(2010:91)처럼 정치적 교섭(대성동고분군과 畿內집단)과 인적·물적교류(영남 각 집단과 왜국 각 집단)라는 이원적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에 들어서면 가야와 왜의 교류를 보여주는 통형동기, 土師器系土器와 翡翠製 勾玉 만이 존재할 뿐이고, 금관가야에 집중되어 있던 왜계유물이 주변지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당시 한반도 남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4세기 후반 高句麗는 故國壤王이 시작한 정복사업을 이어, 廣開土大

왕이 즉위와 함께 적극적인 남진정책을 실시한다. 특히 신라의 요청으로 진행된 庚子年(400)의 군사행동은 금관가야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하지만 당시의 고구려군이 금관가야에서 주둔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고, 5세기 1/4분기까지 당시 가야의 최고 집단인 대성동 고분군에 대형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즉, 고구려군의 남정이 금관가야와 그 연맹의 붕괴를 초래한 이유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인 이유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고자료를 재검토 해보면 당시 금관가야 연맹 내부의 변화와 대외적인 변화를 통해 그 일단을 엿볼 수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금관가야 연맹에서 한 축을 담당하던 복천동 고분군의 이탈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복천동 고분군의 이탈은 신라유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복천동 21-22호 단계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4세기 당시 금관가야 연맹의 상징물 중 하나인 筒形銅器 보유량 변화를 살펴보면, 이탈은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그 동안 지속된 동북아 각지와의 교섭에서 창출된 다양한 이익을 대성동집단이 독점하고, 주변으로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중국 북방계 유물과 왜계 위세품이 복천동 고분군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점에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구려가 금관가야의 대북방 교섭루트인 서해안 일부를 장악하면서, 대외적으로 중계무역의 중심지라는 기존의 역할이 서서히 상실되어 갔다고 생각된다.

금관가야 특히 대성동 고분군 집단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신라의 견제 등을 위해서 倭를 비롯한 주변 세력의 규합을 기획했을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관가야의 선진기술이 각 지역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한반도 남부는 후기가야로, 일본열도는 古墳時代 中期로의 이행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금관가야의 이러한 의도는 고구려군의 남정으로 실패하고 급속히 쇠퇴하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그러나 금관가야 쇠퇴가 가야와 왜의 교섭을 종료 시켰던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관련된 왜계유물은 대성동 고분군을 위시한 금관가야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지역의 중소형 집단에서 주로 확인된다. 아마도 대성동 고분군의 쇠퇴에 따라, 왜가 가야의 주변집단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의도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 목적은 철을 확보하고, 새로운 중심 교섭대상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보인다. 전자의 경우 왜에서도 출토되는 鐵柄刀子·鐵柄살포⁸⁾나, 土師器系土器 확산에서 엿볼 수 있다. 5세기 전반의 이 유물들은 진영과 밀양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는데, 진영은 고분에 단야구 부장이 많고 제련유구도 확인되는 등 금관가야의 철(기)생산 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밀양 또한 시기는 늦지만 철 생산 유적이 다수 조사된 것에 비추어보면, 역시 철과 관련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土師器系土器의 확산에서는 마산 현동유적이 돋보이는데, 이 유적에서도 철 생산과 관련된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 하지만, 倭는 철 이외에도 금관가야를 통해 확보했던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중심교섭집단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점점 서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土師器系土器의 분포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문제는 이 시기 일본열도에서 교섭을 주도하던 세력이 여전히 近畿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4세기대 대성동 고분군에서 출토되던 왜계 위세품이 5세기 전반까지 가야지역에서 더 이상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하기 쉽지 않다. 다만 이 시기에 왜계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하지키계 토기를 고려하면 일시적으로 近畿지역은 교역에서 물러났을 가능성이 높고, 九州지역이 전면으로 나섰지 않을까 생각되며, 그 교류 목적은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적었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8) 이전 원고(조성원 2019)에서 이 유물들은 일본열도에서도 출토되기 때문에, 양 지역의 교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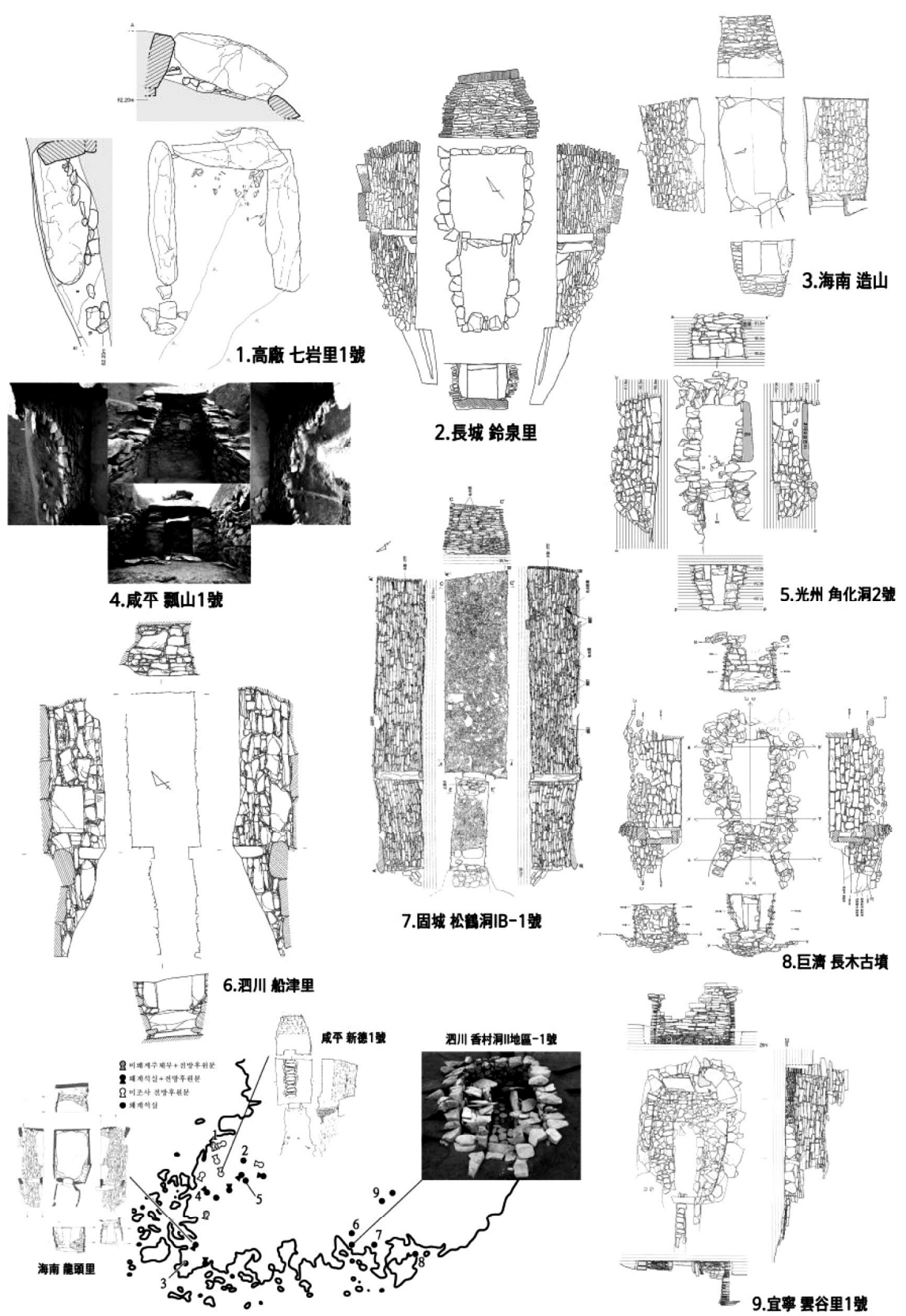
하지만 후기가야시기에는 가야와 왜의 교류는 다시 활발한 양상을 보이면서, 왜계갑주·스에키계 토기·裝飾具 등 다양한 왜계유물이 가야지역에서 확인된다. 그 중에서도 본 발표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왜계묘제의 등장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왜계묘제는 석곽묘, 전방후원형고분을 포함한 석실묘 등이 알려져 있다. 남해안에서는 기존까지 석실묘를 중심으로 검토되었지만, 석곽묘도 김해 울하 B구역 삼국시대 분묘 1호와 마산 진북 대평리 1지구 M1-1호 등이 알려져 있다. 석실묘는 고성 송학동, 사천 선진리, 의령 경산리 1호분, 운곡리 1호분, 거제 장목고분, 사천 향촌동 II-1호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왜계묘제에 대한 시기와 평가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큐슈와 그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묘제와 유사성은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큐슈지역과 관계가 더욱 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과 함께, 단순한 물질적 교류를 넘어선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현재 인적교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전라도 일대에 분포하는 왜계고분의 해석을 잠정적으로 참고해 두고 싶다. 다만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등장하는 석곽묘의 경우 군사적 성격을 가진 왜계유물이 함께 출토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 성격에 조금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⁹⁾. 어쨌든 인적교류가 전기가야에 비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사천 향촌동의 예를 볼 때 여러 세대가 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 須惠器系土器를 중심으로, 동경과 장신구, 왜계갑주 등도 가야 각지에서 왜와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가 가야 각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 중에서 왜계갑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TK23~47단계에 집중하고 있으며, 소가야와 그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고성 송학동 고분군을 제외하면 전기가야시기와 달리 대성동 고분군과 같은 특정 집단이 왜계유물이 집중되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큰 틀에서 소가야가 왜와의 교역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야와의 교류를 통제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¹⁰⁾.

9) 석곽묘는 일본열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남해안 각지 재지 세력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백제 및 중국과의 교섭루트를 확보(金洛中 2013, 柳本照男 2015, 高田貫太 2016, 土田純子 2018)하고, 각종 무기와 무구를 공급하여 루트의 안정화를 도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석실묘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金工技術과 같은 선진기술이 목적 중 하나라고 지적한 바 있다(洪譜植 2006). 즉, 석곽묘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금관가야의 몰락과 함께 해체된 교역루트의 복원이 목적이었던 반면, 교역루트의 복원 이후에는 새로운 기술과 당시 韓半島 남부에서 진행된 金工品을 통한 位階化와 그 시스템 등 새로운 정치사회문화의 도입도 하나의 목적이 아닐까 한다.

10) 필자는 앞선 원고에서 왜계묘제이나 왜계유물 등이 소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왜가 다른 가야와의 교역이 독자적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 바 있다(조성원 2018). 하지만 왜계갑주를 포함한 다양한 유물이 대가야나 신라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반대로 일본열도에서도 대가야와 신라의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분명 소가야가 가야의 대외교섭에 선두주자였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전기가야의 금관가야만큼 통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도면 10〉 한반도 남부 왜계석실묘

IV. 맺음말

이상에서 4~6세기 가야에서 출토된 倭系遺物을 통해서 교류양상을 살펴보았다. 정리해보면, 전기가야시기에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중심집단(대성동)과 중심집단(畿內)과의 교역을 토대로 일본열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양동리 고분군 및 복천동 고분군과 교역하는 이원적 교역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는 고구려의 남진과 남정으로 인한 금관가야의 국제교역 역할 상실과 몰락은 기존의 대외 교역체계를 해체시키고, 큐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교역체계로 전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후기가야 시기에는 이전에 이어 큐슈와 그 주변세력과의 교류관계가 깊어지고, 특히 왜계모제의 등장은 단순한 물질교류가 아닌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왜계유물은 소가야를 중심으로 확인되지만,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특정지역에 왜계유물이 집중되는 양상은 잘 보이지 않고, 가야 각지에서 왜계갑주, 장신구류 등이 확인되므로, 4세기대와 같은 교역을 통솔하는 집단이 존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가야와 왜의 교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관련된 물질자료를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류의 목적과 달성과정, 그 성과가 당시 사회에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사회구조의 선행연구를 통해, 그것이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숙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관련 자료의 극히 일부만을 추출하고, 가야에서 출토되는 유물이라는 편면적인 양상만 파악하는데 그치고 있어, 양 지역의 교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양 지역의 교류가 상호지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다짐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 필자가 이전 일본에서 발표한 논문 몇 편을 재정리해서 부분 첨가한 것으로, 최근 연구성과가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선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향후 원고에서 재정비할 것을 약속한다.

■ 참고문헌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11, 『마산 진북 대평리유적』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4, 『高興 野幕古墳』
- 金奎運·김준식, 2010, 「한반도 전방후원분과 왜계석실의 분포유형 검토」, 『한국상고사학보』70, 한국상고사학회
- 金洛中, 2009, 『영산강유역고분연구』, 학연문화사
- 金洛中, 2013, 「5~6세기 남해안 지역 倭系古墳의 특성과 의미」, 『湖西考古學報』45 湖西考古學會
- 金一圭, 2011, 「남해안지역 須惠器(系)土器의 출현배경과 의미」, 『삼국시대 남해안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韓國考古學會
- 金在弘, 2007, 「금강유역 출토 百濟 儀仗用 살포」, 『考古學探究』, 考古學探究會
- 金赫中, 2011,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와 의미」, 『中央考古研究』8, 中央文化財研究院
- 大韓文化財研究院, 2015, 『羅州佳興里新興古墳』
-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 2015, 『신안 안좌면 음동·배널리 고분군』
- 柳澤一男, 2006, 「5~6世紀의 韓半島 西南部와 九州」, 『加耶, 洛東江에서 榮山江으로』, 金海市
- 林永珍, 2017, 「全南 海岸島嶼地域의 倭系古墳과 倭5王의 中國遣使」, 『百濟文化』第56輯, 公州大學校百濟文化研究所
- 木下亘, 2003, 「韓半島 出土 須惠器(系) 土器에 대하여」, 『百濟研究』第37輯,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朴天秀, 2000, 「考古資料를 통해 본 古代 韓半島와 日本列島의 相互作用」, 『韓國古代史研究』27, 韓國古代史學會
- 심재용, 2016, 「金官加耶의 外來系 威勢品 受用과 意味」, 『嶺南考古學』74, 영남고고학회
- 趙晟元, 2016, 「영남지역 출토 4~5세기대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 『韓國考古學報』99, 韓國考古學會
- 조성원, 2018, 「4세기 금관가야의 대외관계 검토」, 『고고광장』21, 부산고고학연구회
- 趙晟元, 2018, 「3~4世紀における 韓國嶺南地域と日本の交流について」, 中国四国前方後円墳研究会編, 『前期古墳編 年を再考する』, 六一書房
- 趙晟元, 2019, 「5世紀대에 있어서 韓半島 南部地域과 倭의 交渉」, 『古代武器研究』vol.15, 古代武器研究会
- 朱甫燾, 2000, 「百濟의 榮山江流域 支配方式과 前方後圓墳 被葬者의 性格」, 『韓國의 前方後圓墳』, 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 土田純子, 2018, 「湖南地域의 倭系資料와 前方後圓形古墳」, 『문화재』51, 국립문화재연구소
- 河承哲, 2006, 「巨濟 長木古墳에 대한 一考察」, 『巨濟長木古墳』, 慶南發展研究院歷史文化센터
- 한일교섭의고고학-삼국시대-연구회, 2016, 『韓日의 古墳』
- 洪漣植, 2006,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기원후 3~6세기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4, 한국고대사학회
- 洪漣植,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황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국의 전방후원분』, 대한문화유산센터역음학연문화사
- 高田貫太, 2012, 「考古学による日朝關係史研究の現状と課題」, 『考古学研究』第59卷第2号, 考古学研究会
- 高田貫太, 2016, 「豎穴系横口式石室·豎穴式石室·木槨の構造」, 『韓日の古墳』, 日韓交渉の考古学-古墳時代(三国時代)-研究会
- 高田貫太, 2018, 「5,6世紀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 倭系古墳の造営背景」,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第211集

- 九州前方後円墳研究会, 2007, 『九州島における中期古墳の再検討』
- 柳本照男, 2015, 『韓半島出土の倭系甲冑について』, 古代武器研究vol.11, 古代武器研究会
- 福岡市教育委員会, 2002, 『鋤崎古墳』
- 田中晋作, 2009, 『筒形銅器と政権交替』, 学生社
- 中久保辰夫, 2017, 『日本古代国家の形成過程と対交交流』, 大阪大学出版会
- 重藤輝行, 2009, 「古墳時代中期~後期の筑前・筑後地域の土師器」, 『地域の考古学-佐田武先生退任記念論文集-』
- 九州大学文学部考古学研究室, 1993, 『番塚古墳』
- 志免町教育委員会, 2001, 『七夕池古墳』
- 久住猛雄, 1999, 「北部九州における庄内式竝行期の土器様相」, 『庄内式土器研究』19, 庄内式土器研究会.



2부 종합토론

—
좌 장 : 이근우(부경대학교박물관)

토론자 : 이동희(인제대학교)

고영민(국립중앙박물관)

심재용(김해시청)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1

이동희 (인제대학교)

I. 변한의 대외교류(이창희)

1) 와질토기의 출현과 관련하여 낙랑토기 영향설과 전국계토기 기원설로 구분된다. 발표자는 낙랑토기 영향설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데, 두 견해의 장단점에 대해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와질토기의 중심지가 영남(동남부)지방이고 마한권에서는 와질토기가 희소하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발표자는 “낙랑계토기든 전국계토기든 영남지역에서 출토된 중국계토기의 출토 양상으로 보아 漢人의 이주를 상정할 만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秦役을 피해 韓地에 이주한 중국 전국계 유민이 마한의 동쪽 땅을 분할 받아 진한을 형성했다’는 기록이 있고, 수로왕이나 박혁거세 등 신라가야의 성장에 이주민 세력이 큰 역할을 하였는데 그 출처는 대개 서북한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고조선계 유이민이라도 기원전후한 시기라면 서북한에서 낙랑 등 중국계 문화를 경험하였을 것이므로 문화적으로 漢人과 구분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늑도의 경우, 중국계(낙랑계) 유물이 출토되어 중국인 상인 등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들이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보장도 없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변진한 지역에서 낙랑계토기를 포함한 전형적인 漢式土器는 늑도유적, 달성 평촌리 유적(활석혼입 화분형토기), 울산 달천유적(낙랑계 단경호)에서 출토되었다. 이러한 토기를 이입된(1세대) 한식토기로 본다면, 영남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한 와질토기를 이주민이 개입되어 제작된 토착화한 한식토기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은 없는가? 즉, 토기의 속성상 다른 위세품과 달리 이주지에서 토착 토기문화와 융합되어 현지화하기 쉬운 유물이므로

다소 변형된 한식토기 제작에는 漢인이 일정부분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영남지방에 집중된 서북한계 이주민의 기사와 와질토기의 출현은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발표자는 “변한에서 와질토기는 거의 부장 전용으로 사용된다. 와질토기가 등장하더라도 변한의 일상토기 문화는 여전히 삼각형점토대토기이다. 대체로 한식 위세품이 공반되고 있는 당시의 목관묘는 엘리트층에 해당하는 무덤이다. 바로 거기에 광의의 한식계토기가 부장된다. 일상토기는 오랫동안 재지의 삼각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하다가 2세기가 되어야 와질토기의 제작방법이 융합된 적갈색연질토기로 변모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 변한에서는 기원전 1세기 이후 목관묘가 수장층의 묘제로 채용되는데 초기목관묘의 피장자에 대해 이주민설과 토착인설로 구분되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 와질토기가 부장 전용으로 사용되고 일상용 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로 이용된 원인에 대해 견해가 있으신지? 그리고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모든 지역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어서 문화의 주변부에서는 종래 무문토기가 지속된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청동기시대 말기의 지석묘의 수에 비해 초기 목관묘의 수는 급감한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목관묘를 사용하지 않는 지석묘 후예들은 무슨 묘제를 사용하였는지 궁금하다.

4) 야요이시대 연구에 있어서 신·구 연대관에 따라 그 연대의 편차는 크다. 신연대관은 방사성탄소연대측정치에 의존하는 바 크고, 구 연대관은 보수적인 견지에서 역연대에 더 중점을 두는 듯하다. 발표자는 신연대관에 좀 더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한국의 편년관과 충돌은 없는가? 신구연대관 모두 늑도유적과 관련된 수구II식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5) 발표자는 “김해·부산에서는 기원전후한 시점을 경계로 갑자기 야요이토기가 출토되지 않으며 3세기 후반 다시 하 지키가 출토되기 전까지 왜계토기가 출토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실제 교류가 없었는지, 아니면 아직 발굴조사가 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을 뿐인지, 혹은 교류가 없었다면 한반도 남부와 왜국 사이의 관계에서 그 이전과 달라진 모종의 내 부 사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기원 이전에는 야요이인의 한반도 남부로의 이주도 있었는데 기원 이후에 달라진 원인은 무엇인가?

그런데,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기원후 1세기 후반-2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김해 양동리 427호분의 소형 방제경 과 내덕리 19호분의 광형동모로 보면 김해와 왜의 교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기원 이후 녹도가 교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쇠퇴하고 김해가 한일교역의 거점으로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 원 이후에 김해 대성동유적에서 목관묘의 밀집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혹시, 수로왕으로 대표되 는 이주민세력의 김해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관련될 것인지 궁금하다.

7) 발표자는 일본 출토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대부분이 舶載品이고 이주민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교류·교역을 통해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이동한 셈인데, 공반유물과 출토유구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대 급부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을까?

한편, 일본에서 확인되는 원형점토대토기는 한곳에서 집중되는 사례가 있다고 보았는데, 이주민이 개입된 것인가? 원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 유구와 공반유물은 어떠한가? 원형점토대토기문화와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의 일본으로의 전파에 있어서 차이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바란다.

II. 문헌기록에 남겨진 가야의 대외교류(백승옥)

1) 발표자는 가야의 시원을 기원전 3세기까지 올려보고 있다. 즉, “위만에 쫓겨 준왕이 남분할 시기에 한반도 남부지 역에는 이미 韓 소국이 존재하고 있었다. 『史記』와 『漢書』朝鮮傳에 보이는 ‘衆國(혹은 辰國)’이 그들이며 이 속에는 가야

전기의 弁韓 소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고고학적으로 변진한의 소국 형성을 목관묘 군집과 관련짓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영남지방에서 목관묘의 군집화는 기원전 1세기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변한권에서는 창원 다호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변한권에서 기원전 3세기대의 묘제는 지석묘나 석관묘가 대표적이며 소국단계라기보다는 읍락형성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진변한권보다 정치체 형성이 이른 마한권은 소국의 존재를 더 소급해 볼 수 있다. 즉, 기원전 4-3세기대에 호서·호남의 일부 지역에서 적석목관묘가 확인되고 있는데,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 등의 유적을 들 수 있다. 준왕이 정착한 곳이 익산·전주 일대로 비정되므로 衆國(혹은 辰國)으로 거론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진지역인 마한권으로 한정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2) 발표자는 400년 고구려 남정 후 경북 북부지역 외에도 경남 일부 지역에 고구려의 군사거점을 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남 일부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군사 거점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한 내용인데, 이에 대한 문헌적·고고학적 부연 설명과 함께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3) 발표자는 탁순의 위치를 대구지역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기사에서 유추되듯이 탁순은 바닷가(남해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발표자의 견해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전반 멸망 때까지 대구가 가야권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고고학적 자료는 그에 부합하지 못한다. 이를 테면, 대구·경산지역에는 신라식의 토성이 이미 4세기대에 축성되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4) 반파(伴跛)에 대한 문제이다. 발표자는 “반파는 처음에는 가라국과 별개의 나라였지만 후에 가라국에 복속된다. 즉, 반파는 원래 경북 성주지역에 존재한 가야국이었지만 521년 이후 529년 사이에 가라에 복속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현재 다수의 견해는 반파를 가라국의 이칭으로 보고 있으며, 고고학적으로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즉, 고고자료로 보면 5세기대에는 이미 성주지역에 신라묘제와 유물이 다수 확인되어 가야로 보기 어렵고, 520년대에 가라국에 복속되었다면 대가야 관련 묘제나 유물이 확인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5) “흙명기에 보이는 임나일본부의 정치적 성향은 친신라 반백제적인 모습이다. 백제와 왜는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였는데 왜에서 파견된 일본부는 반백제적이었던 것이다.”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부가 반백제적이었던 것은 백제·왜의 전통적인 관계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와 함께 기존 연구성과를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Ⅲ. 가야 대중국 교류의 성격과 배경(김일규)

1) 대성동 84호(석개토광묘)에서는 포타쉬유리·철부 외에도 청동기시대 후기의 석검·석촉·홍도 등이 출토되어 과도기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특별한 무덤이다. 즉, 이 무덤은 청동기시대 말기와 원삼국시대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석검·석촉·홍도 등의 청동기시대 유물 이외에 묘제로 보면 토착의 지식묘나 석관묘의 연장선에 있다. 목관묘가 대개 대성동 구릉 아래의 평지에 분포하는데 비해, 84호는 구릉 정상부에 자리하여 피장자는 수로왕 계열의 이주민이라기보다는 토착 세력으로서 일부 신문물을 수용한 경우로 파악된다. 발표자는 84호의 시기를 한사군 설치 이후라는 개략적 편년안을 제시하였다. 기원 이후로 보는 일부 견해도 있는데, 84호의 구체적인 연대를 언제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부연 설명을 바란다.

2) 목관묘나 중국계 유물에 근거해 보면, 낙동강 중류역과 낙동강 하류역의 양상이 조금 다르다. 이를테면, 경북내륙인 대구·경산·성주 등지의 목관묘 상한은 기원전 2세기말까지 소급되고 전한경 등이 출토된다. 그리고, 대구·경북지역의 이른 단계 목관묘, 특히 대구 월성동 목관묘 등에서는 한반도 서북한의 목관묘 출토유물 조합상과 유사하여 내륙 루트를 통한 이주민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도 전한경 등이 출토되어 대구·경북지역의 목관묘 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에 비해, 대성동 유적을 대표로 하는 낙동강 하류역의 목관묘에서는 후한경이 주로 출토되어 연대가 대구·경북보다 후행한다. 이렇듯 같은 낙동강유역이라도 낙동강 중류역과 낙동강 하류역의 목관묘에서의 차이점은 시기차만 있는 것인지 다른 요소도 검토되어야 하는가?

3) 발표자는 대성동유적의 대형 목곽묘(3세기 후엽의 29호) 및 석곽묘(4세기 중엽의 35호)의 기원을 북방 민족의 집단 이주와 관련짓는 입장이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최초로 확인되는 대성동 29호분 단계의 순장 풍습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비해, 목곽묘·석곽묘의 출현 및 순장 풍습의 등장을 자체 발전으로 보는 견해도 상존한다.

- 북방민족의 집단 이주가 김해 대성동일원에 집중된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인가?

- 금관가야 이외에도 아라가야, 대가야, 신라에도 순장풍습이 있는데 상호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 3세기 후엽의 부여족의 남하는 동해안 루트를 상정하였는데 그 이후의 모용선비(三燕)의 이주는 서해안 루트인가? 그 중간에 위치한 고구려와 백제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는가?

- 전기가야가 전연의 개마중갑기병에 대한 정보를 거의 실시간대로 확보하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진 배경에 이주민이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교류·교섭으로 보아야 하는가?

- 부여족의 남하로 대성동 29호분이 축조되고 고대국가로서의 가야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전 단계 목곽묘(수로왕계)세력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가?

- 김해를 국제 교역망의 허브로 보았는데 삼연의 문화가 일본열도에 파급된 사례는 어떠한가?

IV.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조성원)

1) 발표자는 “대성동고분군의 쇠퇴에 따라 倭는 금관가야를 통해 확보했던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중심교섭집단도 필요했을 것이다. 이는 점점 서쪽으로 확산되어 가는 土師器系土器의 분포양상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한 바 있다.

『宋書』등 중국 사서에서 확인되듯이 왜5왕의 활동상(413년-502년)은 400년 고구려 남정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즉, 倭는 종래 금관가야를 통해서 중국계 선진문물을 받다가 그러한 교역 거점이 쇠퇴하면서, 백제의 도움을 받아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5세기 전반 이후 서남해안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왜계 고분이나 유물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5세기 이후 금관가야가 점차 쇠퇴하면서 경남 남해안에서 왜계 문물은 마산 현동→고성 송학동 일대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다. 이는 5세기 이후 낙동강유역을 장악한 신라의 서진과 관련하여 왜가 좀 더 안전한 항구를 원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5세기 이후 낙동강하구 및 경남 남해안에서 빈출되는 신라계토기(혹은 창녕계토기)가 거론될 수 있다. 창녕계토기로 보는 연구자는 비화가야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교류·교역의 산물로 보는 반면, 신라계토기로 보는 연구자들은 신라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어떠한지 궁금하다.

2) 5세기대에 왜계 석곽묘들이 서남해연안에서 확인된다. 즉, 신안 배널리 3호분, 해남 외도, 고흥 야막 고분, 마산 대평리 1M-1호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서 단순 교역의 산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5세기 전후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백제와 왜는 서남해 연안 해상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어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무장 용병이 필요했다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김현구 2009, 이정호 2014).

남해안에서 독립적으로 點在하는 5세기-6세기 전반대의 왜계 석곽묘 및 석실묘의 피장자는 왜인, 특히 구주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주세력이 독자적으로 활동했는지, 畿內 倭의 통제 속에서 움직였는지에 대해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왜계 고분의 위치는 왜인이 선호한 기항지와 밀접히 관련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지가 탁월한 왜계 고분은 왜인 거류지의 상징물이나 이정표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참고문헌

김현구, 2009, 「5세기 한반도 남부에서 활약한 왜의 실체」, 『일본역사연구』29, 일본사학회

이정호, 2014, 「신안 배널리고분의 대외교류상과 연대관」, 『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2

심재용 (김해시청)

I. 백승옥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에 대한 토론문

토론자는 금관가야를 고고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어서, 본 발표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지만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문헌기록에 대한 분석은 필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고고자료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삼한 사회와 중국군현인 낙랑·대방과의 전쟁이 일어난 245년을 중시하여 이 시기를 중국과의 관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그 이전은 소국이 병립한 상태였고, 그 이후는 소국 병립 상태를 벗어나 대국 중심의 결합이 가속화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삼국지 변진 12국이 구야국(=가락국), 안야국 등 대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는지,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2. 東夷諸族과 쑥의 통교기사에서 변한이 보이지 않는 이유를 3세기 중·후엽 변한지역에서 주도권을 잡은 가락국의 지배층이 북방적 성격을 가진 집단이므로, 당시 가락국의 지배집단이 북방유목민들과 대립했던 진과는 통교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술대회의 김일규선생의 발표문에 의하면, 2세기 후반부터 변한과 중국의 교류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전기가야 성립기(대성동29호분 단계)에는 중국의 북방 및 화남지역과의 교류 양상이 모두 확인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석열선생의 견해처럼 변한도 진과 통교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3. 가야와 왜의 중국과의 교섭은 낙랑·대방군의 멸망 이후부터 고구려의 방해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왜는 선진문물의 구입처를 가야와 백제로 한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조사 성과를 보면 대방군 멸망 이후에도 중원과 북방의 문물들이 출토되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유물들을 고구려나 신라를 통해 들여왔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현재까지의 고고성적을 보면, 전연 내지 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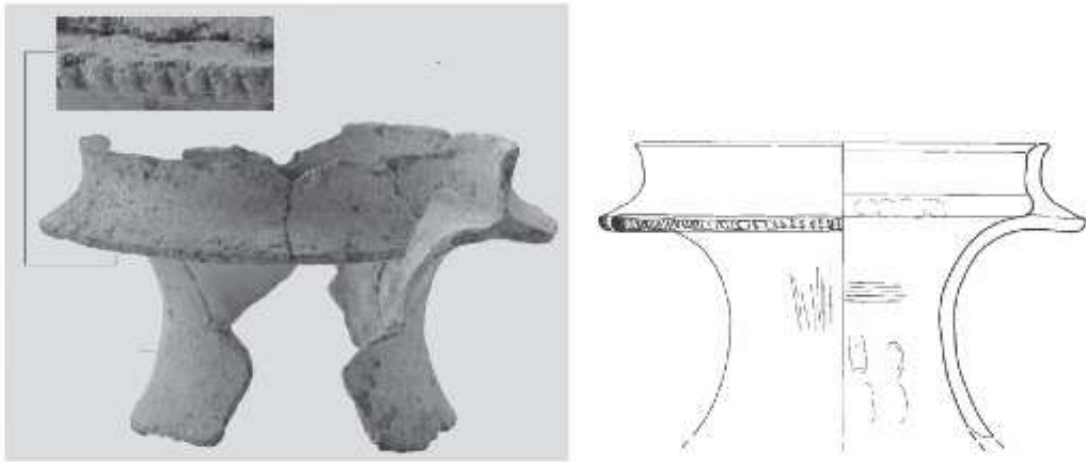
4. 광개토태왕릉 비문 내용에 있는 '왜'가 일본의 왜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백제와 동맹을 형성하여 고구려에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광의의 개념인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II. 이창희 「변한의 대외교류」에 대한 토론문

변한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와 금속기를 토대로 변한의 대중교류와 대외교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1. 취사, 저장, 이동 등의 기능을 가진 일상토기는 인간의 장기체류(이주)가 동반되지 않는 한 대외교류 장소에서 생산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초현기의 와질토기는 한식 위세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접하게 된 한식토기문화의 모방, 신제도기술의 습득에 따른 하이브리드 토기로 대중국교류의 산물이고, 늑도와 김해·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출토되는 야요이시대 중기의 토기들은 왜인의 이주의 산물이며, 이후 기원전후한 시점을 경계로 한반도 남부 한일교역 최대의 거점이었던 늑도의 와해가 김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부터 야요이인의 한반도로의 이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노코시식이나 수구 I 식의 야요이토기가 김해 구산동유적과 회현리패총 등에서 많이 출토되었고, 특히 구산동유적은 왜인마을을 상정하기도 하는데, 늑도이전에는 김해가 대외교류의 거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김해→늑도→김해로 대외교섭의 거점이 다시 김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기원전후한 시점부터 3세기 후반 하지기가 출토되기 전까지 그 어떤 야요이후기도 김해·부산에서 출토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김해 장유리유적에서 야요이후기로 추정되는 복합구연호 1점이 주거지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이 토기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면1〉 김해 장유리 12호 주거지 출토 복합구연호

2. 김해 대성동유적을 언급하면서 4세기대의 무덤에서도 후한대의 거울들이 출토되지만, 톱클래스 무덤에 반드시 거울이 부장되지 않기 때문에 세형동검문화부터 이어져 온 거울 부장습속은 이즈음에는 퇴색된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거울의 부장은 아직 3세기대 목곽묘에서도 확인된 예가 없는데, 극심한 무덤 간 중복과 도굴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도굴이 안 된 대성동 108호에서 동경, 동완, 통형동기, 동촉, 벽옥제석촉 등이 출토된 것에서 도굴 가능성을 엿볼 수 있으며, 최고 위세품의 반열에 여전히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3. 김해 대성동고분군 축조세력과 긴키의 정치세력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단계를 국가의 단계, 즉 변한에서 가야로 발전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는 왜와의 교섭측면에서 살펴본 것인데, 중국과의 교섭측면에서도 변한에서 가야로의 발전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Ⅲ. 김일규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에 대한 토론문

발표자는 가야성립 이전과 이후의 낙동강하구 유역은 중국 시각으로도 철의 확보를 위한 중요한 교역대상지였으며, 특히 김해 대성동고분군을 필두로 한 전기 가야의 대형 고분에서 출토된 중원·북방계 문물은 가야가 중국과 직접 교류한 사실을 중국 출토자료들과 비교하여 잘 검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 유역의 전기 가야는 성립 당시에는 중국 북방 및 화남지역과의 교류 양상이 모두 확인되지만, 4세기 중엽부터는 모용선비의 삼연을 대중국 교류의 거점으로 삼았고, 전연과 후연이 중원을 권역에 두었던 시점에는 상호작용의 기반에서 화남의 동진과도 관계망을 형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가야의 대중국 교류를 ① 단순 교역에 의한 상품의 전래, ② 선진기술의 유입에 따른 신제품의 생산, ③ 사상(문화)의 유입과 변화를 들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 유형은 장인집단 내지 이들을 대동한 세력 집단의 이주 내지 왕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도 많은 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 물어보고자 합니다.

1. 2세기 후반~3세기 중엽 변한의 대중국 교류는 중원-낙랑-변한이라는 낙랑을 경유한 루트 이외에도 요서회랑-요동반도와 직접 교류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요서회랑-요동반도도 낙랑을 지나가야 하는데, 어떤 의미인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전기 가야에서 석곽묘는 4세기 중엽에 대성동 35호분을 시점으로 하여 출현하며, 요서지역의 석곽묘와 유사성을 강조하여 전연과의 교류 과정에서 유입된 문물로 보고 계십니다. 토론자 역시 대성동 35호분을 가장 빠른 석곽묘로 봅니다만, 35호분을 4세기 4/4분기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시기는 대성동고분군에서 삼연의 문화가 앞 시기보다는 약화된 시기입니다. 석곽묘는 낙동강하구역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대성동 35호처럼 판석형 할석을 평적하여 축조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할석을 평적하여 축조한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지배계층의 무덤에서 채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석곽묘 기원의 하나의 계보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데,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3. 대성동 91호분 출토 사슴뿔 관식 1점을 가지고 사슴 토템의 전파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외에 사슴 토템과 관련되는 문물이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대성동고분군의 발굴성과에도 불구하고, 대방군 멸망 이후는 고구려 때문에 가야와 왜, 백제의 대중국 교섭이 약화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아직도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중국과의 직접 교류보다는 고구려로부터 이러한 중국 문화가 유입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5. 전기 가야의 대중국 교류를 세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첫 번째 유형으로 단순 교역에 의한 상품의 전래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요관, 동북, 진식대금구, 한경, 로만글라스 등의 물품들이 상인들에 의한 사무역에 의해서 가능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즉 3세기 후엽의 진, 4세기 전반의 전연의 건국과 천도 시 금관가야의 사신단이 예결하여 받은 물품-조공무역-으로는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IV. 조성원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발표자는 가야지역에서 출토된 왜계 유물 중 출토량이 많은 토기류와 (청)동기류, 석제품을 상세히 검토하면서 일본 자료들과 교차 검토하여 가야와 왜의 교차편년 및 교류양상을 살펴보았습니다. 발표자의 의견 대부분에 토론자 역시 이론은 없습니다만, 부연설명 및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1. 가야지역에서 土師器系土器는 부장용은 모방품이 많고, 생활용에는 반입품 혹은 재현품이 많다고 하였는데, 모방품과 재현품을 어떻게 구별할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가야 출토 동경의 유입 경로를 왜와 관련이 있다는 견해와 한군현 유입설을 기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3. 비취 곡옥의 산지가 일본일 가능성이 높지만, 비취의 경우 곡옥의 형태가 다수인데, 다양한 재질의 곡옥이 가야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본의 원석을 수입한 후 가야에서 제작했을 가능성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4. 왜계 철기에 대한 분류에 대한 발표자의 부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영남 출토 왜계철촉은 水野敏典씨의 형식분류를 수용하여 대성동 29호와 양동리 58호에서 출토된 定角式과 대성동 59호에서 출토된 柳葉式 대성동 88호와 70호에서 출토된 鑿頭式철촉을 無莖式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두철선생(2006)의 견해처럼 이들은 경이 있는 촉들로 분류의 엄정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有莖無頸鏃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착두식철촉과 소위 대성동 70호분 鐵鏟을 왜계철기로 봐야 할지 의문입니다. 특히 대성동 70호분 鐵鏟은 제가 조사한 것으로 국내에 이와 같은 출토품이 없어서 일단 철부로 보고하였지만, 대성동 88호분 봉토 함몰토에서 주조 철부 12점과 함께 자루흔이 있는 1점이 조사되어, 鐵鋤과 같은 용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발표문에도 있듯이 일본 출토품과 비슷하지만 접는 형태나 크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형적인 철서가 대성동고분군에서 출토예가 없는 점에서 금관가야의 철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5. 전기가야시기에는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세부적으로는 중심집단(대성동)과 중심집단(畿內)과의 교역을 토대로 일본열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양동리고분군 및 복천동고분군과 교역하는 이원적 교역체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가야와 왜의 교역체계를 결론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홍보식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정치적 교섭(대성동고분군과 畿內집단)과 인적·물적교류(영남 각 집단과 왜국 각 집단)라는 이원적 교역이 진행되고 있었을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가야 출토 土師器系土器와 비취, 이모가이 등은 왜의 산지와 가야의 주변집단과의 직접 교류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는데, 4세기대 이모가이와 고호우라로 만든 제품의 가장 많이 부장된 곳은 대성동고분군이므로 이 역시 다른 왜계 위세품들과 함께 대성동고분군에서 주변 집단으로 재분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土師器系土器는 당연히 인적교류에 의한 것이지만, 이를 가지고 이원적 교역체계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발표자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김두철, 2006, 「삼국시대 철촉의 연구」, 백제연구 제43집.

바다를 통한 가야인의 교류에 대한 토론문 3

고영민 (국립중앙박물관)

I. 「문헌으로 본 가야의 대외관계」 토론문

발표자께서는 사료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실상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헌 기록상 가야의 대외 관계를 자세히 검토하였다. 특히 가야와 중국, 왜의 관계를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반영한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낙랑군의 설치와 해체를 비롯하여 고구려 남정, 탁순국, 임나일본부 등과 같은 고대 동아시아 정세와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 중국, 왜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다년간 고대사 연구에 매진하신 발표자와 문헌 기록을 토대로 심도 깊은 토론을 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어려운 형편이므로 발표문을 읽으며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1. 백제와 왜가 통교하면서 가야의 일국인 탁순이 양국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였다. 발표자께서는 이러한 탁순국의 위치는 내륙에서 전략적 요충지 이면서 한성백제와 통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하므로 대구가 유력하다고 보았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탁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구 혹은 창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4세기 중·후엽 대구지역은 출토된 유적과 유물을 통해 신라의 영향력이 확인되며,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창원시 진해 일대에서 대규모 가야 유적이 확인되어 탁순국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탁순국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린다.

2. 4세기 중엽 친 백제적이었던 낙동강 이서의 가야 제국이 5세기 후반이 되면 백제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479년 가라국왕 하지의 남제 견사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았다. 만약 배를 통해 갔다면 당시 해운 기술상 백제권에 속한 연안 항로를 통해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국제 정세로 볼 때 가라 사신은 어

편 루트로 갔을 지에 대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II. 「가야의 대중국 교류 성격」 토론문

발표자께서는 가야의 '대중국 교류의 성격'에 대해 목관묘 단계(서기전 1세기 전반~서기 2세기 중엽), 목곽묘 단계(2세기 후반 ~ 3세기 중엽), 대성동 고분군으로 나누어 가야와 중국의 교류양상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중 대성동 고분군에서 확인된 중국 문물을 중원계와 북방계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가야와 중국의 교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북방지역 및 중원, 장강 유역 자료까지 포함한 폭넓은 자료 검토를 통해 가야의 대중국 교류가 북방~장강까지 포함한 교역 관계망을 형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양한 외래계 유물에 대하여 이처럼 폭 넓은 시야를 가지고 연구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부연 설명을 듣고자 한다.

1. 가야와 중국과의 교류 양상에서 '중원계 문물'에 대해 논하면서 대표적인 중원계 문물로 '등요와 도질토기'를 지적하였다. 대성동 29호분의 조영부터 낙동강 하구 유역에 와질토기와는 다른 도질토기가 부장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도질토기와 이를 소성한 등요를 중국 장강 유역의 용요와 경도와 관련한 제도 기법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 전기 가야 토기 가마(구산동 가마, 창녕 여초리 가마, 함안 우거리 토기 가마)가 모두 등요라는 점, 또한 4세기대 가야 권역에서 확인된 등요는 외형과 구조, 소성 원리 등에서 중국 장강 유역의 용요와 거의 흡사함을 지적하였다. 도질토기의 기원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여러 연구자들을 통해 많은 논의가 있어 왔는데, 발표자는 자체 발생설 보다는 외부 기술, 즉 중국의 '경도' 제도 기술(장인 집단 내지는 기술자를 대동한 세력) 유입에 의한 도질토기 출현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 남방 지역 즉 장강 유역에서의 유입 루트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는 전기 가야에서 석곽묘는 4세기 중엽 대성동 35호분을 시점으로 출현하였으며, 이러한 판석형 할석을 평적하여 축조한 석곽묘는 중국 동북지방 전연과의 교류 과정에서 유입된 북방계 문물로 검토하였다. 또한 보요부 금동관, 전기 가야 마구의 형식적 특성 등에서 모용선비족 혹은 전연과의 관련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모용선비와 관련한 유물과 묘제의 변화가 지리적 한계를 넘어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에 등장할 수 있었던 동인(국제적 상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Ⅲ. 「고고자료로 본 가야와 왜의 교류」 토론문

발표자께서는 가야와 왜의 교류를 논하기 위해 가야 지역에서 출토된 방대한 양의 왜계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조명하였다. 특히 가야 유적에서 출토된 왜계 유물인 하지키계와 스에키계 토기, 동축 및 동모, 비취 곡옥과 벽옥제 관옥, 왜계 고분의 검토를 통해 양 지역의 교류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전기 가야시기에는 금관가야 중심 집단(대성동고분군-일본 기내지역) 교역을 토대로 양동리 및 복천동 고분군과 일본 열도의 다양한 지역에서 이원적 교역 체계가 진행되었다고 하였다. 후기 가야에는 금관가야의 국제 교역 역할 상실로 인해 기존 대왜 교역 체계가 해체되어 큐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 관계가 진행되었다고 보았다. 발표자의 견해에 대체로 공감하며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하고자 한다.

1. 발표자는 4세기말에서 5세기 초 일본열도에서 가야와 교섭을 주도하던 세력에 대해 검토하면서 이시기 왜계 유물 중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는 하지키계 토기를 감안하여, 긴키 지역보다 큐슈 지역이 전면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큐슈 지역과의 교류 목적에 대해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논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 후기가야 시기에는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는 왜계 갑주, 스에키계 토기 등 다양한 왜계 유물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왜계 묘제도 함께 확인되었다. 석곽묘나 석실묘 등 왜계 묘제의 등장은 단순한 물질 교류가 아닌 인적교류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파악하였다. 공반 유물을 통해 볼 때 왜계 고분으로 대표되는 인적 교류가 가진 성격이나 이주민의 역할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길 바란다.

3. 주로 가야에서 출토된 왜계 유물의 분포 양상과 빈도 등을 통해 교류 양상을 파악하였는데, 이와 반대로 5세기대 왜에서 출토된 한반도계 유물의 출토 양상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립대학육성사업 | 가야 해양문화 공동연구

가야인, 바다에 살다

발행일 2021년 2월 19일

발행처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구산동 232)
T.055-320-6800 F.055-325-9334
gimhae.museum.go.kr

국립부경대학교박물관

48513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청운관 내
T.051-629-6770~3 F.051-629-6775
cms.pknu.ac.kr/museum

(재)우리문화재연구원

5120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127번길27(소답동)
T.055-297-8992 F.055-297-8994
www.wooricp.modoo.at

인쇄 한길기획

48428 부산광역시 남구 황령대로 355-13(대연동)
T.051-624-8898 F.051-624-8893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야인, 바다에 살다